

2019년도

관광·레저분야 산업인력현황보고서

2019.11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Tourism & Leisure Industrial Skills Council

연구결과 요약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관광·레저분야 산업의 업종별 인력수급 실태 및 기술 동향, 주요 이슈분석 등의 산업계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여 산업 내 관련 활동 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산업별 인력자원 수급 현황자료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인력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현재 관광·레저산업 분야별 진행되고 있는 교육·훈련 실태조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산업의 활성화 도모
- 관광·레저산업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협의적 해석과 현재 관광·레저산업(관광진흥법상) 현장담당자의 의견수렴 및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분야 선정과 인적자원 개발·관리·활용에 관한 정책적 대안 제시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관광·레저산업의 산업인력현황 파악을 위하여 2009년~2017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2009년부터 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2028년까지의 업종별 수요를 예측하였음
- 직종별 분류의 경우 NCS 대분류 「12.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중분류 「03. 관광·레저」, 소분류 「여행서비스, 숙박서비스, 컨벤션, 관광레저서비스」를 내용적 범위로 설정함
- 또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즉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관광편의시설업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설정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관광산업 특수분류, NCS분류체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7개 업종)의 분류체계 및 산업범위를 활용하였음
- 관광·레저산업 산업인력현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연구자료(지역별 훈련수급조사분석), 문화체육관광부 발간 자료(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관광사업체 기초실태 조사분석 등),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현황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현황분석을 통해 관광레저산업의 영향력 있는 산업 내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기업 담당자를 구성하여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여 정량적(통계자료) 연구를 비롯한 정성적(FGI)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관광레저산업 개념 및 산업범위 분류분석

■ 관광레저산업의 개념 고찰

- 사전적 관광산업 개념: 관광산업은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을 관광자원이라고 하며, 이러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함
- 레저산업 개념: 레저산업은 레저공급 요소의 일부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사람들이 레저시간에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하여 유형, 무형의 레저 상품을 제공하거나 제조, 판매, 소비의 촉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산업 총칭
- 관광레저산업 개념: 관광레저산업이란 “관광레저행위자의 다양한 욕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광산업의 광범위적 접근을 통한 분야별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업종의 총칭” 이라고 정의함

■ 관광레저분야 산업범위 분류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국제표준산업분류(ISC Rev.4) 관광산업 분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산업범위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관광산업 특수분류 활용
- NCS분류체계상 산업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7개 업종)과 이를 확대 표현한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중심으로 NCS 분류체계상 산업범위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연계하였음

3. 관광레저분야 산업현황 분석

■ 국내외 관광동향

- 2018년 기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15.1% 증가한 1,535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중국의 경우 단체관광금지 조치의 일부 완화로 인하여 479만 명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으며, 2019년 7월 기준 방한 외래관광객은 9,887,281명으

로 나타남

- 국민 해외여행객은 2015년 이후 두 자리 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8년의 경우 2,869만5,983명으로 전년대비 8.3%의 다소 둔화된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관광레저사업 현황

-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수는 최근 5년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전국의 관광레저분야 사업체 수는 33,089개로 전년 대비 19.5%가 증가함
- 관광레저산업 사업체의 연간 총 매출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다 201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12월 31일 기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전국 관광사업체의 총 종사자 수는 280,270명이며, 이 중 여행업이 107,20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관광숙박업(71,769명), 관광편의시설업(28,998명), 유원시설업(27,561명), 관광객이용시설업(25,535명), 국제회의업(14,457명), 카지노업(7,033명) 등의 순임
- 2017년 관광사업체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 수가 201,0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53,289명), 자영업자(13,798명), 기타 종사자(7,080명), 무급가족종사자(5,075명)의 순임
-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신규 채용자 수는 41,571명으로, 전년 대비 3.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직자 수는 33,302명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이 중 남자는 17,711명(53.2%), 여자는 15,591명(46.8%)으로 조사됨
- 2017년 기준 10개월 이상 영업을 하는 관광사업체는 90.6%(29,991개)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영업개월 수는 11.4개월로 전년과 동일하고, 관광사업체의 1일 평균 영업시간은 11.5시간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 2017년 관광사업체의 월 평균 휴무일 수는 4.8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휴무일이 5일 미만인 사업체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6일 이상인 사업체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 관광레저산업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 및 인력양성 정책

- “관광레저 관련 전문적 학위 및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관광레저에 관한 실질적 지식 및 역량을 보유한 인력” 을 말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 국외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 정책 사례 분석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일본, 영국, 캐나다, 미국의 자격제도, 산관학 연계 인력 양성, 지역관광 인재 양성, 관광 인력 양성 조직 등과 관련한 정책시행(4장 참조)
- 국내 부처별 전문인력 양성 정책 사례 분석을 위하여 2018년 기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력양성 정책 시행(4장 참조)

■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직업분석

- 여행서비스원: 여행사무원, 여행상품기획자(개발자), 여행안내원, 관광통역안내원
- 숙박시설 서비스원: 호텔컨시어지, 호텔객실청소원, 도어맨/벨맨, 호텔 지배인, 오더테이커, 호텔세탁원
- 관광레저서비스(카지노, 유원시설업): 카지노 딜러, 카지노 출납원 및 안전관리원, 놀이시설 종사원, 골프장 캐디

■ 정규 교육기관 인력양성 현황

- 국내에 관광레저분야 관련 고등학교 2018년 기준 전국에 14개교 7,291명이 재학 중에 있음
- 관광레저 관련 대학 교육기관은 146개 학교에서 9,425명의 졸업생이 배출됨
 - 관광·레저 관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의 경우 총 67개소 운영 중 임
- 일학습병행 관련 운영기관 현황
 - 공동훈련센터형(전국 105개 기관·기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동훈련센터(전국 65개), 유니테크 사업단(17개 기관), IPP형 일학습(39개 기관)
- 관광·레저ISC를 통해 진행된 산업 내 일학습병행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관광·레저산업 분야 중 관광숙박업(호텔업), 국제회의업, 리조트 등 총 16개 기업이 참여(공동훈련센터형 11개 기업, 단독기업형 5개 기업)하였고, 91명의 학습근로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함

- 관광·레저ISC에서 2017년~2018년 수행한 일학습병행의 공동훈련센터는 (사)디지털 기업협회(2개 기업), 거제대학교(2개 기업), 인천인력개발원(1개 기업), 한양여자대학교(1개 기업), 제주한라대학교(12개 기업), 부산과학기술대학교(4개 기업), 울산과학기술대학교(2개 기업)로 7개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였음
- 관광·레저산업 관련 RSC의 경우 서울지역과 대구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음

■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인력양성(향상)

- 정부에서는 관광레저산업 분야 종사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종사원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왔으며, 또한 국내 인바운드 크루즈 관광시장 확대와 국적 선사 출범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의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업종별 협·단체(관광협회 중앙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여행업협회, (사)한국MICE협회 등에서 전문 인력양성 및 향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자격현황

- 현재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는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국가전문자격인 여행업 분야의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호텔업 분야의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등 총 5종목으로 구성됨
 - 이 외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은 국제회의업 분야의 컨벤션기획사, 의료관광 분야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가 이에 해당함

5. 관광레저산업의 인적자원 전망

■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 전망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여행업	108,779	110,859	112,979	115,140	117,342	119,586	121,873	124,204	126,579	129,000
관광숙박업	81,236	83,018	84,633	86,144	84,572	88,845	90,036	91,177	91,164	93,000
관광객이용시설업	18,652	19,017	19,365	19,730	20,095	20,460	20,825	21,172	21,537	21,902
국제회의업	14,857	15,645	16,450	17,269	18,092	18,928	19,793	20,675	21,558	22,470
카지노업	11,142	11,695	12,238	12,791	13,379	13,955	14,541	15,164	15,766	16,385
유원시설업	24,464	25,883	27,302	28,744	30,198	31,674	33,163	34,673	36,180	37,705
관광편의시설업	31,248	32,363	33,494	34,699	35,928	37,181	38,511	39,868	41,305	42,769
전체	290,378	298,480	306,461	314,517	319,606	330,629	338,742	346,933	354,089	363,231

주)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의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의 수치에 적용하여 2028년까지 수요예측 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재인용.

- 향후 10년간 관광산업 업종별 인력수요를 종합하면, 2028년도에는 365,260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와 같이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관광·레저산업의 인력수요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인력의 수요와 대응하여 관광산업 인력의 전문화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 기업 및 교육기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업종별 향후 유망직종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업종별 협·단체와 연계한 교육을 통해 기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신규 인력양성 필요
 - 여행업의 Travel Consultant, 숙박업의 ICT 기술 교육전문가, 국제회의업의 전문화된 국제회의 기획자, 크루즈업의 크루즈 플래너, 승무원 양성가, 유원시설업의 공연기획자 등 이밖의 교육기관 담당자들의 유망직종은 테마여행 전문가, 크루즈 전문 TC, 크루즈 카지노 딜러 등의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6. 결 론(ISC역할)

- 인력양성기관 및 산업현장 연계 강화
- 산업 내 업종별 직무 및 직업분류체계 매칭
- 관광레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신규업종 및 직종 발굴
- 관광레저산업의 대대적인 인력수급 실태조사 실시
-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 관광레저산업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ISC의 역할 강화

목 차

연구결과 요약

제1장 서 론	1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조사의 범위와 방법	2
3.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4
제2장 관광레저산업의 개념 및 산업범위 분류 분석	9
1. 관광레저산업의 개념	9
2. 관광레저분야 산업범위 분류	11
3. 소결	26
제3장 관광레저분야 산업 현황 분석	27
1. 국내·외 관광동향	27
2. 관광레저산업 현황	35
3.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현황	54
4. 관광레저산업 인력 현황	115
제4장 관광레저산업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139
1.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 정책 및 직업분석	139
2. 정규 교육기관 인력양성 현황	153
3.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인력 양성(향상) 현황	171

4.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자격현황	185
5. 소 결	204
제5장 관광·레저산업의 인적자원 전망	207
1.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 전망	207
2. 관광·레저산업 직업 인력수요 전망	225
3. 소 결	228
제6장 결 론	229
1. 관광·레저산업 종합 분석	229
2. 제 언	233
참고문헌	237
부록. 관광·레저산업 핵심업종 FGI 분석 결과	239
1. 개요	239
2. FGI 분석 결과	240
3. 소결	267

표 목 차

[표 1-1]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기관 및 기업 목록	6
[표 2-1]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에 대한 분류	12
[표 2-2]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4) 관광산업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매칭)	13
[표 2-3] NCS 분류 체계상 관광·레저산업 범위	15
[표 2-4]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관광산업 특수분류	16
[표 2-5] 관광산업 특수분류와 산업범위 분류 연계표(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NCS, KSIC)	20
[표 3-1] 연도별 방한외래 관광객 현황(2013년~2019년 7월)	27
[표 3-2] 연도별/대륙별 방한 외래관광객 현황	28
[표 3-3] 연도별/국가별 방한 외래관광객 현황	29
[표 3-4] 연도별 국민해외관광객 현황(2013년~2019년 7월)	30
[표 3-5] 연도별 국민 국내여행 동향(2018년)	30
[표 3-6] 국민 방북자	31
[표 3-7] 한국관광수지 현황(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등)	32
[표 3-8] 연도별/지역별 국제 관광객 수 현황	34
[표 3-9] 연도별/지역별 관광수입 현황	34
[표 3-10] 연도별 사업체 수 추이(2013년~2017년)	36
[표 3-11] 지역별 관광사업체 현황	37
[표 3-12] 업종별 관광사업체 매출액 추이(2013년~2017년)	38
[표 3-13] 연도별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2013년~2017년)	40
[표 3-14] 지역별 관광사업체 종사자 현황	41
[표 3-15]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42
[표 3-16] 관광사업체 업종별 신규 채용자 수 추이(2013년~2017년)	44

[표 3-17] 관광사업체 업종별·성별 신규 채용자 추이(2017년 기준)	44
[표 3-18] 관광사업체 업종별 이직자 수 추이(2013년~2017년)	46
[표 3-19] 관광사업체 업종별·성별 이직자 수(2017년 기준)	47
[표 3-20] 업종별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2017년 기준)	48
[표 3-21] 사업체 업종별 영업개월 수(2017년 기준)	49
[표 3-22] 사업체 업종별 1일 평균 영업시간	51
[표 3-23] 사업체 업종별 월 평균 휴무일 수	52
[표 3-24] 전국 시·도별 여행업 등록현황	55
[표 3-25] 연도별 여행업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56
[표 3-26] 연도별 여행업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57
[표 3-27] 여행업분야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58
[표 3-28] 여행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59
[표 3-29] 여행업 분야 종사자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현황	60
[표 3-30] 여행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	60
[표 3-31] 여행업분야 영업개월 수 분포	61
[표 3-32] 여행업분야 일 평균 영업시간	62
[표 3-33] 여행업분야 월 평균 휴무일 수	62
[표 3-34] 전국 시도별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64
[표 3-35] 관광숙박업 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65
[표 3-36] 관광숙박업 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66
[표 3-37] 관광숙박업 분야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67
[표 3-38] 관광숙박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68
[표 3-39] 관광숙박업 분야 신규채용 현황	69

[표 3-40] 관광숙박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	69
[표 3-41] 관광숙박업분야 영업개월 수 분포	70
[표 3-42] 관광숙박업분야 일 평균 영업시간	71
[표 3-43] 관광숙박업 분야 월 평균 휴무일 수	71
[표 3-44] 전국 시도별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현황	72
[표 3-45]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73
[표 3-46]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74
[표 3-47]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76
[표 3-48]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77
[표 3-49]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신규채용 현황	78
[표 3-50]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별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	78
[표 3-51]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영업개월 수 분포	79
[표 3-52]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일 평균 영업시간	80
[표 3-53]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월 평균 휴무일 수	81
[표 3-54] 전국 시도별 국제회의업 등록현황	82
[표 3-55] 국제회의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	83
[표 3-56] 국제회의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	84
[표 3-57] 국제회의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	85
[표 3-58] 국제회의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86
[표 3-59] 국제회의업 분야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86
[표 3-60] 국제회의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	87
[표 3-61] 국제회의업 분야 연평균 영업개월 수 분포	87
[표 3-62] 국제회의업 분야 일평균 영업시간	88

[표 3-63] 국제회의업 분야 월 평균 휴무일 수	88
[표 3-64] 전국 시·도별 카지노업체 현황	89
[표 3-65] 카지노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90
[표 3-66] 카지노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90
[표 3-67] 카지노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91
[표 3-68] 카지노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91
[표 3-69] 카지노업 분야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92
[표 3-70] 카지노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	92
[표 3-71] 카지노업 분야 연간 영업개월 수 분포	92
[표 3-72] 카지노업 분야 일 평균 영업시간	93
[표 3-73] 카지노업 분야 월 평균 휴무일 수	93
[표 3-74] 전국 사·도별 유원시설업체 현황	94
[표 3-75] 유원시설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95
[표 3-76] 유원시설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96
[표 3-77] 유원시설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97
[표 3-78] 유원시설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98
[표 3-79] 유원시설업 신규 채용 및 이직현황	98
[표 3-80] 유원시설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	99
[표 3-81] 유원시설업 분야 연간 영업개월 수 분포	99
[표 3-82] 유원시설업 분야 일 평균 영업시간	100
[표 3-83] 유원시설업 분야 월 평균 휴무일 수	101
[표 3-84] 전국 시·도별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현황	103
[표 3-85]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104

[표 3-86]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105
[표 3-87]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107
[표 3-88]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108
[표 3-89]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109
[표 3-90]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종사자 자격취득 현황	110
[표 3-91]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간 영업개월 수 분포	111
[표 3-92]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1일 평균 영업시간	112
[표 3-93]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월 평균 휴무일 수	113
[표 3-94]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종사자 추이(2013-2017)	115
[표 3-95]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종사자 비중 추세(2013-2017)	116
[표 3-96] 관광·레저산업 신규 채용자 추이(2013년~2017년)	117
[표 3-97]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신규 채용 추이(2013년~2017년)	118
[표 3-98] 여행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 현황	120
[표 3-99] 관광숙박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 현황	121
[표 3-100] 관광객이용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 현황	122
[표 3-101] 국제회의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 현황	123
[표 3-102] 카지노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 현황	124
[표 3-103] 유원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 현황	125
[표 3-104] 관광편의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 현황	126
[표 3-105] 고용보험 통계상 전국 직종별·규모별·현원·구인인원·채용인원·미충원인원·부족인원·채용계획 인원·부족률 구인구직 동향(2018년 하반기 기준)	128
[표 3-106] 관광·레저산업 전체업종 연도별 이직률 추이(2013년~2017년)	129
[표 3-107]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이직자 추이(2013년~2017년)	130

[표 3-108] 여행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131
[표 3-109] 관광숙박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132
[표 3-110] 관광객이용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133
[표 3-111] 국제회의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134
[표 3-112] 카지노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135
[표 3-113] 유원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136
[표 3-114] 관광편의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137
[표 4-1] 국외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정책 주요 사례	141
[표 4-2] 정부 부처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요 사례	142
[표 4-3] 정부부처별 관산학 협기반 사업의 주요 내용	143
[표 4-4] 정부부처별 재직자 역량강화 사업의 주요 내용	144
[표 4-5] 정부부처별 취업(창업)역량제고 사업의 주요 내용	145
[표 4-6] 관광레저 분야 관련 직업 및 직업 예시	147
[표 4-7]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직업 현황	149
[표 4-8] 여행업 관련 직업 특성	150
[표 4-9] 관광숙박업 관련 직업 특성	151
[표 4-10]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카지노업 관련 직업 특성	152
[표 4-11] 전국 관광 관련 고등학교 세부현황	153
[표 4-12] 관광레저 관련 대학 교육기관 현황	156
[표 4-13]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현황	157
[표 4-14] 관광관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현황	158
[표 4-15] 전국 일학습 병행 공동훈련센터 현황	160
[표 4-16]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 현황	162

[표 4-17] 유니테크 사업단 현황	163
[표 4-18] IPP형 일학습 병행 사업단 현황	164
[표 4-19]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 병행 참여기업 현황(2017)	165
[표 4-20]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 병행 참여기업 현황(2018)	166
[표 4-21] 서울지역 직종별(KECO) 양성훈련 공급 현황	168
[표 4-22] 서울지역 직종별(KECO)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공급 현황	169
[표 4-23] 서울지역 직종별(KECO) 실업계좌제훈련 공급 현황	169
[표 4-24] 대구지역 2017년도 양성훈련인원 통계(KECO 기준)	170
[표 4-25] 한국관광공사 교육 프로그램	171
[표 4-26] 한국관광공사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과정	172
[표 4-27] 해양수산부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과정	173
[표 4-28]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 및 취업 현황 제1차(`15년~`17년)	174
[표 4-29]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 및 취업 현황 제2차 (`18년~`현재)	174
[표 4-30]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교육 프로그램	175
[표 4-31]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교육 프로그램	175
[표 4-32] 한국여행업협회 교육 프로그램	176
[표 4-33]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정 안내	176
[표 4-34] (사)한국MICE협회 교육 프로그램	177
[표 4-35] 기타기관 교육 프로그램	178
[표 4-36]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자질 및 역량 교육프로그램	178
[표 4-37] 2019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글로벌헬스케어 교육프로그램 종류	179
[표 4-38] 광주 의료통역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180
[표 4-39] 관광두레PD 역량강화를 위한 3단계 교육 과정	182

[표 4-40)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목 기본구성(안)	184
[표 4-41)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구성 체계	185
[표 4-42) 국내여행안내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186
[표 4-43) 최근 5년 간 여행업 분야 자격 합격률(2014년~2018년)	187
[표 4-44) 해외여행인솔자 교육과정	188
[표 4-45) 해외여행인솔자 자격취득 현황(1983-2019)	188
[표 4-46) 호텔경영사관리사서비스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190
[표 4-47) 관광숙박업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기준 점수	190
[표 4-48) 최근 5년 간 관광숙박업 관련 종사원 자격 합격률(2014년~2018년)	191
[표 4-49) 컨벤션기획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192
[표 4-50) 컨벤션기획사 자격 합격기준 점수	193
[표 4-51) 최근 5년 간 컨벤션기획사 1·2급 합격률	193
[표 4-52)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시험 검정과목	194
[표 4-53)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 합격기준 점수	195
[표 4-54) 최근 5년 간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합격률	195
[표 4-55) 관광레저산업 NCS 및 자격 개발 현황	197
[표 4-56) 여행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198
[표 4-57) 숙박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199
[표 4-58) 컨벤션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200
[표 4-59) 관광레저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202
[표 4-60) 관광레저산업 분야 NCS 기반자격 개발현황	203
[표 5-1) 관광산업 부가가치율	208
[표 5-2) 여행업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2008~2016)	208

[표 5-3] 여행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209
[표 5-4] 관광숙박업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2008~2016)	210
[표 5-5] 관광숙박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211
[표 5-6] 관광객이용시설업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2008~2016)	212
[표 5-7] 관광객이용시설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212
[표 5-8] 국제회의업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2008~2016)	213
[표 5-9] 국제회의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214
[표 5-10] 카지노업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2008~2016)	215
[표 5-11] 카지노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215
[표 5-12] 유원시설업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2008~2016)	216
[표 5-13] 유원시설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217
[표 5-14] 관광편의시설업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2008~2016)	218
[표 5-15] 관광편의시설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219
[표 5-16]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인력수요 전망 종합(2019년~2028년)	220
[표 5-17] 관광·레저산업 신규 인력수요 산정(2020년~2028년)	221
[표 5-18]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분류를 이용한 관광·레저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결과	224
[표 5-19]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업 세분류 인력수요 전망 경과	226
[표 6-1] 관광·레저ISC의 역할	235

그림목차

[그림 1-1] 관광·레저ISC 위원회 구성	7
[그림 3-1] 최근 3개년 방한 외래 관광객 수 추이	27
[그림 3-2] 최근 3개년 국민해외관광객 수 추이	30
[그림 3-3] 월별 관광수지 동향	32
[그림 3-4] 세계관광 성장추이	33
[그림 3-5] 업종별 관광사업체 현황(2017년 기준)	35
[그림 3-6] 업종별 관광사업체 매출액 현황(2017년 기준)	39
[그림 3-7] 업종별 관광사업체 종사자 현황(2017년 기준)	40
[그림 3-8] 업종별·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구성비(2017년 기준)	43
[그림 3-9] 관광사업체 신규 채용자 수 추이(최근 3년)	43
[그림 3-10] 업종별·성별 신규 채용자 수 구성비(2017년 기준)	45
[그림 3-11] 관광사업체 이직자 성별 구성비(최근 3년)	45
[그림 3-12] 업종별 이직자수 구성비(2017년 기준)	46
[그림 3-13] 업종별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2017년 기준)	47
[그림 3-14] 사업체 연간 영업개월 수 구성 추이(최근 3년)	49
[그림 3-15] 업종별 연간 영업개월 수 구성비(2017년 기준)	50
[그림 3-16] 사업체 1일 평균 영업시간 구성비(최근 3년)	50
[그림 3-17] 업종별 1일 평균 영업시간 구성비(2017년 기준)	51
[그림 3-18] 업종별 월평균 휴무일 수 구성비(2017년 기준)	53
[그림 3-19] 연도별 여행업 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56
[그림 3-20] 연도별 여행업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57
[그림 3-21] 여행업분야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58

[그림 3-22] 연도별 관광숙박업 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65
[그림 3-23] 연도별 관광숙박업 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66
[그림 3-24] 관광숙박업 분야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67
[그림 3-25]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73
[그림 3-26]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75
[그림 3-27]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75
[그림 3-28] 국제회의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83
[그림 3-29] 국제회의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84
[그림 3-30] 국제회의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85
[그림 3-31] 유원시설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95
[그림 3-32] 유원시설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96
[그림 3-33] 유원시설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97
[그림 3-34]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104
[그림 3-35]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106
[그림 3-36]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106
[그림 3-37]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종사자 변화 추이(2013-2017)	116
[그림 3-38]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종사자 비중 추세(2013-2017)	117
[그림 3-39] 관광레저산업 신규채용자 추이	118
[그림 3-40]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신규 채용 추이	119
[그림 3-41] 관광·레저산업 연도별 이직자 추이	129
[그림 3-42] 관광레저산업 연도별 이직자 추이(2013-2017)	130
[그림 5-1] 여행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209
[그림 5-2] 관광숙박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211

[그림 5-3] 관광객이용시설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213
[그림 5-4] 국제회의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214
[그림 5-5] 카지노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216
[그림 5-6] 유원시설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217
[그림 5-7] 관광편의시설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219
[그림 5-8]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인력수요 전망 종합(2019년~2028년)	220
[그림 5-9] 관광·레저산업 신규 인력수요 산정(2020년~2028년)	222

제 1 장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 조사의 필요성

- 정부는 산업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의 개발·관리·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통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15년 제1기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발족되어, 2019년 현재 17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관광·레저산업계의 대표성을 바탕으로 해당산업의 인적자원 관련 의사결정, 현장 맞춤형 인력수급 실태분석을 위한 관광·레저분야 산업인력현황분석을 실시함.
- 조사를 통하여 동 산업의 업종별 필요인력 수급을 비롯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광·레저산업의 고용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조사의 목적

- 관광·레저분야 산업의 업종별 인력수급 실태 및 기술 동향, 주요 이슈분석 등의 산업계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여 산업 내 관련 활동 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또한 산업별 인력자원 수급 현황자료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인력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현재 관광·레저산업 분야별 진행되고 있는 교육훈련 실태조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산업의 활성화 도모
- 관광·레저산업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협의적 해석과 현재 관광·레저산업(관광진흥법상) 현장담당자의 의견수렴 및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관광·레저산

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분야 선정과 인적자원 개발·관리·활용에 관한 정책적 대안 제시

2. 조사의 범위와 방법

1) 조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관광·레저산업의 산업인력현황 파악을 위하여 2009년~2017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및 관광사업체 기초실태조사의 경우 2017년 자료가 최신자료로 되어 있어 자료별 연도가 상이할 수 있음
- 2009년부터 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2028년까지의 업종별 수요를 예측하였음

■ 내용적 범위

- 직종별 분류의 경우 NCS 대분류 「12.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중분류 「03. 관광·레저」, 소분류 「여행서비스, 숙박서비스, 컨벤션, 관광레저서비스」를 내용적 범위로 설정함
- 또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즉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관광편의시설업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설정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관광산업 특수분류, NCS분류체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7개 업종)의 분류체계 및 산업범위를 활용하였음

2) 조사의 방법

- 관광·레저산업 산업인력현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연구자료(지역별 훈련수급조사분석), 문화체육관광부 발간 자료(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관광사업체 기초실태 조사분석 등),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현황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의 지역별 훈련 수요공급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지역별 관광·레저산업의 인력양성 및 향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2019년의 경우 서울지역과 대구 지역의 보고서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의 연도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및 관광사업체 기초실태조사의 활용하여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현황 및 양성기관 현황, 자격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의 분류체계 및 산업범위를 제시하고자 함
- 또한 현황분석을 통해 관광·레저산업의 영향력 있는 산업 내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기업 담당자를 구성하여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여 정량적(통계자료) 연구를 비롯한 정성적(FGI)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업종별 전문가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보고서 곳곳에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 관광·레저산업의 현황자료조사 및 산업현장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도출된 과제 및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학계, 연구원, 업계 등) 자문회의를 거쳐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3.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¹⁾

■ 목 적

- 산업별 협·단체(사업주단체), 기업, 근로자단체 등이 모인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구성하여 인적자원 개발·관리·활용 등의 핵심기준을 마련함
 - 산업계 대표로서 해당 산업의 인적자원 관련 의사결정, 현장형 인재 수요파악을 위한 산업 인력 현황 분석, NCS·NCS자격 개발 및 보완, 일학습병행 등 사업 수행
 - 각종 고용·노동 관련 사업에서 사업계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인력수급 미스매치 등을 완화하고 산업계 주도의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기여

■ 주요수행업무

- 운영위원회 등 회의체 운영
 - 산업 내 주요 인적자원 의사결정 : 해당 산업의 주요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체 운영
 - 산업 대표성 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 : 위원회의 의사결정 등을 실질적으로 산업계에서 지지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핵심 협·단체,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산업 대표성 강화
- 인력수급조사 및 실태분석
 - 산업계 동향 파악 : 해당 산업의 인적자원 및 기술동향, 중요 이슈 분석을 통해 산업 내 관련활동 촉진 토대 마련
 - 현장형 인재 수요 파악 : 인력수급 현황자료 조사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의 수요 파악
 - 교육훈련실태 조사 : 산업별 교육훈련 실태 조사를 통해 부족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등 개편의 토대 마련
 - 전략분야 발굴·조사 : 산업인력 현황조사, 산업동향,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전략분야 선정 및 정책대안 제시
- NCS 개발·보완 및 확산
 - NCS 개발 :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유망 분야 또는 新직업 대상 신규 직무

1)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Industry Skills Council)」: 산업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산업부문별로 구성된 산업별협·단체(사업주단체), 기업, 근로자단체 등의 연합체

분야 개발수요 제시

- NCS 보완 : 변화하는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보완체계 구축·운영, NCS 개발·보완 전담기관으로서 기업·학교·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시 검증 및 보완
- NCS 기업 활용 컨설팅 : 기업의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 및 재직자훈련 실시 지원을 위한 기업현장 맞춤형 컨설팅 추진

○ NCS기반자격 개발·보완

- 현장중심 직무능력 측정 : 자격의 틀과 내용을 기업 현장 및 직무능력 측정을 중심으로 하는 新직업자격의 개발 및 보완

○ 일학습병행제 운영에 참여

- 참여기업 발굴 :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을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발굴·선정
-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 산업 및 기업 수요에 적합한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 전략 분야 발굴 : 개별기업 발굴과 함께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분야 또는 직종 발굴, 전략분야와 연계된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적용

○ 자율제안사업

- ISC별로 NCS·NCS 기반 자격·일학습병행제 외에 해당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사업을 기획·제안하고 심의 확정 후 추진

2)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 2016년 9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으로 발족한 관광레저 ISC는 산업인력수급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력양성체계와 관련된 주요이슈를 분석하고 각 해당 부문별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연계성이 높은 참여기관 간 효율적인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시스템 지원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광레저 ISC 전담 사무국을 두고 있고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회의체를 운영하며 해당분야 산업인력 현황에 관한 자료 수집과 인력수급실태 조사분석 및 전망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인력양성 체계에 관한 정책건의,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보완, NCS 기반 자격 설계·보완, 검정평가기준 개발·보완 등의 사업과 더불어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램개발과 NCS의 기업 활용과 확산을 위한 컨설팅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가. 참여기관 및 기업 : 총 21개(협·단체 13개, 기업 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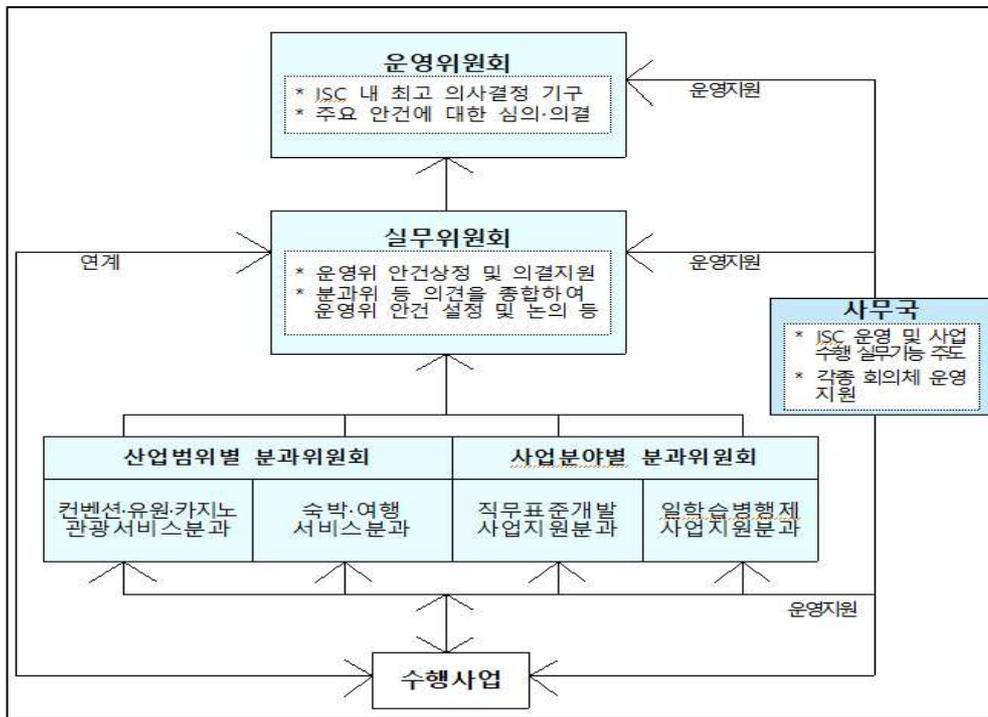
-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대표기관인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를 비롯하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한국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와 근로자단체(한국노총 산하 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등 관광·레저분야 각 산업부문을 대표하는 9개의 협·단체로 구성됨
- 또한 참여기업으로 (주)코엑스, (주)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앰배서더호텔그룹 산하 이비스앰배서더 명동, JW Marriott 동대문스퀘어, (주)스타일로프트글로벌, (주)에버랜드 리조트, (주)모두투어네트워크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표 1-1]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기관 및 기업 목록

순번	구분	기관 및 기업명	주요산업분야
1	대표기관(산업별협·단체)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숙박서비스
2	참여기관(산업별협·단체)	한국호텔업협회	숙박서비스
3	참여기관(산업별협·단체)	(사)한국MICE협회	컨벤션
4	참여기관(산업별협·단체)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서비스
5	참여기관(산업별협·단체)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숙박서비스
6	참여기관(산업별협·단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관광·레저서비스
7	참여기관(산업별협·단체)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여행서비스
8	참여기관(산업별협·단체)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관광·레저서비스
9	참여기관(근로자단체)	한국노총 산하 관광서비스노련	
10	참여기업	(주)코엑스	컨벤션
11	참여기업	(주)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컨벤션
12	참여기업	(주)서한관광개발이비스앰배서더명동호텔	숙박서비스
13	참여기업	코드야드 바이 Marriott 서울스퀘어	숙박서비스
14	참여기업	(주)스타일로프트글로벌	숙박서비스
15	참여기업	삼성물산(주) 에버랜드 리조트	관광·레저서비스
16	참여기업	(주)모두투어네트워크	여행서비스
17	참여기업	노보텔앰배서더 서울강남	숙박서비스
18	참여기관(산업별협·단체)	(사)한국관광·레저학회	기타
19	참여기관(교육기관)	(재)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기타
20	참여기관(산업별협·단체)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컨벤션
21	참여기관(산업별협·단체)	(사)한국관광학회	기타

나. 위원회 구성

-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총 3개의 회의체(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관리·활용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국 운영의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1-1] 관광레저ISC 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

- 호텔·콘도미니엄·여행·MICE·유원시설·CASINO 등 해당산업의 인적자원 개발·관리·활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의사결정을 위한 최고회의체

■ 실무위원회

- ISC 운영위원회 안전 상정 및 의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 분과위원회

- ISC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NCS소분류 기준 산업범위(2개 분야)와 사업 분야(2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각의 담당 산업범위 및 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운영하는 회의(협의)체

제 2 장

관광·레저산업의 개념 및 산업범위 분류 분석

1. 관광·레저산업의 개념

1) 관광·레저산업의 개념도출

- NCS 분류체계의 중분류(1203.)인 관광·레저산업은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아 ISC 차원의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함
 - NCS 분류의 관광·레저는 학문적인 개념의 관광산업과 레저산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관련한 정리가 필요함
- 관광·레저산업의 개념 도출을 위하여 관광산업과 레저산업에 대한 개념을 분석이 요구됨

가. 관광산업의 개념

- 관광이란 즐거움, 위락, 휴가, 스포츠, 사업·업무, 친구·친지 방문, 회의, 건강, 연구, 종교 등을 목적으로(이주, 취업 제외) 자국을 떠나 24시간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관광목적지를 방문·체재하는 행위” 로 정의 함(세계관광기구)
- 사전적 의미의 관광산업은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을 관광자원이라고 하며, 이러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함

나. 레저산업의 개념

- 레저(leisure)의 어원은 ‘자유롭게 되다(to be free)’ 혹은 ‘허락하다(to be permitted)’ 뜻의 라틴어 ‘licerer’ 에서 유래되었으며 우리말 여기(餘暇)와 유사하여 놀이, 오락, 레크리에이션, 기분전환, 즐거움, 휴식 등과 같은 의미를 지님

- 레저산업은 “레저공급 요소의 일부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사람들이 레저시간에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하여 유형, 무형의 레저상품을 제공하거나 제조, 판매, 소비의 촉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산업” 을 총칭 함

다. 관광레저산업 개념

■ 개념도출 과정

- 관광레저산업의 개념 도출을 위하여 관광레저산업 분야 전문가(교수, 연구원, 기업 등)의 의견조사를 통하여 핵심키워드를 도출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였음
-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핵심키워드 도출
 - 행위자(내·외국인 관광객 및 일반 이용자 등)
 - 재화와 서비스(유·무형의 상품, 시설, 각종 서비스 등)
 - 욕구수요와 충족
 - 다양한 산업범위(여행서비스, 숙박서비스, 컨벤션, 관광레저서비스 관련업종 외 스포츠, 문화, 예술, 음식, 쇼핑, 운송, 교육 등)

■ 관광레저산업 개념(ISC 차원)

- 관광레저산업이란 “관광레저행위자의 다양한 욕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광산업의 광범위적 접근을 통한 분야별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업종의 총칭” 이라고 정의함
- 개념 설명
 - 행위자: 관광·레저를 위한 국내·외 관광객 및 일반시설 이용자 등
 - 욕구수요와 충족: 행위자의 행위 목적에 대한 만족(삶의 질 제고, 자아실현, 소비촉진 등)
 - 분야별 다양한 업종: NCS분류체계 상 업종(여행업, 숙박업, 컨벤션, 카지노, 크루즈, 유원시설업, 리조트)을 포함한 관광산업과 그 외 레저 관련 산업 등(각종스포츠, 문화예술, 음식, 쇼핑, 운송, 교육 등)
 -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시설, 제품, 각종 서비스, 이벤트 등
 - 제공: 공급·제조·판매·유통·촉진·지원 등

- 이렇게 도출된 개념을 중심으로 관광레저분야에 대한 산업범위 분류가 필요함

2. 관광레저분야 산업범위 분류

- 관광레저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산업범위 분류가 되어 있어 정리가 필요한데, NCS 분류체계상의 관광레저분야 산업범위는 크게 여행서비스, 숙박서비스, 컨벤션, 관광레저서비스(카지노업, 크루즈업, 유원시설업, 리조트)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모두 포함됨²⁾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은 총 7개업종으로 구분되며, 여행업(여행서비스), 관광숙박업(숙박서비스, 리조트운영관리), 관광객이용시설업(크루즈운영관리), 국제회의업(컨벤션), 카지노업(관광레저서비스), 관광편의시설업, 유원시설업(관광레저서비스)을 포함함
-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관광레저분야 산업범위 분류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학계, 연구원, 기업인 등) 의견조사를 통해 관광레저산업의 광의적 접근에 부합하는 산업범위를 분류하고자하였음

1)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레저산업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의 7가지로 분류함
 -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관광숙박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호텔업과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대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
 -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NCS 분류상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외 영역(전시, 이벤트 등)이 있어 ISC는 향후 산업의 확대를 위한 산업범위의 분류가 요구됨

- 국제회의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카지노업은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유원시설업은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
- 관광편의시설업은 상기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표 2-1]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에 대한 분류

산업 분류	세부 업종				
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제1종 종합휴양업	제2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관광유희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희업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휴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관광사업의 분류

2) 국제표준산업분류(ISICRev.4) 관광산업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매칭)

-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4)에 따른 관광산업에 대한 분류는 크게 12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련세부업종에 관한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내 업종으로 매칭한 분류체계 임

[표 2-2]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4) 관광산업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매칭)

10차 표준산업분류		9차 표준산업분류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1. 방문객을 위한 숙박서비스			
55101	호텔업	55111	호텔업
55102	여관업	55112	여관업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5511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55104	민박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02. 음식 및 음료 제공서비스*			
56	음식점 및 주점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03. 철도 여객 운송서비스			
49101	철도 여객운송업	49100	철도 운송업
4. 도로 여객 운송서비스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5. 수로 여객 운송서비스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50201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6. 항공 여객 운송서비스			
51100	항공여객운송업	51100	정기 항공 운송업
7. 교통(운송) 장비 대여			
76110	자동차 임대업	69110	자동차 임대업
8. 여행사 및 기타 예약 서비스			
75210	여행사업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75212	국내 여행사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9. 문화 서비스*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기획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9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90290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90	기타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10.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7621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6921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31	낚시장 운영업	91231	낚시장 운영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틱업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11. 국가별로 특화된 관광재화

46491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46491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47842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47842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12. 국가별로 특화된 관광서비스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84212	문화 및 관광행정
-------	------------	-------	-----------

주1) 음식 및 음료 제공서비스(2)는 세세분류 수준에서도 일반 외식서비스와 관광관련 서비스 여부를 구별할 수 없음

주2) 문화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의 경우 관광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중시하여 여행목적이 될 수 있는 아웃도어 활동이나 문화 활동에 한정하여 관광산업에 포함

자료: 황수경 외(2010).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 제고방안(Ⅱ)-문화산업과 관광산업-, 한국노동연구원/통계분류 포털(10차 개정 표준산업분류)

- 1. 방문객 숙박시설: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민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2. 식품 및 음료 제공 활동: 음식점 및 주점업
- 3. 철도 여객 운송: 철도여객운송업
- 4. 도로 여객 운송: 시외버스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 5. 수로 여객 운송: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 6. 항공 여객 운송: 항공여객운송업
- 7. 교통 장비 대여: 자동차 임대업
- 8. 여행사 및 기타 예약서비스: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9. 문화서비스: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기획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10.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 11. 국가별로 특화된 관광재화의 거래: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12. 국가별로 특화된 관광관련 서비스: 문화 및 관광행정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임(자격기본법 제2조 2항)
-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함
- NCS분류체계에서의 관광레저산업은 대분류(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중분류(03. 관광·레저), 소분류(여행서비스, 숙박서비스, 컨벤션, 관광레저서비스)로 구분되고 그 이하 세분류로 구분됨
 - 여행서비스는 여행상품개발, 여행상품상담, 국내여행안내, 해외여행안내, 항공객실서비스 등으로 세분류됨
 - 숙박서비스는 숙박기획·개발,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등으로 세분류됨
 - 컨벤션은 회의기획, 전시기획, 이벤트 기획으로 분류됨
 - 관광레저서비스는 카지노기획개발, 카지노운영관리, 크루즈운영관리, 유원시설운영관리, 리조트운영관리 등으로 세분화됨

[표 2-3] NCS 분류 체계상 관광·레저산업 범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NCS 세분류
12.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203. 관광·레저	1. 여행서비스	1. 여행상품개발 2. 여행상품상담 3. 국내여행안내 4. 해외여행안내 5. 항공객실서비스
		2. 숙박서비스	1. 숙박기획·개발 2. 객실관리 3. 부대시설 관리 4. 연회관리 5. 접객서비스
		3. 컨벤션	1. 회의기획 2. 전시기획 3. 이벤트 기획
		4. 관광·레저 서비스	1. 카지노기획개발 2. 카지노운영관리 3. 크루즈운영관리 4. 유원시설운영관리 5. 리조트운영관리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3)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관광산업 특수분류

-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세계관광기구(UNWTO)와 유엔통계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국제관광표준을 기초로 하여 2000년에 제정되었으며, 관광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였음
-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핵심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관광산업특수분류는 핵심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기여도와 역할에 따라 상호의존, 부분적용, 지원산업으로 영역을 분류하였으며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를 함께 알 수 있도록 분류함
 - 핵심 관광산업은 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관광 쇼핑업, 관광 운수업, 관광 숙박업,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제회의업,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산업, 카지노업을 포함하며,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산업을 포함함

[표 2-4]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관광산업 특수분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핵심 관광산업	관광 쇼핑업 (도매업 제외)	면세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관광 운수업	관광 인증 쇼핑업		
		관광 철도운송업		
		관광 도로운송업	시내순환 관광업*	
			전세버스 운송업	
			관광궤도업*	
		관광 수상운송업	관광 유람선업*	
			크루즈업*	
		관광 항공운송업	관광 항공 정기운송업	
		관광 항공 부정기운송업		
	호텔업	호텔업	관광 호텔업*	
			수상관광 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업*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 숙박업	일반 관광 숙박업	관광 펜션업*	
				산림휴양림업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 호텔
				관광 인증 모텔업
				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홈스테이)*	
			자동차 양영장업*	
			한옥체험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음식점 및 주점업	관광 식당업		
		관광 주점업	관광 유흥음식점업*	
			관광 극장유흥업*	
			관광 공연장업*	
	여행사 및 여행 보조 서비스업	여행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제회의업*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국내 여행업*	
		국제회의 기획업*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 산업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국제회의 기획업*	
			박물관 운영업(미술관 포함)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식물원, 동물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유원시설업*	기타 관광지 운영업	
			종합유원시설업*	
		농어촌 체험 및 생태 관광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 공연장업*	관광 공연시설 운영업
관광 레저 스포츠시설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수상 오락 서비스업(유원시설 제외)				
카지노업*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내국인 출입 카지노업*			
상호의존 관광 산업	관광 건설업	관광 건물 종합건설업	상업 및 휴양 건물 건설업	
		관광 토목 건설업	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	
	관광용지 개발조성공사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조경 건설업			
관광 및 레저 용품 소매업	레저용 의복 소매업	관광 관련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레저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관광용 가방 및 기타 가죽 제품 소매업		
관광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여행자 보험업			
	금융서비스업	여행자 수표 발행		

	레저 장비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환전소
		레저 및 운송장비 임대업	레저장비 임대업
			운송장비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캠핑카 임대업
			관광용 자동차 임대업
			일반 자동차 임대업
부분적용 관광 산업	관광 비인증 쇼핑업	관광 비인증 쇼핑업	
	부분관광 운송업	부분관광 육상운송업	도시간 철도 운송업
			도시내 철도 운송업
			관광보조 버스 운송업
			시내·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부분관광 수상운송업	부분관광 수상운송업	수상운송업
			내항·내륙 여객선 운송업
	부분관광 숙박업	청소년수련원	
		관광 비인증 모텔업	
	부분관광 음식점업 및 주점업	부분관광 음식점업	관광 일반음식점업
		부분관광 주점업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 기타 관광 주점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일반 공연시설 운영업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	관광 정보 서비스업	온라인상 여행정보제공 관광지도 및 여행서적 출판업	
	전문기술 서비스업	관광 사진업* 통역 서비스업	
	기타 관광 서비스업	온천탕 그 외 기타 관광서비스업	
관광 지원산업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공공기관	문화 및 관광행정	
		관세행정, 외무 행정(비자발급 및 영사업무)	
		특수경찰 및 공항경비	
	관광 교육서비스업	교육기관	관광 전문 교육기관(대학교 이상) 관광 전문 교육기관(고등학교)
		기타 관광 레저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기타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관광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관광단체	회원단체	관광산업 및 전문가단체 여행클럽
		관광관련 국내·외 기관	

주) *는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사업체를 별도 표기함

자료: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

- 상호의존 관광산업은 원래 관광산업은 아니지만 핵심 관광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산업으로 관광 건설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레저장비업을 포함함
- 부분적용 관광산업은 부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관광 비인증 쇼핑업, 부분관광 운송업, 부분관광 숙박업, 부분관광 음식적 및 주점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을 포함함
- 관광 지원산업은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문으로 관광관련 관광 연구개발업, 관광공공기관관광 교육서비스업, 관광단체를 포함함
-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을 모두 포함하며 관련 산업까지 포괄하는 산업범위 분류로 NCS 분류상의 관광레저산업의 광범위한 개념의 접근으로 판단됨
 - 관광·레저분야의 산업범위 분류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1순위 88.2%)을 중심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관광산업 특수분류(2순위 47.1%)의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의 높게 나타남(산업범위 분류 필요성: 86.4%)

4) 관광레저분야 산업범위 분류 연계표

- 관광레저분야의 산업범위 분류는 다양한 유형(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NCS분류체계, 관광산업 특수분류)으로 분류되고 있어 NCS 분류체계상 관광레저산업을 포함하며 나아가 광범위적 접근을 통한 확대된 개념의 산업범위 분류가 필요함
- 이에 NCS분류체계상 산업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7개 업종)과 이를 확대 표현한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중심으로 NCS 분류체계상 산업범위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연계하였음

[표 2-5] 관광산업 특수분류와 산업범위 분류 연계표(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NCS,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관광산업 특수분류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포함)				관광레저분야 NCS분류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개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소분류	세분류	산업분류명	
핵심 관광 산업	관광 쇼핑업 (도매업 제외)	면세점	관광면세업*			면세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관광 인증 쇼핑업	1st 인증상점			종합소매업	
	관광 운수업	관광 철도운송업					철도 여객운송업
			관광 도로운송업	시내순환 관광업*			시내버스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관광궤도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산 운송업	
		관광 수상운송업	관광 유람선업*			내항 여객운송업 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	
			크루즈업*	관광레저 서비스	크루즈 운영관리	외항 여객 운송업	
			관광 항공운송업	관광 항공 정기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관광 항공 부정기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관광 숙박업	호텔업	관광 호텔업*	숙박서비스		호텔업
	수상관광 호텔업*			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호텔업			
	가족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호스텔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레저 서비스	리조트 운영관리	휴양 콘도 운영업	

	관광 펜션업*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일반 관광 숙박업	산림휴양림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게스트하우스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레지던스 호텔	숙박서비스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관광 인증 모텔업			여관업
		민박업			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홈스테이)*			민박업
		자동차 야영장업*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한옥체험업*			민박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온천랜드, 관광농원 템플스테이등)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관광음식점 및 주점업	관광 식당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음식점업
	관광 주점업	관광 유흥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관광 극장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 공연장업*			주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주점업
여행사 및 여 행보조 서비스 업	여행업	일반 여행업*	여행서비스		여행사업
		국외 여행업*			여행사업
국내 여행업*				여행사업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관광안내소 안내서비스 숙박예약 등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 기획업*		컨벤션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국제회의 시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 산업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미술관 포함) (시관, 과학관, 천문관 등)			박물관 운영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궁, 전적지, 사적지 등)			사적지 관리 운영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식물원, 동물원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휴양림 등)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관광지 운영업 (천연동굴 등)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레저 서비스	리조트운 영관리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일반유원시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타유원시설업*			기타 오락중 운영업
	농어촌 체험 및 생태 관광업	농어촌 체험학습 등 제공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관광 공연장업*	관광 공연시설 운영업 (극장, 음악당, 연극장 등)			공연시설 운영업
	관광 레저 스포츠시설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 (자동차, 투우장, 경륜, 경마)			경주장 및 동물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연습장 제외)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스키장, 강습, 장비임대 등)			스키장 운영업
		뉘시장 운영업(실내 뉘시장 제외)			뉘시장 운영업
		수상 오락 서비스업(유원시설 제외)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타 분류 안 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운영 (전망탑, 산악오토바이체험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카지노업*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관광레저 서비스	카지노기 획·개발/ 카지노운 영관리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내국인 출입 카지노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상호 의존	관광 건설업	관광 건물 종합건설업	상업 및 휴양 건물 건설업 (관광객 이용시설 건설업)		사무 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기타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관광 산업	관광 토목 건설업	수송시설물 건설업(터미널)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관광용지 개발조성공사			지반조성 건설업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조경 건설업			조경 건설업	
		관광 관련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관광 및 레저 용품 소매업	레저용 의복 소매업	골프의류, 등산복, 수영복 등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기타의복 소매업
		레저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	등산장비 소매, 골프장비 소매 등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관광용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여행용 악세서리, 가방, 트렁크 등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관광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여행자 보험업	여행자 보험			손해 보험업
		금융서비스업	여행자 수표 발행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환전소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나
	레저 장비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카메라 소매, 필름소매 등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레저 및 운송장비 임대업	레저장비 임대업 (스키 임대, 자전거 임대 등)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운송장비 임대업(상업용 보트, 경비행 기, 선박 등)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캠핑카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관광용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일반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부분 적용	관광 비인증 쇼핑업	관광 비인증 쇼핑업	면세점, 인증 관광쇼핑업 제외		소매업: 자동차 제외

관광 산업	부분관광 운송 업	부분관광 육상운송업	도시간 철도 운송업		철도 여객 운송업
			도시내 철도 운송업(지하철)		도시철도 운송업
			관광보조 버스 운송업 (공항버스, 리무진 등)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시내·외 버스 운송업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택시 운송업
		부분관광 수상운송업	수상운송업(낚시선박 임대, 잠수선 운 영 등)		항만 내 여객 운송업
			내항·내륙 여객선 운송업 (유람선 등)		내항 여객 운송업 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
	부분관광 숙박 업	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 갖춘 수련원 및 자연학습장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관광 비인증 모텔업		여관업
	부분관광 음식 점업 및 주점 업	부분관광 음식점업	관광 일반음식점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비알콜 관광 음료점업 (관광지, 관광단지내 커피숍 등)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부분관광 주점업	기타 관광 주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부분관광 공연 장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일반 공연시설 운영업 (나이트클럽, 카바레 제외)		공연시설 운영업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	관광 정보 서비스업	온라인상 여행정보제공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관광지도 및 여행서적 출판업 (여행지도, 가이드북)		일반서적 출판업
		전문기술 서비스업	관광 사진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통역 서비스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기타 관광 서비스업	온천탕(사우나, 찜질방 등)		욕탕업
		그 외 기타 관광서비스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	

		(도어맨, 발렛 주차서비스 등)			비사업
관광 지원 산업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현상 연구소 및 연구원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관광 공공기관	문화 및 관광행정	문화 및 오락시설 관리 등		문화 및 관광행정 기타 산업진흥 행정
		관세행정	관광객들의 관세업무 관련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외무 행정(비자발급 및 영사업무)	비자발급, 관광관련 영사업무		외무행정
		특수경찰 및 공항경비			경찰
	관광 교육서비스업	교육기관	관광 전문 교육기관(대학교 이상)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관광 전문 교육기관(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기타 관광 레저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기타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기관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관광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관광단체	회원단체	관광산업 및 전문가단체 (관광관련 학회, 협회 등)		산업단체 전문가 단체
			여행클럽(레저활동 동호회 등)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관광관련 국내외 기관	주한외국대사관, 주안외국관광청		주한 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주) *는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사업체를 별도 표기함

자료 : KSIC 분류, KECO분류, NCS분류,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3. 소결

- 위의 표의 내용과 같이 관광·레저산업의 산업범위는 분류체계의 특성에 따라 달리 분류되고 있어 분류된 업종별 범위가 다소 상이하여 적용하는데 어려운 현실임
 - 관광·레저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업종별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통계청의 각종 자료(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의 분류체계를 활용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음
 - 이를 위해 2019년의 경우 산업 전반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학계, 연구원, 기업 등) 의견조사를 통한 ISC차원의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개념을 도출함으로써 산업범위 분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음
- 위 표의 기준으로 활용한 관광산업 특수분류의 핵심관광사업 외 다른 분류의 경우 관광·레저산업 개념과 다소 동떨어진 산업이 분류되어 있어, 전문가 의견조사를 비롯한 관련 연구를 통하여 재분류가 요구됨
- 그렇게 재분류된 산업범위의 수치화(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가 요구됨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과 연계하여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 및 관련 기관(교육기관 등)의 가독성 제고가 필요함
 - 현재 관광·레저분야 산업인력현황보고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
- 향후 ISC 정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를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산업현장 및 교육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한 통일된 개념 및 산업범위 분류에 대한 통계조사 작업의 시행이 필요함

제 3 장

관광·레저분야 산업 현황 분석

1. 국내외 관광동향

1) 국내 관광 동향

■ 외국인 관광객 입국 동향

- 2018년 기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15.1% 증가한 1,535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중국의 경우 단체관광금지 조치의 일부 완화로 인하여 479만 명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였으며, 2019년 7월 기준 방한 외래관광객은 9,887,281명으로 나타남
 - 일본 시장의 경우 전년대비 27.6% 증가한 295만 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남북정상회담, 북미 회담 등에 따른 한반도 정세 안정화 및 일본 내 신(新)한류 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³⁾

[표 3-1] 연도별 방한외래 관광객 현황(2013년~2019년 7월)

(단위 : 명,%)

구분	방한 외래 관광객	증감율
2013년	12,175,550	9.3
2014년	14,201,516	16.6
2015년	13,231,651	-6.8
2016년	17,241,823	30.3
2017년	13,335,758	-22.7
2018년	15,346,879	15.1
2019년 7월	1,448,067	15.4
2019년	9,887,281	16.7

[그림 3-1] 최근 3개년 방한 외래 관광객 수 추이

주1: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9). 2019년 7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재인용

3) 하지만 최근 한일관계 악화로 인하여 방한방일 관광객들이 급감하였음

- 대륙별로는 아시아의 경우 1,236만 3,734명(전년대비 17.1% 성장)으로 전체 방한 외국인관광객 중 80.6%를 차지하였으며, 미주지역은 124만 2,792명(전년대비 11.3% 증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바운드 중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구주지역은 100만 3,620명(전년대비 7.2% 성장)으로 6.5%를 차지하였고, 중동지역은 23만 7,715명(전년대비 9.3% 증가)으로 1.6%를 차지하였음⁴⁾
 - 2019년 7월의 아시아주는 1,171,20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0% 증가하였으며, 미주는 122,25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로 증가하였음

[표 3-2] 연도별/대륙별 방한 외래관광객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아시아주	중동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주
2015년	10,799 (-7.8)	168 (8.5)	974 (0.0)	806 (-5.0)	168 (-5.5)	45 (1.1)
2016년	14,464 (33.9)	194 (15.0)	1,116 (14.6)	943 (16.9)	191 (13.4)	57 (28.8)
2017년	10,557 (-27.0)	218 (12.4)	1,117 (0.1)	936 (-0.7)	190 (-0.5)	49 (-14.0)
2018년	12,364 (17.1)	238 (9.3)	1,243 (11.3)	1,004 (7.2)	193 (2.0)	54 (8.9)
2019년 7월	1,171 (18.0)	24 (9.5)	122 (8.4)	95 (7.0)	15 (3.2)	5 (6.0)
2019년	8,086 (19.9)	142 (3.7)	776 (7.1)	612 (4.4)	118 (12.4)	32 (6.3)

주1: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9). 2019년 7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재인용

- 국가별로는 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국(14.9%), 일본(27.6%), 대만(20.5%), 태국(12.1%), 말레이시아(24.5%) 등은 두 자리 수의 급성장세를 보였으며 그 외 홍콩(3.9%), 필리핀(2.6%), 베트남(4.1%) 등의 경우에도 소폭 성장하였음
 -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에도 각각 11.4%, 10.2%의 큰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러시아(11.9%), 영국(3.9%), 독일(5.4%), 프랑스(8.4%) 등 유럽지역 국가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7월의 일본관광객은 24,83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2% 증가하였고, 중국관광객은 519,13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5% 증가하였음

4) 기타 대양주, 아프리카 주, 교포 및 미상 외국인 등 전체 인바운드의 약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 연도별/국가별 방한 외래관광객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러시아
2015년	1,838 (19.4)	5,984 (-2.3)	768 (-0.3)	518 (-19.5)	523 (-6.3)	188 (-12.3)
2016년	2,298 (25.0)	8,068 (34.8)	866 (12.8)	833 (60.8)	651 (24.3)	234 (24.4)
2017년	2,311 (0.6)	4,169 (48.3)	869 (0.3)	926 (11.1)	658 (1.1)	270 (15.6)
2018년	2,949 (27.6)	4,790 (14.9)	968 (11.4)	1,115 (20.5)	684 (3.9)	303 (11.9)
2019년 7월	275 (9.2)	519 (26.5)	97 (7.9)	114 (16.3)	59 (1.1)	28 (0.6)
2019년	1,929 (25.5)	3,322 (28.7)	606 (7.3)	728 (11.6)	387 (-2.2)	197 (8.7)

주) 증감률은 전년동원(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9). 2019년 7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재인용

■ 국민 해외여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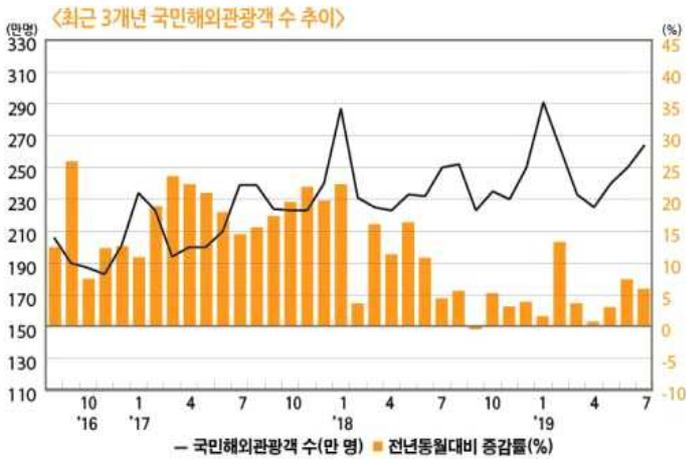
- 국민 해외여행객은 2015년 이후 두 자리 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8년의 경우 2,869만5,983명으로 전년대비 8.3%의 다소 둔화된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⁵⁾
 - 2018년의 경우 짧은 연휴가 많아 일본, 베트남, 동남아 등 단거리 여행객이 증가하였으며, 저가항공의 단거리 국제노선의 증편 및 여가시간의 확대 등으로 인해 해외여행 시장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7월 까지 국민의 해외관광객은 17,650,434명으로 나타났고, 2019년 7월의 경우 2,642,58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5) 이는 현 정부의 국내여행 진흥정책 추진 및 평창올림픽 개최와 7월 이후 일본 태풍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나타남

[표 3-4] 연도별 국민해외관광객 현황(2013년~2019년 7월)

(단위 : 명,%)

구분	국민 해외 관광객	증감율
2013년	14,846,485	8.1
2014년	16,080,684	8.3
2015년	19,310,430	20.1
2016년	22,383,190	15.9
2017년	26,496,447	18.4
2018년	28,695,983	8.3
2019년 7월	2,642,585	5.9
2019년	17,650,434	5.0



[그림 3-2] 최근 3개년 국민해외관광객 수 추이

주) 증감율은 전년동원(기) 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9). 2019년 7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재인용

■ 국민 국내여행 동향

- 2018년 내국인 국내여행 경험률은 89.2%로 나타났으며, 관광여행은 84.0%, 기타여행은 56.5%로 조사되었음

[표 3-5] 연도별 국민 국내여행 동향(2018년)

구분	단위	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여행 경험률	%	89.2	84.0	56.5	
여행 횟수	국내여행	천회	311,153	236,590	74,562
	숙박여행	천회	163,204	128,436	34,767
	당일여행	천회	147,949	108,154	39,795
여행일 수	국내여행	천일	556,890	426,651	130,239
	숙박여행	천일	408,941	318,497	90,445
	당일여행	천일	147,949	108,154	39,795
여행 지출액	국내여행	십억 원	43,133	35,196	7,937
	숙박여행	십억 원	32,447	27,257	5,190
	당일여행	십억 원	10,686	7,939	2,747

주) 2018년을 기점으로 조사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전(~2017년)의 조사 결과와 변경 후(2018년)의 조사결과 간의 비교는 불가함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19). 국민여행조사, 재인용.

- 국내여행⁶⁾ 횟수 총량은 311,153천 회(숙박여행 163,204천 회, 당일여행 147,949천 회)로 나타났는데 관광여행⁷⁾ 횟수 총량은 236,590천 회, 기타여행⁸⁾ 횟수 총량은 74,562천 회로 나타남
- 국내여행 일수는 556,890천 일(숙박여행⁹⁾ 408,941천 일, 당일여행¹⁰⁾ 147,949천 일)로 관광여행 일수는 426,651천 일, 기타여행 일수는 130,239천 일 이었음
- 국내여행 지출액은 43,133십억 원(숙박여행 32,447십억 원, 당일여행 10,686십억 원)이었으며, 관광여행 지출액은 35,196십억 원, 기타여행 지출액은 7,937십억 원으로 나타남

■ 남북왕래 현황

- 2018년도 남북왕래자 수는 19,199명으로 지난해 38명보다 대폭 증가하였고, 북한을 방문한 남한 주민은 9,616명이며,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없었음
-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금강산과 개성 관광이 전면 중단되었고,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2013년 4~5월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출경 제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교류는 중단된 상태였으나, 2018. 4. 27.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총 3차례의 정상회담으로 남북 교류 활성화가 진전됨

[표 3-6] 국민 방북자

구분	입경	출경	계
방북자 수	9,583	9,616	19,199

자료: 법무부, 2018년 12월 31일 기준

■ 관광수지

-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지출에 의한 관광수입은 2014년에는 전년대비 21.3% 증가한 17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의 관광수입은 전년대비 14.6% 증가한 152억 달러로 추산 됨
- 2019년은 1월~7월까지의 관광수입은 101억 달러로 전년대비 17.4% 증가하였음

6) 행정구역상 현 거주지(일상생활권)를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을 의미. 단, 단순 식사, 쇼핑, 영화감상만을 목적으로 행정구역을 벗어나거나, 직장이나 거주지 근처의 산책, 등산, 취미, 교양생활, 스포츠 등의 일상적이며 규칙적인 여가활동을 위해 행정구역을 벗어난 경우는 제외함

7) 관광, 자연감상 등 여가/위락/휴가 목적의 여행을 의미함

8) 출장업무 방문, 단순 귀성/단순 친구친지 방문, 단순 결혼식, 장례식 참여 등 목적의 여행을 의미함

9) 응답자가 거주하는 집이 아닌 곳에서 숙박한 여행(숙박장소 뿐만 아니라, 찜질방, 차안 등 비숙박 장소에서 숙박한 경우도 포함)을 의미함

10) 숙박을 의도하지 않고 떠난 여행(돌아오는 길에 지정을 넘긴 경우도 당일여행으로 포함)을 의미함

- 우리나라 국민의 관광 지출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유지 하였으나 2018년 전년대비 1.6% 증가한 28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9년은 1월~7월까지의 관광지출은 156억 달러로 전년대비 6.5% 감소하였음

[표 3-7] 한국관광수지 현황(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등)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관광수입	1인당 관광 수입(\$) ¹⁾	관광지출	1인당 관광 지출(\$) ¹⁾	관광수지	유학수지
2015년	14,676(-15.3)	1,109	21,528(10.6)	1,115	-6,852	-3,619
2016년	16,754(14.2)	972	23,689(10.0)	1,058	-6,935	-3,423
2017년	13,264(-20.8)	995	27,960(18.0)	1,055	-14,696	-3,628
2018년	15,206(14.6)	991	28,414(1.6)	990	-13,208	-3,446
2019년 7월	1,523(26.4)	1,052	2,386(-0.2)	903	-863	-315
2019년	10,113(17.4)	1,023	15,698(-6.5)	889	-5,585	-1,774

주1: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P는 잠정치

주2: 한국은행 국제수지 과거 시계열(1980.1월~2018.11월) 변경*에 따라 한국관광수지 데이터수정 완료

* ① 해외 역직구(온라인 해외판매) 등 새로운 경제활동의 출현, ② 면세점 상품수입 등 기초자료 신규 입수 등을 반영

1) 1인당 관광수입 = 관광수입/방한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지출 = 관광지출/국민해외관광객, *평균값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9). 2019년 7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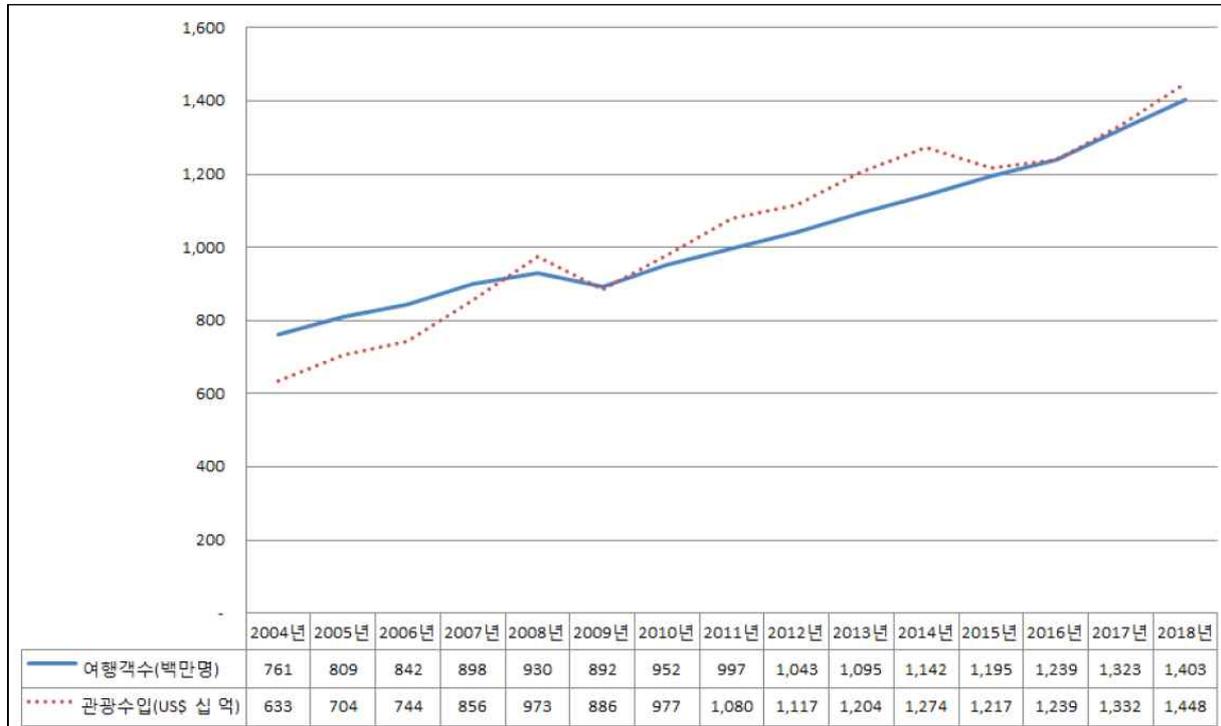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9). 2019년 7월 기준 관광동향분석, 재인용

[그림 3-3] 월별 관광수지 동향

2) 국제관광 동향

■ 세계 동향

- 세계관광기구(UNWTO)의 통계에 따르면, 국제관광객 수가 2012년 최초로 10억 명을 돌파한 이래 2018년에는 전년대비 5.6% 증가한 14억 3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8년 국제관광수입은 1조 4,480억 달러(전년대비 4.2% 증가)로 나타남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세계관광지표(원자료: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토대로 작성(2018년 잠정치)

[그림 3-4] 세계관광 성장추이

■ 대륙별 동향

- 2018년 기준 대륙별 국제관광객 유치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지역은 전년대비 6.1% 증가한 7억 1,34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전체 대륙 1위를 차지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전년대비 6.5% 증가한 3억 4,51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미주대륙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2억 1,73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
 - 아프리카는 6,710만 명(전년대비 7.0% 증가)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중동지역의 외국인관광객은 5,990만 명(전년대비 3.8% 증가)으로 집계됨

[표 3-8] 연도별/지역별 국제 관광객 수 현황

구 분	관광객 수(백만 명)				성장률(%)		구성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7/16	18/17	2018년
전세계	1,195	1,241	1,328	1,403	7.0	5.6	100
유럽	604.5	619.7	672.5	713.4	8.5	6.1	50.9
아시아태평양	284.6	306.6	324.0	345.1	5.7	6.5	24.6
미주	194.1	201.3	210.8	217.3	4.7	3.1	15.5
아프리카	53.5	57.8	62.7	67.1	8.5	7.0	4.8
중동	58.3	55.5	57.7	59.9	4.1	3.8	4.3

주1: 성장률은 자국화폐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2018년 잠정치)

자료: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Vol.17, May 2019)

[표 3-9] 연도별/지역별 관광수입 현황

구 분	관광 수입(십억 달러(US\$))		성장률(%)		구성비(%)
	2017년	2018년	17/16	18/17	2018년
전세계	1,346	1,448	5.2	4.2	100
유럽	519.1	570.6	7.5	5.1	39.4
아시아태평양	396.0	432.9	4.3	6.7	29.9
미주	325.6	333.1	0.9	0.2	23.0
아프리카	36.5	38.5	8.0	1.3	2.7
중동	68.4	72.6	14.6	3.1	5.0

주1: 성장률은 자국화폐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2018년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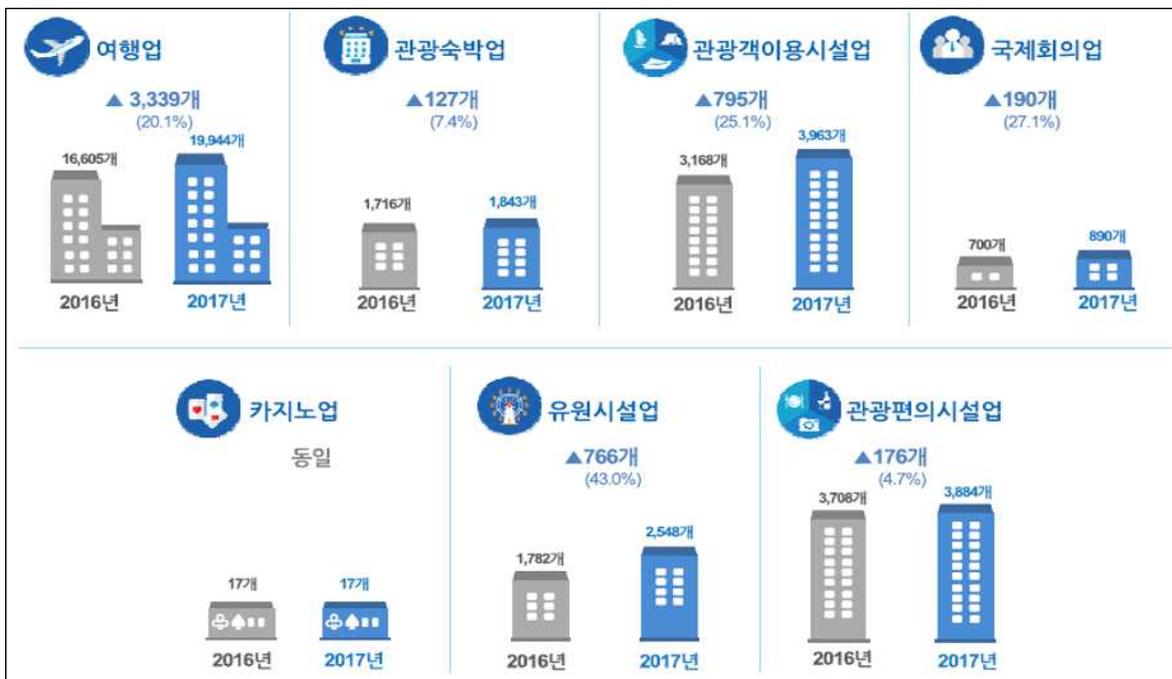
자료: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Vol.17, May 2019)

2. 관광레저산업 현황¹⁾

1)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현황

가. 연도별 사업체 현황

- 관광레저산업 사업체 수는 최근 5년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전국의 관광레저분야 사업체 수는 33,089개로 전년 대비 19.5%가 증가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5] 업종별 관광사업체 현황(2017년 기준)

- 업종별로 보면, 전체 사업체 중 여행업이 19,944개(6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 3,963개(12.0%), 관광편의시설업 3,884개(11.7%), 유원시설업 2,548개(7.7%), 관광숙박업 1,843개(5.6%), 국제회의업 890개(2.7%), 카지노업 17개(0.1%)의 순임

11)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2018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참조 후 재작성 함

[표 3-10] 연도별 사업체 수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개소,%)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율
여행업	11,722 (63.6)	12,854 (61.9)	14,607 (61.2)	16,605 (60.0)	19,944 (60.3)	20.1
관광숙박업	1,074 (5.8)	1,278 (6.2)	1,503 (6.3)	1,716 (6.2)	1,843 (5.6)	7.4
관광객이용시설업	385 (2.1)	336 (1.6)	1,213 (5.1)	3,168 (11.4)	3,963 (12.0)	25.1
국제회의업	508 (2.8)	677 (3.3)	619 (2.6)	700 (2.5)	890 (2.7)	27.1
카지노업	16 (0.1)	17 (0.1)	17 (0.1)	17 (0.1)	17 (0.1)	-
유원시설업	358 (1.9)	593 (2.9)	1,060 (4.4)	1,782 (6.4)	2,548 (7.7)	43.0
관광편의시설업	4,378 (23.7)	5,014 (24.1)	4,855 (20.3)	3,708 (13.4)	3,884 (11.7)	4.7
전 체	18,441 (100.0)	20,769 (100.0)	23,874 (100.0)	27,696 (100.0)	33,089 (100.0)	19.5

주1: 관광사업체 특성상 진출입이 잦고, 2017년 기준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사업체임에도 명부에 누락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를 감안하여 본 조사 전 소재지가 불명확하거나 종사자 장기부재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던 일부 사업체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최종 모집단 포함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관광사업체 수를 구축함

주2: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세부 업종인 일반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5. 1. 29.)에 의해 2015년 기준 조사부터 조사대상으로 추가되었음

주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세부 업종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6. 3. 22.)에 의해 2016년 기준조사부터 관광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이동하였음

주4: 관광편의시설업의 관광면세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6. 3. 22.)에 의해 2016년 기준 조사부터 조사대상으로 추가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나. 지역별 사업체 현황

- 사업체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1,984개(36.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4,313개(13.0%), 제주 2,182개(6.6%), 부산 1,972개(6.0%) 등의 순임

[표 3-11] 지역별 관광사업체 현황

(단위 : 개,%)

구 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여행업	19,944 (100.0)	9,152 (45.9)	1,250 (6.3)	689 (3.5)	499 (2.5)	513 (2.6)	462 (2.3)	231 (1.2)	58 (0.3)	2,199 (11.0)	269 (1.3)	382 (1.9)	400 (2.0)	621 (3.1)	565 (2.8)	531 (2.8)	707 (3.5)	1,386 (6.9)
관광 숙박업	1,843 (100.0)	397 (21.5)	147 (8.0)	26 (1.4)	126 (6.8)	15 (0.8)	20 (1.1)	13 (0.7)	0 (0)	156 (8.5)	133 (7.2)	32 (1.7)	41 (2.2)	50 (2.7)	105 (5.7)	73 (4.0)	104 (5.6)	406 (22.0)
관광객 이용시설업	3,963 (100.0)	1,054 (26.6)	139 (3.5)	49 (1.2)	130 (33)	28 (0.7)	12 (0.3)	42 (1.1)	3 (0.1)	581 (14.7)	480 (12.1)	159 (4.0)	181 (4.6)	256 (6.5)	160 (4.0)	286 (7.2)	275 (6.9)	129 (3.3)
국제 회의업	890 (100.0)	544 (61.1)	47 (5.3)	30 (3.4)	24 (2.7)	24 (2.7)	21 (2.4)	8 (0.9)	5 (0.6)	38 (4.3)	30 (3.4)	11 (1.2)	5 (0.6)	17 (1.9)	3 (0.3)	19 (2.1)	36 (4.0)	29 (3.3)
카지노업	17 (100.0)	3 (17.6)	2 (11.8)	1 (5.9)	1 (5.9)	-	-	-	-	-	2 (11.8)	-	-	-	-	-	-	8 (47.1)
유원 시설업	2,548 (100.0)	235 (9.2)	226 (8.9)	99 (3.9)	94 (3.7)	44 (1.7)	84 (3.3)	73 (2.9)	17 (0.7)	647 (25.4)	115 (4.5)	87 (3.4)	132 (5.2)	78 (3.1)	138 (5.4)	154 (6.0)	263 (10.3)	64 (2.5)
관광편의 시설업	3,884 (100.0)	600 (15.4)	161 (4.1)	139 (3.6)	143 (3.7)	36 (0.9)	8 (0.2)	99 (2.5)	6 (0.2)	692 (17.8)	137 (3.5)	48 (1.2)	159 (4.1)	370 (9.5)	403 (10.4)	464 (11.9)	262 (6.7)	159 (4.1)
전체	33,089 (100.0)	11,984 (36.2)	1,972 (6.0)	1,033 (3.1)	1,016 (3.1)	660 (2.0)	607 (1.8)	465 (1.4)	89 (0.3)	4,313 (13.0)	1,165 (3.5)	719 (2.2)	918 (2.8)	1,391 (4.2)	1,373 (4.1)	1,556 (4.7)	1,646 (5.0)	2,182 (6.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다. 업종별 사업체 매출액 현황

- 업종별 사업체의 연간 총 매출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다 201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업종별 사업체 매출액 현황은 2017년 기준 25조 7,359억 원으로 전년대비(25조 360억 원)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숙박업의 매출액이 8조 4,11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행업(8조 1,134억 원), 카지노업(2조 7,303억 원), 유원시설업(2조 333억 원), 관광편의시설업(1조 8,893억 원), 국제회의업(1조 7,715억 원), 관광객이용시설업(1조 1,039억 원)의 순임
- 2016년도에 비해 매출액이 감소한 업종은 카지노업(6.0% 감소)과 국제회의업(3.6% 감소)이며, 그 외 5개 업종의 매출액은 증가하였음
 - 특히 관광객이용시설업과 관광편의시설업의 증가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3-12] 업종별 관광사업체 매출액 추이(2013년~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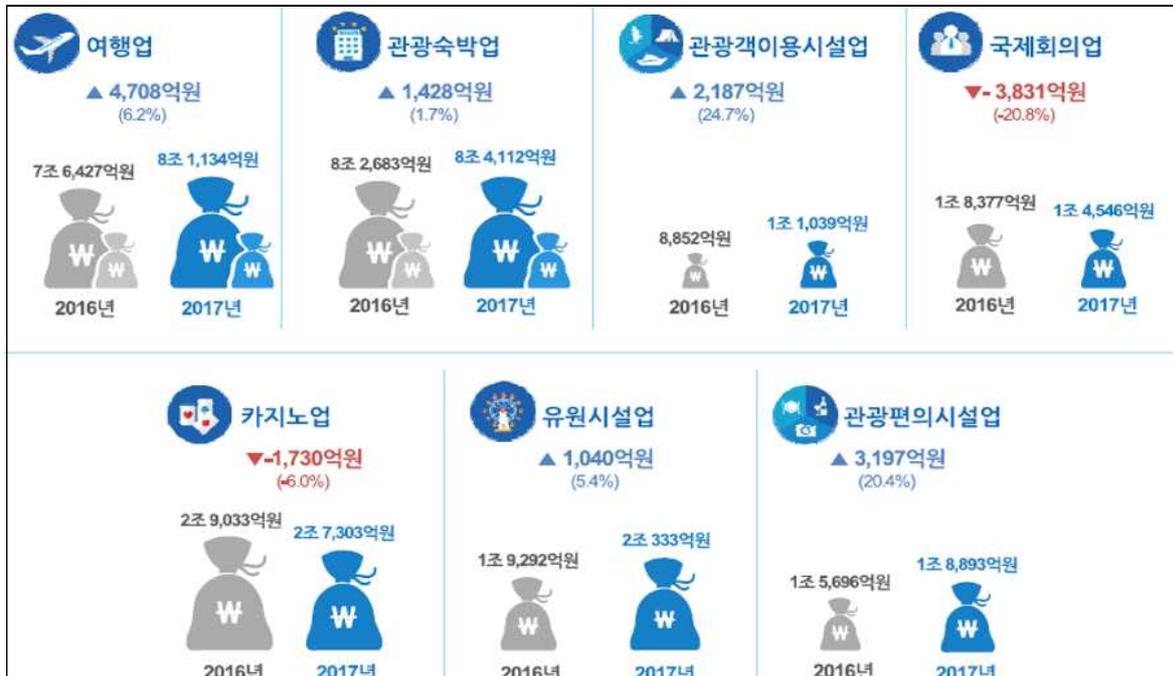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7년 1개 사업체 평균매출액 (16년 대비 증감액)
여행업	5,798,802 (24.9)	5,321,988 (23.6)	6,472,575 (29.0)	7,642,672 (30.5)	8,113,436 (31.5)	421(-39)
관광숙박업	7,085,528 (30.4)	7,930,628 (35.1)	7,859,586 (35.2)	8,268,323 (3.0)	8,411,162 (32.7)	4,564(-254)
관광객 이용시설업	2,166,797 (9.3)	814,120 (3.6)	789,116 (3.5)	885,160 (3.5)	1,103,859 (4.3)	279(0)
국제 회의업	2,408,318 (10.3)	2,442,369 (10.8)	1,760,254 (7.9)	1,837,698 (7.3)	1,454,581 (5.7)	1,634(-991)
카지노업	2,631,044 (11.3)	2,799,221 (12.4)	2,804,413 (12.5)	2,903,309 (11.6)	2,730,339 (10.6)	160,608(-10,175)
유원시설업	1,324,103 (5.7)	1,498,173 (6.6)	1,538,658 (6.9)	1,929,240 (7.7)	2,033,276 (7.9)	798(-285)
관광편의 시설업	1,874,445 (8.0)	1,760,749 (7.8)	1,133,617 (5.1)	1,569,612 (6.3)	1,889,285 (7.3)	486(63)
전 체	23,289,037 (100.0)	22,567,248 (100.0)	22,358,220 (100.0)	25,036,015 (100.0)	25,735,937 (100.0)	778(-126)

주1: 관광편의시설업의 세부 업종이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6. 3. 22.)에 의해 2016년 기준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이동 포함됨

주2: 관광편의시설업의 관광면세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6. 3. 22.)에 의해 2016년 기준 조사부터 조사대상으로 추가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6] 업종별 관광사업체 매출액 현황(2017년 기준)

2) 사업체 종사자 현황

가. 연도별 종사자 현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전국 관광사업체의 총 종사자 수는 280,270명이며, 이 중 여행업이 107,20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관광숙박업(71,769명), 관광편의시설업(28,998명), 유원시설업(27,561명), 관광객이용시설업(25,535명), 국제회의업(14,457명), 카지노업 (7,033명) 등의 순임
 - 관광사업체 총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7.0%인 18,292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세부 업종의 모집단 수 증가 영향으로 종사자 수가 2016년에 비해 46.6% 증가하였음
- 2017년 사업체 1개소당 평균 종사자 수는 8.5명으로 전년 대비 1.0명 감소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카지노업의 1개소 평균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122.5명 감소), 관광숙박업(4.0명 감소), 유원시설업(2.5명 감소) 등 관광객이용시설업과 관광편의시설업을 제외한 5개 업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3] 연도별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율 (`16년 대비)	1개 사업체 평균종사자수 (`17년 기준)
여행업	70,574 (31.1)	69,400 (30.1)	84,558 (35.9)	98,421 (37.6)	107,209 (37.9)	8.9	5.4
관광 숙박업	63,899 (28.1)	67,465 (29.3)	70,305 (29.8)	73,631 (28.1)	71,769 (25.4)	-2.5	38.9
관광객 이용시설업	13,528 (6.0)	10,671 (4.6)	11,065 (4.7)	17,421 (6.6)	25,535 (9.0)	46.6	6.4
국제 회의업	14,092 (6.2)	17,330 (7.5)	15,131 (6.4)	12,596 (4.8)	12,166 (5.1)	-3.4	13.7
카지노업	8,452 (3.7)	8,931 (3.9)	9,418 (4.0)	9,115 (3.5)	7,033 (2.5)	-22.8	413.7
유원 시설업	14,441 (6.4)	17,031 (7.4)	17,224 (7.3)	23,683 (9.0)	27,561 (9.8)	16.4	10.8
관광편의시 설업	42,150 (18.6)	39,506 (17.2)	27,902 (11.8)	27,110 (10.3)	28,998 (10.3)	7.0	7.5
전 체	227,136 (100.0)	230,334 (100.0)	235,603 (100.0)	261,978 (100.0)	280,270 (100.0)	7.0	8.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7] 업종별 관광사업체 종사자 현황(2017년 기준)

나. 지역별 관광사업체 종사자 현황

- 업종별 사업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05,344명으로 전체의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기 30,372명(10.7%), 강원 28,950(10.2%), 제주 19,328명(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14] 지역별 관광사업체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서울	105,344 (37.3)	50,251 (17.8)	27,853 (9.9)	4,368 (1.5)	9,943 (3.5)	2,163 (0.8)	4,499 (1.6)	6,268 (2.2)
부산	15,825 (5.6)	6,275 (2.2)	4,799 (1.7)	389 (0.1)	625 (0.2)	738 (0.3)	920 (0.3)	2,080 (0.7)
대구	6,629 (2.3)	2,640 (0.9)	695 (0.2)	303 (0.1)	322 (0.1)	187 (0.1)	1,313 (0.5)	1,169 (0.4)
인천	7,371 (2.6)	2,247 (0.8)	1,923 (0.7)	328 (0.1)	423 (0.1)	698 (0.2)	300 (0.1)	1,451 (0.5)
광주	3,961 (1.4)	2,223 (0.8)	473 (0.2)	42 (0.0)	247 (0.1)	-	343 (0.1)	632 (0.2)
대전	3,905 (1.4)	1,876 (0.7)	1,143 (0.4)	159 (0.1)	205 (0.1)	-	345 (0.1)	177 (0.1)
울산	2,564 (0.9)	806 (0.3)	306 (0.1)	133 (0.0)	27 (0.0)	-	497 (0.2)	794 (0.3)
세종	434 (0.2)	185 (0.1)	-	20 (0.0)	89 (0.0)	-	51 (0.0)	89 (0.0)
경기	30,372 (10.7)	11,324 (4.0)	3,548 (1.3)	3,122 (1.3)	680 (0.2)	-	5,219 (1.8)	6,478 (2.3)
강원	28,950 (10.2)	1,535 (0.5)	13,391 (4.7)	8,359 (4.7)	285 (0.1)	1,580 (0.6)	2,891 (1.0)	910 (0.3)
충북	5,508 (1.9)	2,448 (0.9)	1,094 (0.4)	1,086 (0.4)	74 (0.0)	-	536 (0.2)	270 (0.1)
충남	8,068 (2.9)	2,860 (1.0)	1,162 (0.4)	841 (0.4)	11 (0.0)	-	2,320 (0.8)	874 (0.3)
전북	9,018 (3.2)	4,826 (1.7)	899 (0.3)	783 (0.3)	335 (0.1)	-	656 (0.2)	1,519 (0.5)
전남	10,361 (3.7)	3,200 (1.1)	1,781 (0.6)	1,347 (0.6)	6 (0.0)	-	2,743 (1.0)	1,284 (0.5)
경북	11,880 (4.2)	4,138 (1.5)	2,823 (1.0)	1,493 (1.0)	281 (0.1)	-	1,770 (0.6)	1,374 (0.5)
경남	13,043 (4.6)	5,480 (1.9)	2,140 (0.8)	1,004 (0.8)	685 (0.2)	-	2,152 (0.8)	1,582 (0.6)
제주	19,328 (6.8)	4,895 (1.7)	7,738 (2.7)	1,757 (2.7)	219 (0.1)	1,667 (0.6)	1,006 (0.4)	2,047 (0.7)
전체	280,270 (100.0)	107,209 (37.9)	71,769 (25.4)	25,535 (9.0)	12,166 (4.3)	7,033 (2.5)	27,561 (9.8)	28,998 (10.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다. 고용형태별¹²⁾ 종사자 현황

- 2017년 관광사업체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 수가 201,0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53,289명), 자영업자(13,798명), 기타 종사자(7,080명), 무급가족종사자(5,075명)의 순임
- 전체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1.7%로 전년 대비 2.3%p(전년 전체의 7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5]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 종사자
여행업	107,209 (100.0)	4,401 (4.1)	645 (0.6)	89,831 (83.8)	8,475 (7.9)	3,857 (3.6)
관광숙박업	71,769 (100.0)	972 (1.4)	308 (0.4)	55,809 (77.8)	13,156 (18.3)	1,523 (2.1)
관광객이용시설업	25,535 (100.0)	3,023 (11.8)	1,710 (6.7)	11,177 (43.8)	9,297 (36.4)	330 (1.3)
국제회의업	12,166 (100.0)	67 (0.5)	-	10,443 (85.8)	1,594 (13.1)	62 (0.5)
카지노업	7,033 (100.0)	-	-	6,622 (94.2)	411 (5.8)	-
유원시설업	27,561 (100.0)	2,011 (7.3)	587 (2.1)	10,900 (39.5)	13,871 (50.3)	191 (0.7)
관광편의시설업	28,998 (100.0)	3,324 (11.5)	1,826 (6.3)	16,246 (56.0)	6,486 (22.4)	1,116 (3.8)
전체	280,270 (100.0)	13,798 (4.9)	5,075 (1.8)	201,028 (71.7)	53,289 (19.0)	7,080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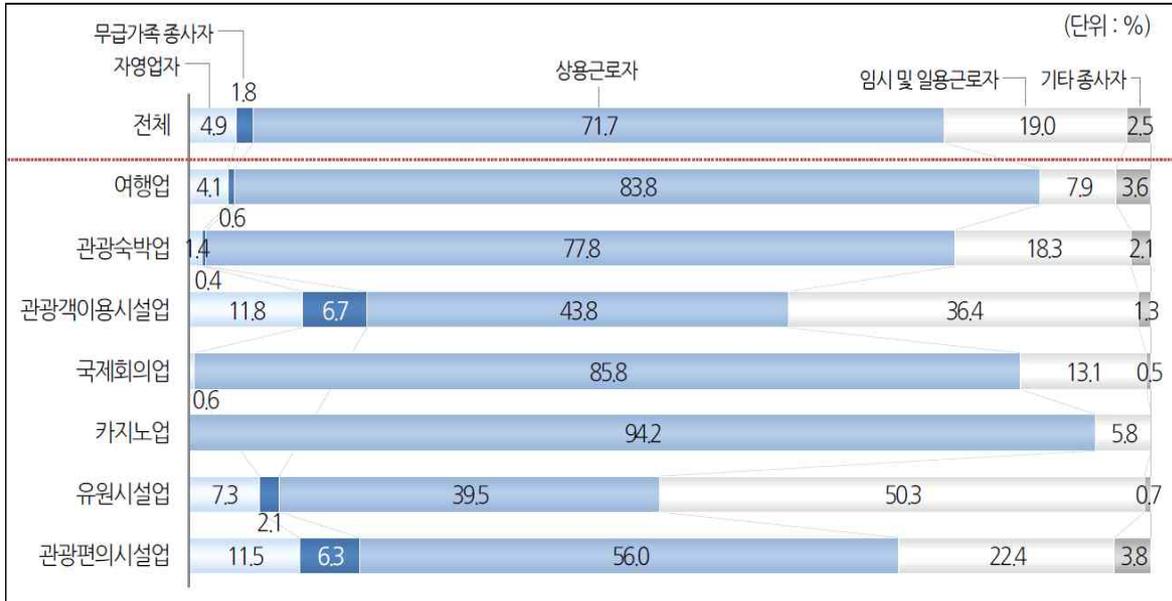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 업종별로 살펴보면 여행업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83.8%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숙박업은 상용근로자 비율이 전체의 77.8%, 관광객이용시설업¹³⁾은 상용근로자 비율이 전체의 43.8%, 국제회의업은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85.8%, 카지노업 상용근로자 비율이 전체의 94.2%, 관광편의시설업 상용근로자 비율이 전체의 56.0%로 높게 나타남
- 하지만 유원시설업의 경우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50.3%로 높게 나타나 유원시설업 근로자 대상의 실태조사가 요구됨(비정규직 등)

12) 고용형태 구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류체계 적용

- 자영업자: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 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
- 무급가족 종사자: 자영업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정상근로시간의 1/3이상 업무에 종사하며 임금 또는 급여를 받지 않는 자
- 상용근로자: 고용주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었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1년 이상 고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자
-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주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었거나 1일 단위로 고용된 자
- 기타 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주로 실적급, 수수료 등을 받고 종사하는 자

1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경우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역시 전체의 36.4%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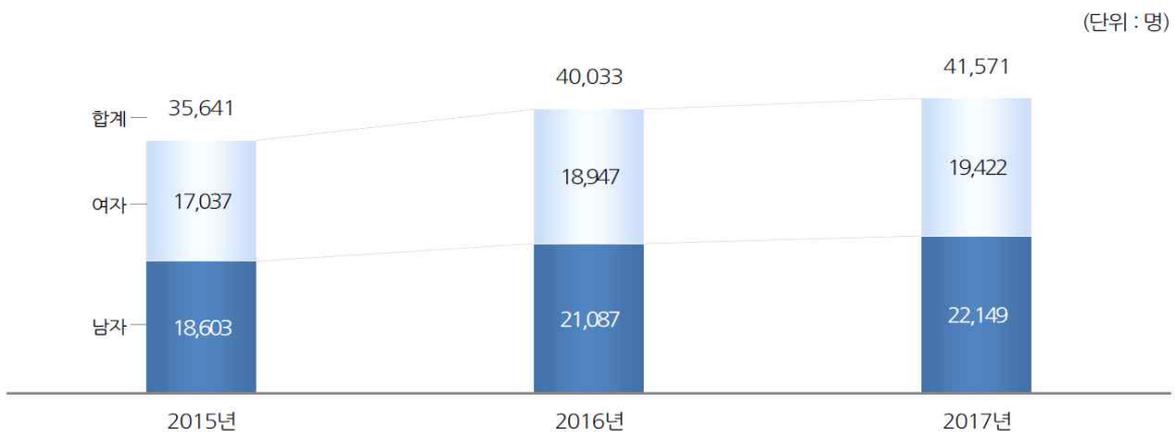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8] 업종별·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구성비(2017년 기준)

라. 신규채용 및 이직률 현황¹⁴⁾

■ 관광사업체 업종별 신규 채용자 현황

-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신규 채용자 수는 41,571명으로, 전년 대비 3.8%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9] 관광사업체 신규 채용자 수 추이(최근 3년)

14) 고용형태 분류 중 상용근로자 201,028명을 기준으로 함

[표 3-16] 관광사업체 업종별 신규 채용자 수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율
여행업	11,274	8,337	10,442	13,314	15,492	16.4
관광숙박업	11,748	12,612	11,934	13,293	15,235	14.6
관광객이용시설업	2,823	1,996	1,669	1,188	2,038	71.5
국제회의업	3,336	3,320	2,380	2,307	2,336	1.3
카지노업	1,105	930	1,144	753	775	2.9
유원시설업	2,315	2,265	2,514	2,532	2,318	-8.5
관광편의시설업	11,137	9,202	5,557	6,646	3,377	-49.2
전 체	43,738	38,661	35,641	40,033	41,571	3.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2018).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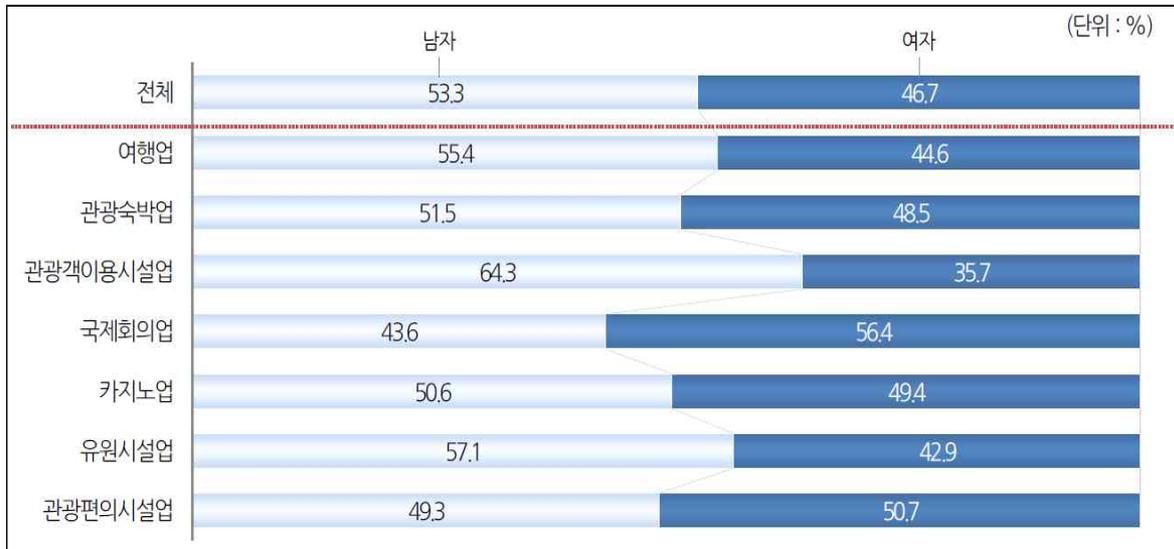
- 성별 신규 채용자 증감률을 살펴보면, 여자보다 남자 채용자 수 증가가 더 컸고,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컸던 관광객이용시설업에서 신규 채용자 수 증가율 또한 가장 크게 나타남

[표 3-17] 관광사업체 업종별·성별 신규 채용자 추이(2017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신규 채용자 수		
	전체	남자	여자
여행업	15,492 (100.0)	8,586 (55.4)	6,906 (44.6)
관광숙박업	15,235 (100.0)	7,853 (51.5)	7,382 (48.5)
관광객이용시설업	2,038 (100.0)	1,310 (64.3)	728 (35.7)
국제회의업	2,336 (100.0)	1,019 (43.6)	1,317 (56.4)
카지노업	775 (100.0)	392 (50.6)	383 (49.4)
유원시설업	2,318 (100.0)	1,324 (57.1)	995 (42.9)
관광편의시설업	3,377 (100.0)	1,664 (49.3)	1,712 (50.7)
전 체	41,571 (100.0)	22,149 (53.3)	19,422 (46.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10] 업종별·성별 신규 채용자 수 구성비(2017년 기준)

■ 이직률 현황

-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중 이직자 수는 33,302명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이 중 남자는 17,711명(53.2%), 여자는 15,591명(46.8%)으로 조사됨
-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편의시설업과 유원시설업의 이직자 수 감소율이 각각 56.4%, 25.6%로 다소 높았고, 카지노업 및 국제회의업 또한 이직자 수가 감소한 반면, 여행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의 이직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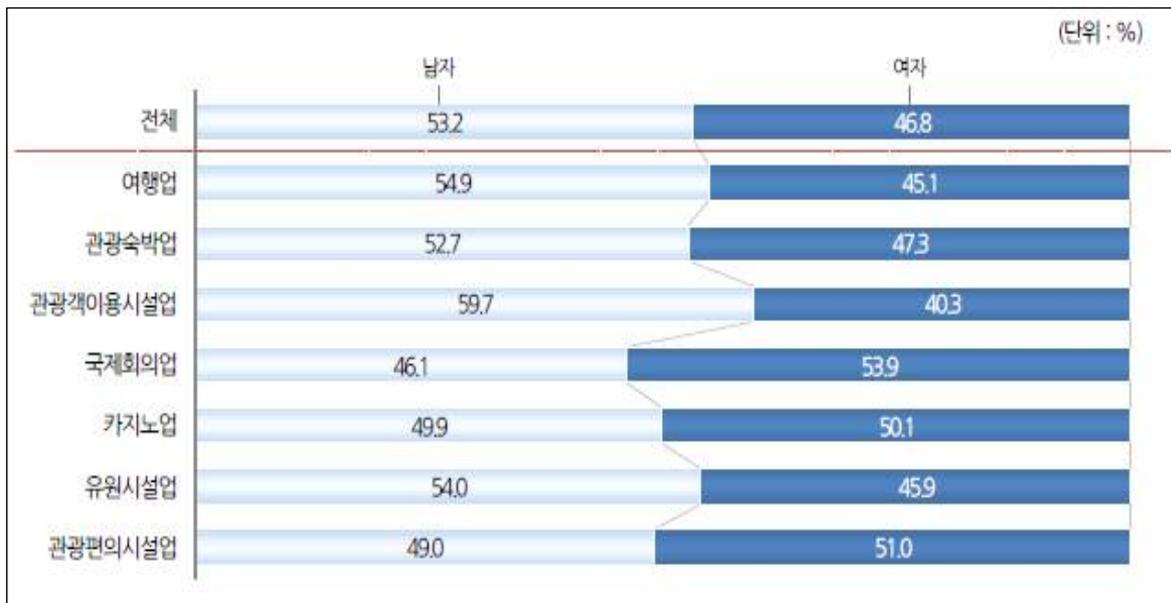
[그림 3-11] 관광사업체 이직자 성별 구성비(최근 3년)

[표 3-18] 관광사업체 업종별 이직자 수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율
여행업	6,520	6,392	7,772	10,581	12,721	20.2
관광숙박업	9,467	11,276	11,856	12,269	12,598	2.7
관광객이용시설업	1,471	1,431	1,304	1,030	1,188	15.3
국제회의업	2,713	2,402	1,990	1,726	1,653	14.3
카지노업	859	957	1,210	990	884	-10.7
유원시설업	1,677	1,637	1,887	2,281	1,698	-25.6
관광편의시설업	7,461	7,985	3,860	5,874	2,561	-56.4
전 체	30,168	32,080	29,880	34,752	33,302	-4.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12] 업종별 이직자수 구성비(2017년 기준)

[표 3-19] 관광사업체 업종별·성별 이직자 수(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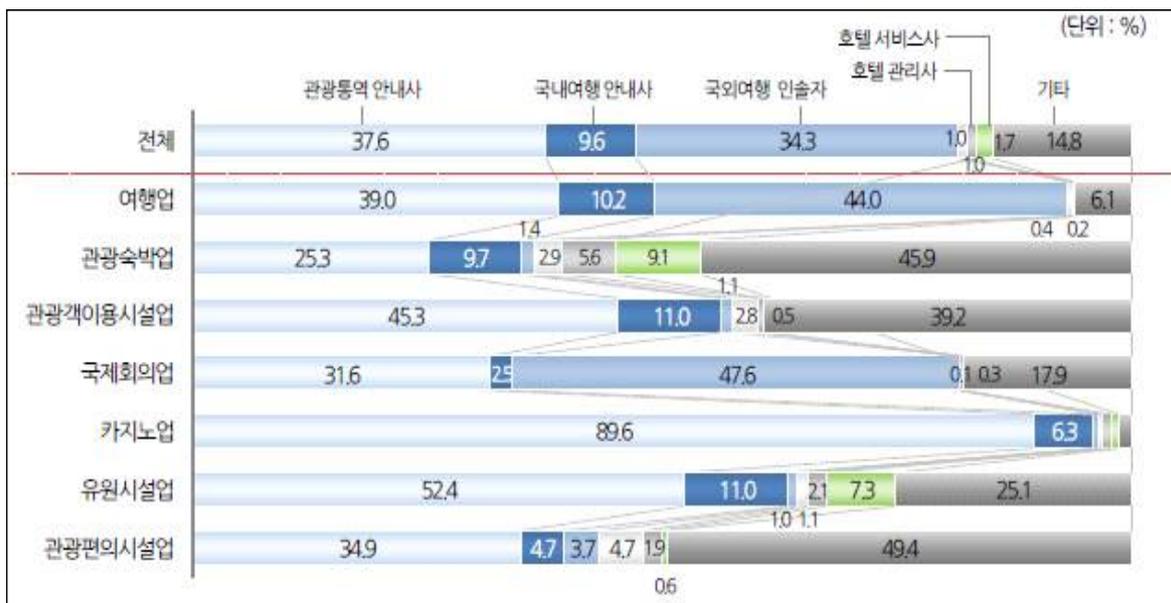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이직자 수		
	전체	남자	여자
여행업	12,598(100.0)	6,988(54.9)	5,732(45.1)
관광숙박업	1,188(100.0)	6,640(52.7)	5,959(47.3)
관광객이용시설업	1,972(100.0)	709(59.7)	479(40.3)
국제회의업	884(100.0)	896(45.4)	1,076(54.6)
카지노업	1,698(100.0)	441(49.9)	443(50.1)
유원시설업	2,561(100.0)	917(54.0)	780(45.9)
관광편의시설업	33,622(100.0)	1,254(49.0)	1,307(51.0)
전 체	12,721(100.0)	17,846(53.1)	15,776(46.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라. 자격증 보유현황

-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종사자 중 자격증을 보유한 종사자 수는 총 32,865명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13] 업종별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2017년 기준)

- 업종별로 국제회의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카지노업 업종의 자격증 수가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 반면, 관광숙박업과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의 경우 종사자의 자격증 수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음
 - 관광숙박업의 경우 2016년 6,786명(-28.6%), 유원시설업 2016년 1,091명(-26.7%), 관광편의시설업 2016년 1,102명(-12.0%)으로 나타남

[표 3-20] 업종별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2017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전체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호텔경 영사	호텔관 리사	호텔서 비스사	기타
여행업	23,799 (100.0)	9,283 (39.0)	2,434 (10.2)	10,473 (44.0)	104 (0.4)	-	48 (0.2)	1,457 (6.1)
관광 숙박업	4,847 (100.0)	1,224 (25.3)	471 (9.7)	70 (1.4)	142 (2.9)	273 (5.6)	442 (9.1)	2,225 (45.9)
관광객 이용시설업	645 (100.0)	292 (45.3)	71 (11.0)	7 (1.1)	18 (2.8)	3 (0.5)	-	253 (39.2)
국제 회의업	1,410 (100.0)	446 (31.6)	35 (2.5)	671 (47.6)	2 (0.1)	4 (0.3)	-	252 (17.9)
카지노업	395 (100.0)	354 (89.6)	25 (6.3)	2 (0.5)	2 (0.5)	4 (1.0)	3 (0.8)	5 (1.3)
유원 시설업	800 (100.0)	419 (52.4)	88 (11.0)	8 (1.0)	9 (1.1)	17 (2.1)	58 (7.3)	201 (25.1)
관광편의 시설업	970 (100.0)	339 (34.9)	46 (4.7)	36 (3.7)	46 (4.7)	18 (1.9)	6 (0.6)	479 (49.4)
전체	32,865 (100.0)	12,357 (37.6)	3,170 (9.6)	11,266 (34.3)	324 (1.0)	319 (1.0)	556 (1.7)	4,872 (14.8)

주1: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은 기존 기타 항목에 포함 조사되었으나, 2016년 기준 조사부터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3) 관광사업체 영업현황

가. 연간 영업개월 수¹⁵⁾

- 2017년 기준 10개월 이상 영업을 하는 관광사업체는 90.6%(29,991개)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영업개월 수는 11.4개월로 전년과 동일함
 - 업종별 연간 영업개월 수를 살펴보면 관광사업 특성상 모든 업종이 10개월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 카지노업은 모든 업체가 10개월 이상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15) 2016년 중 실제로 영업활동을 수행한 개월 수를 말하며 계절적 요인, 노동쟁의 및 기타요인으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함

- 다음으로 국제회의업 98.7%가 10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고, 여행업 94.9%가 10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으며, 관광숙박업 역시 92.2%가 연간 10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14] 사업체 연간 영업개월 수 구성 추이(최근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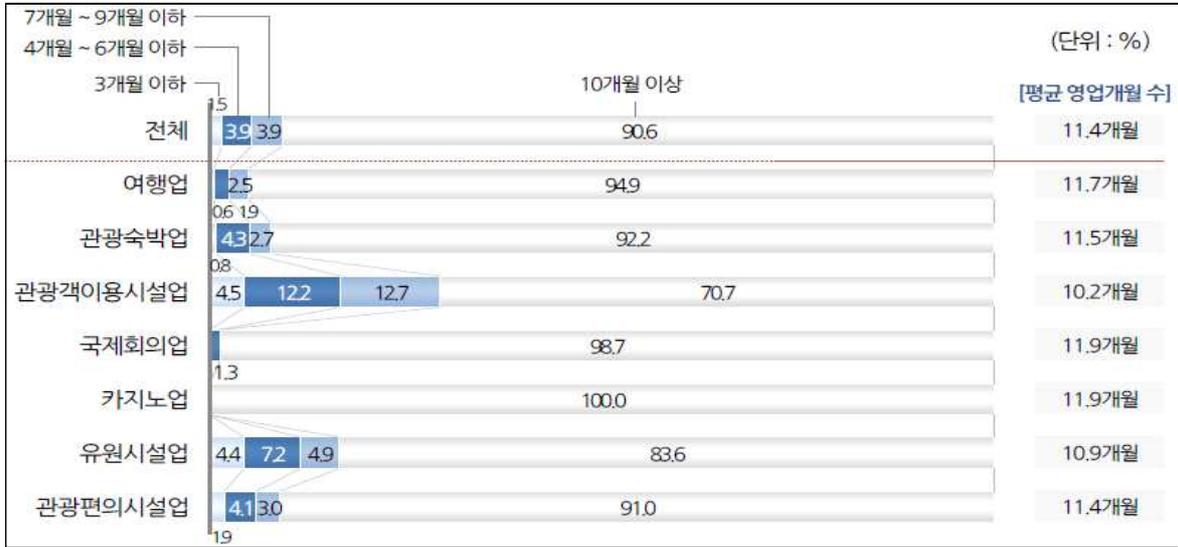
- 최근 3년간 영업개월 수를 살펴보면 3개월 이하가 각각 가장 낮게 나타났고, 10개월 이상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고, 3년 평균영업개월 수는 11.4개월로 동일하게 나타남

[표 3-21] 사업체 업종별 영업개월 수(2017년 기준)

(단위 : 개,%)

구분	전체	3개월 이하	4개월~6개월 이하	7개월~9개월 이하	10개월 이상	연평균 영업개월 수
여행업	19,944 (100.0)	126 (0.6)	378 (1.9)	507 (2.5)	18,933 (94.9)	11.7
관광숙박업	1,843 (100.0)	14 (0.8)	79 (4.3)	50 (2.7)	1,699 (92.2)	11.5
관광객이용시설업	3,963 (100.0)	177 (4.5)	482 (12.2)	503 (12.7)	2,801 (70.7)	10.5
국제회의업	890 (100.0)	-	12 (1.3)	-	878 (98.7)	11.9
카지노업	17 (100.0)	-	-	-	17 (100.0)	11.9
유원시설업	2,548 (100.0)	112 (4.4)	183 (7.2)	124 (4.9)	2,129 (83.6)	10.9
관광편의시설업	3,884 (100.0)	75 (1.9)	158 (4.1)	117 (3.0)	3,534 (91.0)	11.4
전체	33,089 (100.0)	505 (1.5)	1,292 (3.9)	1,301 (3.9)	29,991 (90.6)	11.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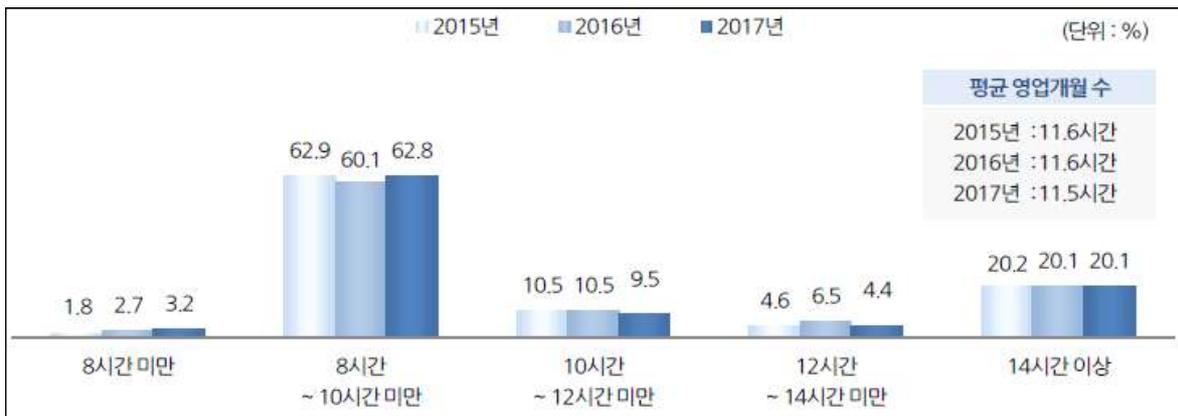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15] 업종별 연간 영업개월 수 구성비(2017년 기준)

나. 1일 평균 영업시간 현황¹⁶⁾

-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의 1일 평균 영업시간은 11.5시간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 평균 영업시간 8시간 미만 비중이 전년 대비¹⁷⁾ 다소 증가한 반면, 12시간 이상 14시간 미만 영업하는 사업체는 전년 대비¹⁸⁾ 비중이 다소 감소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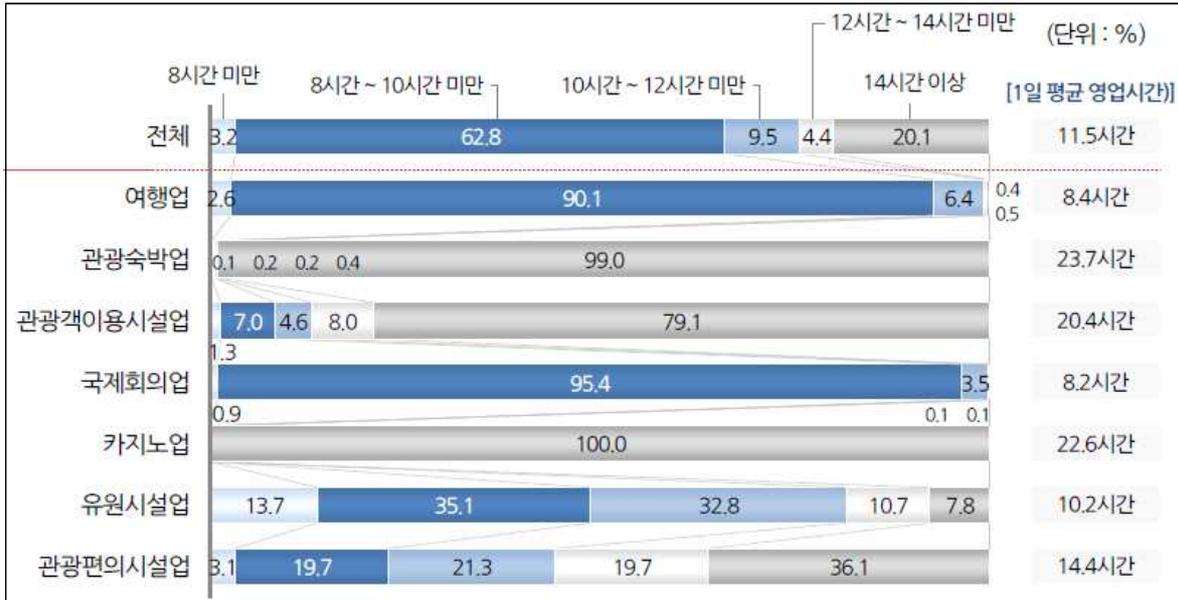
[그림 3-16] 사업체 1일 평균 영업시간 구성비(최근 3년)

16) 2017년 중 정상적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영업활동을 한 1일 평균 시간(사업체의 개점시간에서 폐점시간까지의 영업시간)으로 종사자 개인의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체 입장에서의 영업시간을 의미함

17) 2016년 1일 평균 영업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업체는 745개소로 2017년 40.1%가 증가하였음

18) 2016년 1일 평균 영업시간이 12시간 이상 14시간 미만인 업체는 1,807개소로 2017년 19.0%가 감소하였음

- 업종별 1일 평균 영업시간을 살펴보면 여행업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인 업체가 90.1%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숙박업의 경우 14시간 이상인 업체가 99.0%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객이용시설업 역시 14시간 이상인 업체가 79.1%로 높게 나타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17] 업종별 1일 평균 영업시간 구성비(2017년 기준)

[표 3-22] 사업체 업종별 1일 평균 영업시간

(단위 : 개,%)

구분	전체	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1일 평균 영업시간
전체	33,089 (100.0)	1,044 (3.2)	20,772 (62.8)	3,158 (9.5)	1,464 (4.4)	6,651 (20.1)	11.5
여행업	19,944 (100.0)	517 (2.6)	17,979 (90.1)	1,275 (6.4)	103 (0.5)	70 (0.4)	8.4
관광숙박업	1,843 (100.0)	1 (0.1)	4 (0.2)	4 (0.2)	8 (0.4)	1,825 (99.0)	23.7
관광객이용시설업	3,963 (100.0)	50 (1.3)	278 (7.0)	183 (4.6)	316 (8.0)	3,136 (79.1)	20.4
국제회의업	890 (100.0)	8 (0.9)	849 (95.4)	31 (3.5)	1 (0.1)	1 (0.1)	8.2
카지노업	17 (100.0)	-	-	-	-	17 (100.0)	22.6
유원시설업	2,548 (100.0)	348 (13.7)	894 (35.1)	837 (32.8)	272 (10.7)	198 (7.8)	10.2
관광편의시설업	3,884 (100.0)	120 (3.1)	767 (19.7)	829 (21.3)	765 (19.7)	1,403 (36.1)	14.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 국제회의업의 경우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인 업체가 95.4%로 높게 나타났으며, 카지노업의 경우 모든 업체가 14시간 이상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원시설업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영업하는 업체가 35.1%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편의시설업은 14시간 이상 영업하는 업체가 36.1%로 높게 나타남

다. 월평균 휴무일 수¹⁹⁾

- 2017년 관광사업체의 월 평균 휴무일 수는 4.8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 휴무일이 5일 미만인 사업체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6일 이상인 사업체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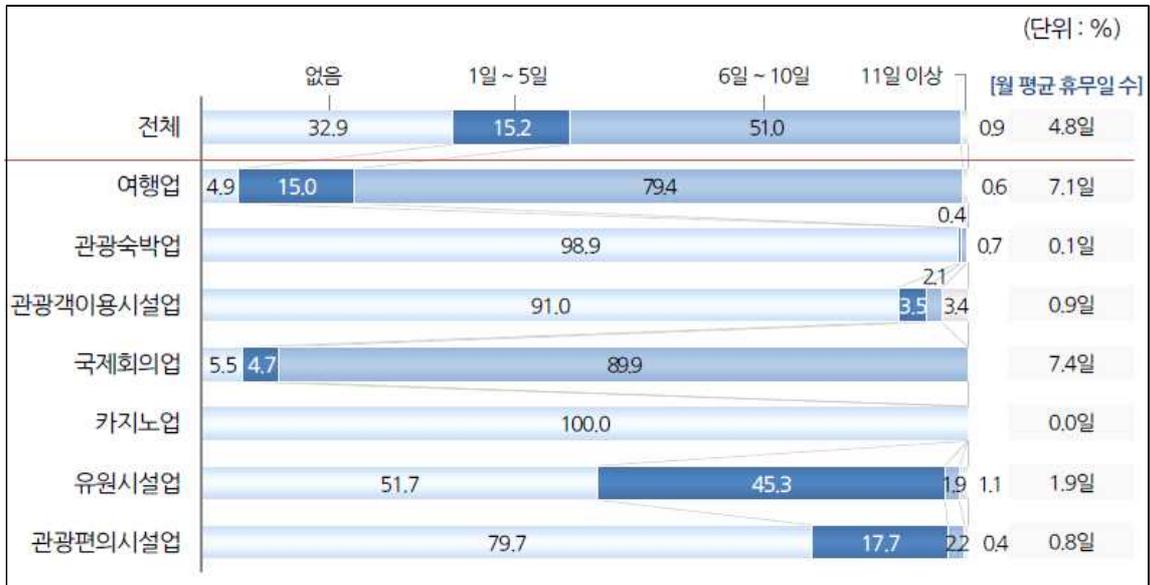
[표 3-23] 사업체 업종별 월 평균 휴무일 수

(단위 : 개,%)

구분	전체	없음	1일-5일	6일-10일	11일 이상	월평균 휴무일 수
전체	33,089 (100.0)	10,892 (32.9)	5,020 (15.2)	16,870 (51.0)	307 (0.6)	4.8
여행업	19,944 (100.0)	984 (4.9)	2,993 (15.0)	15,840 (79.4)	126 (0.6)	7.1
관광숙박업	1,843 (100.0)	1,822 (98.9)	8 (0.4)	12 (0.7)	1 (0.1)	0.1
관광객이용 시설업	3,963 (100.0)	3,607 (91.0)	138 (3.5)	84 (2.1)	135 (3.4)	0.9
국제회의업	890 (100.0)	49 (5.5)	42 (4.7)	800 (89.9)	-	7.4
카지노업	17 (100.0)	17 (100.0)	-	-	-	0.0
유원시설업	2,548 (100.0)	1,317 (51.7)	1,153 (45.3)	49 (1.9)	29 (1.1)	1.9
관광편의시 설업	3,884 (100.0)	3,096 (79.7)	686 (17.7)	85 (2.2)	17 (0.4)	0.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19) 2016년 중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업체의 정상 휴무일을 월평균 기준으로 기입한 자료임(국경일, 창립기념일 등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그림 3-18] 업종별 월평균 휴무일 수 구성비(2017년 기준)

5) 소 결

-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2018년 기준 1,535만 명(15.1%)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국외여행 및 국내여행률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의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관광·레저분야 업종별 사업체수는 2017년 기준 전년대비 19.5%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력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분야별 인력 양성이 요구되어짐
 -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업종은 유원시설업(전년대비 43.0%)으로 나타나 관련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됨에 따라 인력의 양성·향상 방안 모색이 필요함(교육기관 연계, 일학습 병행 등)
- 2017년 기준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관광숙박업으로 나타났지만 전년대비(254백만 원 감소) 감소한 수치이며, 관광편의시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관광산업의 전반적이 어려움을 엿볼 수 있음
- 2017년 기준 업종별 종사자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전년대비 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원시설업의 경우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50.3%로 높게 나타나 실태조사가 필요함

3.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현황²⁰⁾

1) 여행업

- 여행업은 국내의 관광·레저산업 발전의 동맥과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여행업의 종류에는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그리고 국내여행업으로 분류됨
- 1991년 1월 1일부터 여행업의 대외 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여행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행사의 경영개선 유도, 서비스 향상에 의한 신뢰회복, 여행업 전문 인력 양성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가. 사업체 현황

■ 전국 여행업 사업체 수

- 전국 시도별 여행업 등록 현황은 일반여행업 5,648개소, 국외여행업 5,706개소, 국내여행업 2,812개소, 국내·외 여행업 5,778개소로 총 19,944개소가 등록되어 있음(2017년 말 기준)
 -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9,152개소(일반: 3,532개소, 국외: 3,672개소, 국내: 729개소, 국내·외: 1,219개소)로 가장 많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고, 경기도 2,199개소(일반: 506개소, 국외: 681개소, 국내: 308개소, 국내·외: 704개소)순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제주도 1,386개소(일반: 402개소, 국외: 45개소, 국내: 795개소, 국내·외: 144개소)가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고, 다음으로 부산시 1,250개소(일반: 211개소, 국외: 393개소, 국내: 142개소, 국내·외: 504개소)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세종시의 경우 58개소(일반: 10개소, 국외: 28개소, 국내·외: 20개소)로 가장 낮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음

20)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관광사업체의 수치가 상이할 수 있음

[표 3-24] 전국 시·도별 여행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전체
서울시	3,532	3,672	729	1,219	9,152
부산시	211	393	142	504	1,250
대구시	124	97	59	409	689
인천시	127	123	72	177	499
광주시	98	79	64	272	513
대전시	86	112	46	218	462
울산시	34	33	27	137	231
세종시	10	28	0	20	58
경기도	506	681	308	704	2,199
강원도	81	0	2	186	269
충청북도	56	47	61	218	382
충청남도	31	71	62	236	400
전라북도	109	117	79	316	621
전라남도	72	67	150	276	565
경상북도	66	54	124	317	561
경상남도	103	87	92	425	707
제주도	402	45	795	144	1,386
전 체	5,648 (28.3)	5,706 (28.6)	2,812 (14.1)	5,778 (29.0)	19,944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 여행업분야의 관광사업체 수는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전년대비(2016년 16,605개소) 20.1%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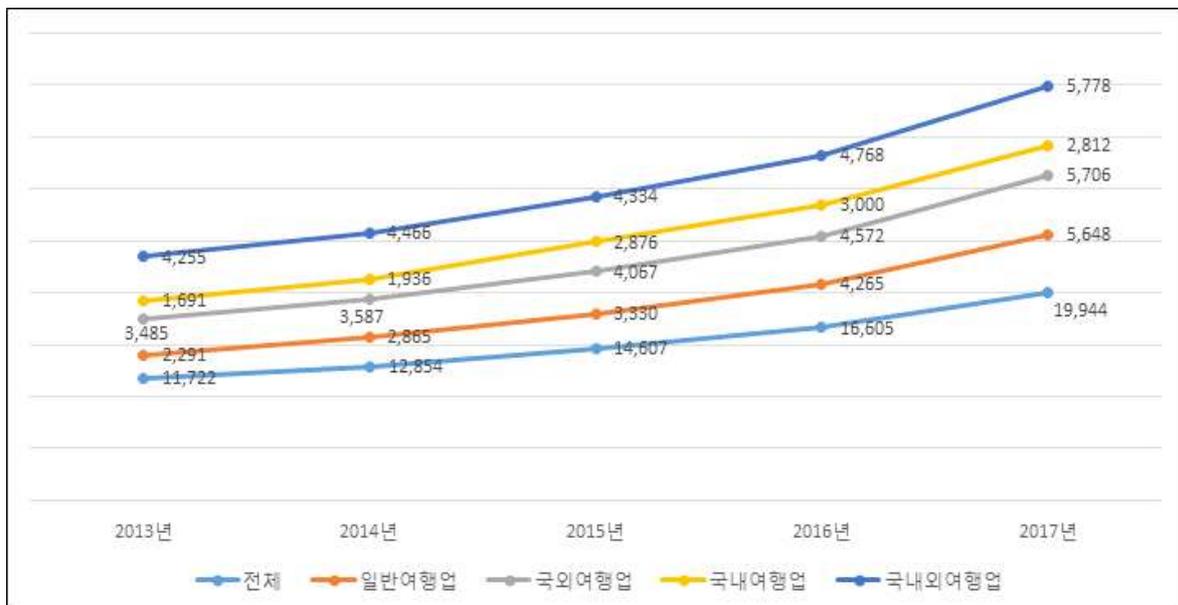
- 일반여행업의 경우 전년대비(2016년 4,265개소) 32.4%가 증가하였고, 국외여행업은 전년대비(2016년 4,572개소) 24.8% 증가하였으며, 국내여행업은 전년대비(2016년 3,000개소) -6.3% 증가하였고, 국내·외 여행업은 전년대비(2016년 4,768개소) 21.2% 증가하였음

[표 3-25] 연도별 여행업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개소,%)

연도	사업체 수				
	전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2013년	11,722	2,291	3,485	1,691	4,255
2014년	12,854	2,865	3,587	1,936	4,466
2015년	14,607	3,330	4,067	2,876	4,334
2016년	16,605	4,265	4,572	3,000	4,768
2017년	19,944	5,648	5,706	2,812	5,778
증감율	20.1	32.4	24.8	-6.3	21.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2018). 연도별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3-19] 연도별 여행업 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 매출액

- 여행업의 2017년 기준 총 매출액은 8조 1,134억 원으로 2016년 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여행업(4조 3,223억 원), 국내·외 여행업(1조 6,634억

원), 국외여행업(1조 5,791억 원), 국내여행업(5,486억 원)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여행업과 국내여행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국외여행업 매출액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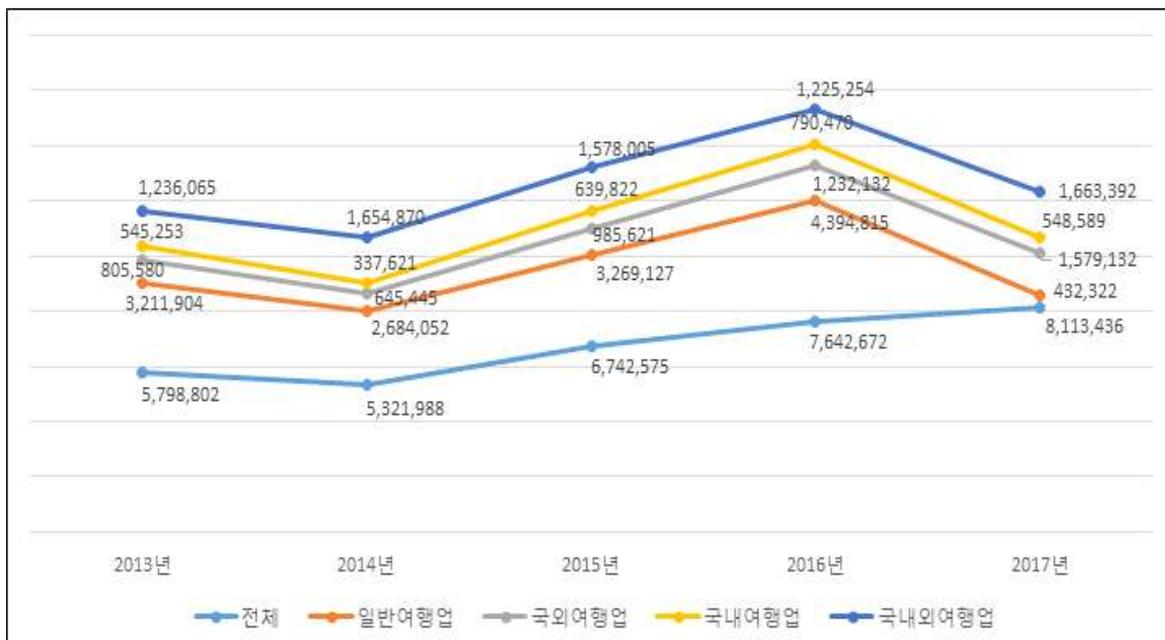
- 일반여행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가 감소하였고, 국외여행업 전년대비 28.2% 증가하였으며, 국내여행업 전년대비 30.6% 감소하였고, 국내·외여행업 전년대비 35.8% 증가하였음

[표 3-26] 연도별 여행업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백만 원,%)

연도	매출액				
	전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2013년	5,798,802	3,211,904	805,580	545,253	1,236,065
2014년	5,321,988	2,684,052	645,445	337,621	1,654,870
2015년	6,742,575	3,269,127	985,621	639,822	1,578,005
2016년	7,642,672	4,394,815	1,232,132	790,470	1,225,254
2017년	8,113,436	432,322	1,579,132	548,589	1,663,392
증감률	6.2	-1.6	28.2	-30.6	35.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3-20] 연도별 여행업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나. 여행업 종사자 현황

■ 연도별 여행업 종사자 수

○ 여행업 종사자 수는 2013년 70,574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전년대비 8.9%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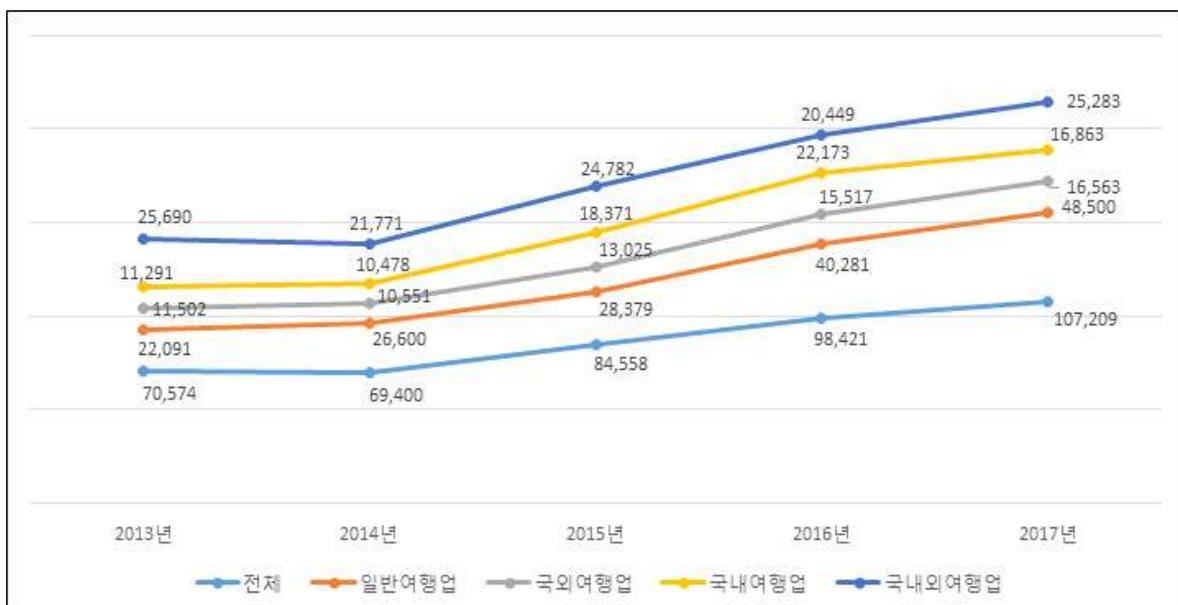
- 여행업은 업종별로 전년대비 증가추세(일반여행업 20.4%, 국외여행업 6.7%, 국내·외여행업 23.6%)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여행업의 경우 전년대비 23.9%가 감소하였음

[표 3-27] 여행업분야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명,%)

연도	종사자 수				
	전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2013년	70,574	22,091	11,502	11,291	25,690
2014년	69,400	26,600	10,551	10,478	21,771
2015년	84,558	28,379	13,025	18,371	24,782
2016년	98,421	40,281	15,517	22,173	20,449
2017년	107,209	48,500	16,563	16,863	25,283
증감율	8.9	20.4	6.7	-23.9	23.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2018).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3-21] 여행업분야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 여행업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은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83.8%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 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여행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38,509명으로 전체의 7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외여행업은 상용근로자가 14,140명(85.4%), 국내여행업 상용근로자 15,173명(90.0%), 국내·외여행업 상용근로자 22,009명(87.1%)으로 나타남

[표 3-28] 여행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기타 종사자
일반여행업	48,500	786	176	38,509	6,369	2,660
국외여행업	16,563	1,592	188	14,140	390	254
국내여행업	16,863	870	77	15,173	544	199
국내·외여행업	25,283	1,154	205	22,009	1,172	744
전체	107,209 (100.0)	4,401 (4.1)	645 (0.6)	89,831 (83.8)	8,475 (7.9)	3,857 (3.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 여행업의 연간 신규채용 현황은 남성이 전체의 55.4%로 나타났고, 여성이 44.6%로 나타남
 - 일반여행업의 경우 여성이 50.1%로 높게 나타났고, 국외여행업은 여성이 75.1%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여행업은 남성이 82.0%, 국내·외여행업은 남성이 61.4%로 높게 나타남
- 여행업의 연간 이직 현황은 남성이 전체의 54.9%로 나타났고, 여성이 45.1%로 나타남
 - 일반여행업의 경우 여성이 50.3%로 높게 나타났고, 국외여행업은 여성이 80.4%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여행업은 남성이 81.3%, 국내·외여행업은 남성이 56.3%로 높게 나타남

[표 3-29] 여행업 분야 종사자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현황

(단위 : 명,%)

구분	연간 신규채용 현황			연간 이직현황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일반여행업	7,725	3,853	3,872	6,340	3,148	3,192
국외여행업	1,811	451	1,360	1,249	245	1,004
국내여행업	3,034	2,488	546	2,826	2,297	529
국내·외여행업	2,922	1,794	1,128	2,306	1,298	1,007
전체	15,492 (100.0)	8,586 (55.4)	6,906 (44.6)	12,721 (100.0)	6,988 (54.9)	5,732 (45.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자격증 보유 현황

- 여행업의 종사자 자격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국외여행인솔자가 전체의 4.0%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광통역안내사(39.0%), 국내여행안내사(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반여행업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가 전체의 62.3%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외여행업은 국외여행인솔자가 77.3%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여행업은 국내여행안내사 48.2%, 국내·외여행업 국외여행인솔자 5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30] 여행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호텔경 영사	호텔관 리사	호텔서 비스사	기타
일반여행업	13,021	8,107	1,015	3,858	7	0	0	35
국외여행업	3,512	540	214	2,714	30	0	0	13
국내여행업	635	8	306	199	0	0	0	122
국내외·여행업	6,631	628	898	3,702	68	0	48	1,287
전체	23,799 (100.0)	9,283 (39.0)	2,434 (10.2)	10,473 (44.0)	104 (0.4)	0	48 (0.2)	1,457 (6.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다. 영업현황

■ 연간 영업개월 수

○ 여행업의 연간 영업개월 수를 살펴보면 10개월 이상이 전체의 9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개월 이하가 0.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연평균 영업 개월 수는 11.7개월로 나타남

- 일반여행업은 10개월 이상이 전체의 94.1%(연평균 개월 수: 11.5개월)로 높게 나타났고, 국외여행업은 10개월 이상이 전체의 96.2%(연평균 개월 수: 11.8개월)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여행업은 10개월 이상이 전체의 93.7%(연평균 개월 수: 11.6개월)로 높게 나타났고, 국내·외여행업은 10개월 이상이 전체의 95.2%(연평균 개월 수: 11.7개월)로 높게 나타남

[표 3-31] 여행업분야 영업개월 수 분포

(단위 : 개, %, 개월)

구분	전체	3개월 이하	4개월~ 6개월 이하	7개월~9개 월 이하	10개월 이 상	연 평균 영 업 개월 수
일반여행업	5,648	70	194	71	5,313	11.5
국외여행업	5,706	17	49	153	5,487	11.8
국내여행업	2,812	9	61	107	2,634	11.6
국내외·여행업	57,798	29	74	175	5,499	11.7
전체	19,944 (100.0)	126 (0.6)	378 (1.9)	507 (2.5)	18,933 (94.9)	11.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1일 평균 영업시간

○ 여행업의 1일 평균 영업시간을 살펴보면 8시간~10시간 미만이 전체의 90.0%로 높게 나타났고, 14시간 이상이 0.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일평균 영업시간은 8.4시간으로 나타남

- 일반여행업은 8시간~10시간 미만이 전체의 92.9%(일평균 영업시간: 8.4시간)로 높게 나타났고, 국외여행업은 8시간~10시간 미만이 전체의 90.8%(일평균 영업시간: 8.4시간)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여행업은 8시간~10시간 미만이 전체의 89.6%(일평균 영업시간: 8.3시간)로 높게 나타났고, 국내·외여행업은 8시간~10시간 미만이 전체의 87.1%(일평균 영업시간: 8.4시간)로 높게 나타남

[표 3-32] 여행업분야 일 평균 영업시간

(단위 : 개, % , 시간)

구분	전체	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일평균 영업시간
일반여행업	5,648	81	5,248	267	19	33	8.4
국외여행업	5,706	108	5,180	388	30	-	8.4
국내여행업	2,812	132	2,520	122	1	37	8.3
국내외·여행업	57,798	196	5,031	498	53	1	8.4
전체	19,944 (100.0)	517 (2.6)	17,979 (90.1)	1,275 (6.4)	103 (0.5)	70 (0.4)	8.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월평균 휴무일 수

- 여행업의 월평균 휴무일 수는 6~10일이 전체의 7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1일 이상이 0.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휴무일 수는 7.1일로 나타남
 - 일반여행업은 6~10일이 전체의 80.1%(월 평균 휴무일 수: 7.0일)로 높게 나타났고, 국외여행업은 6~10일이 전체의 83.9%(월 평균 휴무일 수: 7.4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여행업은 6~10일이 전체의 77.8%(월 평균 휴무일 수: 6.8일)로 높게 나타났고, 국내·외여행업은 6~10일이 전체의 75.1%(월 평균 휴무일 수: 7.0일)로 높게 나타남

[표 3-33] 여행업분야 월 평균 휴무일 수

(단위 : 개,%일)

구분	전체	없음	1일~5일	6일~10일	11일 이상	월 평균 휴무일 수
일반여행업	5,648	310	799	4,524	14	7.0
국외여행업	5,706	284	601	4,789	32	7.4
국내여행업	2,812	202	395	2,188	28	6.8
국내외·여행업	57,798	188	1,198	4,340	52	7.0
전체	19,944 (100.0)	984 (4.9)	2,993 (15.0)	15,840 (79.4)	126 (0.6)	7.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 관광숙박업

가. 일반현황

-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되며,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구성됨
-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대비하여 숙박시설의 다양성 부족문제 해소를 위하여 증저가·부티크 호텔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형호텔업과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함(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3.11.29)
- 정부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숙박업 외에도 다양한 숙박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저렴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할 계획 임

■ 호텔업

- 호텔업은 크게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으로 구분됨
- 한국전통호텔업은 2018년 말 전국 9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가족호텔업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로 2018년 12월 말 전국 159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음
- 수상관광호텔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호스텔업은 2009년 10월 7일 호텔업의 한 종류로 신설되어 2018년 12월 말 전국 638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음
- 의료관광호텔업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1월 29일자로 호텔업의 한 종류로 신설되었고, 소형호텔업은 부티크 호텔 등 객실 규모는 크지 않으나 특색 있는 숙박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29일에 신설됨(소형호텔업은 2018년 12월 말 전국 33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음)

■ 휴양콘도미니엄업

- 휴양콘도미니엄업은 1957년 스페인에서 기존호텔에 개인의 소유권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한 것이 시초이며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시설설로 국내의 1982년 12월 31일자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종으로 신설되었음
- 휴양콘도미니엄업은 2018년 12월 말 기준 228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음

[표 3-34] 전국 시도별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관광호텔업	5성급/특1급	25	8	-	5	-	-	1	1	6	-	-	-	1	2	1	15	65
	4성급/특2급	41	2	4	4	1	2	-	8	6	-	1	4	3	4	3	12	95
	3성급/1급	82	14	5	5	1	6	2	20	9	5	3	2	7	3	11	17	192
	2성급/2등급	61	29	6	20	1	3	3	34	7	5	5	8	13	11	15	8	229
	1성급/3등급	55	14	3	18	4	2	2	17	-	4	2	2	8	6	13	4	154
	등급없음	66	14	3	26	5	3	6	44	18	7	6	13	6	15	7	70	309
	소 계	330	81	21	78	12	16	14	124	46	21	17	29	38	41	50	126	1,044
한국전통호텔업	-	-	-	3	-	-	-	-	1	-	-	1	2	1	-	1	9	
가족호텔업	20	1	-	4	-	1	1	12	14	2	4	5	10	3	20	62	159	
호텔업	81	65	2	58	1	-	-	11	7	2	3	7	196	19	23	163	638	
소형호텔업	9	2	-	2	-	-	-	6	2	-	1	2	2	2	1	4	33	
소계(관광호텔업 외)	110	68	2	67	1	1	1	29	24	4	8	15	210	25	44	230	839	
호텔업 합계	440	149	23	145	13	17	15	153	70	25	25	44	248	66	94	356	1,883	
휴양콘도미니엄업	-	5	-	2	-	-	-	17	75	8	15	6	9	15	16	60	228	
총 계	440	154	23	147	13	17	15	170	145	33	40	50	257	81	110	416	2,111	

주1: 등급없음은 신규등록업체 및 등급유효기간 만료업체로서 기준일 현재 유효등급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

주2: 주2: 시도별 관광숙박업 현황은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내용으로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자료의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관광호텔업의 등록 현황은 전국 1,044개 업체로 나타났으며,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330개 업체, 제주 126개 업체, 경기 124개 업체, 부산 81개 업체, 인천 78개 업체의 순으로 등록되어 있음

- 등급별로 보면 5성급·특1등급이 65업체, 4성급·특2등급이 95업체, 3성급·1등급이 192업체, 2성급·2등급이 229업체, 1성급·3등급이 154업체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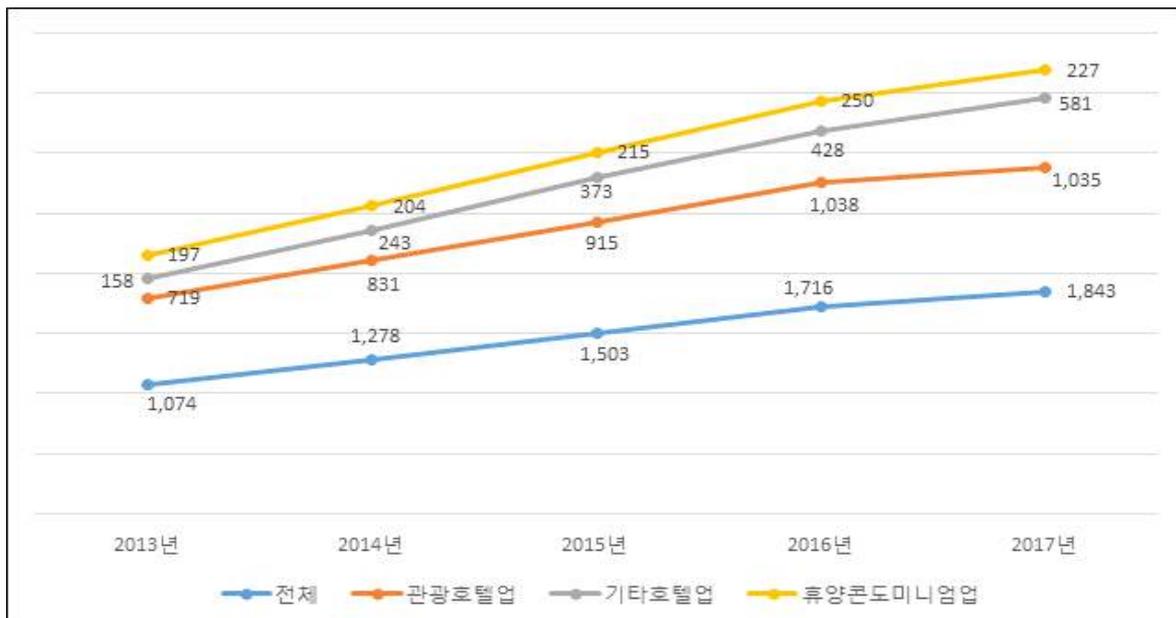
[표 3-35] 관광숙박업 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개소)

연도	사업체 수			
	전체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2013년	1,074	719	158	197
2014년	1,278	831	243	204
2015년	1,503	915	373	215
2016년	1,716	1,038	428	250
2017년	1,843	1,035	581	227
증감율	7.4	-0.3	35.7	-9.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관광숙박업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호텔업(-0.3%)과 휴양콘도미니엄업(-9.2%)은 전년대비 감소추세를 보임
- 반면 기타호텔업의 경우 전년대비 3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2] 연도별 관광숙박업 분야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 매출액

○ 관광숙박업 분야 매출액은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타호텔업 (-2.6%)과 휴양콘도미니엄업(-5.1%)의 경우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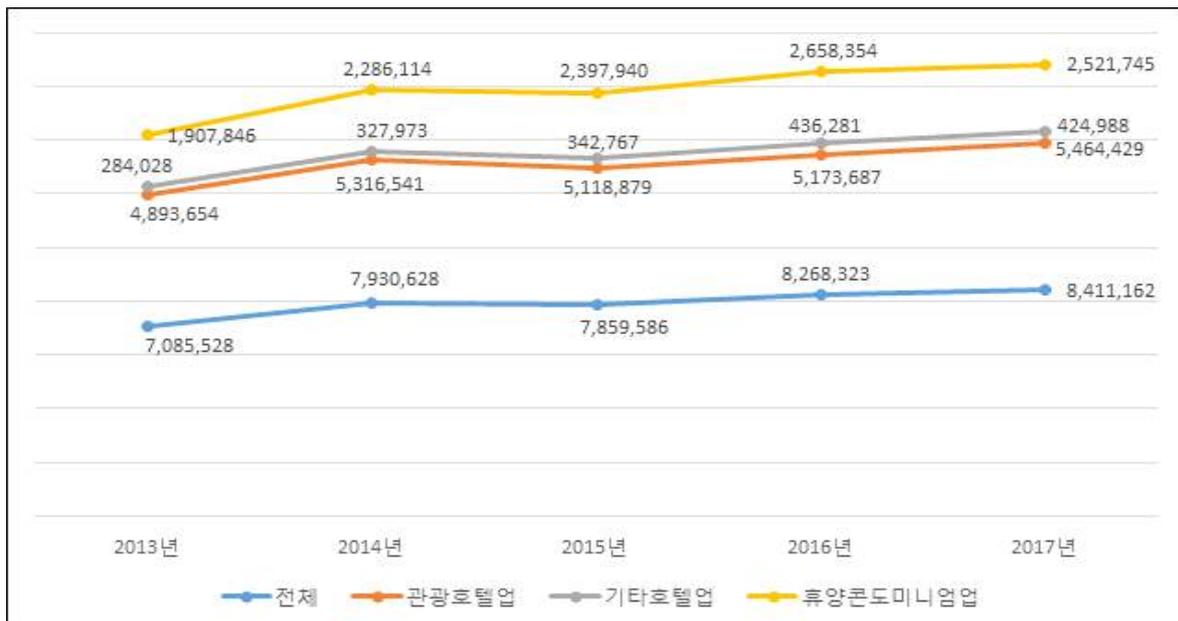
- 관광호텔업의 경우 전년대비 5.6% 증가함

[표 3-36] 관광숙박업 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백만 원,%)

연도	매출액			
	전체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2013년	7,085,528	4,893,654	284,028	1,907,846
2014년	7,930,628	5,316,541	327,973	2,286,114
2015년	7,859,586	5,118,879	342,767	2,397,940
2016년	8,268,323	5,173,687	436,281	2,658,354
2017년	8,411,162	5,464,429	424,988	2,521,745
증감율	1.7	5.6	-2.6	-5.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3-23] 연도별 관광숙박업 분야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나. 종사자 현황

■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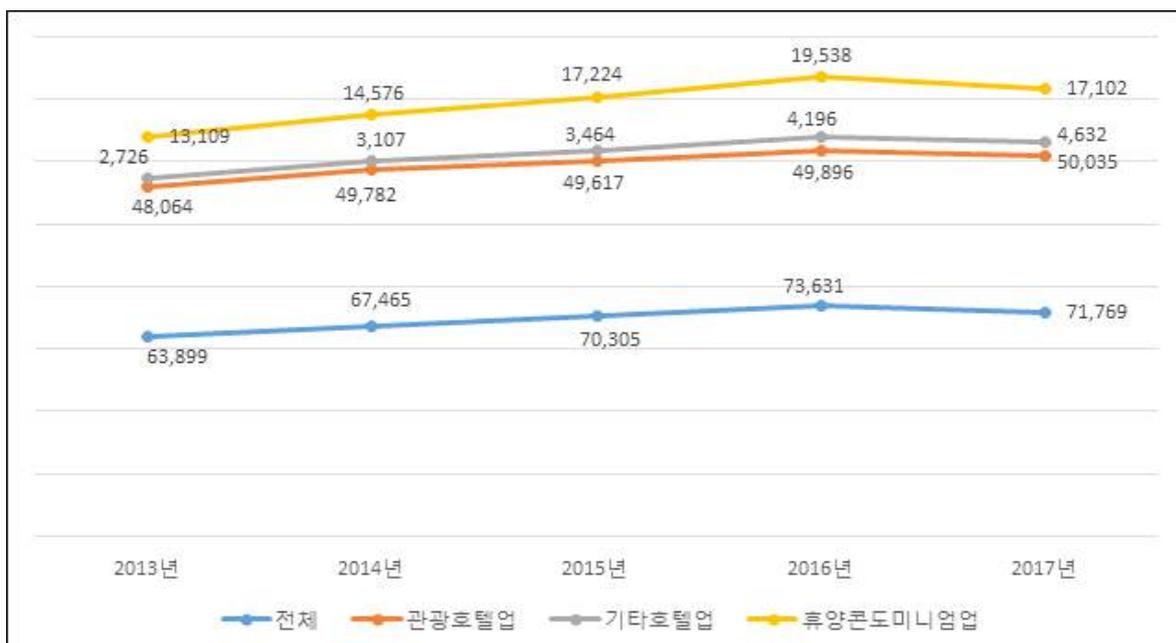
- 관광숙박업 종사자 수는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호텔업에 비해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전년대비 약 12.5%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인 관광숙박업 종사자의 감소가 나타남(관광호텔업 0.3%↑, 기타호텔업 10.4%↑)

[표 3-37] 관광숙박업 분야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명)

연도	종사자 수			
	전체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2013년	63,899	48,064	2,726	13,109
2014년	67,465	49,782	3,107	14,576
2015년	70,305	49,617	3,464	17,224
2016년	73,631	49,896	4,196	19,538
2017년	71,769	50,035	4,632	17,102
증감율	-2.5	0.3	10.4	-12.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3-24] 관광숙박업 분야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 관광숙박업의 고용형태별 종사자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77.8%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무급 가족 종사자가 0.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관광호텔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호텔업은 상용근로자가 68.8%로 높은 비율을 보임
 - 휴양콘도미니엄 역시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63.2%로 높게 나타났으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도 전체의 35.6% 높게 나타남에 따라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8] 관광숙박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 용 근로자	기타 종사 자
관광호텔업	50,035	505	70	41,820	6,320	1,319
기타호텔업	4,632	459	231	3,185	746	11
휴양콘도미니엄업	17,102	8	6	10,804	6,090	193
전체	71,769 (100.0)	972 (1.4)	308 (0.4)	55,809 (77.8)	13,156 (18.3)	1,523 (2.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 관광숙박업의 성별 연간 채용현황은 남성이 51.5%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이 48.5%로 나타남
 - 관광호텔업의 경우 여성이 전체의 50.1%로 높게 나타났고, 기타호텔업은 여성이 52.3%로 높게 나타났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은 남성이 전체의 59.6%로 높게 나타나 호텔업에 비해 남성 종사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관광숙박업의 성별 연간 이직현황은 남성이 52.7%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이 47.3%로 나타남
 - 관광호텔업의 경우 남성이 전체의 51.1%로 높게 나타났고, 기타호텔업은 남성이 50.7%로 높게 나타났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은 남성이 전체의 58.0%로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남성 종사자의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9] 관광숙박업 분야 신규채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간 신규채용 현황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관광호텔업	10,399	5,192	5,207	8,630	4,408	4,222
기타호텔업	1,849	882	967	977	495	482
휴양콘도미니엄업	2,987	1,780	1,207	2,991	1,736	1,255
전체	15,235 (100.0)	7,853 (51.5)	7,382 (48.5)	12,598 (100.0)	6,640 (52.7)	5,959 (47.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자격증 보유 현황

- 관광숙박업의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관광통역안내사의 비율이 전체의 25.3%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호텔서비스사 9.1%, 국내여행안내사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자격증의 보유가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관광호텔업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가 25.2%로 높게 나타났고, 기타호텔업은 관광통역안내사가 전체의 53.4%로 높게 나타났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국내여행안내사가 전체의 45.6%로 높게 나타남
 - 관광숙박업의 경우 국가 전문자격 외 기타자격증의 보유 현황이 높게 나타남

[표 3-40] 관광숙박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호텔경 영사	호텔관 리사	호텔서 비스사	기타
관광호텔업	4,277	1,077	264	51	135	259	422	2,070
기타호텔업	133	71	8	11	7	7	18	12
휴양콘도미니엄업	436	77	199	8	0	8	1	143
전체	4,847 (100.0)	1,224 (25.3)	471 (9.7)	70 (1.4)	142 (2.9)	273 (5.6)	442 (9.1)	2,225 (45.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다. 영업현황

■ 연간 영업개월 수

○ 관광숙박업의 연간 영업개월 수를 살펴보면 10개월 이상이 전체의 9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개월 이하가 0.8%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영업 개월 수는 11.5개월로 나타남

- 관광호텔업의 경우 10개 월 이상이 92.9%(연평균 영업개월 수: 11.5개월)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호텔업은 10개월 이상이 전체의 89.0%(연 평균 영업 개월 수: 11.2개월)로 높게 나타났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은 10개월 이상 전체의 97.4%(연 평균 영업개월 수: 11.8개월)로 높게 나타남

[표 3-41] 관광숙박업분야 영업개월 수 분포

(단위 : 개, %, 개월)

구분	전체	3개월 이하	4개월~ 6개월 이하	7개월~ 9개월 이하	10개월 이상	연 평균 영 업 개월 수
관광호텔업	1,035	10	35	28	962	11.5
기타호텔업	581	4	38	22	517	11.2
휴양콘도미니 엄업	227	0	6	0	221	11.8
전체	1,843 (100.0)	14 (0.8)	79 (4.3)	50 (2.7)	1,699 (92.2)	1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1일 평균 영업시간

○ 관광숙박업의 1일 평균 영업시간을 살펴보면 14시간 이상이 전체의 9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8시간 미만이 0.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일평균 영업시간은 23.7시간으로 나타남

- 관광호텔업의 경우 14시간 이상이 전체의 99.3%(일평균 영업시간: 23.9%)로 높게 나타났고, 기타호텔업은 14시간 이상이 전체의 98.6%(일 평균 영업시간:23.2시간)로 높게 나타났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은 14시간 이상이 전체의 98.7%(일평균 영업시간: 23.8시간)로 높게 나타남

[표 3-42] 관광숙박업분야 일 평균 영업시간

(단위 : 개, %, 시간)

구분	전체	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일평균 영업시간
관광호텔업	1,035	0	2	1	3	1,028	23.9
기타호텔업	581	1	2	1	3	573	23.2
휴양콘도미니엄업	227	0	0	1	2	224	23.8
전체	1,843 (100.0)	1 (0.1)	4 (0.2)	4 (0.2)	8 (0.4)	1,825 (99.0)	23.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월평균 휴무일 수

- 관광숙박업의 업종 특성상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어 월평균 휴무일 수는 없음이 전체의 9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휴무일 수는 0.1일로 나타남
 - 관광숙박업의 세부 업종의 경우 대부분이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호텔업에서 업체에 따라 약간의 휴무일(6일~10일: 0.7%, 1일~5일: 0.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3] 관광숙박업 분야 월 평균 휴무일 수

(단위 : 개, %일)

구분	전체	없음	1일~5일	6일~10일	11일 이상	월 평균 휴무일 수
관광호텔업	1,035	1,022	6	7	0	0.1
기타호텔업	581	576	2	1	1	0.1
휴양콘도미니엄업	227	224	0	3	0	0.1
전체	1,843 (100.0)	1,822 (98.9)	8 (0.4)	12 (0.7)	1 (0.1)	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3)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동, 오락, 음식 또는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

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구분됨

■ 사업체 수

- 2017년 12월 말 기준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현황은 전문 및 종합휴양업 127개 업체, 일반 야영장업은 1,701개 업체이며, 자동차야영장업 400개 업체, 관광유람선업 42개 업체, 관광공연장업 5개 업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68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음

[표 3-44] 전국 시도별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문 및 종합휴양업	일반 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 유람선업	관광 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계
서울시	1	4	4	2	0	1,043	1,054
부산시	0	14	4	4	0	117	139
대구시	3	8	4	0	3	32	50
인천시	0	43	8	7	0	72	130
광주시	0	1	1	0	0	26	28
대전시	3	2	4	0	0	3	12
울산시	0	8	7	0	0	27	42
세종시	0	2	1	0	0	0	3
경기도	21	432	55	0	0	73	581
강원도	7	363	66	2	0	42	480
충청북도	9	118	22	0	0	10	159
충청남도	6	139	31	1	0	3	180
전라북도	3	86	24	4	0	139	256
전라남도	5	102	26	3	0	24	160
경상북도	12	93	47	2	0	32	186
경상남도	8	143	68	9	3	44	275
제주도	50	43	28	8	0	0	129
전체	127	1,701	400	42	5	1,688	3,96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가장 많은 업체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비율이 높음

- 다음으로 경기도의 비율이 높으며, 야영장업(자동차/일반야영장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3-45]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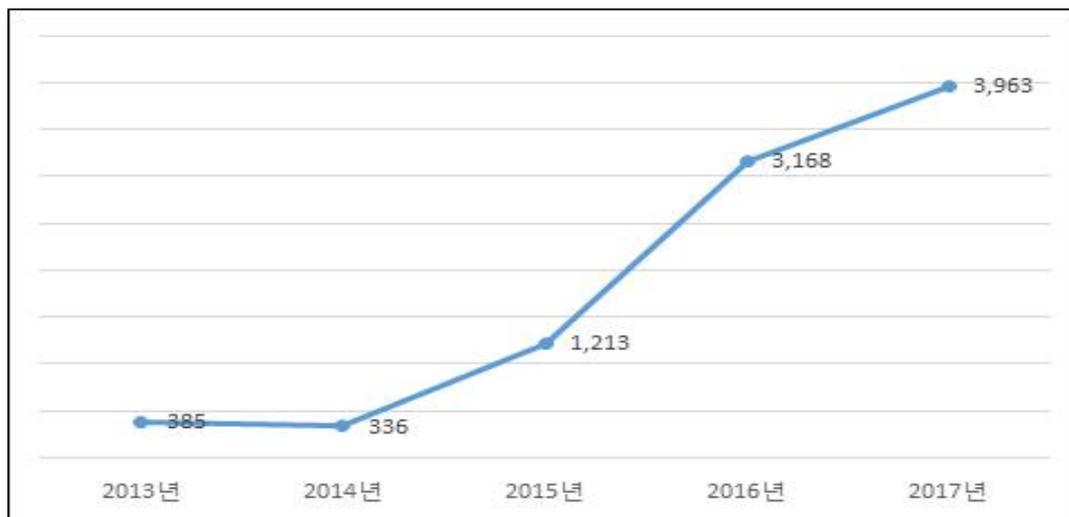
(단위 : 개소,%)

연도	사업체 수							
	전체	전문 및 종합휴 양업	일반 야영장 업	자동차 야영장 업	관광 유람선 업	관광 공연장 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13년	385	84	-	54	39	6	202	-
2014년	336	93	-	189	43	11	-	-
2015년	1,213	74	872	228	35	4	-	-
2016년	3,168	85	1,302	297	30	3	-	1,451
2017년	3,963	127	1,701	400	42	5	-	1,688
증감율	25.1	49.4	30.6	34.7	40.0	66.7	-	16.3

주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다가 2016년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하여 수치를 적용하였음.

주2) 일반야영장업의 경우 2015년 기준부터 적용되었으며,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2014년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에서 삭제되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주1)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업종 내 사업체의 변경이 있어 전체 수치를 적용하였음

[그림 3-25]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사업체 수는 2013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4년 잠시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2016년 높은 상승폭을 보이는데, 이는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이 기존 관광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이동되어 적용됨에 따른 증가임

■ 매출액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매출액은 2013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대비(2016년) 24.7%가 증가하였음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광유람선업이 전년대비(2016년) 가장 큰 증가율(64.4%)을 보이고 있으며, 관광공연장업은 전년대비(2016년) 19.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6]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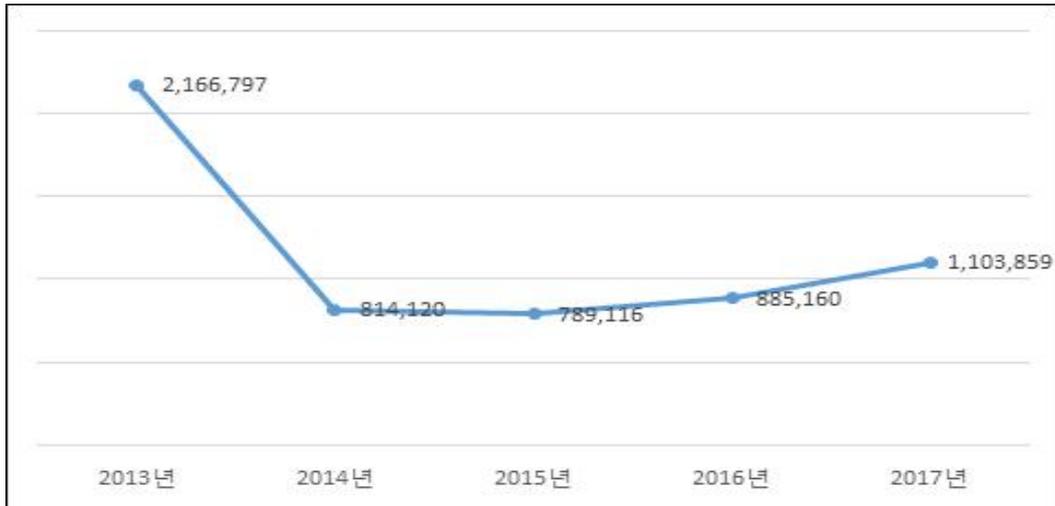
(단위 : 개소,%)

연도	매출액							
	전체	전문 및 종합휴양업	일반 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 유람선업	관광 공연장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13년	2,166,797	658,542	-	14,031	66,669	14,407	1,413,147	-
2014년	814,120	706,976	-	34,458	54,960	17,726	-	-
2015년	789,116	590,827	104,767	35,557	42,741	15,224	-	-
2016년	885,160	631,595	121,862	42,965	39,459	5,550	-	43,730
2017년	1,103,859	773,632	164,765	43,715	64,859	4,478	-	52,411
증감율	24.7	22.8	35.2	1.74	64.4	-19.3	-	19.9

주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다가 2016년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하여 수치를 적용하였음.

주2) 일반야영장업의 경우 2015년 기준부터 적용되었으며,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2014년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에서 삭제되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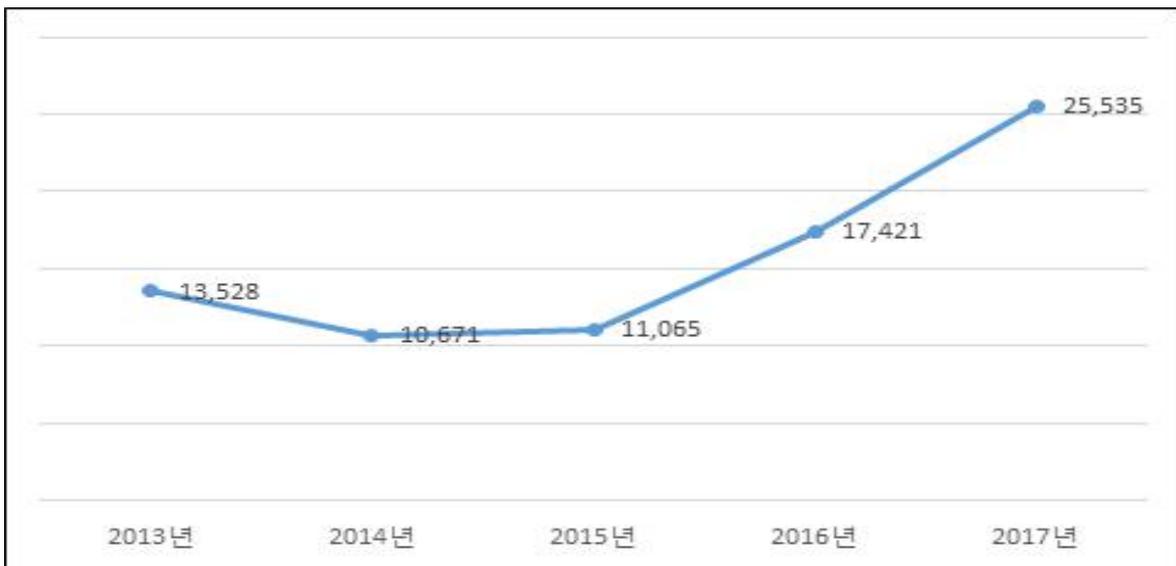


주1)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업종 내 사업체의 변경이 있어 전체 수치를 적용하였음

[그림 3-26]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 종사자 수

- 관광객이용시설업 종사자 수는 201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6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이동됨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전년대비(2016년) 46.6%의 증가율을 보임



주1)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업종 내 사업체의 변경이 있어 전체 수치를 적용하였음

[그림 3-27]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야영장업은 전년대비(2016년) 7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관광유람선업 40.9%, 전문 및 종합휴양업 32.4% 등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반면 관광 공연장업의 경우 전년대비(2016년) 6.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표 3-47]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개소)

연도	종사자 수							
	전체	전문 및 종합휴 양업	일반 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 유람선업	관광 공연장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013년	13,528	7,596	-	399	623	225	4,685	-
2014년	10,671	8,748	-	983	707	232	-	-
2015년	11,065	5,494	3,504	1,232	568	268	-	-
2016년	17,421	6,098	6,456	1,757	403	89	-	2,620
2017년	25,535	8,076	11,544	2,307	568	83	-	2,957
증감율	46.6	32.4	78.8	31.3	40.9	-6.7	-	12.9

주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다가 2016년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하여 수치를 적용하였음.

주2) 일반야영장업의 경우 2015년 기준부터 적용되었으며,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2014년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에서 삭제되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 역시 36.4%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관광공연장업의 경우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상용근로자(39.8%)의 비율보다 높은 57.8%로 나타났으며,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 역시 임시 및 일용근로자 각각 42.2% 45.2%로 높게 나타남
- 이에 따라 ISC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업종들의 현황 파악을 통하여 직무를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이 요구됨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자영업의 비율이 54.6%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가나 임대를 통한 운영형태에 따른 것으로 보임

[표 3-48]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기타 종사자
전문 및 종합휴양업	8,076	19	6	4,872	3,083	97
일반야영장업	11,544	1,159	1,017	4,383	4,874	111
자동차야영장업	2,307	220	143	859	1,042	43
관광유람선업	568	17	1	520	30	0
관광공연장업	83	3	0	33	48	0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	2,957	1,605	543	510	219	79
전체	25,535 (100.0)	3,023 (11.8)	1,710 (6.7)	11,177 (43.8)	9,297 (36.4)	330 (1.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연간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총 2,038명을 채용하였고, 그중 전문 및 종합휴양업(1,049명)이 전체의 51.4%로의 채용률²¹⁾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은 남성 비율이 64.3%, 여성은 35.7%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남성의 채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여성 비율이 62.8%로 나타남(여성 이직률 높음)
-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연간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총 1,188명이 이직하였고, 그중 전문 및 종합휴양업(936명)이 전체의 78.8%로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은 남성 비율이 59.7%, 여성은 40.3%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남성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직률이 87.5%로 높게 나타남

21) 전문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채용률이 높은 이유는 연간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채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9]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신규채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간 신규채용 현황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문 및 종합휴양업	1,049	604	445	936	535	402
일반야영장업	615	491	124	97	72	25
자동차야영장업	163	102	60	67	43	24
관광유람선업	66	59	7	59	54	5
관광공연장업	8	3	5	5	3	3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37	51	86	24	3	21
전체	2,038 (100.0)	1,310 (64.3)	728 (35.7)	1,188 (100.0)	709 (59.7)	479 (40.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자격증 보유 현황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분야별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자가 전체의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내여행안내사(13.5%)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자격증 보유율 역시 13.0%로 높게 나타남

[표 3-50]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별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호텔경 영사	호텔관 리사	호텔서 비스사	기타
전문 및 종합휴양업	43	5	11	4	0	0	0	23
일반야영장업	28	0	20	0	0	0	0	7
자동차야영장업	4	1	2	0	0	0	0	1
관광유람선업	6	6	0	0	0	0	0	0
관광공연장업	0	0	0	0	0	0	0	0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60	160	0	0	0	0	0	0
전체	241 (100.0)	173 (71.8)	32 (13.5)	4 (1.8)	0	0	0	31 (13.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보유율(92.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따른 결과로 보여짐
- 전문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기타 자격증의 비율이 높게 나옴에 따라 업종별 특성에 따른 관광산업 외 타 자격증의 필요성이 도출되어 현황조사를 통해 현재 종사자들이 보유한 기타국가전문자격 외 자격증을 파악하고,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이 요구됨(추가 자격체계 구축 등)

다. 영업현황

■ 연간 영업개월 수

-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연 평균 영업개월 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0개월 이상의 비율이 전체의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별 연평균 영업개월 수는 10.2개월로 나타남

[표 3-51]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영업개월 수 분포

(단위 : 개, %, 개월)

구분	전체	3개월 이하	4개월~ 6개월 이하	7개월~9개 월 이하	10개월 이 상	연 평균 영 업 개월 수
전문 및 종합휴양업	127	0	0	5	122	11.8
일반야 영장업	1,701	82	305	323	991	9.5
자동차 야영장업	400	11	54	63	272	10.1
관광유람선업	42	0	0	3	39	11.5
관광공연장업	5	0	0	3	3	9.5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688	84	124	107	1,374	10.8
전체	3,963 (100.0)	177 (4.5)	482 (12.2)	503 (12.7)	2,801 (70.7)	1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0개월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야영장업의 경우 계절적 영향에 따른 성비수기 등으로 인하여 9개월 이하의 비중이 높은 41.7%로 높게 나타남(연평균 영업개월 수: 9.5개월)

■ 1일 평균 영업시간

-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1일 평균 영업시간을 살펴보면 14시간 이상이 전체의 7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별 1일 평균 영업시간 수는 20.4 시간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문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8시간~10시간미만이 40.9%(일 평균 영업시간: 13.4시간)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유람선업은 8시간~10시간미만이 76.2%(일 평균 영업시간: 8.7시간)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공연장업의 경우 10시간미만이 전체의 100.0%를 차지하고 있음(일 평균 영업시간: 8.0시간)

[표 3-52]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일 평균 영업시간

(단위 : 개, %, 시간)

구분	전체	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일평균 영업시간
전문 및 종합휴양업	127	3	52	23	11	38	13.4
일반야영장업	1,701	0	90	47	132	1,432	21.7
자동차야영장업	400	0	16	15	24	346	21.8
관광유람선업	42	2	32	4	4	0	8.7
관광공연장업	5	3	3	0	0	0	8.0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688	43	86	95	145	1,320	19.6
전체	3,963 (100.0)	50 (1.3)	278 (7.0)	183 (4.6)	316 (8.0)	3,136 (79.1)	20.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월평균 휴무일 수

-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월평균 휴무일 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없음이 91.0%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일~5일이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업종별 월 평균 휴무일 수는 0.9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야영장업의 경우 11일 이상이 전체의 7.3%(월 평균 휴무일 수: 1.6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공연장업은 1일~5일이 100.0%(월 평균 휴무일 수: 3.0일)로 높게 나타남

[표 3-53]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월 평균 휴무일 수

(단위 : 개,%일)

구분	전체	없음	1일~5일	6일~10일	11일 이상	월 평균 휴무일 수
전문 및 종합휴양업	127	108	17	2	0	0.6
일반야영장업	1,701	1,452	89	35	125	1.6
자동차야영장업	400	361	18	12	9	0.9
관광유람선업	42	31	5	6	0	1.3
관광공연장업	5	0	5	0	0	3.0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688	1,655	3	329	0	0.2
전체	3,963 (100.0)	3,607 (91.0)	138 (3.5)	84 (2.1)	135 (3.4)	0.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4)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분류되며, 국제회의시설업은 국제회의시설업은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하고, 국제회의기획업은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 필요한 업무를 행사 주관자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함

■ 사업체 수

- 2017년 말 기준 국제회의업(시설업+기획업) 890개 업체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지역이 544개(61.1%) 업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3-54] 전국 시도별 국제회의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사업체 수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전체
서울시	1	543	544(61.1)
부산시	1	46	47(5.3)
대구시	1	29	30(3.4)
인천시	2	22	24(2.7)
광주시	1	23	24(2.7)
대전시	0	21	21(2.4)
울산시	0	8	8(0.9)
세종시	0	5	5(0.6)
경기도	1	37	38(4.3)
강원도	2	28	30(3.4)
충북도	0	11	11(1.2)
충남도	0	5	5(0.6)
전북도	1	16	17(1.9)
전남도	0	3	3(0.3)
경북도	1	18	19(2.1)
경남도	1	35	36(4.0)
제주도	1	28	29(3.3)
계	13(100.0)	877(100.0)	890(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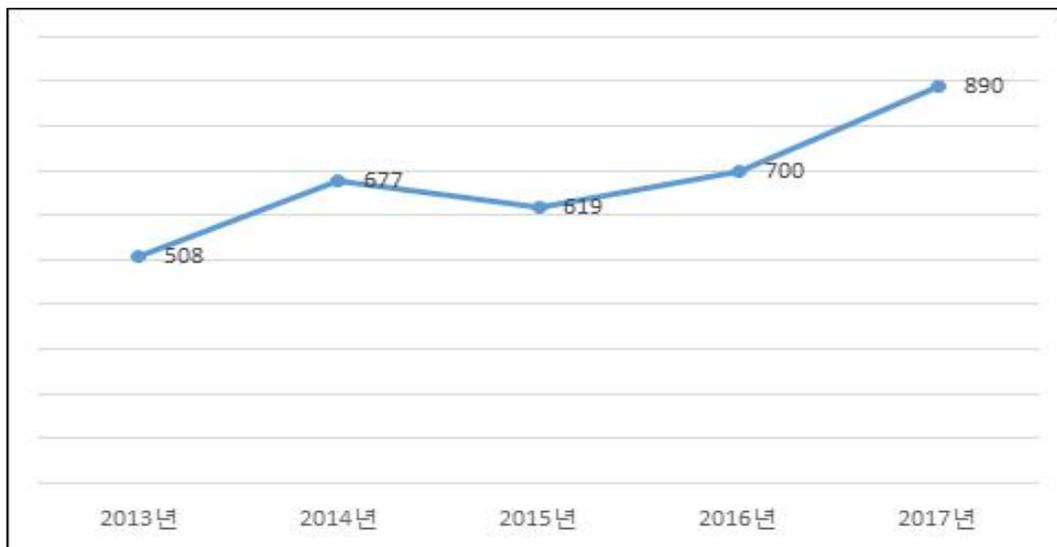
- 국제회의업 사업체 수는 2014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15년 주춤하다 2017년 전년대비 27.1%로 증가세를 회복하였음
-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2017년 기준 (2016년대비) 30.0%가 증가하였으며, 국제회의기획업은 2017년 전년대비 27.1%가 증가하였음
 - 이는 대규모 관광객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제회의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됨

[표 3-55] 국제회의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

(단위 : 개소,%)

연도	사업체 수		
	전체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2013년	508	13	495
2014년	677	16	661
2015년	619	11	608
2016년	700	10	690
2017년	890	13	877
증감율	27.1	30.0	27.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주1) 국제회의업 중 국제회의시설업의 비중이 전체의 약 2%정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수치를 적용하였음

[그림 3-28] 국제회의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 매출액

- 국제회의업의 매출액은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2017년의 경우 전년대비 3.6% 감소하여 1조 7,715조원으로 나타남
- 국제회의시설업 매출액의 경우 2017년 전년대비 20.2%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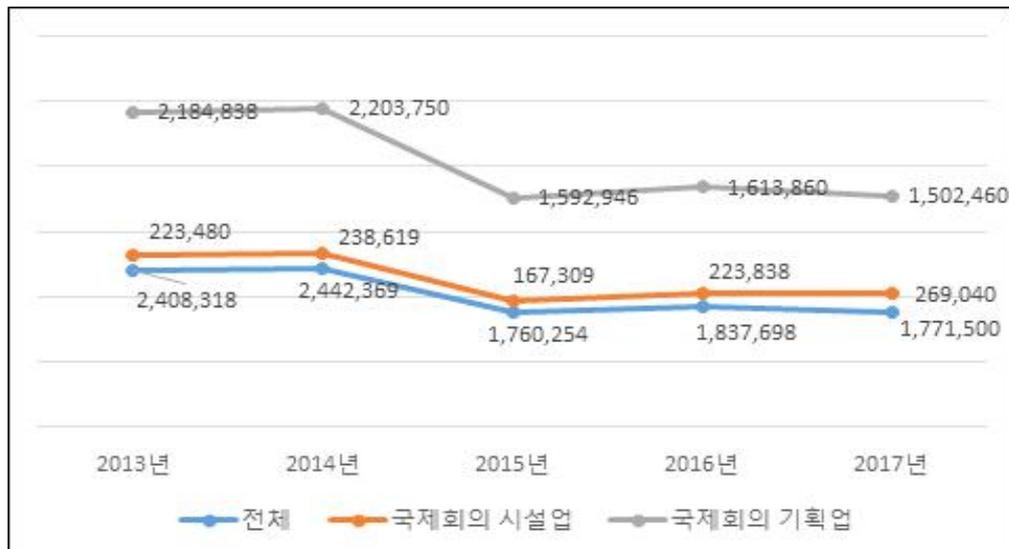
회의기획업의 전년대비 6.9%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로 나타남

[표 3-56] 국제회의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원,%)

연도	매출액		
	전체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2013년	2,408,318	223,480	2,184,838
2014년	2,442,369	238,619	2,203,750
2015년	1,760,254	167,309	1,592,946
2016년	1,837,698	223,838	1,613,860
2017년	1,771,500	269,040	1,502,460
증감율	-3.6	20.2	-6.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3-29] 국제회의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연도별 종사자 수

- 국제회의업 종사자 수는 2014년까지 증가하다 2015년부터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7년은 전년대비 3.4% 감소하여 12,166명으로 나타남
 -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2017년 경우 전년대비 16.1% 증가하여 72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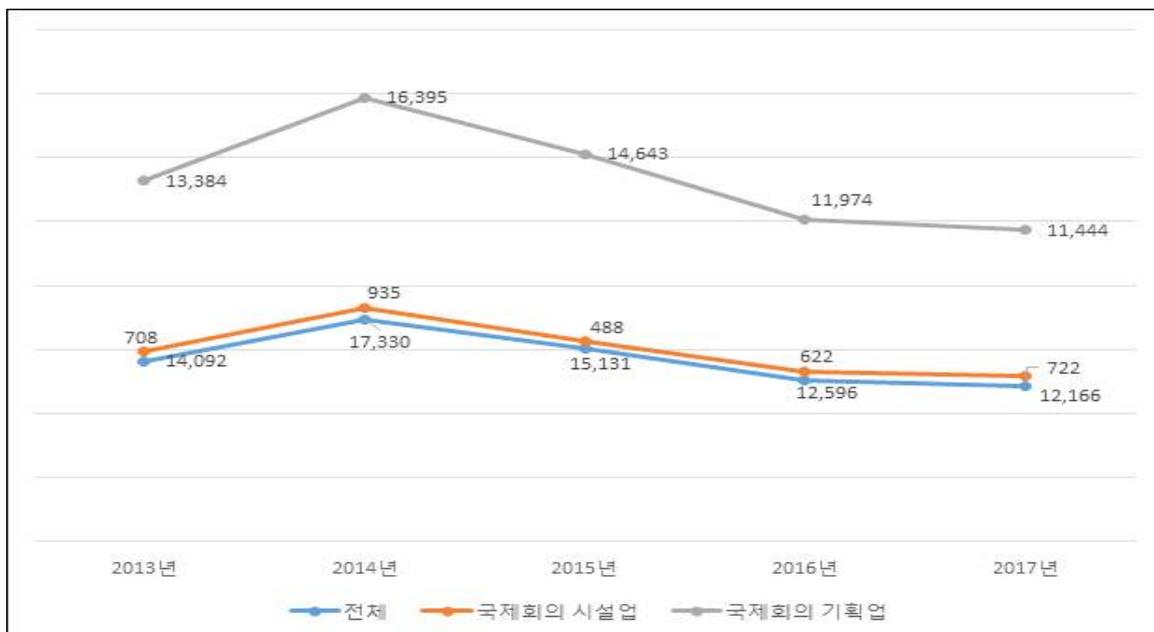
국제회의의 기획업은 전년대비 4.4% 감소하여 11,444명으로 나타남

[표 3-57] 국제회의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

(단위 : 명,%)

연도	종사자 수		
	전체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2013년	14,092	708	13,384
2014년	17,330	935	16,395
2015년	15,131	488	14,643
2016년	12,596	622	11,974
2017년	12,166	722	11,444
증감율	-3.4	16.1	-4.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3-30] 국제회의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 국제회의업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85.8%로 높게 나타남
 -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79.6%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제회의기

획업은 상용근로자 86.2%로 높게 나타남

[표 3-58] 국제회의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기타 종사자
국제회의 시설업	722	0	0	575	147	0
국제회의 기획업	11,444	67	0	9,868	1,447	62
전체	12,166 (100.0)	67 (0.6)	0	10,443 (85.8)	1,594 (13.1)	62 (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 국제회의업의 연간 신규채용 현황은 2017년 기준 2,336명으로, 남성 43.6%, 여성 56.4%로 나타남(국제회의 시설업: 남성이 51.5%, 국제회의 기획업: 여성 56%)
- 국제회의업의 연간 이직 현황은 2017년 기준 1,653명으로, 남성 46.1%, 여성 53.9%로 나타남(국제회의 시설업: 남성 63.6%, 국제회의 기획업: 여성 54.5%)

[표 3-59] 국제회의업 분야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간 신규채용 현황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국제회의 시설업	101	52	49	55	35	20
국제회의 기획업	2,235	967	1,268	1,598	727	871
전체	2,336 (100.0)	1,019 (43.6)	1,317 (56.4)	1,653 (100.0)	762 (46.1)	891 (53.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자격증 보유 현황

- 국제회의업 종사자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국외여행인솔자의 비율이 전체의 47.6%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광통역안내사 31.6%, 기타 자격 1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가 전체의 38.9%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제회의 기획업은 국외여행인솔자가 48.8%로 높게 나타남

[표 3-60] 국제회의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호텔경 영사	호텔관 리사	호텔서 비스사	기타
국제회의 시설업	36	14	4	0	2	2	0	14
국제회의 기획업	1374	432	1	671	0	2	0	238
전체	1,410 (100.0)	446 (31.6)	35 (2.5)	671 (47.6)	2 (0.1)	4 (0.3)	0	252 (17.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다. 영업현황

■ 연간 영업개월 수

- 국제회의업 연평균 영업개월 수를 살펴보면 10개월 이상이 전체의 9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 연평균 영업개월 수는 11.9개월로 나타남
 - 국제회의 시설업은 전 사업체가 10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기획업은 10개월 이상이 98.6%로 높게 나타남

[표 3-61] 국제회의업 분야 연평균 영업개월 수 분포

(단위 : 개, %, 개월)

구분	전체	3개월 이하	4개월~ 6개월 이하	7개월~9개 월 이하	10개월 이 상	연 평균 영 업 개월 수
국제회의 시설업	13	0	0	0	13	12.0
국제회의 기획업	877	0	12	0	865	11.9
전체	890 (100.0)	0	12 (1.3)	0	878 (98.7)	1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1일 평균 영업시간

- 국제회의업 일평균 영업시간을 살펴보면 8시간~10시간 미만이 전체의 95.4%로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별 일평균 영업시간은 8.2시간으로 나타남

- 국제회의 시설업은 8시간~10시간미만이 전체의 69.8%(일평균 영업시간: 8.8시간)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제회의기획업은 8시간~10시간미만이 95.8%(일평균 영업시간: 8.2시간)로 높게 나타남

[표 3-62] 국제회의업 분야 일평균 영업시간

(단위 : 개, %, 시간)

구분	전체	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일평균 영업시간
국제회의 시설업	13	1	9	2	1	0	8.8
국제회의 기획업	877	7	840	29	0	1	8.2
전체	890 (100.0)	8 (0.9)	849 (95.4)	31 (3.5)	1 (0.1)	1 (0.1)	8.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월평균 휴무일 수

- 국제회의업 월평균 휴무일 수를 살펴보면 6일~10일이 전체의 8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종별 월 평균 휴무일 수는 7.4일로 나타남
 - 국제회의 시설업은 6일~10일이 전체의 61.5%(월 평균 휴무일 수: 5.4시간)로 나타났고, 국제회의 기획업은 6일~10일이 90.3%(월 평균 휴무일 수: 7.5일)로 높게 나타남

[표 3-63] 국제회의업 분야 월 평균 휴무일 수

(단위 : 개, % 일)

구분	전체	없음	1일~5일	6일~10일	11일 이상	월 평균 휴무일 수
국제회의 시설업	13	5	0	8	0	5.4
국제회의 기획업	877	44	42	792	0	7.5
전체	890 (100.0)	49 (5.5)	42 (4.7)	800 (89.9)	0	7.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5) 카지노업

- 국내 카지노는 카지노업 허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수입을 확대하는 등 관광산업 진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정의는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 트럼프 ·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함

■ 사업체 수

-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967년 인천 올림포스 카지노 개설을 시작으로 2005년 신규 허가 3개소를 포함하여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6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내국인 전용의 경우 강원랜드 카지노 1개소가 운영 중임

[표 3-64] 전국 시·도별 카지노업체 현황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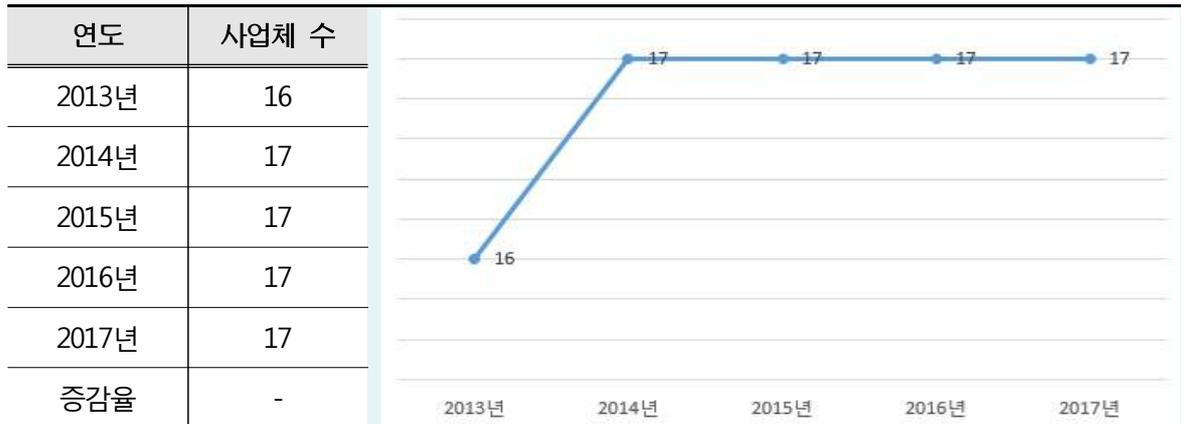
구분	업체 수	업체 명
서울시	3	워커히 카지노(파라다이스)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남코엑스점(그랜드코리아레저)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북힐튼점(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시	2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점(그랜드코리아레저)
		파라다이스 카지노 부산지점(파라다이스)
인천시	1	인천카지노(파라다이스세가사미)
강원도	1/1	알펜시아카지노(지바스)
		강원랜드 카지노(강원랜드)-내국인 전용 카지노
대구시	1	인터불고대구카지노(골든 크라운)
제주도	8	라마다 카지노(길상창후)
		파라다이스 카지노 제주지점(파라다이스)
		마제스타카지노(마제스타)
		로얄팔레스카지노(건하)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롯데(두성)
		제주썬카지노(지앤엘)
		랜딩카지노(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메가럭카지노(메가럭)
계	16/1	외국인전용카지노 16개소, 내국인전용카지노 1개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 세계적인 카지노 추세는 복합리조트 형태의 카지노로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호텔에 부속된 단순한 영업형태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카지노업 분야 사업체 수는 16개와 17개 사이로 최근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양상을 보임²²⁾

[표 3-65] 카지노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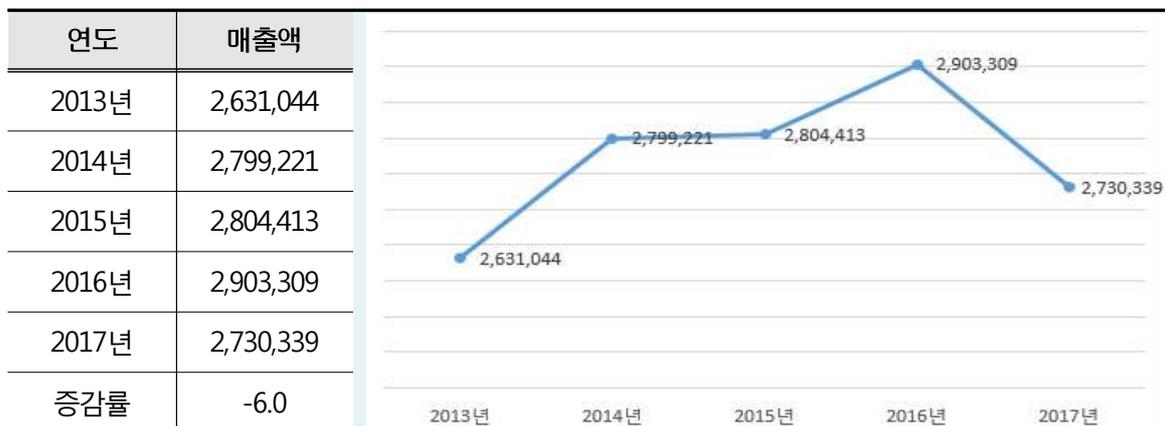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매출액

- 카지노업의 매출액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7년 전년대비(2016년) 6.0% 감소한 약 2조 7,300억 원으로 나타남

[표 3-66] 카지노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백만 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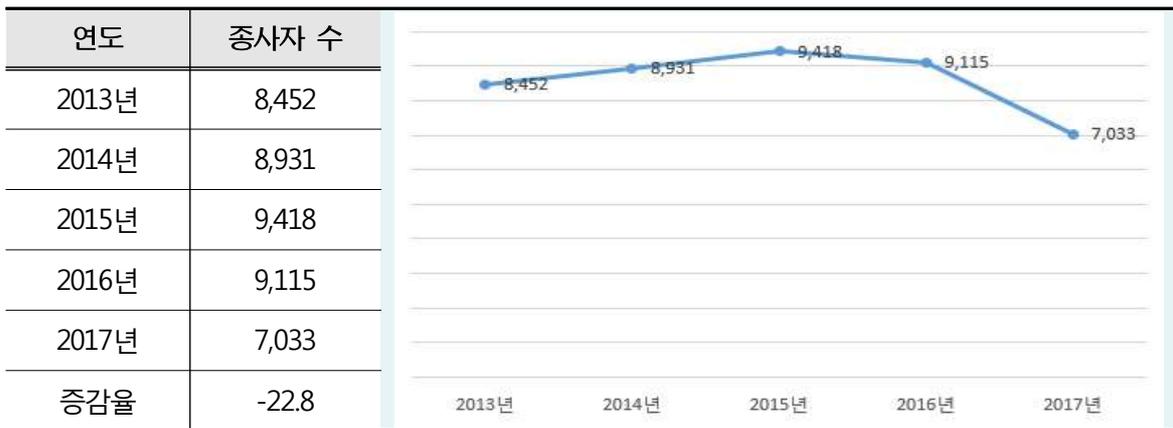
22)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해당지역의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합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2개의 카지노복합리조트가 조성 중에 있음

■ 종사자 수

- 카지노업 종사자 수는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22.8% 감소한 7,033명으로 나타남

[표 3-67] 카지노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 카지노업의 종사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94.2%로 높게 나타났으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5.8%로 나타남

[표 3-68] 카지노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 용 근로자	기타 종사 자
전체	7,033 (100.0)	0	0	6,622 (94.2)	411 (5.8)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 카지노업의 연간 신규채용은 총 775명으로 성별 비율은 남성 50.6%, 여성 49.4%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직현황은 총 884명으로 성별 비율은 남성 49.9%, 여성 50.1%로 나타남

[표 3-69] 카지노업 분야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간 신규채용 현황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775 (100.0)	392 (50.6)	383 (49.4)	884 (100.0)	441 (49.9)	443 (5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자격증 보유 현황

- 카지노업 종사자의 자격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관광통역안내사가 전체의 8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내여행안내사 6.3% 순으로 나타남

[표 3-70] 카지노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호텔경 영사	호텔관 리사	호텔서 비스사	기타
전체	231 (100.0)	205 (89.6)	6 (6.3)	1 (0.5)	1 (0.5)	4 (1.0)	2 (0.8)	2 (0.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다. 영업현황

■ 연간 영업개월 수

- 카지노업의 연간 영업개월 수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업체(외국인전용 16개 업체, 내국인적용 1개 업체) 모두 10개월 이상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영업 개월 수는 11.9개월로 나타남

[표 3-71] 카지노업 분야 연간 영업개월 수 분포

(단위 : 개, %, 개월)

구분	전체	3개월 이하	4개월~ 6개월 이하	7개월~9개 월 이하	10개월 이 상	연 평균 영 업 개월 수
전체	17 (100.0)	0	0	0	17 (100.0)	1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1일 평균 영업시간

- 카지노업의 1일 평균 영업시간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업체(외국인전용 16개 업체, 내국인적용 1개 업체) 모두 14시간 이상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일 평균 영업시간은 22.6시간으로 나타남

[표 3-72] 카지노업 분야 일 평균 영업시간

(단위 : 개, %, 시간)

구분	전체	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일평균 영업시간
전체	17	0	0	0	0	17	22.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월평균 휴무일 수

- 카지노업의 월평균 휴무일 수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업체(외국인전용 16개 업체, 내국인적용 1개 업체) 모두 휴무일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월평균 휴무일 수: 0.0 일)

[표 3-73] 카지노업 분야 월 평균 휴무일 수

(단위 : 개,% 일)

구분	전체	없음	1일~5일	6일~10일	11일 이상	월 평균 휴무일 수
전체	17 (100.0)	17 (1000)	0	0	0	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6) 유원시설업

- 유원시설업은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 포함)으로 종합 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됨

■ 사업체 수

- 유원시설업은 2018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2,404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 640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시 269개 업체, 경상남도 200개 업체, 인천시 159개 업체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음

[표 3-74] 전국 시도별 유원시설업체 현황

(단위 : 개소)

시·도	종합 유원시설업	일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계
서울시	3	11	255	269
부산시	-	13	134	147
대구시	2	14	66	82
인천시	-	20	139	159
광주시	1	4	54	59
대전시	1	2	73	76
울산시	-	10	68	78
세종시	-	-	22	22
경기도	10	57	573	640
강원도	9	26	72	107
충청북도	-	15	73	88
충청남도	5	25	93	123
전라북도	-	18	75	93
전라남도	4	24	32	60
경상북도	3	17	113	133
경상남도	5	24	171	200
제주도	3	20	45	68
계	46	300	2,058	2,404

주1)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수치가 상이 할 수 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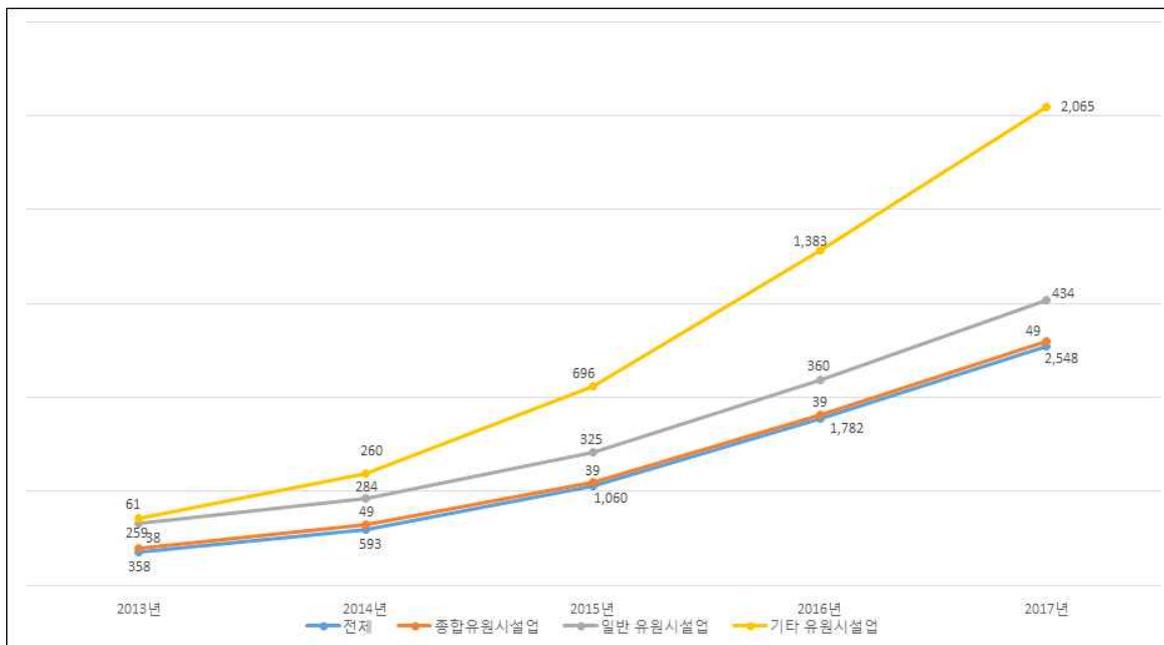
- 유원시설업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기준 전년대비 42.9% 증가한 2,548명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타유원시설업이 전년대비(2016년) 49.3% 증감율을 보였음

[표 3-75] 유원시설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개소)

연도	사업체 수			
	전체	종합유원시설업	일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2013년	358	38	259	61
2014년	593	49	284	260
2015년	1,060	39	325	696
2016년	1,782	39	360	1,383
2017년	2,548	49	434	2,065
증감율	42.9	25.6	20.5	49.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3-31] 유원시설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 매출액

- 유원시설업의 매출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전년대비 5.4% 증가한 2조 33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유원시설업의 매출은 전년대비 3.3% 감소(1조 1,313억 원)하였으며, 기타 유원시설업의 매출은 전년대

비 54.6% 증가한 2,513억 원으로 나타남

[표 3-76] 유원시설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백만 원 %)

연도	매출액			
	전체	종합유원시설업	일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2013년	1,324,103	918,668	373,643	31,792
2014년	1,498,173	896,212	479,560	122,402
2015년	1,538,658	926,284	527,926	84,449
2016년	1,929,240	1,169,498	597,131	162,611
2017년	2,033,276	1,131,333	650,621	251,322
증감률	5.4	-3.3	9.0	54.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3-32] 유원시설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 종사자 수

- 유원시설업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전년대비 16.4% 증가하여 27,561명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기준 종합유원시설업은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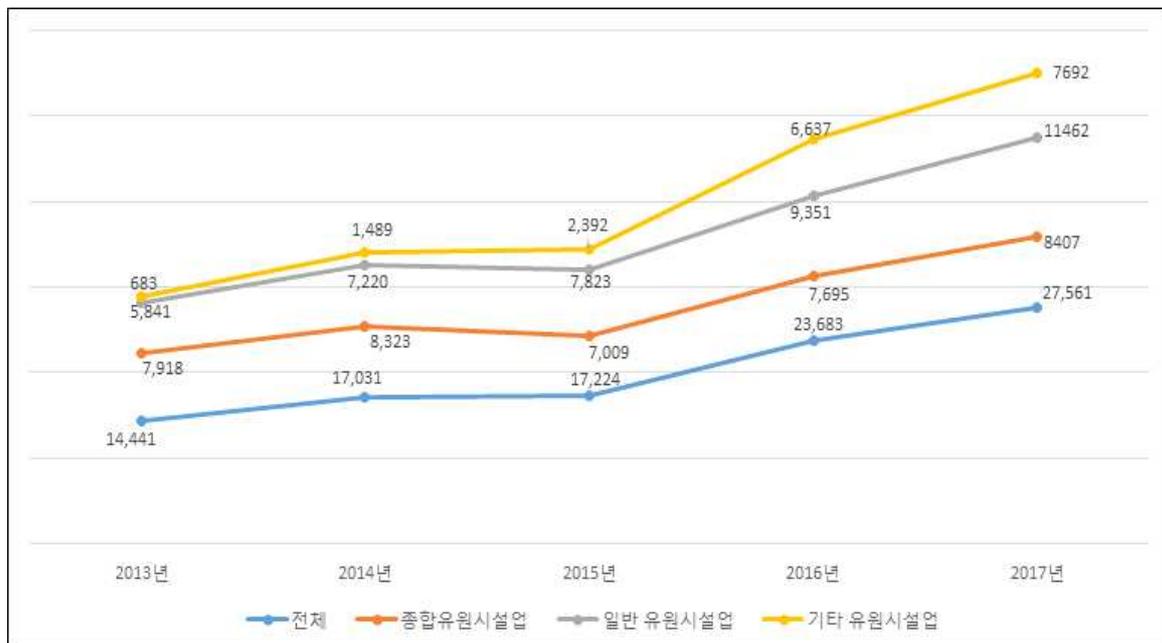
9.3%, 일반 유원시설업 22.6%, 기타 유원시설업 15.9%가 증가하였음

[표 3-77] 유원시설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명,%)

연도	종사자 수			
	전체	종합유원시설업	일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2013년	14,441	7,918	5,841	683
2014년	17,031	8,323	7,220	1,489
2015년	17,224	7,009	7,823	2,392
2016년	23,683	7,695	9,351	6,637
2017년	27,561	8,407	11,462	7,692
증감율	16.4	9.3	22.6	15.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3-33] 유원시설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 유원시설업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종합유원시설업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전체의 50.3%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유원시설업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 전체의 55.2%, 기타유원시설업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 전체의 43.0%로 높게 나타남

[표 3-78] 유원시설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기타 종사자
종합유원시설업	8,407	4	0	4,165	4,231	8
일반유원시설업	11,462	158	58	4,754	6,330	162
기타유원시설업	7,692	1,850	529	1,981	3,311	22
전체	27,561 (100.0)	2,011 (7.3)	587 (2.1)	10,900 (39.5)	13,871 (50.3)	191 (0.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 유원시설업의 연간 신규 채용현황은 2017년 기준 2,318명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57.1%, 여성 42.9%로 나타남
 - 업종별 연간 신규채용 현황은 종합유원시설업 남성 비율 58.7%, 일반유원시설업 남성비율 57.9%, 기타유원시설업 남성비율 51.7%로 나타남

[표 3-79] 유원시설업 신규 채용 및 이직현황

(단위 : 명,%)

구분	연간 신규채용 현황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종합유원시설업	922	541	381	665	379	286
일반유원시설업	988	572	416	693	387	306
기타유원시설업	408	211	198	340	152	188
전체	2,318 (100.0)	1,324 (57.1)	995 (42.9)	1,698 (100.0)	917 (54.0)	780 (45.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자격증 보유 현황

- 유원시설업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관광통역안내사의 비율이 전체의 52.4%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내여행안내사 11.8%, 기타 자격증 25.1%의 보유율을 보였음
- 업종별 자격증 보유현황은 종합유원시설업의 관광통역안내사 58.4%, 일반유원시설업 기타 자격증 35.8%,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통역안내사 79.1%의 보유율을 보였음

[표 3-80] 유원시설업 분야 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

(단위 : 명,%)

연도	전체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호텔경 영사	호텔관 리사	호텔서 비스사	기타
종합유원 시설업	219	128	11	0	0	11	0	68
일반유원 시설업	299	67	46	8	9	6	56	107
기타유원 시설업	282	223	30	0	0	0	2	26
전체	800 (100.0)	419 (52.4)	88 (11.0)	8 (1.0)	9 (1.1)	17 (2.1)	58 (7.3)	201 (25.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다. 영업현황

■ 연간 영업개월 수

- 유원시설업의 연간 영업개월 수를 살펴보면 10개 이상이 전체의 83.6%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업종별 연 평균 영업개월 수는 10.9개월로 나타남

[표 3-81] 유원시설업 분야 연간 영업개월 수 분포

(단위 : 개, %, 개월)

연도	전체	3개월 이하	4개월~ 6개월 이하	7개월~9 개월 이하	10개월 이 상	연 평균 영 업 개월 수
종합유원시설업	49	4	2	0	43	10.9
일반유원시설업	434	38	43	27	326	10.2
기타유원시설업	2,065	71	137	97	1,759	11.0
전체	2,548 (100.0)	112 (4.4)	183 (7.2)	124 (4.9)	2,129 (83.6)	10.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업종별 연간 영업개월 수는 종합유원시설업의 10개월 이상 87.8%(연 평균 영업 개월 수: 10.9개월), 일반유원시설업 10개월 이상 75.1%(연 평균 영업개월 수: 10.2개월), 기타유원시설업 10개월 이상 85.2%(연 평균 영업개월 수: 11.0개월)로 나타남

■ 1일 평균 영업시간

- 유원시설업 1일 평균 영업시간종사자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8시간~10시간미만이 전체의 35.1%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시간~12시간미만이 32.8%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일평균 영업시간은 10.2시간으로 나타남
- 업종별 1일 평균 영업시간은 종합유원시설업의 8시간~10시간미만이 42.9%(일평균 영업시간: 11.0시간), 일반유원시설업 8시간~10시간미만 58.8%(일평균 영업시간: 9.6시간), 기타유원시설업 10시간~12시간미만 36.5%(일평균 영업시간: 10.3시간)로 나타남

[표 3-82] 유원시설업 분야 일 평균 영업시간

(단위 : 개, %, 시간)

연도	전체	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일평균 영업시간
종합유원 시설업	49	0	21	19	4	6	11.0
일반유원 시설업	434	49	255	64	31	35	9.6
기타유원 시설업	2,065	299	618	754	237	157	10.3
전체	2,548 (100.0)	348 (13.7)	894 (35.1)	837 (32.8)	272 (10.7)	198 (7.8)	1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월평균 휴무일 수

- 유원시설업 월평균 휴무일 수 현황을 살펴보면 없음이 전체의 51.7%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일~5일 45.3%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휴무일 수는 1.9일로 나타남
 - 업종별 월 평균 휴무일 수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없음이 91.8%(월 평균 휴무일 수: 0.3일), 일반유원시설업 없음 67.7%(월평균 휴무일 수: 1.4일), 기타유원시설업 1일~5일 49.9%(월평균 휴무일 수: 2.1일)로 나타남

[표 3-83] 유원시설업 분야 월 평균 휴무일 수

(단위 : 개,%일)

연도	전체	없음	1일~5일	6일~10일	11일 이상	월 평균 휴무일 수
종합유원시설업	49	45	4	0	0	0.3
일반유원시설업	434	294	120	16	4	1.4
기타유원시설업	2,065	978	1,030	33	24	2.1
전체	2,548 (100.0)	1,317 (51.7)	1,153 (45.3)	49 (1.9)	29 (1.1)	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7)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사업 중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사업이나 시설 가운데 관광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 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케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기타관광 편의시설업(제주)으로 12가지로 구분됨²³⁾

■ 사업체 수

- 2018년 말 기준으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4,172개소로 관광유흥음식점업 8개소, 관광극장유흥업 143개소,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375개소, 관광식당업 1,654개소, 관광순환버스업 51개소, 관광사진업 17개소,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2개소, 관광펜션업 559개소, 관광케도업 13개소, 한옥체험업 1,307개소, 관광면세업 39개소, 기타관광 편의시설업(제주) 4개소 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717개소로 가장 많은 업종이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다음으로 경북도 483개소, 전북도 385개소, 전남도 382개소, 제주도 266개소, 경남도 260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 관광편의시설업 사업체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5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전년대비 4.7% 증가하여 3,884개소 나타남
 - 업체수로 보면 관광식당업이 1,489개소 전체의 38.3%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옥체험업이 32.6%로 높게 나타남

23)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2018년 기준 시도별 관광편의시설업 지정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자료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표 3-84] 전국 시·도별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관광유희음식점업	0	0	1	0	0	0	1	0	1	0	0	0	4	0	0	0	1	58
관광극장유희업	23	7	7	7	1	12	3	0	32	4	7	6	5	3	6	16	4	143
외국인 전용유희음식점업	5	16	20	2	0	1	28	0	182	5	0	5	17	4	31	50	9	375
관광 식당업	428	134	92	87	48	77	52	6	388	29	13	22	74	7	12	47	138	1,654
관광순환버스업	4	2	4	3	0	0	1	0	8	5	0	1	2	6	4	10	1	51
관광 사진업	10	1	0	0	0	0	0	0	2	0	0	0	0	0	0	0	4	17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0	0	2
관광 펜션업	0	1	0	17	0	0	3	1	58	70	3	90	34	61	45	78	98	559
관광 퀘도업	0	0	2	1	0	0	0	0	2	3	0	0	1	2	1	1	0	13
한옥 체험업	132	1	21	12	10	0	1	3	44	32	28	37	247	299	383	57	0	1,307
관광면세업	9	7	2	8	0	1	0	0	0	1	2	0	1	0	0	1	7	39
기타관광편의시설업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4
계	611	169	149	137	59	91	89	10	717	149	54	161	385	382	483	260	266	4,172

자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2019), 2018년 12월 31일 기준

[표 3-85]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개소,%)

구분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율)
관광유희음식점업	75	34	6	10	12(20.0)
관광극장유희업	147	152	106	94	136(44.7)
외국인 전용 유희 음식점업	339	415	454	440	446(1.4)
관광 식당업	2,012	2,119	1,386	1,476	1,489(0.9)
관광순환버스업	33	42	48	52	62(19.2)
관광 사진업	17	14	12	13	16(23.1)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18	17	1	2	2(-)
관광 펜션업	366	386	391	406	409(0.7)
관광 궤도업	15	18	9	9	13(44.4)
한옥 체험업	767	927	1,108	1,188	1,266(6.6)
관광면세업	-	-	-	18	33(83.3)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589	890	1,334	-	-
전체	4,378	5,014	4,855	3,708	3,884(4.7)

주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다가 2016년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하여 수치를 적용하였음

주2) 시내순환관광업은 2016년부터 관광순환버스업으로 명칭이 변경됨

주3) 관광면세업은 2016년부터 신설되어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주1) 관광편의시설업의 경우 연도별 사업의 변화에 따라 전체 수치를 적용하였음

[그림 3-34]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연도별 매출액

○ 관광편의시설업의 연도별 매출액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16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변화하여 2017년 기준 전년대비 20.4%가 증가한 1조 8,892억 원의 매출을 보였음

-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면세업의 경우 전년대비 106.4%의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관광극장 유흥업(40.4%), 관광순환버스업(37.3%), 관광펜션업(29.8%), 관광유흥음식점업(28.8%) 등의 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관광사진업의 경우 전년대비 27.9%의 감소추세를 보였음

[표 3-86]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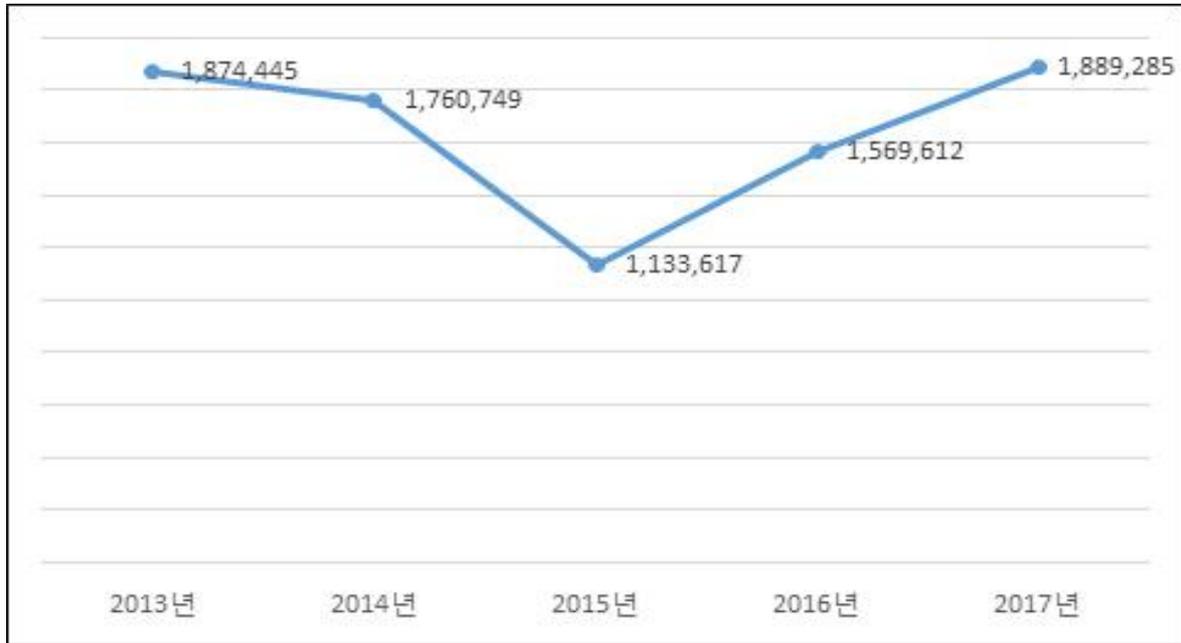
구분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율)
관광유흥음식점업	89,350	68,888	5,196	4,753	6,122(28.8)
관광극장유흥업	222,805	179,416	134,383	143,002	200,796(40.4)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42,565	59,929	61,428	54,775	55,026(0.5)
관광 식당업	1,396,434	1,273,260	805,543	1,157,048	1,303,563(12.7)
관광순환버스업	29,927	21,318	23,615	34,310	47,124(37.3)
관광 사진업	717	6,524	5,219	6,266	4,515(-27.9)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13,365	26,274	2,947	8,947	9,700(8.4)
관광 펜션업	32,354	31,007	29,417	30,717	39,872(29.8)
관광 궤도업	28,242	58,772	16,669	18,032	20,993(16.4)
한옥 체험업	16,657	20,346	2,864	31,734	36,425(17.8)
관광면세업	-	-	-	80,028	165,150(106.4)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2,030	15,014	28,336	-	-
전체	1,874,445	1,760,749	1,133,617	1,569,612	1,889,285(20.4)

주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다가 2016년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하여 수치를 적용하였음

주2) 시내순환관광업은 2016년부터 관광순환버스업으로 명칭이 변경됨

주3) 관광면세업은 2016년부터 신설되어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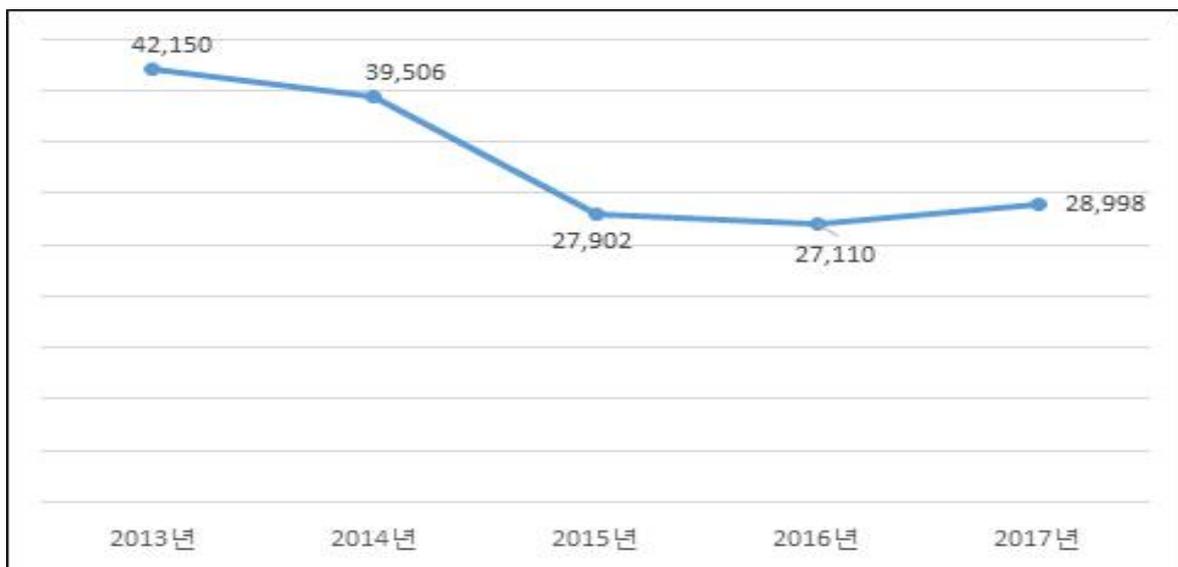


주1) 관광편의시설업의 경우 연도별 사업의 변화에 따라 전체 수치를 적용하였음

[그림 3-35]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도별 매출액 변화 추이(2013년~2017년)

■ 연도별 종사자 수

- 관광편의시설업의 연도별 종사자 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전년대비 7.0% 증가하여 28,998명으로 나타남



주1) 관광편의시설업의 경우 연도별 사업의 변화에 따라 전체 수치를 적용하였음

[그림 3-36]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면세업의 경우 전년대비 198.9%의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관광극장 유흥업(36.2%), 관광케도업(25.9%), 관광펜션업(13.2%), 등의 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관광사진업의 경우 전년대비 45.3%의 감소추세를 보였고, 관광극장유흥음식점업 역시 6.0%의 감소현상을 보임

[표 3-87]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명, %)

구분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율)
관광유흥음식점업	1,685	1,037	127	184	173(-6.0)
관광극장유흥업	4,591	4,486	2,999	2,686	3,659(36.2)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2,054	2,536	2,565	1,917	1,929(0.6)
관광 식당업	27,506	24,113	15,159	16,846	16,988(0.8)
관광순환버스업	857	671	770	985	1,077(9.3)
관광 사진업	65	93	77	106	58(-45.3)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137	156	18	60	62(3.3)
관광 펜션업	1,031	1,305	1,220	1,096	1,241(13.2)
관광 케도업	1,274	1,127	148	193	243(25.9)
한옥 체험업	2,008	2,395	2,507	2,772	2,776(0.1)
관광면세업	-	-	-	265	792(198.9)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944	1,588	2,312	-	-
전체	42,150	39,506	27,902	27,110	28,998(7.0)

주1)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다가 2016년부터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하여 수치를 적용하였음.

주2) 시내순환관광업은 2016년부터 관광순환버스업으로 명칭이 변경됨

주3) 관광면세업은 2016년부터 신설되어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 관광편의시설업의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22.4%로

높게 나타남

- 관광편의시설업 업종 전반적으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관광극장유흥업의 경우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42.5%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케도업 역시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50.6%로 높게 나타남
- 관광유흥음식점업의 경우 기타 종사자의 비율이 전체의 40.5%로 높게 나타남

[표 3-88]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기타 종사자
관광유흥 음식점업	173	7	0	50	47	70
관광극장 유흥업	3,659	125	0	1,187	1,554	793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1,929	451	79	804	397	197
관광 식당업	16,988	1,323	554	11,553	3,557	0
관광 순환버스업	1,077	0	0	1,000	33	45
관광 사진업	58	13	0	45	0	0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62	0	0	62	0	0
관광 펜션업	1,241	384	336	173	348	0
관광 케도업	243	3	0	117	123	0
한옥 체험업	2,776	1,008	851	566	344	7
관광면세업	792	10	6	689	83	4
전체	28,998 (100.0)	3,324 (11.5)	1,826 (6.3)	16,246 (56.0)	6,486 (22.4)	1,116 (3.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 관광편의시설업의 연간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총 3,377명이 채용되었고, 이중 남성이 49.3%, 여성이 50.7%의 비율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식당업이 2,046명을 채용함으로써 관광편의시설업 전체의 60.6%(남성:52.9%, 여성: 47.1%)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14.9%(남성: 7.0%, 여성: 93.0%)의 채용률을 보였음

- 관광편의시설업의 연간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총 2,561명이 이직하였고, 이중 남성이 49.0%, 여성이 51.0%의 비율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식당업이 1,416명(55.3%)으로 가장 높은 이직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이 418명(16.3%)의 이직자가 나타남에 따라 이직률이 높은 업종의 신규채용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표 3-89]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간 신규채용 및 이직 현황

(단위 : 명,%)

연도	연간 신규채용 현황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관광유희음식점업	1	1	0	4	2	2
관광극장유희업	319	283	36	350	314	36
외국인 전용유희음식점업	502	35	467	418	28	390
관광 식당업	2,046	1,083	963	1,416	703	714
관광순환버스업	182	150	32	161	129	32
관광 사진업	6	1	4	7	3	4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7	3	4	13	5	8
관광 펜션업	66	25	41	51	15	36
관광 퀘도업	6	0	6	11	6	6
한옥 체험업	192	64	128	67	29	38
관광면세업	51	19	32	63	22	40
전체	3,377 (100.0)	1,664 (49.3)	1,712 (50.7)	2,561 (100.0)	1,254 (49.0)	1,307 (51.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자격증 보유 현황

- 관광편의시설업 종사자의 자격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관광종사원 국가전문자격기준 관광통역안내사가 전체의 24.3%로 가장 많은 보유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호텔경영사(6.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기타 자격증 보유자가 전체의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식당업의 기타자격증 보유율이 높은 것은 조리와 관련된 기타자격 (조리사 등)의 보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경우 종사자 보유 자격증이 100% 관광통역안내사로 나타남
- 관광순환버스업은 국내여행에 포커스를 맞춘 업체로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의 보유율이 28.7%로 높게 나타났음

[표 3-90]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종사자 자격취득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관광통역 안내사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호텔경 영사	호텔관 리사	호텔서 비스사	기타
관광유흥음 식점업	0	0	0	0	0	0	0	0
관광극장유 흥업	0	0	0	0	0	0	0	0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24	24	0	0	0	0	0	0
관광 식당업	526	92	0	0	46	16	0	372
관광순환버 스업	101	4	29	23	0	0	0	46
관광 사진업	25	23	0	0	0	0	0	2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0	0	0	0	0	0	0	0
관광 펜션업	10	0	0	3	0	0	0	8
관광 귀도업	0	0	0	0	0	0	0	0
한옥 체험업	44	35	3	0	0	0	6	0
관광면세업	3	0	0	0	0	1	0	2
전체	733 (100.0)	178 (24.3)	32 (4.4)	26 (3.5)	46 (6.3)	17 (2.3)	6 (0.8)	429 (58.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다. 영업현황

■ 연간 영업개월 수

- 관광편의시설업의 연간 영업개월 수를 살펴보면 10개월 이상 영업하는 업체가 전체의 9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의 연평균 영업 개월 수는 11.4개월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유흥음식점업의 경우 10월 이상이 100.0%로 나타났고, 연평균 영업 개월 수가 12.0개월로 높게 나타났고,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역시 연평균 영업개월수가

12.0개월로 나타남

- 밤년 한옥체험업의 경우 10개월 이상 영업을 전체의 81.3%로 높게 나타냈지만 연평균 영업개월 수가 10.7개월로 타 업종에 비해 영업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1]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연간 영업개월 수 분포

(단위 : 개, 개월%)

구분	전체	3개월 이하	4개월~ 6개월 이하	7개월~9개 월 이하	10개월 이 상	연 평균 영 업 개월 수
관광유희 음식점업	12	0	0	0	12	12.0
관광극장 유희업	136	0	4	5	128	11.7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446	24	14	16	392	11.1
관광 식당업	1,489	2	0	0	1,487	11.9
관광순환 버스업	62	0	2	2	58	11.6
관광 사진업	16	0	0	0	16	11.8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2	0	0	0	2	12.0
관광 펜션업	409	7	21	12	369	11.4
관광 퀘도업	13	0	0	0	13	11.6
한옥 체험업	1,266	42	116	78	1,029	10.7
관광면세업	33	0	1	4	28	11.3
전체	3,884 (100.0)	75 (1.9)	158 (4.1)	117 (3.0)	3,534 (91.0)	11.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1일 평균 영업시간

- 관광편의시설업의 연간 영업개월 수를 살펴보면 10개월 이상 영업하는 업체가 전체의 9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의 연평균 영업 개월 수는 11.4개월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유희음식점업의 경우 10월 이상이 100.0%로 나타났고, 연평균 영업 개월 수가 12.0개월로 높게 나타났고,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역시 연평균 영업 개월수가 12.0개월로 나타남
 - 밤년 한옥체험업의 경우 10개월 이상 영업을 전체의 81.3%로 높게 나타냈지만 연평균 영

업개월 수가 10.7개월로 타 업종에 비해 영업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관광편의시설업의 1일 영업시간은 14시간 이상 36.1%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평균 영업시간이 14.4시간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펜션업의 일평균 영업시간이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22.0시간), 다음으로 한옥체험업(19.6시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14.5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이 일평균 영업시간이 가장 낮게 나타남(8.3시간)

[표 3-92]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1일 평균 영업시간

(단위 : 개, 시간,%)

구분	전체	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미만	10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14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일평균 영업시간
관광유희음식점업	12	2	1	4	6	0	10.3
관광극장유희업	136	24	36	29	36	11	10.0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446	77	324	32	13	0	8.3
관광 식당업	1,489	0	261	660	542	27	10.7
관광순환버스업	62	3	51	2	0	7	9.4
관광 사진업	16	1	13	2	0	0	8.4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2	0	1	0	0	1	14.5
관광 펜션업	409	0	11	25	15	358	22.0
관광 가이드업	13	0	4	8	1	0	10.0
한옥 체험업	1,266	9	48	60	151	999	19.6
관광면세업	33	3	18	8	3	1	9.3
전체	3,884 (100.0)	120 (3.1)	767 (19.7)	829 (21.3)	765 (19.7)	1,403 (36.1)	14.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월평균 휴무일 수

- 관광편의시설업의 월평균 휴무일 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없음이 79.7%로 높게 나타났으며, 월 평균 휴무일 수는 0.8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휴무일이 없는 업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사진업의 경우 월 평균 휴무일수가 6.1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광순환버스업(5.8일),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4.0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관광편의시설업 중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펜션업과 한옥체험업의 경우 월평균 휴무일 수가 0.2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3-93] 관광편의시설업 분야 월 평균 휴무일 수

(단위 : 개, 일, %)

구분	전체	없음	1일~5일	6일~10일	11일 이상	월 평균 휴무일 수
관광유흥 음식점업	12	9	4	0	0	1.2
관광극장 유흥업	136	107	28	0	1	0.9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446	242	189	15	0	1.3
관광 식당업	1,489	1,084	397	9	0	0.9
관광순환버스업	62	8	17	37	0	5.8
관광 사진업	16	2	5	9	0	6.1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2	1	0	1	0	4.0
관광 펜션업	409	398	8	0	4	0.2
관광 귀도업	13	9	1	3	0	2.0
한옥 체험업	1,266	1,222	32	0	12	0.2
관광면세업	33	15	6	13	0	3.5
전체	3,884 (100.0)	3,096 (79.7)	686 (17.7)	85 (2.2)	17 (0.4)	0.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8) 소 결

- 여행업은 관광산업 내 사업체 수 및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 여행업의 증가 추세에 따라 시장 수요 특성에 부합하는 업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 여행업 등록에 대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높은 창업율과 함께 높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어 진입장벽의 제고가 필요함
 - 실제로 여행업은 국내외 환경에 매우 민감하며, 현재도 중국 사드보복, 일본 및 홍콩사태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여행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관광숙박업 분야 호텔업 중 관광호텔업은 3성 이하의 업체 비율(84.7%)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중소기업 호텔의 종사자 수요가 높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력 공급방안 모색이 필요함
- 관광객이용시설업 분야 사업체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5년부터 일반야영장업이 조사대상으로 반영되면서 증가추세를 보임
- 국제회의업의 경우 사업체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종사자 수와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한 업체의 비중이 높은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카지노업의 경우 2014년 이후 17개 업체를 유지하고 있으나 종사자의 감소추세(전년대비 22.8% 감소)와 매출액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현황파악이 요구됨
 - 카지노업의 경우 신규채용자(775명) 대비 연간 이직자(884명)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종사자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원시설업의 경우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심형 소규모 유원시설업(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등)의 수가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됨
 - 도심형 소규모 유원시설은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의 최소화된 시설로 안전관리자의 수요가 예상되나 동종업계의 낮은 처우수준으로 인한 인력수급 원활치 못한 실정임

4. 관광레저산업 인력 현황

1) 업종별 종사자 규모와 비중 추세 변화

가. 업종별 종사자 규모 추세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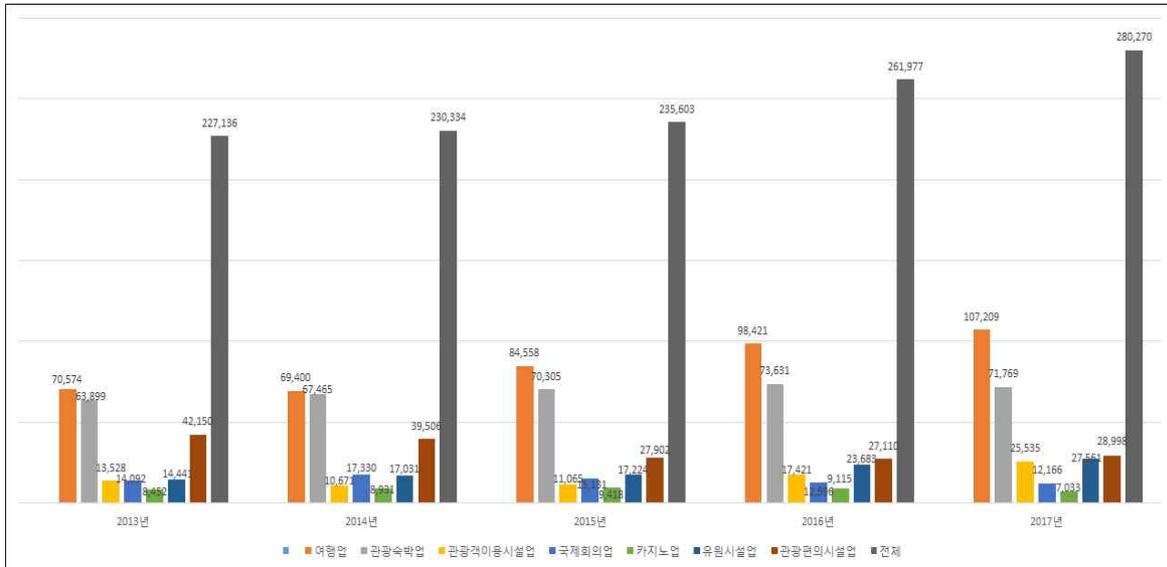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의 관광·레저산업의 업종별 종사자 규모를 살펴 보면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며 5.5%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으며, 유원시설업이 최근 5년간 평균 증감율이 18.2%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행업이 11.4%로 높게 나타남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기존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2016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5년 평균 21.6%로 가장 높은 증감율을 보였음(이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은 최근 5년간 -7.9%의 평균 증감율을 보임)
- 또한 카지노업의 경우 2015년까지 증가하다 2017년 기준 전년대비 22.8%가 감소함으로써 5년 평균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을 나타남
 - 카지노업의 경우 총 17개 업체(외국인전용 16개소, 내국인 전용 1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이는 2014년 이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종사자가 감소한 것은 업체의 변경에 따른 인력 구조 변화에 따른 결과로 예상됨

[표 3-94]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종사자 추이(2013-2017)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년 평균 증감율)
여행업	70,574	69,400	84,558	98,421	107,209(11.4)
관광숙박업	63,899	67,465	70,305	73,631	71,769(3.0)
관광객이용시설업	13,528	10,671	11,065	17,421	25,535(21.6)
국제회의업	14,092	17,330	15,131	12,596	12,166(-2.5)
카지노업	8,452	8,931	9,418	9,115	7,033(-3.7)
유원시설업	14,441	17,031	17,224	23,683	27,561(18.2)
관광편의시설업	42,150	39,506	27,902	27,110	28,998(-7.9)
전체	227,136	230,334	235,603	261,977	280,270(5.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3-37]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종사자 변화 추이(2013-2017)

나. 업종별 종사자 비중 추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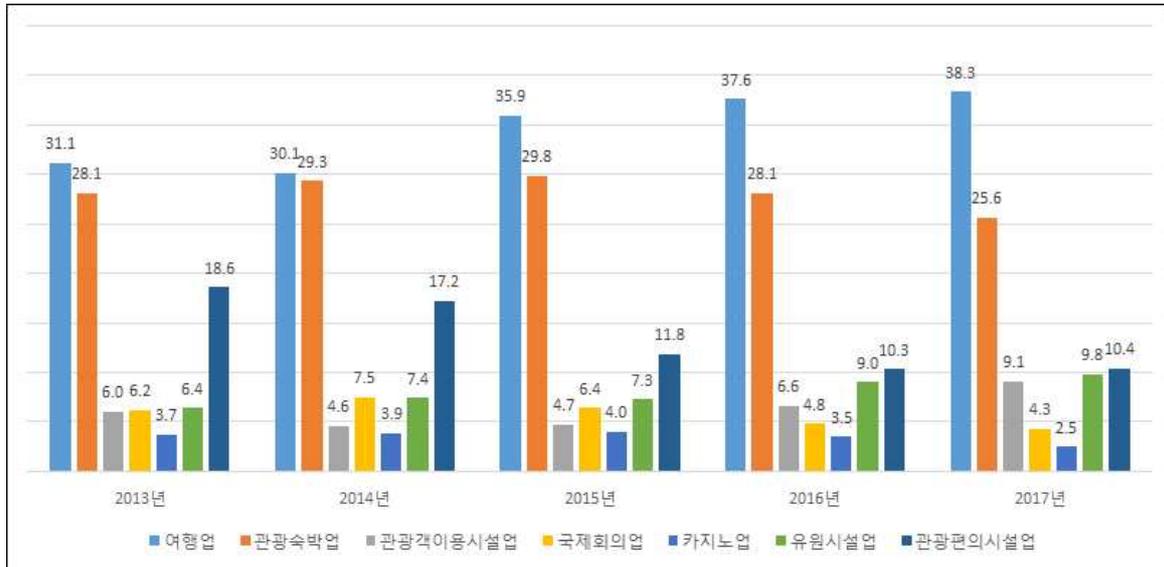
- 관광·레저산업의 업종별 최근 5년간(2013~2017년)의 업종별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여행업이 산업 전체에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31.1%~38.3%), 2다음으로 관광숙박업(28.1~25.6%), 관광편의시설업(18.6%~10.4%), 유원시설업(6.4%~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95]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종사자 비중 추세(2013-2017)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여행업	31.1	30.1	35.9	37.6	38.3
관광숙박업	28.1	29.3	29.8	28.1	25.6
관광객이용시설업	6.0	4.6	4.7	6.6	9.1
국제회의업	6.2	7.5	6.4	4.8	4.3
카지노업	3.7	3.9	4.0	3.5	2.5
유원시설업	6.4	7.4	7.3	9.0	9.8
관광편의시설업	18.6	17.2	11.8	10.3	10.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3-38]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종사자 비중 추세(2013-2017)

2)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신규채용 규모

가. 개요

- 2017년을 기준으로 관광·레저산업의 신규 채용 규모는 41,571명으로 총 종사원의 약 14.8%를 차지하고 있음
- 시기별로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신규 채용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96] 관광레저산업 신규 채용자 추이(2013년~2017년)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종사자 수	227,136	230,334	235,603	261,977	280,270
신규 채용자 수	43,738	38,661	35,641	40,033	41,571
신규 채용자 비중	19.3	16.8	15.1	15.3	14.8
증감율 (채용자 비중)	-	-12.9	-10.1	1.3	-3.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3-39] 관광레저산업 신규채용자 추이

나.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업종별 신규 채용 규모

- 관광·레저산업의 업종별 최근 5년간 신규채용 추이를 살펴보면 여행업은 2014년까지 감소하다 2015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17년 기준 전년대비 16.4% 증가한 15,492명으로 나타났고, 관광숙박업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17년 기준 전년대비 14.6%(15,235명)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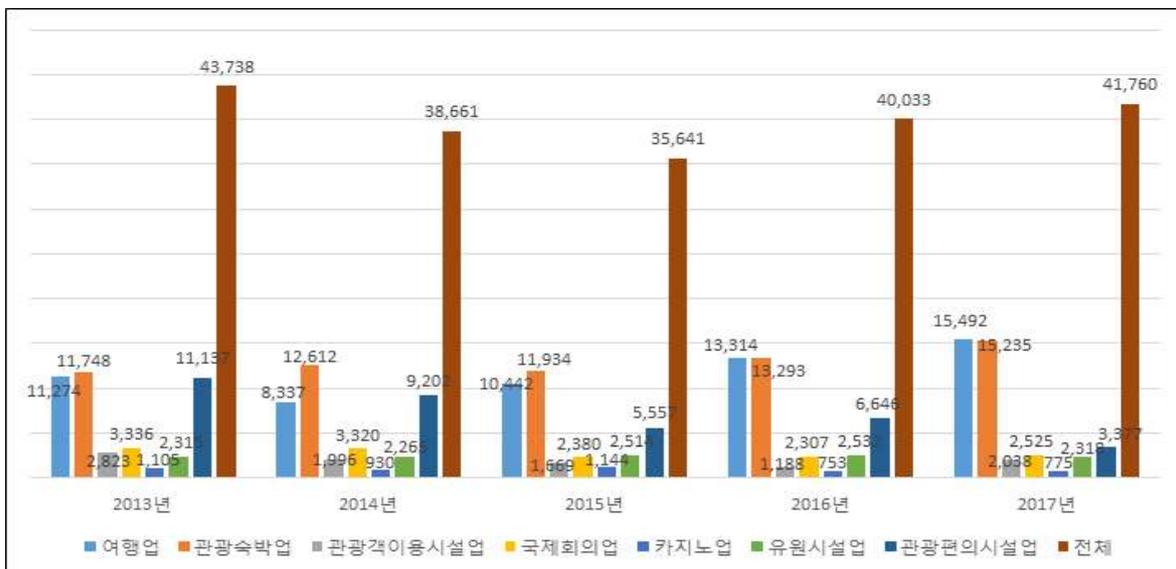
[표 3-97]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신규 채용 추이(2013년~2017년)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감율
여행업	11,274	8,337	10,442	13,314	15,492	16.4
관광숙박업	11,748	12,612	11,934	13,293	15,235	14.6
관광객이용시설업	2,823	1,996	1,669	1,188	2,038	71.5
국제회의업	3,336	3,320	2,380	2,307	2,525	9.4
카지노업	1,105	930	1,144	753	775	2.9
유원시설업	2,315	2,265	2,514	2,532	2,318	-8.5
관광편의시설업	11,137	9,202	5,557	6,646	3,377	-49.2
전체	43,738 (100.0)	38,661 (100.0)	35,641 (100.0)	40,033 (100.0)	41,760 (100.0)	4.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2016년 감소하다 2017년 전년대비 71.5%(2,038명)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국제회의업은 2016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7년 9.4%(2,525명)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카지노업의 경우 역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7년 전년대비 2.9%(775명) 증가하였음
- 유원시설업의 신규채용율은 2016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7년 전년대비 8.5%(2,318명)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편의시설업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면 2017년 기준 전년대비 49.2%가 감소하였음



[그림 3-40]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신규 채용 추이

가) 여행업의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여행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연매출 3억 원-10억 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3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억 원- 10억 원 미만인 업체도 25.1%로 신규 채용률이 높게 나타남 - 3억 원-10억 원 미만인 업체 이직률 28.2%로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20-50명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20명 미만인 업체가 18.1%로 나타남
- 성별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55.4%, 여성이 44.6%로 남성의 신규 채용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레저산업의 전체 신규 인력채용 평균인 남성

53.3%(22,149명)보다 남성 채용 비중이 2.1%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8] 여행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연간 신규 인력채용 현황		
		전체	남성	여성
매출액 규모별	5천만 원 미만	2,752	1,986	766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206	516	691
	1억 원 - 3억 원 미만	3,887	2,101	1,786
	3억 원 - 10억 원 미만	4,681	2,541	2,140
	10억 원 이상	2,966	1,442	1,524
종사자 규모별	1 - 5명 미만	2,331	769	1,562
	5 - 10명 미만	428	1,688	2,740
	10 - 20명 미만	2,802	1,590	1,212
	20 - 50명 미만	4,656	3,702	954
	50명 이상	1,275	837	438
전 체		15,492 (100.0)	8,586 (55.4)	6,906 (44.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나) 관광숙박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관광숙박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연매출 40억 원이 상인 업체가 전체의 6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5억 원- 40억 원 미만인 업체도 19.0%로 신규 채용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해당업체들의 경우 이직률도 높게 나타나 이직에 따른 신규 채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40억 원 이상인 업체 이직률 72.0%로 나타났고, 15억 원-40억 원 미만 역시 17.1%의 이직률을 보였음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명 이상의 업체가 전체의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0-100명 미만인 업체가 17.3%로 나타남
- 성별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51.5%, 여성이 48.5%로 남성의 신규 채용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레저산업의 전체 신규 인력채용 평균인 남성

53.3%(22,149명)보다 남성 채용 비중이 1.8%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9] 관광숙박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연간 신규 인력채용 현황		
		전체	남성	여성
매출액 규모별	5억 원 미만	1,461	708	754
	5억 원 - 15억 원 미만	1,198	611	587
	15억 원 - 40억 원 미만	2,896	1,399	1,496
	40억 원 이상	9,680	5,135	4,544
종사자 규모별	1 - 10명 미만	618	311	307
	10 - 30명 미만	2,530	1,285	1,246
	30 - 50명 미만	2,291	1,149	1,143
	50 - 100명 미만	2,634	1,392	1,242
	100명 이상	7,162	3,717	3,445
전 체		15,235 (100.0)	7,853 (51.5)	7,382 (48.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다) 관광객이용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연매출 10억 원 이상인 업체가 전체의 4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억 원미만인 업체도 32.1%로 신규 채용률이 높게 나타남(10억 원 이상인 업체 이직률 75.6%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명 이상의 업체가 전체의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0-100명 미만인 업체가 19.1%로 나타남
- 성별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64.3%, 여성이 35.7%로 남성의 신규 채용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레저산업의 전체 신규 인력채용 평균인 남성 53.3%(22,149명)보다 남성 채용 비중이 11.0%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00] 관광객이용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연간 신규 인력채용 현황		
		전체	남성	여성
매출액 규모별	1억 원 미만	654	470	183
	1억 원 - 3억 원 미만	313	174	139
	3억 원 - 5억 원 미만	97	67	30
	5억 원 - 10억 원 미만	34	20	14
	10억 원 이상	941	579	362
종사자 규모별	1 - 10명 미만	247	120	127
	10 - 30명 미만	131	96	35
	30 - 50명 미만	203	149	54
	50 - 100명 미만	389	209	180
	100명 이상	1,068	736	333
전 체		2,038 (100.0)	1,310 (64.3)	728 (35.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라) 국제회의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국제회의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연매출 10억 원 이상인 업체가 전체의 5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천만 원미만인 업체도 27.8%로 신규 채용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해당 업체들의 경우 이직률도 높게 나타나 이직에 따른 신규 채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10억 원이상의 업체의 연간이직율은 52.0%로 높게 나타났고, 3천만 원미만인 업체도 33.0%의 높은 이직률을 보였음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0-20명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50명 미만인 업체가 20.1%로 나타남
- 성별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43.6%, 여성이 56.4%로 여성의 신규 채용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레저산업의 전체 신규 인력채용 평균인 여성

46.7%(19,422명)보다 여성 채용 비중이 9.7%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01] 국제회의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연간 신규 인력채용 현황		
		전체	남성	여성
매출액 규모별	3천만 원 미만	649	307	342
	3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12	0	12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0	0	0
	1억 원 - 3억 원 미만	115	51	63
	3억 원 - 5억 원 미만	54	10	44
	5억 원 - 10억 원 미만	203	71	132
	10억 원 이상	1,304	580	724
종사자 규모별	1 - 5명 미만	433	204	229
	5 - 10명 미만	421	150	271
	10 - 20명 미만	669	248	421
	20 - 50명 미만	469	264	205
	50명 이상	344	153	191
전 체		2,336 (100.0)	1,019 (43.6)	1,317 (56.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마) 카지노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카지노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인 업체가 전체의 4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0억 원-1,000억 원 미만인 업체도 33.5%로 신규 채용률이 높게 나타남(1,000억 원 이상의 업체의 연간 이직율은 39.3%로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체가 20명 이상인 업체로 775명의 신규채용율을 보였음
- 성별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50.6%, 여성이 49.4%로 남성의 신규 채용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레저산업의 전체 신규 인력채용 평균인 남성 53.3%(22,149명)보다 남성 채용 비중이 2.7%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02] 카지노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연간 신규 인력채용 현황		
		전체	남성	여성
매출액 규모별	100억 원 미만	11	4	7
	100억 원 - 300억 원 미만	162	77	85
	300억 원 - 1,000억 원 미만	260	24	136
	1,000억 원 이상	342	187	155
종사자 규모별	20명 미만	0		0
	20명 이상	775	392	383
전 체		775 (100.0)	392 (50.6)	383 (49.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바) 유원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유원시설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연매출 15억 원 이상인 업체가 전체의 6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억 원-15억 원미만인 업체도 22.4%로 신규 채용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해당업체들의 경우 이직률도 높게 나타나 이직에 따른 신규 채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15억 원이상의 업체의 연간이직율은 67.2%로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0명 이상인 업체가 전체의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50명 미만인 업체가 14.5%로 나타남
- 성별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57.1%, 여성이 42.9%로 남성의 신규 채용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레저산업의 전체 신규 인력채용 평균인 남성 53.3%(22,149명)보다 남성 채용 비중이 3.8%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03] 유원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연간 신규 인력채용 현황		
		전체	남성	여성
매출액 규모별	5천만 원 미만	41	33	7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282	163	120
	3억 원 - 15억 원 미만	519	288	231
	15억 원 이상	1,476	839	637
종사자 규모별	1 - 5명 미만	60	46	13
	5 - 10명 미만	209	128	81
	10 - 20명 미만	206	111	95
	20 - 50명 미만	337	189	148
	50명 이상	1,505	848	657
전 체		2,318 (100.0)	1,324 (57.1)	995 (42.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사) 관광편의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현황

- 관광편의시설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연매출 10억 원 이상인 업체가 전체의 6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억 원-5억 원미만인 업체도 23.1%로 신규 채용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해당업체들의 경우 이직률도 높게 나타나 이직에 따른 신규 채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10억 원 이상의 업체의 연간 이직률은 58.9%로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20명-50명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20명 미만인 업체가 25.2%로 나타남
- 성별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49.3%, 여성이 50.7%로 여성의 신규 채용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레저산업의 전체 신규 인력채용 평균인 여성 46.7%(19,422명)보다 여성 채용 비중이 4.0%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04] 관광편의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신규 채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연간 신규 인력채용 현황		
		전체	남성	여성
매출액 규모별	1억 원 미만	302	104	198
	1억 원 - 5억 원 미만	781	236	545
	5억 원 - 10억 원미만	239	116	123
	10억 원 이상	2,054	1,209	845
종사자 규모별	1명 - 5명 미만	437	113	323
	5명 - 10명 미만	514	122	391
	10명 - 20명 미만	850	501	348
	20명 - 50명 미만	1,412	854	558
	50명 이상	165	74	91
전 체		3,377 (100.0)	1,664 (49.3)	1,712 (50.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3) 관광레저산업 관련 전국 직종별 구인구직 동향(고용노동부 통계)

- 고용노동부(2018)의 2018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 직종 중분류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의 직종소분류는 다음과 같음
 - 직종소분류: 여행서비스 관련 종사자, 승무원,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 관광레저산업 관련 전국 종사자 구인구직현황은 직종소분류인 여행서비스 관련 종사자, 승무원,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규모별: 5인 이상, 10인 이상, 5~299인)

■ 직종별 중분류 전 규모 5인 이상 현황²⁴⁾

- 여행서비스 관련 종사자 현황은 현원 24,883명, 구인인원 1,007명, 채용인원 825명,

24) 직종별 중분류 전체(전규모 5인 이상) 현황은 현원 164,596명, 구인인원 14,388명, 채용인원 13,264명, 미충원 인원 1,124명, 부족인원 7,354명, 채용계획인원 7,753명, 부족률 4.3%로 나타남

미충원 인원 182명, 부족인원 517명, 채용계획인원 528명(부족률 2.0%)으로 나타남

- 승무원은 현원 15,078명, 구인인원 370명, 채용인원 370명, 부족인원 66명, 채용계획인원 66명(부족률 0.4%)로 나타났고,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현원 8,540명, 구인인원 1,359명, 채용인원 1,148명, 미충원 인원 211명, 부족인원 1,047명, 채용계획인원 1,230명(부족률 10.9%)으로 나타남

-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의 경우 현원 8,211명, 구인인원 3,334명, 채용인원 3,248명, 미충원 인원 86명, 부족인원 174명, 채용계획인원 1,811명(부족률 17.3%)으로 나타남

■ 직종별 중분류 전 규모 10인 이상 현황²⁵⁾

- 여행서비스 관련 종사자 현황은 현원 16,150명, 구인인원 499명, 채용인원 317명, 미충원 인원 182명, 부족인원 363명, 채용계획인원 380명(부족률 2.2%)으로 나타남

- 승무원은 현원 15,078명, 구인인원 370명, 채용인원 370명, 부족인원 66명, 채용계획인원 66명(부족률 0.4%)로 나타났고,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현원 7,946명, 구인인원 1,294명, 채용인원 1,083명, 미충원 인원 211명, 부족인원 976명, 채용계획인원 1,160명(부족률 10.9%)으로 나타남

-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의 경우 현원 7,066명, 구인인원 3,130명, 채용인원 3,109명, 미충원 인원 21명, 부족인원 1,649명, 채용계획인원 1,747명(부족률 18.9%)으로 나타남

■ 직종별 중분류 중소규모 5-299인 현황²⁶⁾

- 여행서비스 관련 종사자 현황은 현원 22,059명, 구인인원 962명, 채용인원 784명, 미충원 인원 178명, 부족인원 450명, 채용계획인원 461명(부족률 2.0%)으로 나타남

-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현원 5,038명, 구인인원 797명, 채용인원 681명, 미충원 인원 116명, 부족인원 251명, 채용계획인원 392명(부족률 4.7%)으로 나타남

-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의 경우 현원 5,696명, 구인인원 1,975명, 채용인원 1,897명, 미충원 인원 78명, 부족인원 236명, 채용계획인원 264명(부족률 4.0%)으로 나타남

25) 직종별 중분류 전체(전규모 10인 이상) 현황은 현원 126,116명, 구인인원 9,843명, 채용인원 8,939명, 미충원 인원 904명, 부족인원 5,488명, 채용계획인원 5,829명, 부족률 4.2%로 나타남

26) 직종별 중분류 전체(중소규모 -299인) 현황은 현원 134,488명, 구인인원 11,439명, 채용인원 10,428명, 미충원 인원 1,011명, 부족인원 4,436명, 채용계획인원 4,723명, 부족률 3.2%로 나타남

[표 3-105] 고용보험 통계상 전국 직종별·규모별·현원·구인인원·채용인원·미충원인원·부족인원·채용계획인원·부족률 구인구직 동향(2018년 하반기 기준)

(단위: 명, %)

직종 중분류	직종 소분류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 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부족률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여행서비스 관련 종사자	24,883	1,007	825	182	517	528	2.0	
	승무원	15,078	370	370	0	66	66	0.4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8,540	1,359	1,148	211	1,047	1,230	10.9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8,211	3,334	3,248	86	174	1,811	17.3	
	소계	56,712	6,070	5,591	479	1,804	3,635	-	
	직종 중분류 전체(전규모 5인 이상)	164,596	14,388	13,264	1,124	7,354	7,753	4.3	
		직종 소분류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 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부족률
	여행서비스 관련 종사자	16,150	499	317	182	363	380	2.2	
	승무원	15,078	370	370	0	66	66	0.4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7,946	1,294	1,083	211	976	1,160	10.9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7,066	3,130	3,109	21	1,649	1,747	18.9	
	소계	46,240	5,293	4,879	414	3,054	3,353	-	
	직종 중분류 전체(전규모 10인 이상)	126,116	9,843	8,939	904	5,488	5,829	4.2	
		직종 소분류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 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부족률
	여행서비스 관련 종사자	22,059	962	784	178	450	461	2.0	
	승무원	641	0	0	0	0	0	0.0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5,038	797	681	116	251	392	4.7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5,696	1,975	1,897	78	236	264	4.0	
	소계	33,434	3,734	3,362	372	937	1,117	-	
	직종 중분류 전체(중소규모 5-299인)	134,488	11,439	10,428	1,011	4,436	4,723	3.2	

주) 본 자료는 고용노동통계자료로 현황부문의 업종별 종사자 현황(관광진흥법상 업종별 관광사업)의 수치와는 상이함

자료 : 고용노동부(2018), 2018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 참조 후 재구성

4) 관광·레저산업 종사자 이직 동향

가. 관광·레저 산업 업종별 이직률

■ 관광·레저산업 전체 업종 연도별 이직률 추이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관광사업체 종사자 규모는 5년간 연평균 2.8%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직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냄

[표 3-106] 관광·레저산업 전체업종 연도별 이직률 추이(2013년~2017년)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종사자 수	227,136	230,334	235,603	261,977	280,270
전체 이직자 수	30,168	32,080	29,880	34,752	33,302
이직자 비중	13.3	13.9	12.7	13.3	11.9
증감율 (이직자 비중)	-	4.5	-8.6	4.7	-10.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3-41] 관광·레저산업 연도별 이직자 추이

■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이직률 추이

- 관광·레저산업의 2017년 기준 업종별 이직률은 여행업이 전체의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광숙박업이 전체의 37.8%의 높은 비중을 보였음

- 여행업의 경우 2016년의 경우 관광숙박업에 비해 낮은 이직률을 보이다 2017년 전년대비 20.2%의 높은 증감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중국의 사드보복(한한령)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련 여행업의 매출하락에 의한 것으로 보임

○ 2017년 기준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감율을 보인 업종은 여행업(20.2%)과 관광객이용시설업(15.3%)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증감율을 보인 업종은 관광편의시설업(-56.4%)과 유원시설업(-25.6%)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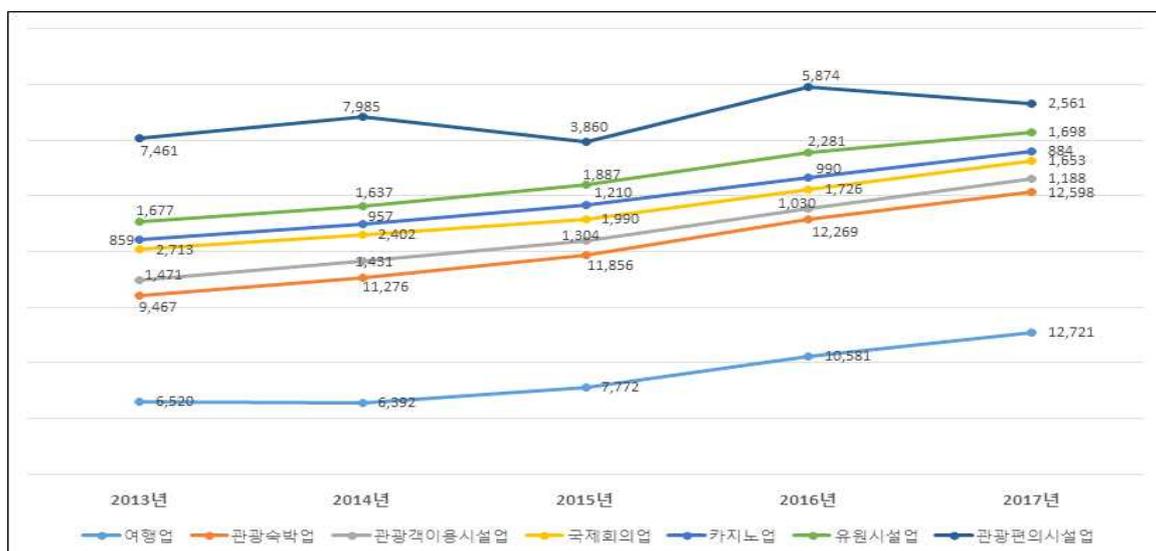
- 관광편의시설업의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이동(관광객이용시설업)에 따라 전체 종사자의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나타나 결과로 예상됨

[표 3-107]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이직자 추이(2013년~2017년)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율 (전년대비)
여행업	6,520	6,392	7,772	10,581	12,721	20.2
관광숙박업	9,467	11,276	11,856	12,269	12,598	2.7
관광객이용시설업	1,471	1,431	1,304	1,030	1,188	15.3
국제회의업	2,713	2,402	1,990	1,726	1,653	-4.2
카지노업	859	957	1,210	990	884	-10.7
유원시설업	1,677	1,637	1,887	2,281	1,698	-25.6
관광편의시설업	7,461	7,985	3,860	5,874	2,561	-56.4
전체	30,168 (100.0)	32,080 (100.0)	29,880 (100.0)	34,752 (100.0)	33,302 (100.0)	-4.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2018).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3-42] 관광레저산업 연도별 이직자 추이(2013-2017)

나. 세부업종별 이직률 현황

가) 여행업의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 여행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연매출 1억 원-3억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2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3억 원- 10억 원 미만인 업체도 26.0%로 높게 나타남(이직률이 높은 업체의 신규채용률도 높음)
- 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20-50명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10명 미만인 업체가 24.5%의 높은 이직률을 보였음
- 성별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54.9%, 여성이 45.9%로 남성의 이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레저산업의 전체 이직 평균인 남성 53.3%(22,149명)보다 남성 이직 비중이 1.6%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08] 여행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단위 :명,%)

구분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매출액 규모별	5천만 원 미만	2,401	1,908	493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286	489	796
	1억 원 - 3억 원 미만	3,588	1,951	1,637
	3억 원 - 10억 원 미만	3,310	1,501	1,809
	10억 원 이상	2,137	1,140	996
종사자 규모별	1 - 5명 미만	1,820	475	1,346
	5 - 10명 미만	3,121	1,253	1,868
	10 - 20명 미만	2,108	943	1,164
	20 - 50명 미만	4,424	3,505	919
	50명 이상	1,248	812	436
전 체		12,721 (100.0)	6,988 (54.9)	5,732 (45.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나) 관광숙박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 관광숙박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연매출 40억 원 이상인 업체가 전체의 7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5억 원-40억 원 미만인 업체도 17.1%의 높은 이직율을 보였으며, 해당업체들의 경우 신규 채용율도 높게 나타나 이직에 따른 신규 채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종사자 규모별로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100명 이상의 업체가 전체의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0-100명 미만인 업체가 19.6%의 높은 이직율을 보였음
- 성별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52.7%, 여성이 47.3%로 남성의 이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레저산업의 전체 이직 평균인 남성 53.3%(22,149명)보다 남성 이직 비중이 0.6%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09] 관광숙박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단위 :명,%)

구분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매출액 규모별	5억 원 미만	373	175	198
	5억 원 - 15억 원 미만	996	505	491
	15억 원 - 40억 원 미만	2,155	1,094	1,061
	40억 원 이상	9,074	4,866	4,208
종사자 규모별	1 - 10명 미만	470	225	245
	10 - 30명 미만	2,328	1,197	1,132
	30 - 50명 미만	1,397	756	641
	50 - 100명 미만	2,474	1,324	1,150
	100명 이상	5,929	3,138	4,208
전 체		12,598 (100.0)	6,640 (52.7)	5,959 (47.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다) 관광객이용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이직현황을 살펴보면 연매출 10억 원 이상인 업체가 전체의 7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억 원-3억 원 미만인 업체도 14.1%로 높은 이직률을 보임
- 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100명 이상의 업체가 전체의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0-100명 미만인 업체가 28.0%의 이직률을 나타냄
- 성별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59.7%, 여성이 40.3%로 남성의 이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레저산업의 전체 이직 평균인 남성 53.3%(22,149명)보다 남성 이직 비중이 6.4%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10] 관광객이용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단위 :명,%)

구분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매출액 규모별	1억 원 미만	37	13	24
	1억 원 - 3억 원 미만	168	102	67
	3억 원 - 5억 원 미만	60	37	22
	5억 원 - 10억 원 미만	25	15	10
	10억 원 이상	898	543	355
종사자 규모별	1 - 10명 미만	91	56	35
	10 - 30명 미만	56	39	16
	30 - 50명 미만	184	111	73
	50 - 100명 미만	332	174	158
	100명 이상	525	329	193
전 체		1,188 (100.0)	709 (59.7)	479 (40.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라) 국제회의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 국제회의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이직현황을 살펴보면 연매출 10억 원 이상인 업체가 전체의 5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천만 원미만인 업체도 33.0%로 높은 이직율을 보였는데, 해당업체들의 경우 신규채용률도 높게 나타나 이직에 따른 신규 채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10-20명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50명 미만인 업체가 20.4%로 나타남
- 성별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46.1%, 여성이 53.9%로 여성의 이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레저산업의 전체 이직 평균인 여성 46.7%(19,422명)보다 여성 이직 비중이 7.2%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11] 국제회의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단위 :명,%)

구분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매출액 규모별	3천만 원 미만	546	255	291
	3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0	0	0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0	0	0
	1억 원 - 3억 원 미만	34	26	8
	3억 원 - 5억 원 미만	43	4	39
	5억 원 - 10억 원 미만	169	62	107
	10억 원 이상	860	415	446
종사자 규모별	1 - 5명 미만	315	181	134
	5 - 10명 미만	257	94	162
	10 - 20명 미만	497	170	326
	20 - 50명 미만	337	199	138
	50명 이상	248	17	130
전 체		1,653 (100.0)	762 (46.1)	891 (53.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마) 카지노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 카지노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이직현황을 살펴보면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인 업체가 전체의 3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00억 원 - 300억 원 미만인 업체도 25.7%로 높은 이직률을 보였음
- 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업체의 종사자가 20명 이상으로 연간 884명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49.9%, 여성이 50.1%로 여성의 이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레저산업의 전체 이직 평균인 여성 46.7%(19,422명)보다 여성 이직 비중이 3.4%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12] 카지노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단위 :명,%)

구분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매출액 규모별	100억 원 미만	113	50	63
	100억 원 - 300억 원 미만	227	108	119
	300억 원 - 1,000억 원 미만	197	90	107
	1,000억 원 이상	347	193	154
종사자 규모별	20명 미만	0	0	0
	20명 이상	884	441	443
전 체		884 (100.0)	441 (49.9)	443 (50.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바) 유원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 유원시설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연매출 15억 원 이상인 업체가 전체의 6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억 원-15억 원미만인 업체도 16.7%로 높은 이직률을 나타냈으며, 해당업체들의 경우 신규

채용률도 높게 나타나 이직에 따른 신규 채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을 살펴보면 50명 이상인 업체가 전체의 7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50명 미만인 업체가 11.8%로 나타남
- 성별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54.0%, 여성이 45.9%로 남성의 신규 이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레저산업의 전체 이직 평균인 남성 53.3%(22,149명)보다 남성 채용 비중이 0.7%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13] 유원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단위 :명,%)

구분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매출액 규모별	5천만 원 미만	23	17	6
	5천만 원 - 3억 원 미만	250	130	120
	3억 원 - 15억 원 미만	284	154	130
	15억 원 이상	1,141	616	525
종사자 규모별	1 - 5명 미만	51	40	10
	5 - 10명 미만	170	81	89
	10 - 20명 미만	82	51	32
	20 - 50명 미만	200	126	74
	50명 이상	1,195	620	575
전 체		1,698 (100.0)	917 (54.0)	780 (45.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사) 관광편의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 관광편의시설업의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연매출 10억 원 이상인 업체가 전체의 5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억 원-5억 원미만인 업체도 27.6%로 높은 이직률을 보였으며, 해당업체들의 경우 신규 채용률도 높게 나타나 이직에 따른 신규 채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종사자 규모별 이직현황을 살펴보면 20명-50명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10-20명 미만인 업체가 21.3%로 나타남
- 성별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49.0%, 여성이 51.0%로 여성의 이직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레저산업의 전체 이직 평균인 여성 46.7%(19,422명)보다 여성 이직 비중이 4.9%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14] 관광편의시설업 매출액·종사자 규모별 이직 현황

(단위 :명,%)

구분		연간 이직 현황		
		전체	남성	여성
매출액 규모별	1억 원 미만	101	53	48
	1억 원 - 5억 원 미만	706	192	513
	5억 원 - 10억 원미만	244	128	116
	10억 원 이상	1,509	880	629
종사자 규모별	1명 - 5명 미만	377	65	312
	5명 - 10명 미만	414	140	274
	10명 - 20명 미만	545	324	221
	20명 - 50명 미만	1,062	647	415
	50명 이상	162	77	85
전 체		2,561 (100.0)	1,254 (49.0)	1,307 (51.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5) 소결

■ 업종별 인력 수요증가에 따른 현장맞춤형 인력 양성 필요

- 관광·레저산업의 전반적인 사업체 수 및 신규채용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산업의 업종별 인력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세부 업종 분야별 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여 ISC 참여기관(협단체) 및 관련 인력양성기관 중심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직무별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미스매칭의 최소화와 공급의 균형이 요구됨
 - 실제로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업종(국제회의업 등)이 있어 세부 업종별 인력수요 조사가 요구됨
 - 여행업의 경우 인바운드 관광객과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의 인력수요가 예상되며,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야영장업 관련 인력 및 크루즈 관련 인력 등의 요구됨

■ 업종별 종사자 대상 근무만족도 조사 시행

- 현재 관광·레저산업의 전 업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업종별 신규채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신규 채용률(14.8%) 못지않게 업종별 이직률(11.9%)이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인력수요가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관련기관(ISC, 해당 협회 등)은 종사자 대상 근무 만족도 조사 수행이 요구됨
 - 산업 내 업종별 담당자 인터뷰 결과 신규채용 종사자들의 조기 퇴직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신규 채용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 종사자들의 현재 업종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만족도 저해 요인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을 통한 이직률 감소가 필요함
 - 종사자들의 이직에 따른 신규 종사자 채용시 채용과정의 시간적 비용과 채용 후 실시하는 교육비 등의 재정적 비용이 발생하여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매출액·종사자 규모에 따른 신규채용률과 연간이직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종사자 규모가 높고 매출액이 높은 업체의 신규채용률 및 연간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 업체 종사자들의 만족도 조사 등의 실태분석이 필요함

제 4 장

관광·레저산업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1.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 정책²⁷⁾ 및 직업분석

1)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 개념

■ 개념 및 정의

- 전문인력의 사전적 개념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을 보면 ‘전문(專門)’이란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직 그 분야만 연구하거나 맡음. 또는 그 분야”를 의미하고 인력은 “사람의 노동력”을 뜻함
 - 즉, 이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전문인력은 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의 노동력을 의미함
- 「관광진흥법」상 관광·레저산업 관련 전문인력과 관련된 규정은 제7절 관광종사원으로 규정하고 있음²⁸⁾
 - 전문인력과 관련해서 「관광진흥법」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정의하고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 교육기관(제8조의 3)²⁹⁾ 및 관광종사원의 자격과 관련 전문 위탁기관 등과 관련하여 규정함
- 또한 전문인력과 관련한 개념에는 전문직, 역량, 핵심 역량 등이 있음
 - 전문직(profession)이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으로 정의됨(영미권의 확대된 ‘profession’ 개념: 전문직은 체계적 교육과정이 요구되고 이론과 실기 측면 모두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이제환, 2003)
 - 역량(Competency)은 직무와 관련한 특정 업무를 완수하고 직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27)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 양성 정책 사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의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음

28) 구체적으로 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 39조(교육), 제40조(자격취소 등)는 관광종사원의 자격, 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 자격의 정지 및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능력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활동과 능력(Morris, 1973; Tas, 1988)으로, 업계의 전문가나 교육자를 비롯해 노동 인구에게 요구되는 것이며, 기술, 능력, 지식 등을 포함한다(Millar et al., 2010)

-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은 복잡한 업무 활동과 기술을 조화시킬 수 있는 특별화 된 전문지식으로 정의(Prahaland & Hamel, 1990)되는데, 이러한 관광산업 인력의 핵심역량과 관련해서 연구는 관광사업체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음(근무환경 적응, 대인관계, 외국어, 전문지식 등)

○ 이러한 전문인력에 대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 “관광·레저 관련 전문적 학위 및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관광·레저에 관한 실질적 지식 및 역량을 보유한 인력”을 말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2)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 정책사례

가. 국외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 정책 사례

- 국외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 정책 사례 분석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일본, 영국, 캐나다, 미국의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음³⁰⁾
- 국외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의 정책 사례는 서로 다른 분류 방식으로 사업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추진 목표에 따라 ① 자격제도, ② 산관학 연계 인력 양성, ③ 지역관광 인재 양성, ④ 관광 인력 양성 조직, ⑤ 기타(관광산업 인식 개선 정책)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사업을 구분하였음
- 국외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의 정책 사례 분석은 일본 추진 정책 11개, 영국 추진 정책 4개, 캐나다 추진 정책 5개, 미국 추진 정책 사업 3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표4-1] 참조)
 - 일본: 5개의 자격제도, 4개의 인력양성 사업 추진, 1개의 지역관광지 개발 관련 인재육성 정책과 1개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영국: 2개의 인력양성 사업, 1개의 지역 기금 확보, 관광사업 인식 개선 정책 시행
 - 캐나다: 1개의 자격제도 운영 및 2개의 인력 양성 사업 추진, 2개의 인력 양성 조직 운영
 - 미국: 개의 자격제도 운영, 1개의 인력양성사업 추진

30) 국외 관광·레저산업 전문인력 관련 정책 사업의 사례분석은 2018년 기준 국가별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재인용)

[표 4-1] 국외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정책 주요 사례

구분	일본	영국	캐나다	미국
자격제도	-전국 통역안내사 ³¹⁾ -지역 통역안내사 -여행업무 취급관리자 ³²⁾ -여정관리주임자 -여행서비스 수배 -업무 취급관리자	-	-emerit 기술훈련 및 인증 프로그램 (관광산업 전문인 력 양성)	-직무능력 모델 제공 및 활용 -여행 상담원 인증 프로그램
산관학 연 계 인력 양성	-커리큘럼 모델 개발 및 적용(인력양성) -인턴십 충실화(인력양성) -산관학 연계 관광업계 종사원 능력향상 정책 (인력향상) -산관학 연계에 의한 중핵인재 양성사업(인 력향상)	-견습 제도 (Apprenticeships) ³³⁾ -교육 프로그램 운영	-Ready-to-Wor k ³⁴⁾ -청년고용전략 (YES) ³⁵⁾	-산학연계 세미나 운영
지역관광 인재 양성	-지역 관광지개발 관련 인재육성 정책	-해안권 지역 기금 (Coastal Commu nities Fund)	-	-
관광인력 양성 조직	-관광인력 양성을위한 정책검토 및 준비 조 직의 운영	-	-Tourism HR Canada -관광교육위원 회 ³⁶⁾ (Tourism Educati on Councils)	-
기타	-	-관광사업 인식 개선 정책(#mytourism job)	-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재인용.

31) 통역안내사 자격제도는 통역안내사법 개정으로 인해 커다란 내용 변화가 이루어져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통역안내사 업무 독점이 완전 폐지되어 누구나 통역안내업무를 할 수 있게 된 한편, 국가자격시험은 존속시켜 합격자에게는 전국통역안내사 자격 부여(지역 통역안내사 제도를 신설)

32) 여행서비스 제공의 명확성 및 공정성 확보,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 등에 관련된 업무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기 위해 운영됨

33) 영국은 2020년까지 3 백만 개의 견습 프로그램들을 목표로 견습 정책(Apprenticeships)의 질적, 양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안권 및 해안가 지역 내의 관광산업견습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해안권 지역 기금 등을 통해 관광 전문인력 양성 추진

34) 1994년 청년층의 관광직업이라는 정책으로 18세에서 29세의 청년층의 학업에서 취업으로의 과정을 돕기 위해 시작 됨

35)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들에게 취업정보, 기술, 경력과 역량강화 등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36) 지역에 기반한 비정부 기관으로, 캐나다 내 각 지역에서 관광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광산업 표준, 인증, 교육 등을 평가하는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나. 국내 부처별 전문인력 정책 사례

- 국내 부처별 전문인력 양성 정책 사례 분석을 위하여 2018년 기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력양성 정책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함
 -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정망 강화 기반 구축,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직업능력 배려 체제 구축 등을 위해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목표로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직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창출-임금상승-근로환경 개선’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개편을 하고,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생애단계별(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고용단계별(고용진입, 고용이후), 사회적 취약계층별(여성, 장애인) 다각적인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를 뒷받침하고,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될 미래의 고용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강화’, ‘산업계수요에 부합하는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산업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까지 연결(취업)되는 사후 사업관리체계 강화’라는 3대 인력 육성 추진방향이 담긴 ‘2018년도 산업부 인력양성계획(‘18.1)’ 발표
- 국내 부처별 인력양성 정책 사례 분석은 고용노동부 11개, 교육부 4개, 중소벤처기업부 추진 정책 사업 16개, 산업통상자원부 추진 정책 사업 6개를 대상으로 실시함

[표 4-2] 정부 부처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요 사례

주관부처	관산학 협력 기반 사업	재직자 역량 강화사업	취업(창업)역량 제고 사업
고용노동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일학습 병행	-내일배움카드(근로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중소기업 훈련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내일배움카드(실업자) -청년취업아카데미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정책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한국형 나노디그리 육성	-평생교육 바우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기술사관 육성사업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 양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벤처기업 채용인력 역량 강화 교육 -R&D기획역량강화교육	-비즈쿨 학교 지정·운영 -창업대학원 운영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온라인교육시스템(SMEMOOC) 활성화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산업통상 자원부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 -산업전문인력역량 강화(R&D) -산학융합지구조성(R&D)	-산업단지 근로자 평생학습 교육 지원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산업단지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재인용.

■ 관산학 협력기반 사업

- 정부의 다양한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산학 협력 기반 사업을 통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과 기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표 4-3] 정부부처별 관산학 협기반 사업의 주요 내용

주관부처	관산학 협력 기반 사업명	주요 내용
고용 노동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 지역의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을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 단체와 연합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 사업비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 지역·산업계 중심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 지역별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인력수요·공급조사→공동훈련센터 훈련→채용 등 지역·산업의 맞춤형 인재육성체계 구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 및 우수 인력공급, 신성장 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재양성, 지역·산업별 인력양성 기반 조성을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
	일학습 병행	• 기업이 청년 등을 선 채용하여 체계적인 현장훈련 실시, 학교 및 공동훈련센터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기르는 일터 기반의 학습 제도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정책	•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양성하여 사회·산업 현장의 수요 맞춤형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
	글로벌 현장학습프로그램 운영	•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및 해외연수 등과 같은 다양한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 및 진로설계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
	한국형 나노디그리 육성	• 재직자, 구직자가 기업·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직무를 단기간(6개월 내외)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모형을 개발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 산업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교육을 지원하여 기술기능인력을 양성, 채용 연계
	기술사관 육성사업	•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하는 4년제 교육과정(2+2년) 운영을 통해 산업현장의 기술 고도화·융합화에 따른 숙련기

		술인력 체계적 양성(중소기업 취업 연계) • 중소기업과 대학(전문대·일반대) 연계, 산학맞춤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현장수요에 적합한 기술인재 양성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 중소기업과 대학(전문대·일반대) 연계, 산학맞춤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현장수요에 적합한 기술인재 양성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 산업계가 요구하는 R&D 및 산학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현장 중심의 연구인력 양성과 취업이 연계되는 고급연구 인력양성 신모델 구축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 산업계, 대학 및 정부가 상호 유기적인 수요자 기반의 산학 협력을 통해 공과대학생의 전공역량강화, 고교생의 현장 직무능력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 공과대학 스스로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방향을 수립, 산업계 수요 및 대학특성에 맞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 및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산업전문인력역량 강화(R&D)	• 미래 유망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실습 및 산학공동프로젝트 등의 교육과정 지원
	산학융합지구조성(R&D)	• 산업단지 내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조성, 산업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취업'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지원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재인용.

■ 재직자 역량강화 사업

- 정부의 다양한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재직자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기업의 근로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표 4-4] 정부부처별 재직자 역량강화 사업의 주요 내용

주관부처	재직자 역량강화 사업명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중소기업 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 지원
교육부	평생 교육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실질적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기업, 현 근무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중견기업 채용예정(채용조건형) 학생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우수한 인력의 안정적 고용 환경 조성

	R&D기획역량강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경험이 없고 의지는 있어도 역량이 부족한 상태의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강화
	벤처기업 채용인력 역량 강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 채용인력의 업무적응도 및 팀워크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온라인교육시스템 (SME-MOOC)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근로자의 다양한 교육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연수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근로자 평생학습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직무역량(교육제도)의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근로자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지역의 언어, 상관습, 관세 및 각종 수출입 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과 더불어 지역별 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한 무역실무지식을 겸비한 맞춤형 지역전문 인재육성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재인용.

■ 취업(창업) 역량강화 제고 사업

- 정부의 다양한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재직자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기업의 근로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표 4-5] 정부부처별 취업(창업)역량제고 사업의 주요 내용

주관부처	취업(창업) 역량제고 사업명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 산업분야의 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현장 직무 요구 지식·기술 등 산업부문별·수준별 체계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 부여
	내일배움카드(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 지원
	청년취업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업무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중심의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비즈쿨 학교 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쿨을 운영
	창업대학원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청년창업사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망(예비)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시장전문가 참여 및 선진 사업모델 개발기법을 활용하여 사업화 과정 지원
창업선도대학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한 창업인프라(전담인력, 시험장비 등)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전국 권역별 창업 전진기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
청년혁신가 인큐베이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여, 과학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청년혁신가 양성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문제 해결과 관련한 도전 기회 제공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재인용.

다. 소결

■ 상위정책과 인력양성 정책의 연계성 강화 및 관련 조직 운영 필요

- 국외 관광 전문인력 양성 정책은 상위 정책과 연계성을 바탕으로, 국내 타분야에 있어서 전문인력 양성은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함
- 캐나다, 일본의 경우 인력양성 정책 개발을 위한 조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전략적인 인력 및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확대 및 정책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있음

■ 전문인력 양성정책 사업 전 철저한 평가관리 체계 및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그 특성상 투입과정은 비교적 명확한 것에 비해 사업효과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부부처에서는 양성사업의 성과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일본 및 캐나다의 경우 관광산업의 인력은 현장 경험이 중시되기 때문에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을 강화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정부부처에서도 산관학 협력 인력 양성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함

■ 경력단계별 인력양성 체계 구축

- 일본은 자격제도의 등급화 및 단계화가 심화되고, 미국의 경우, 경력단계별 국가 직 무능력 모델을 제공하여 자격증 및 교육 과정을 발굴하고 있음
- 국내 정부부처의 경우, 신규 직원, 종사자(중견/고경력 등) 등의 경력단계별교육을 위한 지원 및 교육과정 체계 구축이 요구됨(관련 자격체계 구축필요)

3)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업 현황 분석³⁷⁾

가. 관광레저산업 대표 직업

-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관광산업 특수분류(3차) 중 핵심 관광산업으로 국한하였음
 -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속한 7개 업종의 등록사업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데 관련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직무 범위가 관광 관련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칭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음³⁸⁾
 - 핵심 관광산업 이외의 상호의존, 부분적용, 관광 지원산업은 연관되는 직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직업군들이 넓게 분포되어 관련 직업으로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이와 관련한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동 자료는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세분류(4-digit) 단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관광·레저산업과 관련되는 직업을 선별하였음
 - 관광·레저분야 관련 직업은 관리자에 속하는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부터 전문가³⁹⁾, 사무종사자(여행사무원), 서비스 종사자⁴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음

[표 4-6] 관광레저 분야 관련 직업 및 직업 예시

직업분류				직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예시
관리자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고객서비스 관리자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리자	호텔(모텔)관리자·여행업체관리자·호텔 총지배인·카지노관리자·이미용업체관리자·스포츠센터관리자 등
			음식서비스 관리자	호텔음식(음료부)관리자·식당관리자·레스토랑매니저 등
전문가	경영금융 전문가	상품기획 홍보 및 조사전문가	여행상품 개발자	관광여행기획자·여행상품개발원·투어오퍼레이터
			행사기획자	공연전문가·컨벤션코디네이터·국내 및 국제회의 기획자
	문화예술	작가·기자 및	통역가	동시통역사·수화통역사·통역가

37) 한국고용정보원(2016)의 「관광산업의 고용변화와 인력수요 전망」 보고서의 내용을 재인용하여 분석하였음

38) 단, 핵심 관광산업 중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은 매칭되는 직업 분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함

39) 여행상품 개발자, 행사기획자, 통역가,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미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가 이에 해당함

40) 항공기 객실승무원, 선박 및 열차 객실승무원,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오락시설 서비스원,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이 이에 해당함

	스포츠 전문가	출판전문가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박물관관리인·문화재보존원(수리원) 사서·기록물관리사(원)·문서보관원
		매니저 및 기타 문화 예술 관련 종사자	마술사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마술사·동물조련사·곡예사
사무 종사자	상담통계 안내 및 기타 사무직	여행안내 및 접수사무원	여행사무원	여행사무원·여행표발행사무원·예약 및 발권사무원
서비스 종사자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운송서비스 종사자	항공기 객실 승무원	항공기승무원·객실사무장·객실장
			선박 및 열차 객실승무원	여객선승무원·열차객실승무원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자	여행 및 관광 통역안내원	국내외여행안내원·관광통역안내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호텔리어·호텔 컨시어지·도어맨·콘도서비스원·모텔시중원·여관시중원
			오락시설 서비스원	놀이시설 안내원·놀이기구조직원·놀이기구진행요원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카지노딜러·골프장캐디

주: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9차 개정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직업예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과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을 참고로 정리한 것임
 자료: 통계청(지역별 고용조사),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직업정보시스템)

나.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업 특성

■ 업종별 관련 직업 현황

- 한국고용정보원이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정보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테마별 직업여행 등으로 구성되어 구직자들에게 관심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⁴¹⁾
- 관광산업 특수분류의 1단계에 속하는 핵심 관광산업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그 외 상호의존 관광산업과 부분적용 관광산업, 관광 지원산업 중 직접적으로 관련 산업의 종사자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직업들을 분석하였음

41) www.work.go.kr/constJobCarpa/srch/jobInfoSrch/srchJobInfo.do

[표 4-7]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직업 현황

구분	업종 내용	세부직업
여행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해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 안내 및 편의를 제공 일반여행업, 국내·외 여행업 	-여행사무원, 여행안내원, 여행상품개발자, 투어컨덕터, 관광통역안내원, 자연환경안내원, 문화관광해설사, 지역수배전문가, 항공권예약발권사무원
관광숙박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객에게 음식·운동·오락·휴양등을 포함해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제공 관광호텔, 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호텔 컨시어지, 호텔지배인, 프런트데스크 사무원, 숙박관련서비스직, 호텔 세탁업, 오더테이커, 룸메이드, 숙박 시설 전화교환원, 도어맨
관광객 이용 시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객의 휴양·여가 선용을 위해 숙박업 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을 제공 전문휴양업(1종2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공연장)업,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컨벤션기획자, 국제회의통역사
카지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 기구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재산상의 이익 혹은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업 	-카지노딜러, 카지노출납원, 카지노 안전관리원
유원시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기시설(기구)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놀이시설종사원, 퍼레이드연기자, 테마파크디자이너
관광편의시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6가지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업 관광유희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극장유희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등 	

주: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7개 업종을 중심으로 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6), 관광산업 고용변화와 인력수요 전망, 재인용

나. 업종별 관련 직업 특성⁴²⁾

■ 여행업 관련 직업

- 여행서비스 종사자는 외국인의 국내·외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여행사무원과 여행상품기획자(개발자), 여행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쾌적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여행안내원으로 구분 됨
 - 여행사무원: 고객에게 여행상품을 추천 및 판매하고, 여행일정을 계획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며 요구되는 학력은 없고, 관련 분야 지식(국내·외 여행경험 포함)과 업무경험이 있으면 입직시 유리함
 - 여행안내원: 국내외를 여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교통기관, 숙박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각종 여행편의를 제공하며, 관광지 및 관광대상품물을(관광지 등)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며, 관련 분야 지식(국내·외 여행경험 포함)과 업무경험이 있으면 입직시 유리함(관련 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등)
 - 여행상품 개발자: 여행상품을 기획·개발하고 고객을 위하여 여행계획을 세우며, 단체관광 여행을 조직하며,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비용 및 편의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여행계획에 관하여 조언하는 업무로 학력제한은 없으나 대학에서 호텔관광계열 전공자 및 관련 분야 지식(국내·외 여행경험 포함)과 업무경험이 있으면 입직시 유리함

[표 4-8] 여행업 관련 직업 특성

직업	직무	관련 학과/ 자격증
여행사무원	여행상품 추천 및 판매, 여행일정 계획	어학 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여행안내원	국내외 여행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안내 및 여행편의 제공	인문/사회계열 호텔관광경영학과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여행상품 기획자	여행상품을 기획·개발하고 여행계획을 수립하며 단체관광 여행 조직	
관광통역안내원	국내여행 외국인 혹은 국외여행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안내	인문/사회계열 호텔관광경영학과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주) 한국고용정보원과 직업정보시스템 내용 활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6), 관광산업 고용변화와 인력수요 전망, 재인용

42) 직업에 대한 전망은 직업당 평균 30명 이상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전망하였음

- 관광통역안내원: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등을 안내하고 여행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특별히 학력제한은 없으나 관광계열 전공자 및 통역안내원 이수자가 활동이 가능함(관련 자격: 관광통역안내사)

■ 관광숙박업 관련 직업⁴³⁾

- 숙박시설 서비스원은 주로 호텔이나 콘도에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접, 객실안내, 짐 운반,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객실 열쇠 관리, 객실 정리, 세탁 보급, 음식 제공 등 각종 서비스 제공
 - 호텔컨시어지: 호텔을 방문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력·나이·전공학과 제한은 없으나 고졸이상의 학력 선호 함(관련 자격: 호텔서비스사)
 - 호텔 객실청소원: 호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소에서 깨끗하고 청결한 객실 유지·관리를 하는 업무로 특별한 자격 및 학력·나이는 없음(면접 선발)

[표 4-9] 관광숙박업 관련 직업 특성

직업	직무	관련 학과/ 자격증
호텔컨시어지	호텔 방문 고객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 제공	항공서비스과 호텔관광경영과
호텔객실청소원	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소에 서 객실 청결유지	무관
도어맨, 벨맨	호텔 접객과 고객의 짐을 운반, 차량 주차 서비스 제공	무관
호텔 지배인	호텔업 전반적인 업무 총괄	호텔경영학 관광경영학
오더 테이커	호텔 투숙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 해결	어학관련 학과
호텔 세탁원	객실 용품 정리 및 세탁	

주) 한국고용정보원과 직업정보시스템 내용 활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6), 관광산업 고용변화와 인력수요 전망, 재인용

■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관련 직업(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 포함)⁴⁴⁾

- 카지노업 관련 직업은 카지노 딜러, 카지노 출납원 및 관리원으로 구분됨

43) 일자리 전망은 직업당 평균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망하였음

44) 일자리 전망은 직업당 평균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망하였음

- 카지노 딜러: 오락장, 클럽 등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게임을 진행하며, 요구되는 학력과 연령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음: 보통 전문대 이상 학력 및 외국어 점수 필요(토익 850점 이상, HSK 8급 이상, 일어능력시험 2급이상 등)
- 카지노 출납원: 카운트룸을 운영하며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을 공급 회수, 게임테이블에 장착되어 있는 드롭박스의 드롭(현금, 수표, 여행자 수표 등의 내용물)을 정해진 시간에 회수하는 업무(회수된 드롭박스 드롭 계산·정리, 칩, 현금, 수표 등을 보관 등)
- 안전 관리원: 카지노에 입장하는 고객들을 통제하고 물품을 점검하여 금지목록을 접수·보관하는 일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장금지 고객의 출입을 통제하며, 영업장 내외를 순찰하며 고객 및 카지노 종사자의 안전 도모

○ 유원시설업 등 관련 직업

- 놀이시설 종사원: 경기장, 유기장, 유원지, 도박장, 전망대 등과 운동설비를 갖춘 장소 등에서 편의와 안전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놀이공원의 현장업무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담당
- 골프장 캐디: 골프장에서 고객을 위하여 골프백을 담은 수레(cart)를 밀고 다니거나 운반하는 업무로 별도의 학력제한은 없으며 양성기관(골프캐디 양성학원 등) 교육 이수 후 취업

[표 4-10]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카지노업 관련 직업 특성

직업	직무	관련 학과/ 자격증
카지노 딜러	오락장, 클럽 등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게임 진행	카지노경영과 호텔카지노과 호텔카지노경영과
카지노 출납원	카지노 게임 칩을 공급하고 회수	무관
카지노 안전관리원	카지노 영업장 고객관리 및 안전보호	경호학과
놀이시설 종사원	경기장, 유기장, 유원지 등 운동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편의와 안전유지 업무 수행	무관
골프장 캐디 (캐디 관리원)	골프장에서 골프백을 운반 혹은 카트 이동	무관

주) 직업정보시스템 내용 활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6), 관광산업 고용변화와 인력수요 전망, 재인용

2. 정규 교육기관⁴⁵⁾ 인력양성 현황

- 관광·레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함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 과정이 개설되고 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관광·레저산업의 인력을 저변확대는 물론 인력의 공급원으로서 충실한 역할의 수행이 필요함

1) 정규 교육기관 현황

가. 관광·레저분야 고등학교

- 국내에 관광·레저분야 관련 고등학교는 2000년에 개교한 한국관광고등학교(한국 최초 관광특성화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018년 기준 전국에 14개교 7,291명이 재학 중에 있음
- 관련 학과로는 관광경영과, 관광조리과, 관광서비스과, 관광레저경영과, 관광외국어과, 관광호텔경영과, 항공관광경영과, 컨벤션관광과 등이 있으며, 기타 관광 관련 고등학교에는 경기 남양고등학교 등 56개교에 14,421여 명이 있음(교과 과정에 관광 관련 과목이 포함)

[표 4-11] 전국 관광 관련 고등학교 세부현황

(단위 : 개, 명)

연번	학교유형	학교명	학급 수	학생 수
1	특성화고	대일관광고등학교	24	555
2	특성화고	서울관광고등학교	30	747
3	특성화고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	3	67
4	특성화고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	15	356
5	특성화고	송곡관광고등학교	21	520
6	특성화고	경북비즈니스고등학교	3	76
7	특성화고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9	216
8	특성화고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15	393
9	특성화고	서울항공비즈니스고등학교	27	596
10	특성화고	서울컨벤션고등학교	30	771
11	특성화고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19	405

45) 관광·레저산업 발전에 따라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은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관광교육기관은 관광인력의 저변확대는 물론 전문적인 관광인력의 공급원으로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관광관련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정규 관광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음

연번	학교유형	학교명	학급 수	학생 수
12	특성화고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27	652
13	기타	아현산업정보고	6	164
14	기타	서울다솜학교	3	54
15	기타	종로산업정보학교	9	-
16	특성화고	경기관광고등학교	12	321
17	특성화고	한국관광고등학교	9	256
18	특성화고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15	400
19	특성화고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9	226
20	특성화고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9	228
21	특성화고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2	40
22	종합고	남양고등학교	6	147
23	특성화고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9	225
24	특성화고	분당경영고등학교	9	214
25	특성화고	성남금융고등학교	6	137
26	특성화고	성보경영고등학교	18	448
27	특성화고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	36	860
28	특성화고	평촌경영고등학교	14	287
29	특성화고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3	83
30	특성화고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12	345
31	종합고	양동고등학교	3	78
32	종합고	하성고등학교	3	47
33	특성화고	일죽고등학교	6	145
34	특성화고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6	157
35	특성화고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12	340
36	특성화고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	21	573
37	특성화고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9	208
38	단설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9	274
39	종합고	석정여자고등학교	3	38
40	단설	춘천한샘고등학교	3	83
41	종합고	성환고등학교	7	189
42	특성화고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4	236
43	단설	천안제일고등학교	6	196
44	특성화고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	6	191
45	특성화고	강호항공고등학교	6	141
46	병설	학산고등학교	6	172
47	특성화고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12	313
48	특성화고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1	17
49	특성화고	순천효산고등학교	9	224
50	단설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9	236

연번	학교유형	학교명	학급 수	학생 수
51	특성화고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10	333
52	특성화고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2	110
53	특성화고	경주정보고등학교	8	319
54	특성화고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	3	39
55	특성화고	대구관광고등학교	41	863
56	특성화고	상서고등학교	26	689
57	단설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9	245
58	특성화고	신반정보고등학교	1	19
59	특성화고	경남관광고등학교	30	726
60	단설	경남산업고등학교	6	170
61	특성화고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9	273
62	특성화고	계성여자상업고등학교	15	337
63	특성화고	부산관광고등학교	24	570
64	특성화고	부산마케팅고등학교	16	415
65	특성화고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14	328
66	특성화고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25	599
67	특성화고	성심보건고등학교	12	240
68	특성화고	해운대관광고등학교	26	614
69	특성화고	제주고등학교	33	970
70	특성화고	중문고등학교	6	166
합 계			867	21,712

주1) 학급수/학생수: 전체 학과 중 관광계열 학과의 학급수 및 학생수 현황

주2) 종로산업정보고등학교: 인문계고 위탁교육을 하는 학교로, 인문계고 통계로 집계

자료: 2018년 12월 학교알리미 정보고시 기준

나. 관광·레저분야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및 대학원

- 4년제 정규과정의 대학에서는 주로 관광레저 전반에 걸친 학문적 이론교육을 위주로 하는 반면, 2년제 전문대학은 관광에 관한 이론과 NCS를 기반으로 한 실무실기 교육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여 관광·레저산업의 전문종사원을 양성하는데 주력함
 - 1964년 경기대학교 4년제 정규 학사과정으로 관광관련 학과가 최초로 설치된 이래 관광관련 대학 교육기관의 현황은 2017년 12월 기준 정규학위과정의 관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에는 다른 학문분야와 관광이 결합하여 관광의 학문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세계화 및 개방화의 시대 흐름에 따라 관광이 외국어, 경영, 문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되어 새로운 학문 영역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임

[표 4-12] 관광레저 관련 대학 교육기관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학교 수	정원	입학생 수	재적학생 수		졸업생 수
				재학생 수	휴학생 수	
전문대학(3년제)	28	2,710	3,014	6,326	2,375	2,431
전문대학(2년제)	32	3,439	3,701	7,269	3,231	3,176
대학교	45	3,127	3,442	12,206	2,770	2,332
방송통신대학	1	2,000	458	2,667	972	533
산업대학	1	60	83	263	42	51
사이버대학(대학)	2	-	142	434	40	114
전공대학	1	800	736	1,413	503	488
일반대학원	18	10	206	430	73	145
전문대학원	1	-	2	4	-	-
특수대학원	16	4	191	424	88	155
계	146	12,150	11,975	31,436	10,094	9,425

주1) 2018 한국교육개발원 학과(전공) 분류집의 소계열이 관광/관광학인 경우에 한함

주2) 학교 수는 입학자가 있는 학교에 한하며, 본교 기준임

주3) 입학자는 2018년 3월 기준이며 졸업생은 2017년 8월 및 2018년 2월 졸업자가 포함 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18년 4월 기준

- 현재 관광·레저산업 관련 대학교(4년제)의 경우 연간 졸업생은 2,332명인데 반해 교육과정별 NCS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의 확보가 다소 어려워 조속한 NCS기반 교육과정의 도입이 요구됨
 - 최근에는 NCS기반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하였던 전문대학 역시 의무화가 풀리면서 현재의 NCS기반 교육과정의 어려움 발생에 따라 활용도가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ISC에서는 이러한 산업 현장과 교육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조속한 NCS의 개발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임

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평생교육원, 전문학교 등)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임

-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학점은행제 전체 교육기관 현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 기관유형별 현황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대학/전문대 부설 구분)이 198개소, 학원(기술계/사회계/예능계 구분) 17개소, 직업훈련기관(공공/인정 구분) 67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 그 밖에 정부관련기관 37개소, 고등기술학교 1개소, 특수학교 6개소,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4개소, 평생교육시설 20개소, 평생교육시설(원격) 76개소, K-MOOC 6개소로 총 432개소가 있음

[표 4-13]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기관유형		기관수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대학부설평생교육원	125
	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	73
	소계	198
학원	기술계학원	7
	사회계학원	9
	예능계학원	1
	소계	17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원	1
	인정직업훈련원	66
	소계	67
정부관련기관		37
고등기술학교		1
특수학교		6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4
평생교육시설		20
평생교육시설(원격)		76
K-MOOC		6
합계		432

주) 2019년 현재 기준 수치임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

■ 관광관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현황

- 전국에 관광관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총 48개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 48개 중 28개교가 산재해 있고, 다음으로 경기지역에 11개교가 운영 중에 있음
- 또한 3개교(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인천직업전문학교, 한양대학교부설미래인재개발원)는 현재 운영 중단 상태임

[표 4-14] 관광관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현황

연번	지역	교육기관명	비고 (운영여부)
1	서울	(재)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일시 중단
2	서울	(학)송실대학교 송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	운영 중
3	서울	EK티쳐 한국어교수원격평생교육원	운영 중
4	인천	LOY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	운영 중
5	경기	강남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6	서울	강남직업전문학교(서울)	운영 중
7	서울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운영 중
8	경기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운영 중
9	서울	경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10	경기	경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11	서울	경희대학교부설글로벌미래교육원	운영 중
12	경기	경희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국제)	운영 중
13	서울	고려직업전문학교	운영 중
14	서울	광운대학교부설정보과학교육원	운영 중
15	서울	국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16	인천	글로벌관광통역직업전문학교	운영 중
17	충남	남서울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운영 중
18	대구	대구과학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19	경기	대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20	서울	동국대학교전산원	운영 중
21	부산	동아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22	서울	메이필드호텔스쿨	운영 중
23	서울	명지대학교부설사회교육원	운영 중
24	서울	백석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25	서울	백설예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26	부산	부산과학기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27	경기	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 중
28	서울	사이에듀 평생교육원	운영 중
29	서울	서강직업전문학교	운영 중

연번	지역	교육기관명	비고 (운영여부)
30	서울	서울직업전문학교	운영 중
31	서울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운영 중
32	서울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운영 중
33	서울	서울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	운영 중
34	서울	세종대학교미래교육원	운영 중
35	서울	송실대학교글로벌미래교육원	운영 중
36	경기	신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37	서울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운영 중
38	서울	엠배서더 인재개발원 평생교육시설	운영 중
39	서울	에이앤씨(ANC)평생교육원	운영 중
40	경기	용인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41	경기	유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42	인천	인천직업전문학교	일시 중단
43	인천	인하공업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44	서울	정화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운영 중
45	경기	한국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	운영 중
46	경기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운영 중
47	서울	한양대학교부설미래인재교육원	일시 중단
48	충남	호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운영 중
합계		48개교	

주1) 국가평생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의 과목별 검색에서 관광관련 교육기관 필수과목인 ‘관광학개론’을 검색하여 관련 교육기관을 정리하였음

주2) 일시 중단의 경우 검색 교과목인 ‘관광학개론’ 과 관련한 교육과정 임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

2) 일학습병행 관련 운영기관 현황

- 일학습병행이란 실력중심사회 여건조성을 위해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제공하여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근로자의 역량을 국가가 평가하여 자격(또는 학위)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 재직자과정(입사 1년 이내 신규입직자): 재직자 과정을 크게 단독기업형(기업단독으로 현장훈련과 현장 외 훈련 실시)과 공동훈련센터형(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현장 외 훈련을 실시)으로 구분됨
 - 재학생과정(특성화고-2~3학년, 전문대-2학년, 대학교3~4학년 재학생): 재학생과정은 특성화고(2~3학년) 대상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문대 재학생(2학년) 대학생 단계, 일반대

학교 재학생(3~4학년) 대상 IPP형 일학습병행으로 구분됨

■ 공동훈련센터형⁴⁶⁾

- NCS기반 자격형 일학습병행에 참여기업의 공동훈련센터 자격으로 여러 전문대학 및 대학교가 참여하여, 산업 내 중소기업의 학습근로자에게 현장 외 훈련(OFF-JT)을 직접 실시하고 현장훈련(OJT)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전국 105개 기관기업)
- 참여형태는 크게 국가 또는 산업계가 인정하는 자격연계형과 학위와 연계되어 교육부 또는 대학에서 인정하는 대학연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표 4-15] 전국 일학습 병행 공동훈련센터 현황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경남정보대학 산학협력단	36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71	대구대산학협력단
2	한국폴리텍대학 구미	37	한경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72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
3	창원문성대 듀얼공동훈련센터	38	우송정보대학	73	씨앤엠로브틱스(주)
4	남서울대학교	39	한국폴리텍대학 화성	74	중소기업인력개발원
5	대림대 산학협력단	40	한국폴리텍V 대학 순천	75	충북보건과학대학교
6	거제대학교	41	(사)충북산학융합본부	76	한국섬유개발연구원
7	(사)캠틱종합기술원	42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7	한국폴리텍1대학 산학협력단 제주
8	동원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	43	한국폴리텍V대학 산학협력단 목포	78	한국폴리텍6대학 달성
9	(사)한국상용소프트웨어 협회	44	한국폴리텍2대학 산학협력단 안성	79	한국폴리텍VI영주
10	유한대학교	45	(주)한국항공기술직업전문학교	80	한국폴리텍IV 원주
11	한국철강협회	46	광주대학교	81	한국폴리텍III대 원주
12	(주)디아이씨	47	한국폴리텍7대학 부산	82	울산과학대 산학협력단
13	한국금융투자협회	48	(주)LG CNS Learning&Development담당(Ⅱ)	83	(주)대흥소프트밀
14	ICT폴리텍대학	49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84	동국대

46) 학습기업은 현장훈련(OJT)만 운영하며, 현장 외(Off-JT)은 듀얼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운영하는 참여형태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항공		듀얼공동훈련센터
15	공주대학교	50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	85	순천향대학교
16	한국폴리텍대학 성남	51	한국반도체산업협회	86	한국디지털기업협회 강남평생교육원
17	한국폴리텍III대학 강릉	52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87	배재대IPP사업단
18	한국폴리텍IV대학	53	신안산대학교	88	부산인력개발원
19	한국폴리텍IV대학 흥성	54	서라벌대학교	89	한국폴리텍VII대학 동부산
20	경기인력개발원	55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90	한국폴리텍VI대학
21	인천인력개발원	56	인천재능대학교	91	한국폴리텍 울산
22	한국폴리텍VI대학 포항	57	한국광산업진흥회	92	군장대산학협력단
23	한국폴리텍대학 섬유패션	58	한국정밀화학산업 진흥회	93	한국폴리텍대학
24	한국폴리텍대학 춘천	59	한국폴리텍대학 익산	94	한밭대학교
25	한국폴리텍III대학	60	구미대학교 듀얼공동훈련센터	95	한국폴리텍대학 아산
26	충북인력개발원	61	한국폴리텍대학 진주	96	부산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
27	광주인력개발원	62	한국폴리텍IV 대학 청주	97	경북전문대산학협력단
28	(사)한국전자정보통신산 업진흥회	63	(사)한국디자인기업협회	98	제주한라대학교
29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64	현지소재(주)	99	전주비전대학
30	(사)한국외국기업협회	65	두원공과대학교 유니테크사업단	100	중부대학교
31	한국소프트웨어 기술훈련원	6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101	영진전문대학
32	전북인력개발원	6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0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3	한양여자대학교	68	한국폴리텍5대학 산학협력단	103	한국폴리텍VII대학
34	영남이공대학교	69	(주)포스코 미래창조아카데미	104	(사)한국대중문화예술 산업총연합
35	한국해양대학교	70	오산대학교	105	한국폴리텍 남인천

총 105개 기관

자료: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참고 후 재작성.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동훈련센터 현황

-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에서 현장훈련(OJT)을 진행,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현장 외 훈련(Off-JT)을 진행하는 과정

[표 4-16]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 현황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전주공업고등학교	34	영광공업고등학교
2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35	광양하이텍고등학교
3	문경공업고등학교	36	용산공업고등학교
4	부산관광고등학교	37	강경공업고등학교
5	부원고등학교	38	울산공업고등학교
6	은평메디텍고등학교	39	평촌공업고등학교
7	인천하이텍고등학교	40	양영디지털고등학교
8	경북공업고등학교	41	부평공업고등학교
9	인평자동차고등학교	42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10	평촌경영고등학교	43	서산공업고등학교
11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44	천안공업고등학교
12	부산공업고등학교	45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13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46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14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47	대구공업고등학교
15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	48	부천공업고등학교
16	원주공업고등학교	49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17	인천기계고등학교	50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18	금파공업고등학교	51	청주공업고등학교
19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52	광주공업고등학교
20	휘경공업고등학교	53	경남공업고등학교
21	충북공업고등학교	54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22	순천효산고등학교	55	세종하이텍고등학교
23	상서고등학교	56	서울공업고등학교
24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57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25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58	재능고등학교
26	두원공업고등학교	59	대한미용사회
27	영남공업고등학교	60	경주정보고등학교
28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61	삼일공업고등학교
29	세명컴퓨터고등학교	62	시화공업고등학교
30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63	대양전자통신고등학교
31	경북하이텍고등학교	64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32	삼례공업고등학교	65	성동공업고등학교
33	경주공업고등학교 도제학교		총 65건

자료: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참고 후 재작성.

- NCS기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동훈련센터(고등학교, 관련 협회 등)의 경우 NCS 자격과정과 모듈형, NCS기반자격+대학(학위) 연계형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에 65개 기관에서 과정이 이뤄지고 있음

■ 유니테크 사업단 현황

- 특성화고 재학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2년간 훈련진행 후, 졸업한 학습근로자를 전문대학으로 진학시켜 훈련 진행하는 장기간의 훈련과정임
- NCS기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동훈련센터(고등학교, 관련 협회 등)의 경우 NCS 자격과정과 모듈형, NCS기반자격+대학(학위) 연계형 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에 17개 기관에서 과정이 이뤄지고 있음

[표 4-17] 유니테크 사업단 현황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	10	동원대학
2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11	두원공과대학교 유니테크 사업단
3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12	강동대학교 산학협력단
4	유한대학교	13	군장대학 산학협력단
5	영남이공대학교	14	경북전문대학 산학협력단
6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15	전주비전대학
7	신성대학	16	영진전문대학
8	경남정보대학교 산학협력단	17	구미대학교 유니테크 사업단
9	인천재능대학교	총 17개 기관	

자료: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참고 후 재작성.

■ IPP형 일학습 병행 사업단

- 대학 졸업예정자들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에서 현장훈련(OJT)을 진행, 대학에서 현장외 훈련(Off-JT)을 진행하는 과정 임
- NCS기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공동훈련센터(고등학교, 관련 협회 등)의 경우 NCS 자격과정과 모듈형, NCS기반자격+대학(학위) 연계형 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에 17개 기관에서 과정이 이뤄지고 있음

[표 4-18] IPP형 일학습 병행 사업단 현황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동덕여자대학교 IPP사업단	21	대구한의대학교(듀얼공동훈련센터)
2	한신대학교	22	건국대학교
3	동서대학교 IPP사업단	23	한남대학교
4	카톨릭관동대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단	24	한성대학교 IPP사업단
5	학교법인 흥익학원	25	숙명여자대학교
6	경성대학교 IPP 사업단	26	목포대학교(대학회계)
7	영산대학교	2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8	한마학원경남대학교 IPP사업단	28	동신대학교
9	성신여자대학교	2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10	명지대학교	30	동국대학교 듀얼공동훈련센터
11	협성대학교	31	순천향대학교
12	경기대학교 IPP사업단	32	신라대학교
13	남서울대학교	33	배제대학교 IPP사업단
14	인하대학교	34	선문대학교
15	광운대학교	35	인제대학교
16	한국교통대학교	36	목원대학교
17	부산외국어대학교	37	대구대학교
18	연세대학교 IPP사업단	38	가천대학교
19	강원대학교(삼척)	39	한라대학교
20	동의대학교	총 39개 교	

자료: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참고 후 재작성.

■ 관광·레저ISC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기업 현황

- 관광·레저ISC를 통해 진행된 산업 내 일학습병행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관광·레저산업 분야 중 관광숙박업(호텔업), 국제회의업, 리조트 등 총 16개 기업이 참여(공동훈련센터형 11개 기업, 단독기업형 5개 기업)하였고, 91명의 학습근로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함
- 관광·레저ISC에서 2017년~2018년 수행한 일학습병행의 공동훈련센터는 (사)디지털 기업협회(2개 기업), 거제대학교(2개 기업), 인천인력개발원(1개 기업), 한양여자대학교(1개 기업), 제주한라대학교(12개 기업), 부산과학기술대학교(4개 기업), 울산과학대학교(2개 기업)로 7개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였음

[표 4-19]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 병행 참여기업 현황(2017)

구 분	기 업 명	개발직무	참여 유형	공동훈련센터
2017년 관광·레저산 업 분야 (17개 기업)	라미드관광(주)	세무회계정보관리_L3	공동	(사)한국디지털기업협회
	(주)벡스코	컨벤션기획_L5	단독	
	(주)진성관광개발	호텔객실_L3 호텔식음료_L3	단독	
	애드미럴호텔	호텔관리_L5	공동	거제대학교
	(주)대일 Int'l Hospitality Group(인천로얄호텔)	호텔식음료서비스_L3	공동	인천인력개발원
	(주)이오컨벡스	컨벤션기획사_L3	단독	
	주식회사굿메이트	마케팅커뮤니케이션_L3	공동	한양여자대학교
	(주)호텔앤리조트제주	호텔객실서비스_L3	공동	제주한라대학교
	(주)호텔캠퍼트리	식음료서비스_L3 한식조리_L2	공동	제주한라대학교
	신안관광개발주식회사	식음료서비스_L3	공동	제주한라대학교
	(주)피엠씨프러덕션	식음료서비스_L3 호텔객실서비스_L3	공동	제주한라대학교
	주식회사 선샤인	식음료서비스_L3 호텔객실서비스_L3 양식조리_L2	공동	제주한라대학교
	테디밸리골프앤리조트	식음료서비스_L3 호텔객실서비스_L3	공동	제주한라대학교
	주식회사 보람	식음료서비스_L3 일식조리_L2	공동	제주한라대학교
	람정제주개발(주)	식음료서비스_L3 유원시설운영관리_L3 양식조리_L2	공동	제주한라대학교
	신안종합리조트(주)	호텔객실서비스_L3	단독	
	선정티앤에프주식회사	카지노운영관리_L3 식음료서비스_L3	단독	

[표 4-20]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 병행 참여기업 현황(2018)

구 분	기 업 명	개발직무	참여 유형	공동훈련센터
2018년 관광·레저산 업 분야 (15개 기업)	(주)빅프라임투어	여행상품상담_L4	공동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주)서울랜드	유원시설운영관리_L3	단독	
	아칼호텔매니지먼트	세무회계정보관리_L3	공동	한국디지털기업협회
	(주)사이엑스	컨벤션기획_L3	단독	
	(주)DIHMC 라마다시티 제주	호텔객실서비스_L3	공동	제주한라대학교
	다인오세아노호텔	식음료서비스_L3 양식조리_L2	공동	제주한라대학교
	(주)빅스트로	식음료서비스_L3	공동	울산과학대학교
	통영루지주식회사	유원시설운영관리_L3	공동	거제대학교
	호텔다움	호텔객실서비스_L3	공동	울산과학대학교
	주식회사 푸른산업	호텔객실서비스_L3 호텔식음료서비스_L3	단독	
	하진산업개발(벨류)	양식조리_L2	공동	제주한라대학교
	엠스테이호텔제주지점	객실서비스_L3	공동	제주한라대학교
	더리본(주)더파티해운대 지점	식음료서비스_L3	공동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더리본(주)더파티허브점	식음료서비스_L3	공동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더리본(주)더파티센텀점	식음료서비스_L3	공동	부산과학기술대학교

- 2018년의 경우 관광·레저산업 분야 중 관광숙박업(호텔업), 국제회의업, 리조트, 음식점 등 총 15개 기업이 참여(공동훈련센터형 12개 기업, 단독기업형 3개 기업)하여 25명의 학습근로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그 외 기업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하였음
- 현재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 도래와 국내 관광객들의 관광경험율의 증가에 따라 관광·레저산업계는 이에 부응하는 관광수용태세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의 중심에 있는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 부처(문체부, 공사 등)를 비롯한 관광·레저산업, 관련 학계와 관광·레저ISC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해 분야별 NCS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 자격체계의 구축함으로써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의 공급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3)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광레저산업 인력양성(향상) 현황⁴⁷⁾

가.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훈련 공급 현황

가) 일반적인 현황

■ 양성훈련 공급현황

- 전국의 양성훈련 공급현황(훈련실시 인원: 272,317명)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훈련 실시인원이 86,49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경기지역 45,582명, 부산지역 24,499명, 인천지역 21,221명 순)
- 양성훈련 성과⁴⁸⁾(전체 취업자 수: 101,890명)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취업자 수가 32,91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경기지역 17,216명, 부산지역 9,575명 순)

■ 향상훈련 공급현황

- 전국의 향상훈련 공급현황(전체 실시인원: 877,063명)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훈련 실시인원이 336,516명으로 공급물량이 가장 많았음(경기지역 118,756명, 경북지역 83,522명, 인천지역 51,079명 순)
- 향상훈련 성과⁴⁹⁾(전체 수료인원: 807,417명)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수료인원이 309,82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경기지역 107,452명, 경북지역 76,611명 순)
 - 수료율은 인천지역이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광주지역 96.1%, 세종지역 95.6% 순으로 나타남
 - 서울지역에서 시행한 기 종사자 대상 향상교육의 경우 NCS대분류 기준 교육현황이 작성되어 관광·레저산업 교육으로 판단이 어려워 제외하였음

나) 양성훈련 공급현황

■ 전체 양성훈련 공급현황

47)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의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인력 양성(향상) 교육현황은 RSC 훈련수요공급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지역별로 작성기준이 다소 상이하여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관광레저산업에 맞게 재작성함

48) 양성훈련 성과의 경우 취업자를 나타냄

49) 향상훈련 성과는 향상훈련 수료인원을 나타냄

- 서울지역 양성훈련 공급현황은 고용노동부 훈련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실업자계좌제 훈련, 서울시 직업훈련⁵⁰⁾을 수료한 훈련생의 현황을 합산하여 분석함
- 2017년 서울지역에서 실시된 양성훈련의 종류는 한국고용직업분류 KECO(3digit)⁵¹⁾ 기준 71가지로, 해당 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90,863명이며, 훈련수료 인원은 79,108명(87.1%)으로 나타남
 - 훈련 수료 인원 중 취업자 수는 30,382명(훈련수료인원 대비 취업률 38.4%)으로 나타남
-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종현황을 살펴보면 「521. 여행 서비스원」이 1,430명(실시율: 130.0%)이 양성훈련에 참여하여 1,206명(수료율: 84.3%)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531명(수료자 대비 44.0%)으로 나타남
 -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의 경우 80명(실시율: 87.9%)이 참여하여 69명(수료율: 86.3%)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28명(수료자 대비: 40.6%)으로 나타남

[표 4-21] 서울지역 직종별(KECO) 양성훈련 공급 현황

(단위: 명, %)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소분류	훈련 정원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실시율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전 체	174,337	90,863	79,108	52.1	87.1	30,382	38.4
521. 여행 서비스원	1,100	1,430	1,206	130.0	84.3	531	44.0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91	80	69	87.9	86.3	28	40.6

주) 서울지역 직종별(KECO) 양성훈련 현황 중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종 수치 제시

*자료 : 고용노동부, 『HRD-net, 2017』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공급현황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직종별(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훈련정원은 20,295명이며, 훈련실시 인원은 24,884명(실시율 122.6%)으로 나타났으며, 수료인원은 20,751명(수료율 83.4%)으로, 총 취업자 수는 9,298명(수료인원 대비 44.8%)으로 나타남
-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종현황을 살펴보면 「521. 여행 서비스원」이 87명(실시율: 75.7%)이 양성훈련에 참여하여 57명(수료율: 65.5%)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자

50) 2018년도 기준 서울시 지업훈련과정 중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종 교육은 시행되지 않았음

51) 양성훈련 KECO는 2018년 개정된 직업분류 코드를 활용함

수는 27명(수료자 대비 47.4%)으로 나타남

-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의 경우 47명(실시율: 78.3%)이 참여하여 44명(수료율: 93.6%)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17명(수료자 대비: 38.6%)으로 나타남

[표 4-22] 서울지역 직종별(KECO)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공급 현황

(단위: 명, %)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소분류	훈련 정원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실시율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전 체	20,295	24,884	20,751	122.6	83.4	9,298	44.8
521. 여행 서비스원	115	87	57	75.7	65.5	27	47.4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60	47	44	78.3	93.6	17	38.6

주) 서울지역 직종별(KECO) 양성훈련 현황 중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종 수치 제시

*자료 : 고용노동부, 『HRD-net, 2017』

■ 실업자계좌제훈련 공급현황

- 실업자계좌제훈련의 직종별(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훈련 정원은 149,784명이며, 훈련 실시인원은 61,614명(실시율 41.1%)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훈련을 수료한 인원은 54,602명(수료율 88.6%)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19,242명(수료인원 대비 35.2%)로 나타남
-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종현황을 살펴보면 「521. 여행 서비스원」이 1,343명(실시율: 136.3%)이 양성훈련에 참여하여 1,149명(수료율: 85.6%)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504명(수료자 대비 43.9%)으로 나타남
 -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의 경우 47명(실시율: 78.3%)이 참여하여 44명(수료율: 93.6%)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17명(수료자 대비: 38.6%)으로 나타남

[표 4-23] 서울지역 직종별(KECO) 실업계좌제훈련 공급 현황

(단위: 명, %)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소분류	훈련 정원	실시 인원	수료 인원	실시율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전 체	149,784	61,614	54,602	41.1	88.6	19,242	35.2
521. 여행 서비스원	985	1,343	1,149	136.3	85.6	504	43.9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31	33	25	106.5	75.8	11	44.0

주) 서울지역 직종별(KECO) 양성훈련 현황 중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종 수치 제시

*자료 : 고용노동부, 『HRD-net, 2017』

나. 대구지역 인력 양성 훈련 공급 현황

■ 대구지역 인력 양성훈련(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및 실업자계좌제 훈련) 현황

- 2017년 기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실업자계좌제 훈련을 받은 인원은 총 17,623명 중 취업인원은 8,183명이었음(취업률 46.4%)
-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종현황을 살펴보면 「521. 여행 서비스원」 이 17명 중 취업인원은 5명이었음(취업률 29.4%)
-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이 6명 중 취업인원은 3명(취업률 50.0%) 이었고,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이 6명 중 취업인원은 2명이었음(취업률 33.3%)

[표 4-24] 대구지역 2017년도 양성훈련인원 통계(KECO 기준)

(단위: 명, %)

직업훈련 직종코드		훈련 정원	실시 인원	취업인원 (전체)	취업인원 (고용보험)	취업률	취업률 (고용보험)
KECO 중분류	KECO 소분류						
전 체		16,290	17,623	8,183	7,017	46.4	39.8
52. 여행·숙박·오락·서비스직	521. 여행 서비스원	11	17	5	5	29.4	29.4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	6	3	1	50.0	16.7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	6	2	2	33.3	33.3

주) 대구지역 직종별(KECO) 양성훈련 현황 중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종 수치 제시

자료 : 고용노동부, 『HRD-net, 2017』

3.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인력 양성(향상) 현황⁵²⁾

1) 관광레저산업 핵심업종(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교육 현황

가. 부처 관련 종사자 교육

- 정부에서는 관광레저산업 분야 종사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종사원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왔으며, 또한 국내 인바운드 크루즈 관광시장 확대와 국적 선사 출범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의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음

가) 한국관광공사 교육프로그램

-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테마아카데미를 비롯한 전문프리미엄가이드 양성교육, 관광통역안내사 테마아카데미, 관광통역안내사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관광산업 취업멘토링, 관광고교 교사 및 학생 대상 교육, 자유학기제 연계 관광산업분야 진로탐색 교육,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주 대상 안전점검 실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표 4-25] 한국관광공사 교육 프로그램

(단위 : 명, 회당시간, 회)

구분	교육과정 명	교육실적	교육시간	교육횟수
한국 관광 공사	문화관광해설사 테마아카데미	386	16시간	7
	전문프리미엄가이드 양성교육	64	70시간	3
	관광통역안내사 테마아카데미	925	13시간	20
	관광통역안내사 지역전문가 양성교육	333	25시간	5
	관광산업 취업멘토링	214	5시간	5
	관광고교 교사 및 학생 대상 교육	46	3일	2
	자유학기제 연계 관광산업분야 진로탐색 교육	688	2시간	18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주 대상 안전점검 실무교육	474	온라인 교육	상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52) 관광레저산업의 정부부처 및 업종별 협단체 교육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2019)의 2018년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 한국관광공사 프리미엄관광통역안내사 교육과정(예시)

-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중인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과정은 공통과정 및 기본소양교육, 특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4-26] 한국관광공사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과정

구분	교과목명	내용	시수
공통과정·기본소양교육	VIP 관광시장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이해 VIP 안내서비스 이해 	35 시간
	VIP 안내서비스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지메이킹 및 보이스코칭 VIP 의견의 이해 	
	한국문화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문화 유교와 불교 예술문화 도자기·회화·건축 	
	한국관광 스토리텔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백제 문화권 - 경주·신라 문화권 서울·경기 문화권 어권별 외국어 시나리오 실습 및 발표 	
	현장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답사 궁중·종가음식 체험 	
특화과정	크루즈산업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루즈 산업의 기본개요 및 특징 	35 시간
	국내외 크루즈시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루즈 시장 동향 및 외국 허브 사례, 국내 크루즈 시장 	
	SIT관광의 특징 및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SIT(Special Interest Tourism)관광의 이해 	
	크루즈의 기본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루즈 운항, 객실, 선박시설 등 전반적 특성 	
	크루즈 서비스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루즈 선내외 안내서비스, 선상 생활매너 및 안전사항 	
	기항지 제주, 부산, 인천 관광자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별 기항지 관광자원 발굴 	
	크루즈 시나리오 작성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루즈 시나리오 작성 	
	크루즈 상품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국수속, 수하물 관리 기존 상품과 여행 상품의 차이 	
	크루즈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크루즈 선내 서비스 상품 이해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티켓, 예절방식, 호칭 등 	
크루즈 선사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루즈 선내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견학 		

자료 : 한국관광공사 공고 “2015년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과정 참가자 모집 공고”

나)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의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내 인바운드 크루즈 관광시장 확대와 국적 크루즈선 취항계획 실행 여건 조성을 위해 크

루즈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⁵³⁾

-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개설되어 진행되고 있는 크루즈 전문교육과정은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의 훈련비 지원을 받아 서울/경기지역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경북지역 대경대학교, 부산지역 동의과학대학교의 3개 기관에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 2015년~2017년: 1차 운영기관: 경북 대경대학교, 서울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제주 제주대학부설기관 창의연구소에서 실시
 - 2018년~2022년: 2차 운영기관: 경북 대경대학교, 부산 동의과학대학, 서울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에서 운영 중
- 운영프로그램 및 연수기관은 각 교육기관마다 상이하나, 국내교육의 기본 프로그램과 크루즈승무원의 취업을 목표로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기 훈련과정의 주관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표 4-27] 해양수산부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과정

구분	교과목명	교육내용
국내교육 (11주)	기초직업능력	크루즈에 대한 기초 능력 이해
	해양관광 및 관광산업	크루즈연계관광산업의 이론
	크루즈프론트관리	크루즈 자금, 승객지원, 크루즈 여행정보 관리
	크루즈식음료관리	다이닝, 음료서비스, 식음료 업장, 부서 관리
	크루즈캐빈관리	객실정비, 객실시설, 승객지원 관리
	크루즈기항지관광관리	기항지관광 예약, 관광 서비스 지원, 기항지관광 절차관리
	안전교육	응급조치, 안정장비, 소화퇴선훈련, 안전대피훈련
	선원교육	기초안전교육, 여객선기초교육, 선박보안교육
	외국어교육	크루즈 실무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인터뷰, 문서작성 등
	현장학습 및 특강	교육시설 실습 및 취업특강, 기항지관광학습
해외교육 (4주)	해외크루즈연수교육	중국천진 소재 Tianjin Maritime College_Cruise Talent Training Center (4주)

자료 :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프로그램 중 일부 발췌, 재인용

- 국내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현황은 살펴보면 과정등록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과정생의 수이며, 교육이수는 국내·국외연수 이수자로 총 출석률 80%이상인 과정 수료생, 취업합격은 해외선사 면접에 합격한 인원을 말함

53)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크루즈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크루즈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크루즈 승무원 양성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크루즈선사와의 취업연계를 통한 청년 고용률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표 4-28]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 및 취업 현황 제1차(‘15년~’17년)

구분	합계 (취업자수)	대경대			아세아			창의연구소			
		과정 등록	교육 이수	취업 합격	과정 등록	교육 이수	취업 합격	과정 등록	교육 이수	취업 합격	
계	219	127	125	89	123	117	98	60	52	32	
‘15	1기	55	30	29	22	30	27	24	15	14	9
‘16	2기	48	25	25	14	26	26	24	15	14	10
‘16	3기	39	20	20	14	25	24	18	15	9	7
‘17	4기	43	26	26	21	22	21	16	15	15	6
‘17	5기	34	26	25	18	20	19	16	-	-	-

자료: 각 기관별 해양수산부 결과 실적 보고 자료 인용

[표 4-29]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 및 취업 현황 제2차(‘18년~ 현재)

구분	합계 (취업자수)	대경대			아세아			동의과학대			
		과정 등록	교육 이수	취업 합격	과정 등록	교육 이수	취업 합격	과정 등록	교육 이수	취업 합격	
계	103										
‘18	6기	55	22	21	13	30	28	22	30	25	20
‘19	7기	48	13	13	8	22	18	17	25	25	23

출처: 각 기관별 해양수산부 결과 실적 보고 자료 인용

- 제1차 운영성과는 과정등록인원 대비 합격인원을 살펴볼 때, 대경대학교 70.08%,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79.67%, 창의연구소 53.33%이며, 제2차 사업은 향후 2022년 종료예정이며, 2018년 대경대 59.09%,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78.57%, 동의과학대 66.67%의 선사취업합격률을 보이며, 2019년 현재 합격률은 61.54%, 아세아 항공직업전문학교 77.27%, 동의과학대 76.67%임

나. 업종별 협단체 교육프로그램

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교육프로그램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관광안내소 안내소 역량강화교육(직무기초), 관광안내소 안내소 역량강화교육(직무심화), 관광안내소 안내사 역량강화교육(직무실무),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표 4-30]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교육 프로그램

(단위 : 명, 회당시간, 회)

구분	교육과정 명	교육 실적	교육 시간	교육 횟수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관광안내소 안내사 역량강화교육(직무기초)	111	2일	4
	관광안내소 안내사 역량강화교육(직무심화)	119	2일	3
	관광안내소 안내사 역량강화교육(직무실무)	71	1일	2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105	1일	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나)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교육프로그램

-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는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안내실무교육, 관광통역안내사 광둥어 교육, 관광통역안내 신입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연도별 관광통역안내사 교육현황은 2004년 2,240명을 시작으로 2016년 2,932명으로서 이 기간 총 21,945명이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관광공사)

[표 4-31]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교육 프로그램

(단위 : 명, 회당시간, 회)

구분	교육과정 명	교육 실적	교육 시간	교육 횟수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 협회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안내실무교육	642	9일	13
	관광통역안내사 마인어, 베트남어 교육	51	10개월	1
	관광통역안내 신입실무교육	220	8일	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다) 한국여행업협회 교육프로그램

- 한국여행업협회에서는 매년 여행업 임직원 및 가이드 등을 대상으로 여행업 안전관리 및 서비스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자 직무교육⁵⁴⁾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관리하에 전국 53개 TC(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업체 및 대학 등)에서 국외여행인솔자 소양 및 양성과정을 연간 운영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음

[표 4-32] 한국여행업협회 교육 프로그램

(단위 : 회당시간, 회)

구분	교육과정 명	교육대상	교육 시간	교육 횟수
한국 여행업 협회	여행업 안전관리 및 서비스교육	여행업 임직원 및 가이드	4.5	연 1회
	국외여행인솔자 직무교육	국외여행인솔자	4	연 6회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https://www.kata.or.kr>)

[표 4-33]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정 안내

구분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 시간	교육 횟수
소양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교육 : 여행사 실무, 관광관련법규, 국외여행인솔자실무, 관광서비스실무, 세계관광문화, 해외여행 안전관리 중 선택 선택교육 : 교육기관 자유선택(단,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과정으로 편성) 외국어교육 : 실무영어, 실무일어, 실무중국어등 	여행업체 6개월이상 근무자 (해외여행경험자)	15 시간 이상	연간
양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교육 : 여행사 실무, 관광관련법규, 국외여행인솔자실무, 관광서비스실무, 세계관광문화, 해외여행 안전관리 중 선택 선택교육 : 교육기관 자유선택(단,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과정으로 편성) 외국어교육 : 실무영어, 실무일어, 실무 중국어등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관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80 시간 이상	연간
보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안전사고 관련 사고대처능력 및 서비스 교육 등 TC실무교육 	국외여행인솔자 및 여행사 임직원	4.5 시간	연 1 회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https://www.kata.or.kr>)

- 국외여행인솔자는 국가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은 아니지만 국외여행업 및 일반여행업을 대상으로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시설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두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의해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 자격 중 하나 임

54) 교육내용으로는 여행자 보험과 인솔자의 역할, 여행사 인사정책 설명, 인솔자의 기본 업무지침, 검역법 개정 설명, 문제상황 대처 능력 향상교육, 안전대처능력 향상교육 등의 교육이 시행되고 있음.

- 국외여행인솔자(TC)의 경우 1983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74,930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소양과정 33,251명, 관광통역 9,59명, 양성과정 31,820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자격을 취득함(2019년 3,267명 취득)

라) (사)한국MICE협회 교육프로그램

- (사)한국MICE협회에서는 대한민국 MICE산업 발전을 목표로 회원사를 비롯한 업계의 인력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18년 협회의 시행교육 과정은 한국MICE아카데미, 업계 신입사원 OJT 교육, MICE 재직자 양성과정, 해외MICE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표 4-34] (사)한국MICE협회 교육 프로그램

구분	교육과정 명	교육대상	비고
(사)한국 MICE협회	한국MICE아카데미	MICE 업계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연 3회 개최
	MICE업계 신입사원 OJT 교육	MICE 업계 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연 2회 개최
	MICE재직자 양성과정	MICE 업계 종사 5년 이상 중견관리자	연 2회 개최
	해외 MICE 교육 프로그램	MICE 업계 재직자	연중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마) 기타기관 교육프로그램

- 이밖에 관광·레저산업의 업종별 협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업종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기타기관 교육기관으로는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으로는 카지노 리조트 아카데미와 유원시설 안전교육과 숙박종사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 한국호텔업협회에서는 우수호텔아카데미 및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재직자 대상 경영책임자 교육, 분야별 특성화 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음
 - 유원시설업 관련교육은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에서 주로 진행이 되며 주로 안전교육(안전 관리자 교육,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요원, 사업주 안전교육, 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등) 및 중소기업체 기술지원사업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의 경우 카지노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보조사업으로 국내 이론교육과 해외 연수교육을 연계한 ‘카지노리조트 아카데미(연2회)’, ‘제주지역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한 종사자 교육(2회)’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는 콘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종사자 교육훈련 및 연수와 해외리조트 벤치마킹(대표자 및 종사자 대상)을 진행하였음

[표 4-35] 기타기관 교육 프로그램

(단위 : 명, 회당시간 회)

구분	교육과정 명	교육실적	교육시간	교육횟수
기타기관	카지노리조트 아카데미(2회)	68	64시간	2
	유원시설 안전교육(안전관리자, 종합·유원시설업자)	271	2일	4
	숙박종사원(호텔, 콘도)교육	290	1~2일	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재인용.

2) 기타 관광레저산업 관련 인력양성(향상) 현황

가. 의료관광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가) 공공기관 교육과정 현황

■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는 2007년부터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시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의료관광관련 전문 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표 4-36]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자질 및 역량 교육프로그램

과목명	대상	인원	비고
관광통역안내사 테마아카데미 (의료/웰니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50	2018년 시행(13시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과정 (관광분야)	관광업계 및 의료관광 에이전시 재직자	25	2014년 시행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과정 (의료분야)	의료관광 종사자	50	2014년 시행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기본소양과정	의료관광 종사자	40	2014년 시행
의료관광 마케터과정	의료관광 종사자	30	2014년 시행(48시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과정 (한방분야)	의료관광 종사자	30명	2014년 시행(32시간)

자료: 한국관광공사 관광전문인력포털 참고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한국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은 글로벌 헬스케어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통역사, 코디네이터, 유치업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교육 대상의 다양화로 포괄적인 교육을 운영 중임

[표 4-37] 2019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글로벌헬스케어 교육프로그램 종류

과정명	인원	시간	과정명	인원	시간
의료통역 강사과정	20	7	글로벌헬스케어 인 컨퍼런스	85	6
의료통역 전문과정	50	200	글로벌헬스케어 차세대 리더양성	10	30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실무실습과정	10	65	병원국제마케팅 전문과정	20	72
외국인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30	100	의사 해외진출 실무과정	20	8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서비스 역량강화과정	25	8	간호사 해외진출 실무과정	20	8
국제의료코디네이터 마케팅 역량강화과정	25	8	간호사 해외진출 전문과정	20	40
국제진료 간호사 전문과정	20	30	의료기사 해외진출 전문과정	20	40
국제진료 간호사 Nursing Conversation 과정	25	8	동남아시아 의료시장 전략과정	20	16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역량강화과정	20	16	글로벌 제안서작성 및 PT 역량과정	20	16
외국인환자 유치 지역기반 역량강화과정	15	8	사우디 의사(펠로우) 사전교육과정	미정	135
글로벌헬스케어 직업탐색과정	30	2~8	사우디 치과 의사 한국어 교육	미정	1,350

자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19), 보건산업교육프로그램

■ 광주국제교육센터

- 광주국제교육센터에서 2019년 시행되는 교육으로 광주 의료통역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유치지역기반 역량강화과정을 위하여 실시함
- 의료통역 전문인력으로 커뮤니케이션법, 의료통역 현장의 법류문제, 다빈도 의료상황 및 표현을 익히는 과정으로 글로벌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의료통역 관련 법률, 통역 실습관련 교육을 실시함
 - 광주시 의료통역 인력교육은 광주시 통역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20명 내외로 진행됨

[표 4-38] 광주 의료통역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교과목	내용	시간	교육방법
글로벌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이문화 이해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실습 	2	실습
의료통역 현장 법률문제 및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통역 시 발생하는 법적문제 및 대응방안 의료통역 외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 및 대응방안 	3	강의
의료통역 시나리오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료과목별 주요 의학용어 및 시나리오 현장관련 질의응답을 통한 언어별 간담회 	1	실습

주) 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료통역 업무 현장 배치 가능 인력을 위한 교육이며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광주 FINA 세계 마스터지 수영 대회 등 단기 일자리 연계 예정과정임

자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19), 보건산업교육프로그램

나) 협단체 교육과정 현황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협회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협회는 글로벌헬스코디네이터,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두 종류의 민간자격검정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글로벌헬스코디네이터는 해외환자의 유치를 위한 의료과 관광을 접목한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업무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실무 전문가를 위한 민간자격제도임⁵⁵⁾
 -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는 병원의 대형화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민간자격제도임⁵⁶⁾

■ (사)한국의료관광협회·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 (사)한국의료관광협회 및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는 150시간과정으로 운영 중에 있음

55) 주요 교과목으로는 의료관광산업이해, 글로벌의료문화 이해, 의료관광 의료법,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개념,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서비스 지원, 원무관리 및 기초용어, 고객관리 실무, 국제진료 실무로 구성 됨

56) 주요 교과목으로는 병원서비스실무(병원코디네이터 이해), 병원서비스실무(서비스 매너), 병원고객만족경영(MOT), 병원고객만족경영(환자상담), 병원고객만족경영(내부고객관리), 병원진료지원실무(보건실무), 병원진료지원실무(의료법규), 병원진료지원실무(의료마케팅)로 구성됨

다) 대학 및 대학교 전공교육과정 및 사설 교육기관

■ 대학 및 대학교 전공교육과정

- 2019년 현재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강원관광대학교⁵⁷⁾, 경주대학교⁵⁸⁾, 대구카톨릭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마산대학교에서 의료관광과 관련된 전공학과를 운영 중에 있음
 - 한편 기존에 의료관광과를 운영하던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수성대학교, 고구려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동주대학교, 건양대학교 경영사회복지대학원, 공주대학교 대학원,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등은 학과운업을 중단함
- 또한 건양대학교, 공주대학교, 숭실대학교, 인제대학교, 가천대학교는 대학원과정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중단하고 있으나 한림국제대학원은 컨벤션이벤트 경영학과의 전공으로 의료관광과정을 운영함

■ 사설기관 교육사례

- 이밖에 사설기관의 교육사례를 살펴보면 미래써어치 컨설팅그룹과 미래창조평생교육원에서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향상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나. 관광두레사업 전문인력 양성(향상) 교육프로그램 현황

■ 관광두레PD(청년PD)

- 관광두레사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식음, 여행알선, 체험, 기념품 등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체를 성공 창업하고 자립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임

57) 강원대학교 의료관광학과 교육과정(1·2학년) 교과목은 병원행정학, 보건통계학, 의료보험, 전자계산일반, 의학영어1·2·3, 의무기록학1·2, 병원재무회계, 해부생리학, 의료관계법규, 의료정보관리학, 공중보건학, 병리학개론, 식품위생학, 보건의료DB, 질병 및 수술분류1·2, 인터넷과 의료정보, 적정진료보장, 병원마케팅, 병원코디네이터, 의무기록실습1·2, 정보관리실무, 의무기록전사, 병원원무관리, 의료정보시스템실무, 프로그래밍언어, 병원네트워크, 암등록, 보건의료 DB 실습, 위생관계법규, 현장실습으로 구성됨

58) 경주대학교 보건의료관광학과 교육과정은 교과목은 1학년과정은 중국어 기초 입문, 병리학개론, 의학영어1, 해부생리학으로 구성되었고, 2학년 과정은 의학영어2, 의료중국어회화, 의료정보관리학, 병원코디네이터 실무, 보건의료행정, 조직인사학, 병원통계학으로 구성되었으며, 3학년(전산학, 의무기록학, 보건의료관광서비스자원관리, 노인복지론, 전공영어회화, 건강과운동 공중보건학개론, 질병 및 수술분류, 의무기록실습, 실버보건실무, 임상현장단기인턴학습, 전공영어회화), 4학년(의무기록전사, 원무관리, 암등록, 의료보험, 보건의료관광실무, 임상현장단기 인턴학습2, 임상현장단기 인턴학습1, 적정진료보장, 의료관계법규, 병원관리학, 회계재무학, 임상현장단기 인턴학습3, 임상현장단기 인턴학습2)과정으로 교육중에 있음

- 관광두레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여 지역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내·외 유관기관과 네트워킹을 통해 국내 관광의 흐름을 보다 넓고 다양하게 바꾸어 나갈 것으로서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음
- 이러한 성과는 관광두레사업단, 멘토단, 관련 기관들의 노력과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고 이끌며 사업을 기획·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광두레PD가 있기에 가능하였음(2019년 기준 44명의 관광두레PD 활동 중)

■ 교육 프로그램 현황

- 관광두레PD는 행정기관, 전문가와 주민 사이의 중간 지원역할을 하고, 주민사업체 발굴부터 사업계획 수립, 창업·경영개선을 위한 기획과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며, 이는 지역 내 관광두레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관광두레PD의 자질과 역량은 사업의 성패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
 - 관광두레사업단(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역별 선정된 관광두레PD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음
- 관광두레사업단은 관광두레PD의 연차별 수행미션에 따라 갖춰야 할 역량을 23개 항목으로 분류했고, 이를 기초심화실행 3단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운영은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나 함께 공유해야 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재구성해 진행하였음

[표 4-39] 관광두레PD 역량강화를 위한 3단계 교육 과정

구분	정의	내용	교육과정
기본역량	관광두레사업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관광두레PD가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역량	사업이해	기초
		역할인식	
		정보 수집분석	
		문서 기획	
		시간 업무 관리	심화
		커뮤니케이션	
		갈등관리	
		관계형성	
		문제해결	

직무역량	관광두레PD의 중심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컨설팅	실행
		자기 계발	
		네트워킹	
		지역 이해	기초
		사업계획 수립	
		여행상품 지식	심화
		사업성 평가	
		세무 지식	
		재무회계 지식	
		여행상품 개발	실행
		법인설립 관련 지식	
		고객 관리	
		목표 관리	
마케팅(홍보, 판촉)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관광두레 실적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재인용

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프로그램 현황

- 「관광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제48조의4제1항)⁵⁹⁾
 - 문화관광해설사제도는 2011년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고, 한국관광공사의 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위탁업체로 선정되어야 예비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출할 수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대상자는 연령이나 학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교육기관에서 9개 과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10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렇게 배출된 예비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및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쳐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취득함
- 각 과목에는 현장학습 및 실습 포함되며, 과목 특성에 따라 실습·현장학습을 50% 이상으로 구성

59) 문화관광해설사는 2001년 한국방문의해, 2002년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를 앞두고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의 전통과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유산해설사로 출발하였음

[표 4-40]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목 기본구성(안)

교육 영역	교육 내용	시간
기본소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관광해설사의 의미와 역할 관광산업의 이해 	5시간
지역의 문화·역사·관광·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역사, 문화, 예술 지역 자연, 생태, 환경 자원 주요문화관광지 표준 해설 	32시간
해설안내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설 안내 기법, 해설 우수 사례, 그 밖의 해설화법 	12시간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관광 영어 문화관광 일본어 문화관광 중국어 	10시간 (각 외국어 합산)
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관광해설사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사용자 교육 기초 OA 교육 SNS활용법 	10시간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교육의 이론과 실제 장소 및 요인에 따른 사례 및 현황 분석 응급상황별 대응요령 및 가상 실습 야외활동 인솔요령 	10시간
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화해설 기초교육 	5시간
관광객의 심리 및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객 심리 및 특성 커뮤니케이션 기법 서비스 마인드 교육 	8시간
관광객의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객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 및 해설 소외계층 장애인 이해 및 인식 개선 교육 이미지 메이킹 	8시간

자료: 한국관광공사 누리집(kto.visitkorea.or.kr)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 참조.

4.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자격현황

1)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운영 현황

가.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운영체계

-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는 1962년에 시행된 관광통역안내사 제도를 효시로, 관광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춘 자로 하여금 관광사업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관광산업 서비스 질과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현재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는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국가전문자격인 여행업 분야의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호텔업 분야의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등 총 5종목으로 구성됨
- 이 외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은 국제회의업 분야의 컨벤션기획사, 의료관광 분야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가 이에 해당함
-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는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을 종합하여 총 4개 분야 8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여행업 :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 호텔업 :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 국제회의업 : 컨벤션기획사
 - 기타 분야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표 4-41]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구성 체계

구분		내용	법명
국가전문 자격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진흥법
		국내여행안내사	관광진흥법
	호텔업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관광진흥법
국가기술 자격	국제회의기획업	컨벤션기획사	국가기술자격법
	의료관광업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자격	여행업	국외여행인솔자	관광진흥법

나.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검정체계

가) 여행업 분야: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 자격시험 개요

- 현행 자격제도 운영 체계에서 여행업 분야 관련 자격인 국내여행안내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국적·성별·연령 및 학력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 국내여행안내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시하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함
 -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을 말함
- 국내여행안내사는 연 1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시행하고, 관광통역안내사는 연 1회 필기시험(제1차 시험)과 면접시험(제2차 시험) 외 외국어 시험을 시행함

■ 검정과목

- 국내여행안내사의 필기시험은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으로 구성되며, 관광통역안내사의 필기시험은 외국어,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으로 구성됨
 - 면접시험은 국내여행안내사의 경우 대면 구술평가 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광통역안내사는 시험응시 언어를 사용한 구술시험으로 진행함

[표 4-42] 국내여행안내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구분	검정과목(배점비율)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필기	국사 (30%)	외국어(공인어학성적) ⁶⁰⁾
	관광자원해설 (20%)	국사(40%)
	관광법규 (20%)	관광자원해설(20%) 관광법규(20%)
	관광학개론 (30%)	관광학개론(20%)
면접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은 영어 등 10개 언어로 응시할 수 있으며 특별시험의 경우 시장의 수요에 따라 해당 언어 분야의 시험응시 기회를 제공함

■ 합격기준 및 합격률

- 최근 5년간 국내여행안내사 평균합격률은 필기 61.4%, 실기가 78.6%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보임
-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률이 38.3%, 실기시험이 55.3%로 국내여행안내사에 비해서 필기시험 합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3] 최근 5년 간 여행업 분야 자격 합격률(2014년~2018년)

(단위 :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합격률
관광통역 안내사	1차	대상	11,465	14,680	12,171	5,231	4,027	38.3
		응시 (응시율)	10,418 (90.9)	13,096 (89.2)	10,575 (86.9)	4,276 (81.7)	3,356 (83.3)	
		합격 (합격률)	4,260 (40.9)	3,481 (27.0)	3,046 (28.8)	2,144 (50.1)	1,503 (44.8)	
	2차	대상	6,233	5,441	4,504	3,361	2,467	55.3
		응시 (응시율)	5,730 (91.9)	4,879 (90.0)	3,997 (88.7)	2,861 (85.1)	2,041 (82.7)	
		합격 (합격률)	3,198 (55.8)	2,522 (52.0)	2,145 (53.7)	1,610 (56.3)	1,251 (61.3)	
국내여행 안내사	1차	대상	768	808	776	1,058	1,680	61.4
		응시 (응시율)	431 (56.1)	455 (56.3)	399 (51.4)	586 (55.4)	601 (34.8)	
		합격 (합격률)	227 (53.0)	235 (52.0)	284 (71.2)	355 (60.6)	421 (70.1)	
	2차	대상	2,354	1,795	1,625	1,708	1,830	78.6
		응시 (응시율)	1,430 (61.0)	970 (54.0)	992 (61.0)	1,130 (66.2)	1,178 (64.3)	
		합격 (합격률)	1,096 (77.0)	709 (73.0)	781 (78.7)	914 (80.9)	981 (83.3)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60)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4개 국어 및 특별 FLEX는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공동시행하며, 응시 점수는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대행함

■ 기타 자격: 국외여행인솔자(Tour Conductor)

- 국외여행인솔자는 국가자격법에 의한 자격은 아니지만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중에 하나로 관광진흥법 제13조에 의거함
- 교육과정: 소양, 양성, 보수 교육

[표 4-44]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정

구분	교육 내용
소양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대상: 여행업체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외경험 있는자 • 교육시간: 15시간 이상 •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여행사 실무, 관광관련 법규, 국외여행인솔자실무, 관광서비스실무, 세계관광문화, 해외여행 안전관리 중 선택 - 선택: 교육기관 선택 - 외국어: 실무영어, 실무일어, 실무중국어 등
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대상: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자, 관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교육시간: 80시간 이상 • 교육내용(소양과정과 동일)
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대상: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 및 여행사 임직원 • 교육내용: 해외안전사고 관련 사고대처능력 및 서비스 교육 등 TC실무교육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www.kata.or.kr): 국외여행인솔자 인력관리시스템 참조 후 재작성

-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취득현황은 1983년부터 1명으로 시작으로 2019년 현재까지 총 74,932명이 취득하였음
 -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은 2015년 6,218명으로 전체의 약 8.3%의 가장 높은 취득률을 보임

[표 4-45]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취득 현황(1983-2019)

(단위 : 명,%)

구분	‘12 이전	‘13	‘14	‘15	‘16	‘17	‘18	‘19	합계
취득자 (취득률)	42,564 (56.80)	4,699 (6.27)	4,727 (6.31)	6,218 (8.30)	4,821 (6.43)	4,220 (5.63)	4,414 (5.89)	3,269 (4.36)	74,932 (100.0)

주)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제도는 1983년부터 시행되었음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www.kata.or.kr): 국외여행인솔자 인력관리시스템 참조 후 재작성

나) 관광숙박업 분야: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 자격시험 개요

- 호텔경영사 자격제도는 호텔관리사 자격 취득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4성(특 2등)급 이상의 호텔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호텔경영사는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담당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호텔에서의 객실예약업무, 객실판매 및 정비업무, 접객업무, 회계업무, 식당업무 등 제반 호텔관리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 조정하며 종사원 근무상태를 지휘 감독하는 직무를 말함
- 호텔관리사 자격제도는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나 관광 분야를 전공한 자를 대상으로 함
 - 호텔관리사는 관광호텔의 객실관리 및 가족호텔업의 경영업무를 담당하며,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와 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과 한국전통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수행
 - 호텔서비스사는 호텔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호텔종사원으로서 외국어실력이 필요하고, 서비스에 대하여 이해하며, 고객에게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영접, 객실안내, 짐 운반, 객실예약,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객실열쇠관리, 객실정리, 세탁 보급, 음식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함

■ 검정과목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호텔업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 기준에 부합하는 어학성적을 취득해야 함
 - 어학성적은 자격 종목별 자격 취득 기준에 부합하는 어학성적이 요구되며 이는 공인 어학시험 성적 제출로 대체됨
- 필기시험은 종목별로 상이하며 면접시험은 3개 종목 공통으로 대면 구술평가 형식으로 진행함

[표 4-46] 호텔경영사관리사서비스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구분	검정과목 (배점비율)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제1차 시험	관광법규(10%)	관광법규 (30%)	관광법규 (30%)
	호텔회계론(30%)	관광학개론 (30%)	호텔실무 (70%)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30%)	호텔관리론 (40%)	
	호텔마케팅론(30%)		
제2차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면접(영어면접): 발음, 억양, 표현의 정확성 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제2면접(호텔실무상식면접): 호텔관련 전문 지식 및 각종 상황대처 능력 등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호텔서비스사에 한함)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 합격기준 및 합격률

-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의 필기 및 면접시험 합격점수는 6할 이상을 기준으로 함(필기의 경우 매 과목당 4할 이상의 점수를 획득)
- 호텔종사원의 외국어시험은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 가지 언어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2년 이내의 정기시험만 인정함

[표 4-47] 관광숙박업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합격기준 점수

구분	합격기준 점수
외국어	종목별·언어별로 상이
제1차 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환산점수 6할 이상
제2차 시험	총점의 6할 이상

- 최근 5년간의 호텔경영사의 경우 9명이 응시하여 최종 5명(1차: 33.3%, 2차:30.0%)⁶¹⁾이 합격하였으며, 호텔관리사의 경우 1차 평균합격률은 72.9%, 2차 평균합격률 60.5%로 나타남
- 호텔서비스사의 경우 1차 평균합격률은 33.3%, 2차 평균합격률 76.5%로 나타남

61) 호텔경영사의 경우 응시율이 낮아 합격자가 적으며 2014년과 2018년에 합격자 발생하여 5년 평균합격률이 낮게 나타남

[표 4-48] 최근 5년 간 관광숙박업 관련 종사원 자격 합격률(2014년~2018년)

(단위 :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합격률	
호텔 경영사	1차	대상	4	1	1	-	3	33.3
		응시 (응시율)	4 (100.0)	1 (100.0)	1 (100.0)	-	3 (100.0)	
		합격 (합격률)	4 (100.0)	-	-	-	2 (66.7)	
	2차	대상	4	-	-	-	2	30.0
		응시 (응시율)	4 (100.0)	-	-	-	2 (100.0)	
		합격 (합격률)	4 (100.0)	-	-	-	1 (50.0)	
호텔 관리사	1차	대상	20	30	17	20	20	72.9
		응시 (응시율)	17 (85.0)	25 (83.3)	12 (70.6)	16 (80.0)	16 (80.0)	
		합격 (합격률)	14 (82.4)	20 (80.0)	4 (33.3)	14 (87.5)	13 (81.25)	
	2차	대상	30	31	16	24	23	60.5
		응시 (응시율)	25 (83.3)	29 (94.0)	13 (81.3)	23 (95.8)	20 (87.0)	
		합격 (합격률)	14 (56.0)	15 (52.0)	11 (84.6)	8 (34.8)	15 (75.0)	
호텔 서비스 사	1차	대상	60	76	86	80	108	82.7
		응시 (응시율)	31 (51.7)	44 (57.8)	60 (69.8)	45 (56.3)	60 (55.6)	
		합격 (합격률)	19 (61.3)	41 (93.1)	58 (96.7)	34 (75.5)	52 (86.7)	
	2차	대상	192	178	268	222	255	76.5
		응시 (응시율)	144 (75.0)	133 (74.7)	187 (69.8)	162 (73.0)	192 (75.3)	
		합격 (합격률)	106 (73.6)	89 (67.0)	164 (87.7)	118 (72.8)	156 (81.3)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다) 국제회의업 분야: 컨벤션기획사 1·2급

■ 자격시험 개요

- 컨벤션기획사2급은 컨벤션기획사 1급 자격자의 지휘 하에 회의기획/운영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회의목표 설정, 예산관리, 등록기획, 계약, 협상, 현장관리, 회의평가 업무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업무수행
- 컨벤션기획사1급은 회의유치에서부터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제반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회의기획/운영을 수행하고 2급 자격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수행(2급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종사자)

■ 검정과목

- 컨벤션 기획사의 경우 1급과 2급으로 구분 됨
 - 컨벤션기획사 2급의 필기시험은 컨벤션산업론 및 호텔관광실무론, 컨벤션영어로 구성되고, 실기시험은 컨벤션실무로서 컨벤션기획서 및 영문서신 작성의 작업형평가로 진행함
 - 컨벤션기획사 1급의 필기시험은 컨벤션기획실무론, 재무회계론, 컨벤션 실무로 구성되고, 실기 시험은 컨벤션 기획 및 실무 제안서작성, 영어 프레젠테이션 평가로 진행함

[표 4-49] 컨벤션기획사 자격시험 검정과목

구분	검정과목	
	컨벤션기획사 2급	컨벤션기획사 1급
1차(필기)	컨벤션 산업론	컨벤션기획실무론
	호텔관광실무론	재무회계론
	컨벤션 영어	컨벤션 실무
2차(실기)	컨벤션 실무(컨벤션기획서 및 영문서신 작성)	컨벤션 기획 및 실무제안서 작성, 영어프레젠테이션 평가

주) 컨벤션기획사의 경우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이 가능함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 합격기준 및 합격률

- 필기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하며,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시험시간: 6시간)을 합격기준으로 함

[표 4-50] 컨벤션기획사 자격 합격기준 점수

구분	내 용
1차(필기)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
2차(실기)시험	60점 이상

자료 :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 컨벤션기획사 2급의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은 필기시험의 경우 79.8%, 실기시험의 경우 약 48.7%로 나타남
- 컨벤션기획사 1급의 최근 4년간의 평균 합격률은 필기시험의 경우 31.3%, 실기시험의 경우 26.7%로 나타남

[표 4-51] 최근 5년 간 컨벤션기획사 1·2급 합격률

(단위 :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컨벤션 기획사2급	필기	응시	847	631	1,216	1,099	1,071
		합격	689	551	973	845	785
		합격률	81.3	87.3	80.0	76.9	73.3
	실기	응시	483	371	722	657	470
		합격	232	233	260	306	236
		합격률	48.0	62.8	36.0	46.6	50.2
컨벤션 기획사1급	필기	응시	-	18	12	15	3
		합격	-	1	5	9	0
		합격률	-	5.6	41.7	60.0	0
	실기	응시	-	1	5	8	1
		합격	-	0	0	4	0
		합격률	-	0	0	50.0	0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라) 의료관광분야: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자격시험 개요

-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을 종합적으로 정의하면 해외여행과 의료서비스 선택의 자유화로 인해 건강 요양, 치료 등의 의료혜택을 체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일부 지역을 방문하면서 환자 치료에 필요한 휴식과 기분전환이 될 수 있는 그 지역 주변의 관광, 레저, 문화 등을 동시에 체험하는 관광활동
- 국제화되는 의료시장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료서비스지원, 관광지원, 국내외 의료기관의 국가 간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 상담, 리스크 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발전 및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직무

■ 검정과목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 됨
 - 1차 필기시험 검정과목: 보건의료관광행정,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관리, 보건의료 관광마케팅, 관광서비스 지원관리, 의학용어/질환의 이해
 - 2차 실기시험 검정과목: 보건의료 관광실무

[표 4-52]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시험 검정과목

구분	검정과목	
1차(필기)	보건의료관광행정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관리
	보건의료 관광마케팅	관광서비스 지원관리
	의학용어/질환의 이해	
2차(실기)	보건의료 관광실무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 합격기준 및 합격률

- 필기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하며,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시험시간: 6시간)을 합격기준으로 함

[표 4-53]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 합격기준 점수

구분	내 용
1차(필기)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
2차(실기)시험	60점 이상

자료 :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은 컨벤션기획사 2급의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은 필기시험의 경우 68.8%, 실기시험의 경우 약 38.4%로 나타남

[표 4-54] 최근 5년 간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합격률

(단위 :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제의료관 광코디네이 터	필기	응시	424	487	377	264	195
		합격	280	314	271	179	144
		합격률	66.0	64.5	71.9	67.8	73.8
	실기	응시	394	515	444	211	160
		합격	44	154	222	140	55
		합격률	11.2	29.9	50.0	66.4	34.4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자격 개발 현황

가. NCS(국가직무능력표준)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하고 표준화한 것을 의미함(자격기본법 제2조)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훈련과정과 자격기준에 NCS를 활용함으로써 현장, 교육·훈련, 자격을 상호 연계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의 효용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 NCS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과학적으로 체계화 한 것으로 직무의 특성에 따라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함
- 직무능력은 직무 수행능력과 직업 기초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업 기초능력이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의미함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수리능력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들이 이에 해당됨.
- 직무수행능력은 해당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수의 능력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행업무와의 일치정도에 따라 1) 필수 직업능력, 2) 선택 직업능력, 3) 산업공통 직업능력으로 구분됨

나. 관광·레저산업 분야 NCS 및 관련 자격 개발 현황

-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관련 분야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여행서비스 : 여행상품 개발, 여행상품 상담, 국내여행 안내, 해외여행안내, 항공객실 서비스
 - 숙박서비스 : 숙박기획·개발, 객실관리, 부대시설 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
 - 컨벤션 : 회의기획, 전시기획, 이벤트기획
 - 관광·레저서비스 : 카지노기획개발, 카지노운영관리, 크루즈운영관리, 유원시설운영관리, 리조트 운영관리

[표 4-55] 관광레저산업 NCS 및 자격 개발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NCS 기반 자격
12. 이용·숙박· 여행·오락· 스포츠	03. 관광·레저	01. 여행서비스	1. 여행상품개발 2. 여행상품상담 3. 국내여행안내 4. 해외여행안내 5. 항공객실서비스	여행상품기획_L5 여행상품상담_L4 여행안내_L3 항공객실서비스_L3
		02. 숙박서비스	1. 숙박기획·개발 2. 객실관리 3. 부대시설관리 4. 연회관리 5. 접객서비스	호텔관리_L5 호텔객실서비스_L3 호텔식음료서비스_L3
		03. 컨벤션	1. 회의기획 2. 전시기획 3. 이벤트기획	컨벤션기획_L3, L5
		04. 관광·레저서비스	1. 카지노기획개발 2. 카지노운영관리 3. 크루즈운영관리 4. 유원시설운영관리 5. 리조트운영관리	카지노기획개발_L4 크루즈운영관리_L4 유원시설운영관리_L3 카지노딜러_L3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http://www.ncs.go.kr>

가) 여행서비스

- 여행서비스분야의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을 직능유형(skill type)과 직능수준(skill level)으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여행서비스분야의 직능유형(skill type)은 여행상품개발, 여행상품상담, 국내여행안내, 해외여행안내, 항공객실서비스 등 5가지이며, 직능수준(skill level)의 경우 2~5수준에 분포하고 있음
- 여행상품개발, 여행상품상담, 국내여행안내, 해외여행안내의 경우 3수준은 3년, 4수준은 5년, 5수준은 8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며, 보통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됨
 - 항공객실서비스의 경우 3수준인 객실서비스 실무자는 1~7년의 경력 및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그리고 4수준인 객실서비스 관리자는 7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됨
- 여행서비스 분야 NCS기반 자격(4개): 여행상품기획_L5, 여행상품상담_L4, 여행안내_L3, 항공객실서비스_L3

[표 4-56] 여행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구분	01. 여행상품개발	02. 여행상품상담	03. 국내여행안내	04. 해외여행안내	05. 항공객실서비스
5수준	여행상품개발 관리자	여행상품 총괄관리자			
4수준	여행상품개발 실무자	여행상담 관리자			객실서비스 관리자
3수준		여행상담 실무자	관광통역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객실서비스 실무자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http://www.ncs.go.kr>

■ 여행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 수준

- 여행상품개발은 여행사에 의해서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이거나, 여행자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상품을 기획하는 과정으로서 여행상품 시장조사와 원가분석, 여행상품 상품성 검토, 여행상품 구성,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수요시장을 환가·충족시키고, 여행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의미함
- 여행상품상담은 여행상품 판매를 위하여 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여행 관련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일을 의미함
- 국내여행안내는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국내여행안내 행사지시서 확인, 국내여행안내 행사준비, 영접(meeting), 교통편 탑승 후 오리엔테이션, 관광자원 해설, 국내여행안내 행사진행, 국내여행안내 안전관리, 국내여행안내 고객만족관리, 환송(Sending), 국내여행안내 정산보고를 하는 일을 의미함
- 해외여행안내는 외국을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국외여행안내 행사확정 확인, 국외여행안내 사전 정보 확인, 출국 업무, 기내 업무, 입국 업무, 국외여행 행사관리, 국외여행안내 시 안전관리, 국외여행안내 고객만족관리, 국외여행안내 정산보고를 하는 일을 의미함
- 항공객실서비스란 객실 안전관리, 승객 탑승 전 준비, 승객 탑승 서비스, 이륙 전 서비스, 비행 중 서비스, 착륙 전 서비스, 착륙 후 서비스, 승객 하기 후 관리, 응급환자 대처, 객실승무 관리를 하는 일을 의미함

나) 숙박서비스

- 숙박서비스 분야는 크게 고객을 서비스하는 부서(Front of the House)와 지원부서(Back of the House)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객실관리, 부대시설관리, 연회관리, 접객서비스는 접객부서에 해당하고, 숙박기획·개발은 지원 부서에 해당함
 - 위의 직능 수준을 기준으로 접객부서의 1, 2 수준은 주로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며, 3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담당 업장이나 부서의 관리 업무까지 관할하게 됨
- 지원부서는 고객을 서비스하는 부서가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숙박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됨
 - 지원부서의 1, 2 수준은 주로 보조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3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부서에 따라 숙박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함
- 숙박서비스분야 NCS기반 자격(3개): 호텔관리_L5, 호텔객실서비스_L3, 호텔식음료서비스_L3

[표 4-57] 숙박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구분	01. 숙박기획개발	02. 객실관리	03. 부대시설관리	04. 연회관리	05. 접객서비스
6(차장)	경영지원실장				
5(과장)	경영지원팀장/ 세일즈&마케팅팀장	프론트 데스크 매니저	식음료 매니저		당직지배인
4(대리)	경영지원담당/ 판촉지배인	하우스키핑 부지배인/ 프론트데스크 부지배인	휘트니스 매니저/ 식음료 부지배인	연회 지배인	접객서비스 매니저
3(주임)		하우스키핑 정비담당/ 예약담당/프론트 데스크 담당	휘트니스 어텐던트/ 식음료 캡틴	연회 주임	접객서비스 주임
2(사원)		프론트 데스크 어 텐던트, 예약 담당	식음료 서버	연회 담당	접객서비스 담당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http://www.ncs.go.kr>

■ 숙박서비스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 수준

- 숙박기획·개발은 숙박 기획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마케팅, 판촉, 인적자원관리, 기획, 재무회계, 호텔 프로젝트를 하는 일을 의미함

- 객실관리는 고객의 편안하고 안락한 투숙을 위해, 예약 접수, 체크 인/아웃 업무, 객실과 공용지역 정비 및 호텔 세탁물 관리 등을 통해 최상의 객실 상품을 창출하는 일을 의미함
- 부대시설관리는 숙박객 및 방문객의 이용 목적에 따른 편의 제공을 위해 식음료와 판매시설, 레저 스포츠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일을 의미함
- 연회관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고객에게 성공적인 행사 유치를 위해 계획된 장소, 시간, 예산 내에서 식음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연회를 기획, 운영하는 일을 의미함
- 접객서비스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과의 다양한 접점 상황에서 고객의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창출하는 일을 의미함

다) 컨벤션

- 컨벤션분야 NCS 세분류는 회의기획, 전시기획, 이벤트 기획 총 3개 직무로 구분됨
 - 회의기획(PCO)는 하위직급에서 중간직급까지 승진 소요기간이 평균 2년, 중간~상위직급이 4년, 상위~최상위직급이 11년 이상 소요됨
 - 전시기획(PEO)는 하위직급에서 중간직급까지 승진 소요기간이 평균 3년, 중간~상위직급이 5년, 상위~최상위직급이 12년 이상 소요됨
 - 이벤트기획은 하위직급에서 중간직급까지 승진 소요기간이 평균 2년, 중간~상위직급이 5년, 상위~최상위직급이 10년 이상 소요됨
- 컨벤션 분야 NCS기반 자격(3개): 컨벤션기획_L3, L5

[표 4-58] 컨벤션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구분	01.회의기획	02.전시기획	03.이벤트기획
8(임원/총괄관리자)	회의기획총괄관리자	전시기획총괄관리자	이벤트기획총괄관리자
7(부장/기획자)	회의기획자	전시기획자	이벤트기획자
6(차장/운영책임자)	회의기획운영책임자	전시기획운영책임자	이벤트기획운영책임자
5(과장/실무책임자)	회의기획실무책임자	전시기획실무책임자	이벤트기획실무책임자
4(대리/실무담당자)	회의기획실무담당자	전시기획실무담당자	이벤트기획실무담당자
3(사원/실무보조자)	회의기획실무보조자	전시기획실무보조자	이벤트기획실무보조자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http://www.ncs.go.kr>

■ 컨벤션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 수준

- 회의 기획은 국제회의 및 국내회의를 유치 또는 신규 개발하고 개최를 위한 기획, 회의 프로그램 설계, 예산 및 회의 참가자 관리, 마케팅, 회의 현장 운영을 통해 회의 참가자 간의 교류와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일을 의미함
- 전시기획은 전시회 개발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어, 일반 참관객, 참가업체 유치 및 관리, 전시장 조성, 운영서비스 등을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위한 통합 마케팅의 장을 구성하는 일을 의미함
- 컨벤션 산업에서의 이벤트 기획은 정부·협화·단체·기업 등에서 주최하는 컨벤션 프로그램 중 공식·사교·부대행사를 기획·연출·운영 하는 일을 의미함

(4) 관광·레저서비스

- 카지노업은 전통적으로 일본시장이 강세였으나 최근 방한 중국관광객이 큰 폭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국시장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어 및 중국 문화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 역량을 갖춘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타 업종에 비해 관광전공자의 비중이 높은 편임
 - 특히 카지노와 관광산업의 결합으로 국내·외에서 비즈니스로 발전하였으며, 카지노업과 호텔업, 음식업, 테마파크 등 이와 관련된 유관업종과 결합하여 종합레저휴양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
- 카지노기획개발의 경우 실제로 카지노를 운영하는 카지노운영관리 직무와 다른 수준을 보이며, 카지노기획과장-카지노기획팀장-카지노기획실장-카지노기획본부장 등과 같이 사무에 대한 직능수준을 수행하며, 카지노운영관리의 경우 카지노 현장 실무자-카지노운영실무자-카지노보안실무자-카지노운영 관리자-카지노운영 책임자 등으로 직능수준이 구성됨
- 크루즈운영관리는 크루즈 담당 책임자(슈퍼바이저)-크루즈매니저(지배인)등으로 직능수준이 나뉘는데, 실제 한국에서 운영되는 크루즈의 수가 상당히 적고 대부분 크루즈 상품과 세일즈를 담당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어, 크루즈운영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능수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원시설운영관리의 경우 주임-필드 매니저-매니저-팀장-본부장으로 직능수준이

나뉘며, 테마파크의 내부의 시설물 관리와 아울러 기획부터 어트랙션운영, 매장관리까지 테마파크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리조트운영관리의 경우 주임-매니저-부장-팀장-본부장으로 직능수준이 나뉘며, 리조트 상품 및 회원관리, 리조트 안전관리, 편의시설, 식음료 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관광레저서비스 분야 NCS기반 자격(4개): 카지노기획개발Ⅰ4, 크루즈운영관리Ⅰ4, 유원시설운영관리Ⅰ3, 카지노딜러Ⅰ3

[표 4-59] 관광레저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수준

구분	01.카지노기획개발	02.카지노운영관리	03.크루즈운영관리	04.유원시설운영관리	05.리조트 운영관리
7(본부장)	카지노기획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
6(실장)	카지노기획 실장	카지노운영 책임자	크루즈 매니저(배인)	팀장	
5(팀장)	카지노기획 팀장	카지노운영 관리자		매니저	팀장
4(과장)	카지노기획 과장	카지노보안 실무자	크루즈 담당책임자	필드 매니저	매니저
3수준(대리)		카지노운영 실무자		주임	주임
2수준(사원)		카지노현장 실무자			

자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http://www.ncs.go.kr>

■ 관광·레저서비스 관련 산업현장 직무능력 수준

- 카지노기획개발은 고객들이 여가선용을 통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카지노사업, 마케팅, 상품선정, 시장창출, 고객서비스, 직원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및 보안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의미함
- 카지노운영관리는 영업장 내에서 고객의 관광레저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카지노 게임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카지노 영업 관리, 테이블 게임 관리, 룰렛 기본스킬, 룰렛 게임진행, 블랙잭 기본스킬, 블랙잭 게임진행, 바카라 기본스킬, 바카라 게임진행, 실전 테이블 게임진행, 머신 게임 관리, 카지노 현장 경리관리, 카지노 고객 지원, 카지노 영업 지원, 서베일런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의미함
- 크루즈 운영관리는 승선객들이 선상시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고 위락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선내의 승객서비스, 여행정보, 캐빈, 승객지원, 식음료, 조리, 기

항지관광, 카지노, 위락 시설, 마케팅, 지상 지원, 선상 지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의미함

- 유원시설운영관리는 고객이 위락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유원시설에서 유기사설과 유기기구, 상품판매시설, 식음료시설, 고객 편의시설 및 인적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 고객응대, 현장서비스관리, 어트랙션 운영관리, 상품기획개발, 상품판매관리, 식음료기획, 식음료업장운영, 이벤트기획, 이벤트운영, 전시기획, 전시운영, 시설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등을 하는 일을 의미함
- 유원시설운영관리는 고객이 위락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유원시설에서 유기사설과 유기기구, 상품판매시설, 식음료시설, 고객 편의시설 및 인적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 고객응대, 현장서비스관리, 어트랙션 운영관리, 상품기획개발, 상품판매관리, 식음료기획, 식음료업장운영, 이벤트기획, 이벤트운영, 전시기획, 전시운영, 시설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등을 하는 일을 의미함

[표 4-60] 관광·레저산업 분야 NCS 기반자격 개발현황

5수준	여행 상품 기획 1.5					호텔관리1.5					컨벤션기획1.5								
4수준		여행 상품 상담 1.4													카지노 기획 개발 1.4			크루즈 운영 관리 1.4	
3수준			여행안내1.3		항공 객실 서비스 1.3		호텔객실서비스 1.3		호텔식음료서비스 1.3		컨벤션기획1.3					카지노딜러 1.3			유원 시설 운영 관리 1.3
2수준																			
세분류	여행 상품 개발	여행 상품 상담	국내 여행 안내	해외 여행 안내	항공 객실 서비스	숙박 기획·개발	객실 관리	접객 서비스	연회 관리	부대 시설 관리	회의 기획	전시 기획	이벤트 기획	카지노 기획 개발	카지노 운영 관리	크루즈 운영 관리	유원 시설 운영 관리		
소분류	01. 여행서비스				02. 숙박서비스					03. 컨벤션			04. 관광·레저서비스						
중분류	03. 관광·레저																		
대분류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주) 관광·레저서비스의 05. 리조트운영관리의 경우 2018년 신설로 인하여 자격체계가 개발되지 않았음

5. 소 결

■ 광의적 접근을 통한 관광·레저산업 인력양성 교육 실시

- 현재 관광·레저산업 관련 교육기관들의 인력양성교육들은 대부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범위 내 관련 교육이 대부분으로, 광의적 접근을 통한 산업범위의 확대와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현재 NCS 등의 각종 산업분류표에 제시된 업종들을 보면 대분류(12.이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외 다른 분류 즉, 음식, 운송업, 농어업(농촌개발 등) 등 다양한 분야의 직무들이 관광·레저와 관련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6차 산업 및 지역관광 활성화 추세에 맞춰 여러 관련 기관들이 업을 통해 관련 NCS 보완개발 및 복합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이 요구됨
 - 또한 의료관광 활성화에 따른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향상 기관들과의 협업 추진 필요(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협회, 의료관광협회 등)
- 최근 관광·레저산업 분야의 지역관광활성화를 활성화를 위한 관광두레PD(청년PD) 등을 통해 지역주민 주도형 지역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또한 융·복합 산업인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력 양성 교육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따라 관광·레저산업의 주요한 분야로 새롭게 인식하고 관련 NCS 보완 및 자격 보완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업종별 필요한 직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분야(정보통신 등)와의 융·복합화를 반영한 자격체계 및 관련 인력양성 역시 요구됨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RSC)의 협업체계 구축

- 현재 국내에는 16개 지역에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조직되어 지역맞춤형 인력 양성(향상)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인자위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요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제기됨
- 현재 대구지역과 서울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관광·레저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및 향상훈련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ISC와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함

- 또한 ISC와 RSC의 협업을 정부기관(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역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어 향후 협업을 요구하는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예상됨
- 또한 다른 지역 역시 대분류 기준이 아닌 세분류로 구분한 인력양성 및 향상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여부를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관광·레저산업 인력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

■ 정규교육기관의 NCS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관광·레저산업 분야와 관련된 학부(과)가 개설되고 관련 교육을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 포함)에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레저산업으로의 취업률이 높지 않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의 관광산업 인력수급실태 분석에 의하면 관광관련 특성화고의 경우 관련 분야 취업률이 2015년 기준 55.5%로 나타났고,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2015년 기준 47.8%, 대학교의 취업률은 49.1%로 약 50%정도가 관광 관련분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관련 분야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관광·레저산업 관련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들이 현재 산업현장을 특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로 예상됨
- 교육기관과 산업현장의 미스매칭의 최소화를 위하여 산업분야별 NCS를 개발하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특성화 고등학교 및 전문대(전문학교 등)의 경우 많은 교육기관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4년제 대학교의 경우 아직도 많은 교육기관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도입방안 모색이 필요함
 - 물론 현재 개발된 NCS의 경우 관광·레저산업 전 산업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 개발된 직무별 NCS가 시대적 흐름에 따른 빠른 수정·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이에 관련기관(ISC, 협·단체 등) 및 산업현장의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직무별 NCS의 개발 및 수정·보완을 통한 NCS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유기적인 관계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관광·레저산업 분야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 관광·레저산업의 국가전문자격 및 기술자격 등 관련 자격제도가 과거부터 존재해 왔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자격 보유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아 응시율이 낮아 자격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 물론 자격증 소유자의 의무고용 외에도 검정형 자격취득제도는 많은 이론적 지식을 요하는 비중이 높아 현장 근무자의 경우 자격취득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관광·레저산업의 관광종사자 관련 국가자격의 경우 NCS를 기반으로 한 실무평가위주의 자격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이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활성화와 종목선정범위 확대 검토 또한 요구 됨

제 5 장

관광·레저산업의 인적자원 전망

1.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 전망

1) 관광·레저산업 부가가치율에 의한 인력수요 예측⁶²⁾

가. 분석과정

-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는 관광산업별 부가가치를 전망하여 취업계수를 곱해서 산출하기로 하며, 본 연구에서 관광산업별 부가가치는 관광산업 세부업종의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기로 함⁶³⁾

$$\text{부가가치율(\%)} = \frac{\text{부가가치액}}{\text{산출액}} \times 100$$

- 관광산업 세부업종별 부가가치와 취업자 수를 이용하여 세부업종별 취업계수를 산출하여 수요전망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⁶⁴⁾

$$\text{취업계수} = \frac{\text{취업자 수}}{\text{부가가치(10억)}}$$

나. 관광산업 업종별 부가가치율

- 관광산업은 관광객의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산업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계정상 단일산업으로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을 관광정책의 대상이 되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산업 한정 함
- 이때 관광산업의 세부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이용하기로 함

62)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 전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의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의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요전망 자료를 활용하였음

63)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은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의미 임

64) 취업계수가 높다는 것은 전통적인 고용창출 산업임을 의미하고, 취업계수의 역수는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을 나타냄

[표 5-1] 관광산업 부가가치율

관광산업 세부업종	부가가치율(%)	비고 (산업연관표상의 관광산업 부문)
여행업	63.1	기타사업서비스
관광숙박업	67.0	숙박
관광객 이용시설업	65.2	운동 및 경기관련 서비스
국제회의업	50.3	문화예술공연
카지노업	64.0	오락 및 유흥
유원시설업	65.0	운동 및 경기 관련 서비스
관광편의시설업	35.2	식음료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관광산업 경제효과 분석

다.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인력수요 전망

가) 여행업 인력수요 전망

■ 기초자료 활용

- 여행업의 인력을 전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의 매출액과 종사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여행업의 연도별 부가가치와 취업계수를 계산함
 - 취업계수는 지난 10년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5-2] 여행업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2008~2016)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액 (십억 원)	2,817	2,750	3,199	4,402	5,909	5,799	5,322	6,473	7,643
부가가치 (십억 원)	1,828	1,736	2,019	2,778	3,729	3,659	3,358	4,084	4,823
종사원수(명)	54,661	46,988	49,928	59,287	69,990	70,574	69,400	84,557	98,420
취업계수	29.91	27.07	24.73	21.34	18.77	19.29	20.67	20.70	20.4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 여행업 인력수요예측

- 여행업의 향후 소요인력을 전망하기 위하여 연도별 부가가치와 취업계수를 예측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연도별 여행업 인력수요를 전망하였음
 - 시계열 분석에 의한 예측은 향후 인력수요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여행업의 경우 2019년 108,779명을 시작으로 2023년 117,342명, 2028년 129,000명으로 10년간 20,221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5-3] 여행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부가가치 (십억 원)	5,567	5,934	6,300	6,667	7,033	7,398	7,763	8,128	8,493	8,857
취업계수	19.54	19.26	18.96	18.67	18.38	18.1	17.81	17.52	17.23	16.94
인력수요(명)	108,779	110,859	112,979	115,140	117,342	119,586	121,873	124,204	126,579	129,000

주)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의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의 수치에 적용하여 2028년까지 수요예측 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재인용.



주) 여행업 인력수요 전망 기초자료(2008년-2016년)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2019년부터 적용하여 10년간(2019년-2028년) 인력수요를 전망하였음

[그림 5-1] 여행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나) 관광숙박업 인력수요 전망

■ 기초자료 활용

- 관광숙박업의 인력을 전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관광숙박업의 연도별 매출액과 종사원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관광숙박업의 연도별 부가가치와 취업계수를 계산함

- 취업계수는 지난 10년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5-4] 관광숙박업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2008~2016)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액 (십억 원)	4,940	5,093	5,542	6,141	7,057	7,086	7,931	7,860	8,268
부가가치 (십억 원)	3,310	3,412	3,713	4,114	4,728	4,747	5,314	5,266	5,540
종사원수(명)	53,385	56,530	60,403	627,83	70,804	63,899	67,465	70,305	73,630
취업계수	16.13	16.57	16.27	15.26	14.97	13.46	12.70	13.35	13.2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 관광숙박업 인력수요예측

- 관광숙박업의 향후 소요인력을 전망하기 위하여 연도별 부가가치와 취업계수를 예측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연도별 관광숙박업 인력수요를 전망하였음
 - 시계열 분석에 의한 예측은 향후 인력수요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여 수요를 예측하였으며, 관광숙박업 전체의 경우 2019년 81,236명을 시작으로 2023년 84,572명, 2028년 93,000명으로 10년간 11,764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호텔업의 경우 2019년 61,008명을 시작으로 2023년 63,514명, 2028년 69,843명으로 10년간 8,835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2019년 20,228명을 시작으로 2023년 21,058명, 2028년 23,157명으로 10년간 2,929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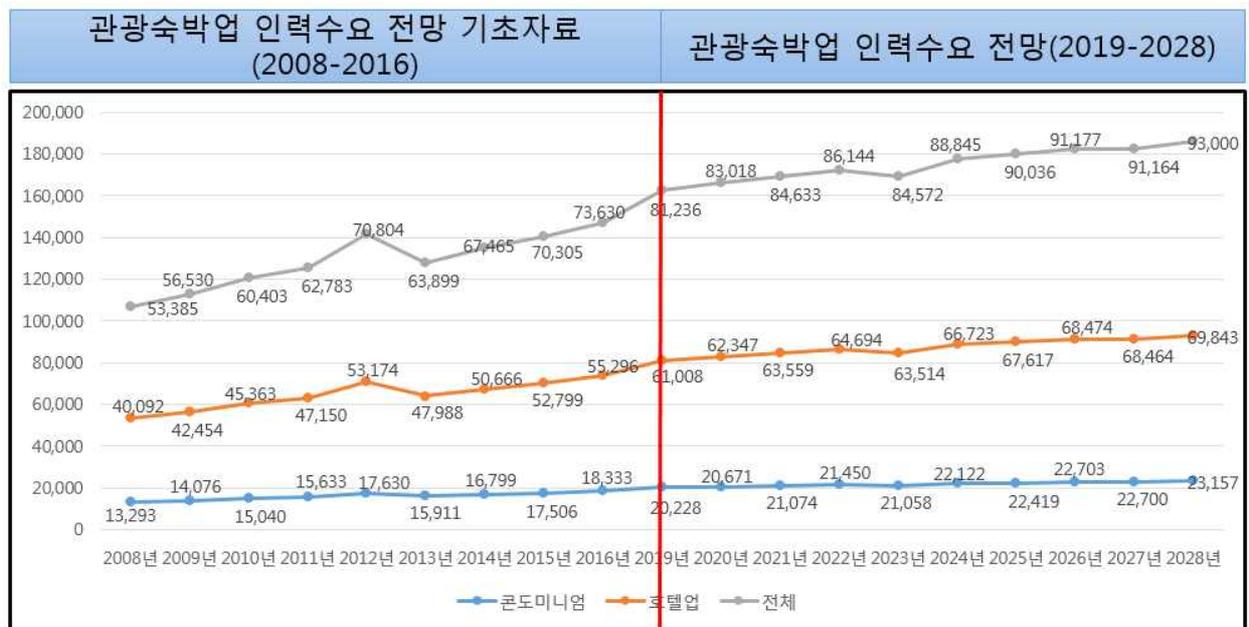
[표 5-5] 관광숙박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부가가치 (십억 원)	6,546	6,844	7,142	7,439	7,736	8,033	8,329	8,626	8,922	9,217
취업계수	12.41	12.13	11.85	11.58	11.32	11.06	10.81	10.57	10.33	10.09
인력 수요 (명)	전체	81,236	83,018	84,633	86,144	84,572	88,845	90,036	91,177	93,000
	호텔	61,008	62,347	63,559	64,694	63,514	66,723	67,617	68,474	69,843
	콘도	20,228	20,671	21,074	21,450	21,058	22,122	22,419	22,703	23,157

주1)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되며, 최근 3년간(2015~2017) 전체 인력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비율을 구분하여 인력수요를 전망하였음(호텔업: 75.1%휴양콘도미니엄업: 24.9%)

주2)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의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의 수치에 적용하여 2028년까지 수요예측 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재인용.



[그림 5-2] 관광숙박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다) 관광객이용시설업 인력수요 전망

■ 기초자료 활용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인력을 전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연도별 매출액과 종사원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연도별 부가가치와 취업계수를 계산함

- 취업계수는 지난 10년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5-6] 관광객이용시설업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2008~2016)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액(십억 원)	51	590	641	653	754	814	684	720
부가가치(십억 원)	334	385	418	426	491	531	446	469
종사원수(명)	6,003	6,439	6,723	7,315	8,843	10,670	7,562	8,347
취업계수	17.96	16.73	16.08	17.19	18.00	20.10	16.95	17.79

주1)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일반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과거자료가 충분치 않아 시계열분석 후 별도로 보정하였음

주2)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은 2013년까지만 업종이 존속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 관광객이용시설업 인력수요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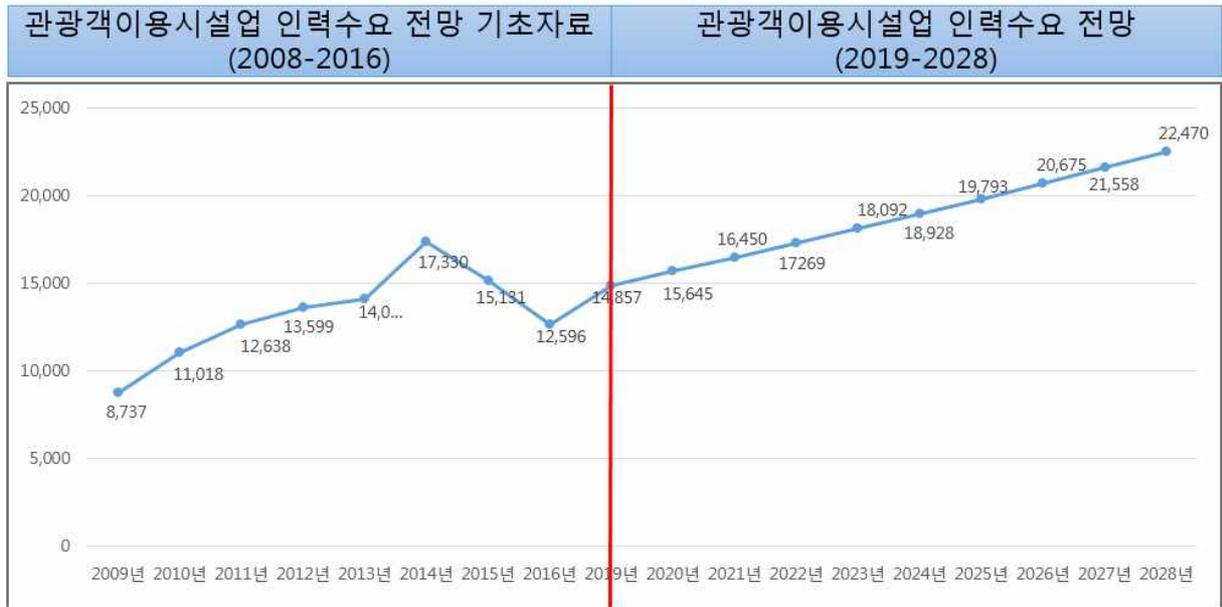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향후 소요인력을 전망하기 위하여 연도별 부가가치와 취업계수를 예측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연도별 관광객이용시설업 인력수요를 전망하였음
 - 시계열 분석에 의한 예측은 향후 인력수요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2019년 18,652명을 시작으로 2023년 20,095명, 2028년 21,902명으로 10년간 3,25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5-7] 관광객이용시설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부가가치(십억 원)	551	572	592	613	634	655	676	696	717	738
취업계수	17.38	17.38	17.38	17.38	17.38	17.38	17.38	17.38	17.38	17.38
인력수요(명)	18,652	19,017	19,365	19,730	20,095	20,460	20,825	21,172	21,537	21,902

주)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의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의 수치에 적용하여 2028년까지 수요예측 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재인용.



[그림 5-3] 관광객이용시설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라) 국제회의업 인력수요 전망

■ 기초자료 활용

- 국제회의업의 인력을 전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제회의업의 연도별 매출액과 종사원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국제회의업의 연도별 부가가치와 취업계수를 계산함
 - 취업계수는 지난 10년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5-8] 국제회의업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2008~2016)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액(십억 원)	1,264	1,321	1,986	2,027	2,297	2,408	2,442	1,760	1,838
부가가치(십억 원)	636	665	999	1,020	1,156	1,211	1,229	885	924
종사원수(명)	7,710	8,737	11,018	12,638	13,599	14,092	17,330	15,131	12,596
취업계수	12.13	13.15	11.03	12.40	11.77	11.63	14.11	17.09	13.6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 국제회의업 인력수요예측

- 국제회의업의 향후 소요인력을 전망하기 위하여 연도별 부가가치와 취업계수를 예측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연도별 국제회의업 인력수요를 전망하였음
 - 시계열 분석에 의한 예측은 향후 인력수요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국제회의업의 경우 2019년 14,857명을 시작으로 2023년 18,928명, 2028년 22,470명으로 10년간 7,613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5-9] 국제회의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부가가치 (십억 원)	1,047	1,088	1,129	1,170	1,211	1,251	1,292	1333	1,374	1,415
취업계수	14.19	14.38	14.57	14.76	14.94	15.13	15.32	15.51	15.69	15.88
인력수요(명)	14,857	15,645	16,450	17,269	18,092	18,928	19,793	20,675	21,558	22,470

주)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의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의 수치에 적용하여 2028년까지 수요예측 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재인용.



[그림 5-4] 국제회의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마) 카지노업 인력수요 전망

■ 기초자료 활용

- 카지노업의 인력을 전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카지노업의 연도별 매출액과 종사원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카지노업의 연도별 부가가치와 취업계수를 계산하였음
 - 취업계수는 지난 10여 년간 미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관광산업 업종 중 카지노업의 취업계수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카지노업 종사원이 1인당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한다는 의미임

[표 5-10] 카지노업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2008~2016)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액(십억 원)	1,983	2,307	2,327	2,312	2,460	2,631	2,799	2,804	2,903
부가가치(십억 원)	1269	1,476	1,489	1,479	1,575	1,684	1,792	1,795	1,858
종사원수(명)	5,819	6,212	7,248	6,923	7,422	8,452	8,931	9,418	9,115
취업계수	4.59	4.21	4.87	4.68	4.71	5.02	4.99	5.25	4.9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 카지노업 인력수요예측

- 카지노업의 향후 소요인력을 전망하기 위하여 연도별 부가가치와 취업계수를 예측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연도별 카지노업 인력수요를 전망하였음
 - 시계열 분석에 의한 예측은 향후 인력수요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카지노업의 경우 2019년 11,142명을 시작으로 2023년 13,379명, 2028년 16,385명으로 10년간 5,243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5-11] 카지노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부가가치(십억 원)	2,071	2,138	2,205	2,272	2,339	2,406	2,473	2,540	2,606	2,673
취업계수	5.38	5.47	5.55	5.63	5.72	5.8	5.88	5.97	6.05	6.13
인력수요(명)	11,142	11,695	12,238	12,791	13,379	13,955	14,541	15,164	15,766	16,385

주)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의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의 수치에 적용하여 2028년까지 수요예측 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재인용.



[그림 5-5] 카지노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바) 유원시설업 인력수요 전망

■ 기초자료 활용

- 유원시설업의 인력을 전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유원시설업의 연도별 매출액과 종사원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유원시설업의 연도별 부가가치와 취업계수를 계산하였음

- 취업계수는 지난 10여 년간 불규칙한 패턴을 보임

[표 5-12] 유원시설업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2008~2016)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액(십억 원)	1,306	851	951	1,044	1,182	1,324	1,498	1,539	1,929
부가가치(십억 원)	851	555	620	680	771	863	977	1,003	1,258
종사원수(명)	10,866	10,947	11,545	13,492	14,386	14,442	17,032	17,224	23,683
취업계수	12.76	17.72	18.63	19.83	18.67	16.73	17.44	17.17	18.8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 유원시설업 인력수요예측

- 유원시설업의 향후 소요인력을 전망하기 위하여 연도별 부가가치와 취업계수를 예측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연도별 유원시설업 인력수요를 전망하였음
 - 시계열 분석에 의한 예측은 향후 인력수요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유원시설업의 경우 2019년 24,464명을 시작으로 2023년 30,198명, 2028년 37,705명으로 10년간 13,241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5-13] 유원시설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부가가치 (십억 원)	1,293	1,358	1,422	1,487	1,551	1,616	1,680	1,745	1,809	1,874
취업계수	18.92	19.06	19.2	19.33	19.47	19.6	19.74	19.87	20	20.12
인력수요(명)	24,464	25,883	27,302	28,744	30,198	31,674	33,163	34,673	36,180	37,705

주)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의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의 수치에 적용하여 2028년까지 수요예측 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재인용.



[그림 5-6] 유원시설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사) 관광편의시설업 인력수요 전망

■ 기초자료 활용

- 관광편의시설업의 인력을 전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제회의업의 연도별 매출액과 종사원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연도별 부가가치와 취업계수를 계산함
 - 관광편의시설업의 취업계수는 관광산업 업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광편의시설업 종사원이 1인당 부가가치를 가장 적게 창출한다는 의미이며, 이 업종이 부가가치 대비 가장 많은 고용 창출을 의미함

[표 5-14] 관광편의시설업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기초자료(2008~2016)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액(십억 원)	2,400	2,546	2,745	1,872	1,746	1,105	1,490
부가가치(십억 원)	845	896	966	659	614	389	524
종사원수(명)	36,725	39,716	40,945	41,205	37,919	25,590	26,845
취업계수	43.48	44.31	42.37	62.52	61.71	65.77	51.20

주) 관광면세업은 과거자료가 충분치 않아 시계열분석에서 제외하여 분석한 후, 인력수요 전망에서 별도로 보정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 관광편의시설업 인력수요예측

- 관광편의시설업의 향후 소요인력을 전망하기 위하여 연도별 부가가치와 취업계수를 예측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연도별 관광편의시설업 인력수요를 전망하였음
 - 시계열 분석에 의한 예측은 향후 인력수요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관광편의시설업의 경우 2019년 31,248명을 시작으로 2023년 35,928명, 2028년 42,769명으로 10년간 11,521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5-15] 관광편의시설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부가가치(십억 원)	551	565	579	594	609	624	640	656	673	690
취업계수	56.23	56.81	57.39	57.97	58.56	59.16	59.76	60.37	60.98	61.6
인력수요(명)	31,248	32,363	33,494	34,699	35,928	37,181	38,511	39,868	41,305	42,769

주)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의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의 수치에 적용하여 2028년까지 수요예측 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재인용.



[그림 5-7] 관광편의시설업 인력수요 전망(2019년~2028년)

나.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인력수요 전망 종합 및 신규 인력수요 산정

가)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인력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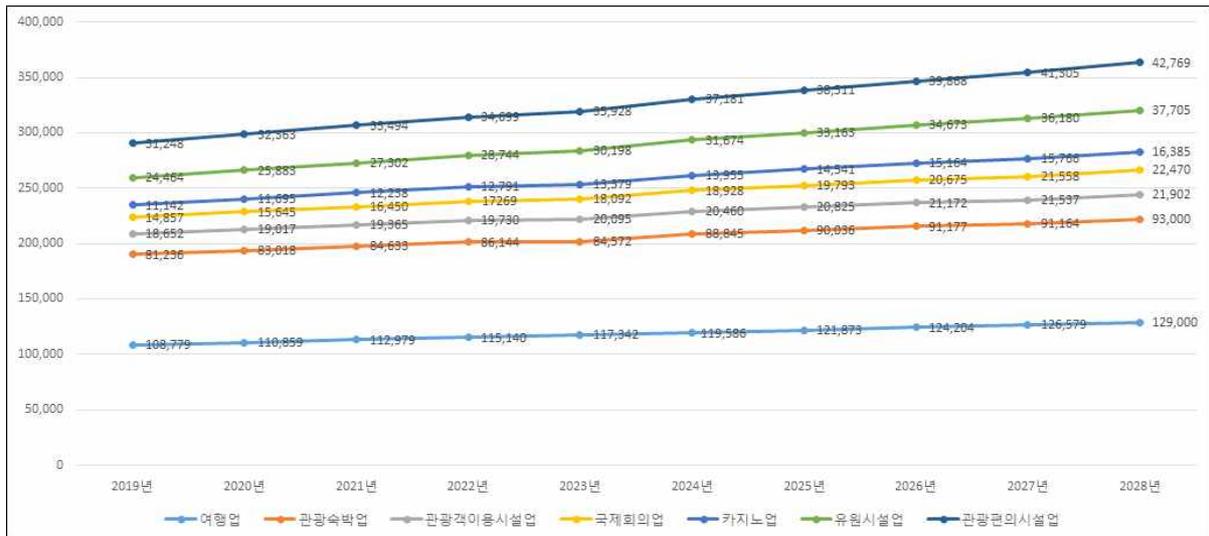
- 향후 10년간 관광산업 업종별 인력수요를 종합하면, 2028년도에는 365,260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와 같이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할 것으로 전망됨

[표 5-16]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인력수요 전망 종합(2019년~2028년)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여행업	108,779	110,859	112,979	115,140	117,342	119,586	121,873	124,204	126,579	129,000
관광숙박업	81,236	83,018	84,633	86,144	84,572	88,845	90,036	91,177	91,164	93,000
관광객이용시설업	18,652	19,017	19,365	19,730	20,095	20,460	20,825	21,172	21,537	21,902
국제회의업	14,857	15,645	16,450	17,269	18,092	18,928	19,793	20,675	21,558	22,470
카지노업	11,142	11,695	12,238	12,791	13,379	13,955	14,541	15,164	15,766	16,385
유원시설업	24,464	25,883	27,302	28,744	30,198	31,674	33,163	34,673	36,180	37,705
관광편의시설업	31,248	32,363	33,494	34,699	35,928	37,181	38,511	39,868	41,305	42,769
전체	290,378	298,480	306,461	314,517	319,606	330,629	338,742	346,933	354,089	363,231

주)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의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의 수치에 적용하여 2028년까지 수요예측 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재인용.



[그림 5-8]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인력수요 전망 종합(2019년~2028년)

나)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신규 인력수요 산정

- 관광·레저산업 업종별로 매년 신규로 채용해야하는 인력수요는 취업자 수 증가분에 자연탈락인원⁶⁵⁾을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신규 인력수요 측정 공식은 아래와 같음

$$\bigcirc Dt = (L_t - L_{t-1}) + L_{t-1} \cdot f$$

- Dt : 신규고용인원
- Lt : t기의 취업자 수
- (Lt-Lt-1) : 취업자수 증가분
- Lt-1 · f : 자연탈락 인원수
- f : 자연탈락율(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의 자연탈락율을 적용)

- 관광·레저산업 부문에서 연도별 신규인력 채용수요를 상기 산식을 활용하여 산정한 결과, 2020년 16,815명, 2028년 18,794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5-17] 관광·레저산업 신규 인력수요 산정(2020년~20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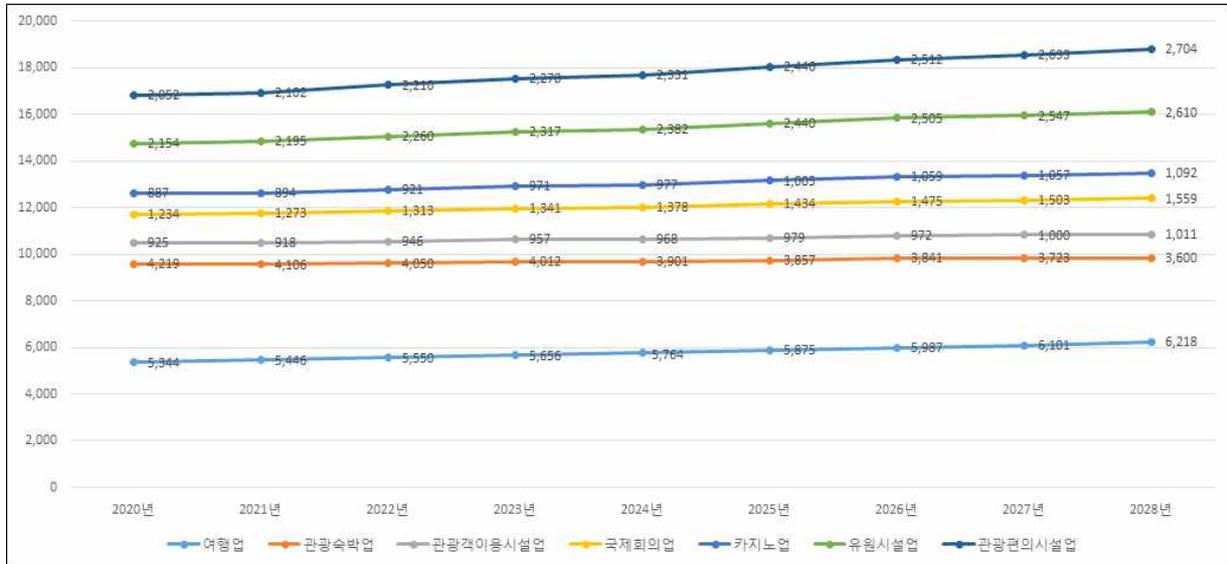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여행업	5,344	5,446	5,550	5,656	5,764	5,875	5,987	6,101	6,218
관광숙박업	4,219	4,106	4,050	4,012	3,901	3,857	3,841	3,723	3,600
관광객이용시설업	925	918	946	957	968	979	972	1,000	1,011
국제회의업	1,234	1,273	1,313	1,341	1,378	1,434	1,475	1,503	1,559
카지노업	887	894	921	971	977	1,005	1,059	1,057	1,092
유원시설업	2,154	2,195	2,260	2,317	2,382	2,440	2,505	2,547	2,610
관광편의시설업	2,052	2,102	2,210	2,270	2,331	2,446	2,512	2,633	2,704
계	16,815	16,934	17,250	17,524	17,701	18,036	18,351	18,564	18,794

주)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의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의 수치에 적용하여 2028년까지 수요예측 함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재인용.

- 향후 관광·레저산업의 인력수요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인력의 수요와 대응하여 관광산업 인력의 전문화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 인력의 전문화는 관광·레저산업의 전반적인 부가가치를 증가시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음

65) 자연탈락인원은 관광부문 내 전직을 제외한 퇴직자, 사망 또는 이민자 등으로 구성됨



[그림 5-9] 관광레저산업 신규 인력수요 산정(2020년~2028년)

2)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4)한 관광·레저산업 인력수요 전망⁶⁶⁾

■ 인력수요 예측

-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4)를 이용한 관광·레저산업의 인력수요 전망을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실측치를 활용하였고, 음식 및 음료 제공서비스를 제외한 관광산업의 종사자 수는 2005~2010년 연평균 3.0%, 2010~2014년 연평균 3.3%의 성장추세를 보임
 - 2005~2010년 종사자 수 증가분은 54천 명이었고, 2010~2014년은 56천 명으로 나타났으나, 2014~2020년 관광산업의 종사자는 48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연평균 증가률: 1.7% 전망)
- 먼저, 방문객을 위한 숙박서비스는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으로 구성되는데, 그 종사자 수는 2005~2010년 8천 명, 2010~2014년 19천 명 증가하여, 연평균 1.2%와 3.1%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14~2020년 방문객을 위한 숙박서비스의 종사자는 15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평균 증가률은 1.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방문객을 위한 숙박서비스업의 종사자 증가는 주로 소규모 펜션업을 중심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설의 증가와 정비례한 인력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임

66) 한국고용정보원(2016)의 관광산업 “고용변화와 인력수요 전망 자료” 를 활용하여 분석 함

- 다음으로, 철도, 도로, 수로, 항공, 운송장비 대여업의 종사자 수는 실측치로 볼 때 2005~2010년 21천 명, 2010~2014년 4천 명 증가하여, 각각 연평균 5.5%,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14~2020년 이 부문의 종사자는 10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평균 증가율은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 됨
- 여행사 및 기타 예약 서비스업은 실측치로 볼 때 2005~2010년 -4천 명, 2010~2014년 8천 명 증가하여, 각각 연평균 -1.8%,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14~2020년 이 부문의 종사자는 5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평균 증가율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 이후 여행사 및 기타 예약 서비스업 종사자는 연평균 5.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서비스 분야는 전시 및 행사대행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기획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박물관 운영업, 사적지관리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으로 구성됨
 - 문화서비스 분야의 종사자 수는 실측치로 볼 때 2005~2010년 19천 명, 2010~2014년 9천 명 증가하여, 각각 연평균 10.2%와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2020년 이 부문의 종사자는 12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연평균 증가율 3.2% 전망)
-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분야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으로 구성됨
 -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분야의 종사자 수는 실측치로 볼 때 2005~2010년 9천 명, 2010~2014년 13천 명 증가하여, 각각 연평균 3.0%,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2020년 관광산업의 인력수요는 연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기존 실측치 증가율의 절반 수준임
 - 지난 10여 년간 관광산업에서의 고용 증가는 자영업자의 펜션 운영에 따른 소규모 자영업의 증가와 저가항공노선의 확대, 골프장 운영업, 그 외 문화시설 건설 등을 통해 이루어 짐
 -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중기적으로 고용 증가를 저해하는 불안한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 예상,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THAAD 배치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 실질임금의 저하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경기 침체가 고용 위기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표 5-18]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분류를 이용한 관광·레저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결과

(단위 : 천 명, %)

산업	종사자				종사자 증감			종사자 증감률(연평균)		
	2005	2010	2014	2020	2005~2010	2010~2014	2014~2020	2005~2010	2010~2014	2014~2020
관광산업(음식업 및 주류업 제외)	346	400	456	504	54	56	48	3.0	3.3	1.7
방문객을 위한 숙박서비스	137	145	164	179	8	19	15	1.2	3.1	1.4
3~7. 철도, 도로, 수로, 항공, 운송 장비 대여	67	88	93	103	21	4	10	5.5	1.2	1.7
8. 여행사 및 기타 예약서비스	41	38	46	51	-4	8	5	-1.8	5.1	1.8
9. 문화서비스	31	50	59	71	19	9	12	10.2	4.2	3.2
10.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	57	66	79	89	9	13	10	3.0	4.5	2.1

주1) 천 단위 절삭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2) 취업자 수가 적은 국가별로 특화된 관광서비스 및 국가별로 특화된 관광재화의 전망 값은 제외하였음

주3)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활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6), 관광산업 고용변화와 인력수요 전망, 재인용

2. 관광레저산업 직업 인력수요 전망⁶⁷⁾

1) 업종별 핵심 직종

-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하고 있는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결과와 보조를 맞추므로써 정부정책 혹은 학생들의 진로지도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먼저 중장기 직업 전망 방법론을 간략히 소개하자면(이시균 외, 2016), 기본적으로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은 “산업×직업 취업자 비중” 행렬 전망을 통해서 이루어짐
- 향후 예상되는 생산 기술의 발전과 산업 구조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환경 변화요인을 반영함으로써 미시단위의 직업 인력수요 전망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함임
 - 우선 대분류 수준부터 세분류 수준까지 전망 결과를 순차적으로 도출하는 하향식 방식(top-down)으로 실시하고, 하향식 방식을 통해 예측된 직업 세분류 수준의 인력수요 전망 결과는 정량적·정성적 검토를 거쳐 상향식 방식(bottom-up)으로 재조정하는 등 전망 결과의 정합성을 제고함
- 관리자 직업에 속하는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리자와 음식서비스 관리자는 실측기간(2010~2015년) 동안 연평균 취업자 증가률이 각각 -18.5%, -16.7%를 기록하여 취업자 규모가 절반 미만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양상은 전망 기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직업군 일자리 전망은 부정적인 상황임
- 전문가 직군의 경우 모든 직업에서 전망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여행상품 개발자와 행사기획자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과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는 2010~2015년 동안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직종으로 꼽을 수 있음
- 사무 종사자 중 여행 사무원은 실측기간에 매년 1.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전망기간에 매년 1.4%씩 증가하여 약 2천 명의 일자리 창출이 전망 됨
- 서비스 종사자에 속하는 관광관련 직군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자리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음
 - 운송 서비스 종사자인 항공기 객실승무원과 선박 및 열차객실 승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67) 한국고용정보원(2016), 관광산업의 고용변화와 인력수요 전망의 내용을 재정리하였음

할 것으로 예상됨

-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업원과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은 비교적 일자리가 빠르게 성장하여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숙박시설 서비스원과 오락시설 서비스원은 취업자가 증가하겠으나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5-19] 관광레저산업 관련 직업 세분류 인력수요 전망 경과

(단위 : 천 명, %)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취업자			증감		증감률	
			2010	2015	2020	10-15	15-20	10-15	15-20
관리자	판매 및 고객 서비스관리직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리자	13.4	4.8	4.7	-8.6	-0.1	-18.5	-0.7
		음식서비스 관리자	34.2	13.7	12.4	-20.5	-1.3	-16.7	-2.0
전문가	경영금융 전문가	여행상품 개발자	2.5	8.4	10.8	5.9	2.4	27.1	5.2
		행사기획자	12.3	19.6	22.6	7.3	3.0	9.8	2.9
	문화예술 스포츠전문가	통역가	5.4	9.4	-	4.0	-	11.6	-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4.0	5.2	5.4	1.2	0.2	5.4	0.9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3.2	18.9	19.6	5.7	0.7	7.5	0.7
		미술사 및 기타 문화 예술관련 종사자	3.5	2.9	-	-0.6	-	-3.9	-
사무종사자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사무직	여행사무원	26.3	28.5	30.5	2.2	2.0	1.6	1.4
서비스종사자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항공기 객실승무원	9.2	9.1	10.1	0.0	1.0	-0.1	2.0
		선박 및 열차객실 승무원	3.5	5.9	-	2.4	-	10.9	-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	11.7	23.2	25.5	11.5	2.3	14.6	1.9
		숙박시설 서비스원	42.5	53.6	55.6	11.2	2.0	4.8	0.7
		오락시설 서비스원	129.0	116.6	120.8	-12.4	4.2	-2.0	0.7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	15.8	24.7	25.1	8.9	0.4	9.3	0.3

주1) 분류기준은 한국표준분류(KSCO)(6차 개정)에 따른 것임

주2) 1만 명 미만인 직업의 경우 시계열 변동성이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전망에서 제외

주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활용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6), 관광산업 고용변화와 인력수요 전망, 재인용

2)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유망직종

- 관광레저산업의 업종별 유망직종의 경우 산업 내 기업 담당자 및 교육기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하여 해당 업종의 유망직종을 도출하였음
- 여행업 유망직종: Travel Consultant
 - 여행업의 경우 B2B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여행사 영업직원이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방문하여, 고객의 일정부터 상담 예약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
- 관광숙박업(호텔업) 유망직종: ICT 관련 전문가 및 교육전문가
 - 4차산업시대 ICT 기술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직무 및 교육전문가
-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힐링프로그램 기획자
 - 향후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힐링프로그램 기획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 국제회의업 유망직종: 국제회의 기획자
 - 향후 국내에는 크고 작은 국내·외 이벤트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회의 기획자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 관광객이용시설업(크루즈업) 유망직종: 크루즈 플래너, 크루즈 승무원 양성자
 - 크루즈 플래너: 크루즈 산업에 대한 이해와 고객의 요구 제공
 - 크루즈 승무원 양성자: 크루즈 승무원의 경험을 기반으로 확대되는 크루즈 산업에 전문적인 크루즈 승무원 보급
- 카지노업 유망직종: 부대시설 운영기획 직무
 - 직접적인 업체 홍보가 어려운 카지노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대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관광객유치를 위한 부대시설 운영기획자 필요
- 유원시설업 유망직종: 공연기획자
 - 국내 유원시설업의 경우 업체별 콘셉트가 다양한데, 최근 다양한 공연프로그램 개발 및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관련 직무 및 인력 필요
- 교육기관에서 예상하는 관광레저산업 유망직종은 테마별 여행기획 전문가(컨설턴트), 관광지 경영전문가, 크루즈 승무원, 크루즈 전문TC, 크루즈 카지노 딜러 등의 직무 및 인력 필요

3. 소 결

- 연도별 부가가치와 취업계수를 계산한 관광·레저산업의 업종별 수요예측결과 업종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여행업의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또한 업종별 신규 인력수요 산정 결과 전업종에서 2028년까지 총 18,794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인력의 수요와 대응하여 관광산업 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관광·레저산업의 전반적인 부가가치를 증가시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음
- 업종별로 다양한 인력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상치와 상이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업종의 재조사분석이 요구됨
- 유형별 산업분류 기준의 인력 수요예측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관련 산업에 대한 명확한 업종구분이 없이는 업종별 활용도가 낮아짐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서 순수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분류에 의한 분석이 필요함(ISC는 다양한 유형별 산업범위 분류를 연계 매칭 작업이 요구됨)
 -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인력수요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따른 인력양성을 통한 공급이 필요하며, 캠핑족들을 위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캠핑지도사, 이벤트 기획자 등의 추가 인력에 대한 자격체계 구축과 인력의 양성을 통한 야영장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업체의 경제적 규모의 상승과 상용근로자의 비중의 향상이 필요함
- 기업 및 교육기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업종별 향후 유망직종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업종별 협·단체와 연계한 교육을 통해 기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신규 인력양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여행업의 Travel Consultant, 숙박업의 ICT 기술 교육전문가, 국제회의업의 전문화된 국제회의 기획자, 크루즈업의 크루즈 플래너, 승무원 양성가, 유원시설업의 공연기획자 등 이 밖의 교육기관 담당자들의 유망직종은 테마여행 전문가, 크루즈 전문 TC, 크루즈 카지노 딜러 등의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제 6 장

결 론

1. 관광레저산업 종합 분석

1)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현황

- 관광레저산업의 업종별 사업체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행업의 사업체 수는 2017년 기준 19,944개소를 전체의 약 60.3%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이 산업 전체의 63.3%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광레저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신규 채용률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8%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중 높은 채용자 수가 높게 나타난 업종은 여행업(15,492명)과 관광숙박업(15,235명)으로 나타났지만, 이직자 역시 여행업(12,721명)과 관광숙박업(12,598명)으로 높게 나타나 종사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이직률 감소방안 모색이 필요함
 - 매출액에 따른 신규 채용률을 살펴보면 여행업의 경우 3억 원-10억 원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3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광숙박업 40억 원 이상인 업체 63.5%, 관광객이용시설업 10억 원 이상인 업체 46.2%, 국제회의업 10억 원 이상 55.8%, 카지노업 1,000억 원 이상인 업체 44.1%, 유원시설업 15억 이상인 업체 63.7%, 관광편의시설업 10억 원 이상인 업체 60.8%로 전반적으로 매출이 높은 업체의 신규채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업종별 이직률을 살펴보면 여행업 1억 원-3억원 미만인 업체 28.2%, 관광숙박업은 40억 원 이상인 업체 72.0%, 관광객이용시설업 10억 원 이상인 업체 75.1%, 국제회의업 10억 원 이상인 업체 50.0%, 카지노업 1,000억 원 이상인 업체 39.3%, 유원시설업 15억 원 이상인 업체 67.2%, 관광편의시설업 10억 원 이상인 업체 58.9%로 나타남
- 이와 같이 관광레저산업의 업종별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부업종별 필요로 하는 직무 및 성별, 연령, 학력, 고용형태 등이 상이하여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현

장 맞춤형 인력의 양성 및 공급이 요구됨

2) 관광·레저산업 인력 양성(향상) 기관 및 프로그램

- 관광·레저산업은 정부 부처 및 다양한 기관(협회 등)에서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성(신규채용) 및 향상(재직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인력양성 및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있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 경우 대부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대한 인력양성·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광의적 접근을 통한 폭넓은 분야의 양성·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관광두레PD(청년 PD), 6차 산업, ICT관련 직종의 인력 양성 및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타 분야의 협업 또한 필요함
- 국내의 관광·레저산업 관련 정규교육기관의 관련 분야 취업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특성화고-55.5%, 전문대-47.8%, 대학교-49.1%)
- 이와 같이 관광·레저산업 관련 분야의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교육기관과 산업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기관(산업별 ISC 등)의 현장에 맞는 NCS의 추가개발 및 수정·보완을 통하여 정규교육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인력 미스매치의 최소화가 요구됨
- 관광·레저산업의 경우 국가전문자격의 비중이 높고 국가기술자격은 컨벤션기획사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으로 국가기술자격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고, 현재의 국가전문자격 역시 자격취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관광·레저분야 업종별 국가기술자격의 확충이 필요하며, 국가기술자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격취득에 따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격취득률 향상방안 모색 필요
- 또한 검정형 방식의 자격제도는 많은 이론적 지식을 요하는 비중이 높아 현장 근무자의 경우 자격취득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NCS를 기반으로 한 실무위주의 자격체계의 전환이 필요함
 - 현재 컨벤션기획사의 경우 LEVEL별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의 업종별 자격제도의 NCS를 도입에 따른 자격 검정제도의 전환하여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자에게 자격수여 방안 모색이 필요함

3) 관광·레저산업 인력수급 전망

- 관광·레저산업의 업종별 수요예측결과(10년간) 산업 내 전업종에서 인력의 수요가 예상되며 그 중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인력수요를 위한 맞춤형 인력공급이 요구됨
- 직업 인력수요 전망 결과 관리자 직업에 속하는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리자와 음식서비스 관리자는 실측기간 (2010~2015년) 동안 연평균 취업자 증가률이 각각 -18.5%, -16.7%를 기록하여 취업자 규모가 절반 미만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직군의 경우 모든 직업에서 전망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여행상품 개발자와 행사기획자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과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는 2010~2015년 동안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직종으로 꼽을 수 있음
- 사무 종사자 중 여행 사무원은 실측기간에 매년 1.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전망기간에 매년 1.4%씩 증가하여 약 2천 명의 일자리 창출이 전망 됨
- 서비스 종사자에 속하는 관광관련 직군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자리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음
 - 운송 서비스 종사자인 항공기 객실승무원과 선박 및 열차객실 승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업원과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은 비교적 일자리가 빠르게 성장하여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숙박시설 서비스원과 오락시설 서비스원은 취업자가 증가하겠으나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4) 관광·레저산업의 현장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

- 관광·레저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산업 내 핵심 업종 7개 분야의 기업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FGI)를 시행하였음

■ 업종별 고객접점 직무 종사자 만족도 제고

- 관광·레저산업의 핵심 업종의 신규채용률이 높은 직무의 경우 대부분 고객접점에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이직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종사자들 만족도 제고방안이 요구됨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핵심 업종의 경우 대규모 기업으로 대부분 자체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아카데미 등)이 구축되어 있어 역량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음
- 최근 4차 산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업종별 관련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업종별 직무의 변화와 관련 인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분야 양성 및 향상교육을 통한 현장 맞춤형 인력 공급과 종사자 역량강화 필요

■ 관광·레저ISC 역할 강화

- 관광·레저산업 내 영향력이 있는 핵심 업종을 선정하고 대상 현장전문가 그룹의 인터뷰를 통해 업종별 기업의 다양한 수요(인력, 교육훈련 등)와 정책적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ISC는 산업 내 대표성을 확보한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참여 기관(협·단체) 및 기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과의 소통을 통하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함
- 기업이 원하는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을 비롯한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통하여 산업 내 위상확보 필요

2. 제언

■ 인력 양성기관 및 산업현장 연계 강화

- 관광·레저산업 분야 특성화고, 대학교(전문대 등) 등의 정규교육 기관과 업종별 산업현장 연계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직무위주의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을 통한 현장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기업 및 취업자의 만족도 제고가 요구됨
- 정규 교육기관은 적극적인 산업현장과 연계(MOU)를 추진하여 현장 맞춤형 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이러한 교육기관과 산업현장 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현장맞춤형 교육기관의 확산을 유도해야 할 것임

■ 산업 내 업종별 직무 및 직업분류체계 매칭

- 국내 산업에는 다양한 직무와 직업분류가 존재하고, NCS 분류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산업별 직무 및 직업분류가 상이하게 나타남(KECO, KSCO, NCS 등)
- 또한 관광·레저산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7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인력에 대한 통계수치가 상이하게 나타나 산업분류별 통합된 직무 및 직업분류 작업이 요구됨
- 이에 관련기관(문체부, 한국관광공사, ISC 등)과 산업 업종별 전문 인력의 협업을 통해 각각 상이한 분류체계의 통합을 통한 산업의 정확한 인력수급 파악이 필요함

■ 관광·레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신규업종 및 직종 발굴

- 관광·레저산업의 지속적인 인력수요를 위하여 산업별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신규업종 및 직종을 발굴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산업의 업종별 증가추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또한 시대의 흐름(4차 산업 혁명 등)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 기업현장 전문가 및 교육담당자의 유망직종(여행컨설턴트, ICT교육전문가, 힐링프로그램 기획자, 국제회의 기획자, 크루즈 플래너·승무원, 공연기획자 등)의 인력에 대한 양성 및 역량강화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을 통해 현장 요구 부응이 필요함

■ 관광·레저산업의 대대적인 인력 수급실태 조사 실시

- 관광·레저산업의 업종별 인력수급 실태 파악을 위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현재 각종 통계자료의 경우 전수조사 수치가 아닌 표본조사 수치가 적용된 업종이 있으며, 교육기관별 학생들의 업종별 선호도 역시 표본조사 위주의 통계치로 전체를 대변할 수 없어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함
- 업종별 산업현장의 필요 직무 및 인력수요조사를 비롯하여 인력양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업종별 선호도를 조사하여 교육기관 및 산업현장의 미스매칭의 최소화가 요구됨
- 이를 위해 관련 기관(문체부, 관광공사, 학회, 연구원, ISC, 협회 등)등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과 인력수급 균형성 확보

■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 다양한 시대적 변화(4차 산업, 중장년층 등)에 따라 산업별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변화에 맞는 신규 직종의 개발과 인력의 양성 및 공급이 필요함
- 이러한 빠르게 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업종별 신규 직종 및 인력의 양성을 비롯하여 기존 인력(조기은퇴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활용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 이와 발맞춰 관련기관(ISC 등)에서의 신규 직종에 따른 NCS개발 및 NCS기반 자격제도 구축을 통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공급이 필요함

■ 관광·레저산업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ISC의 역할 강화

- 관광·레저ISC는 산업계의 대표기관으로 본 산업인력현황 보고서 작성 등의 산업 내 업종별 인력현황조사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함
-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ISC의 일반적인 역할과 전략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됨

[표 6-1] 관광레저ISC의 역할

구분	관광레저ISC의 역할
일반적인 역할	• 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인재양성 가이드 역할
	• 산업 수요 중심 교육훈련 제도 정착을 위한 역할 강화
	• 인력수급 미스매치 등 정기적으로 산업 인력 현황 분석 수행
	• 미래유망 신 성장산업 분야 NCS의 선도적 발굴·개발 등을 주도하여 NCS 기반의 인력양성체계 구축 및 인력양성 정책사업 제안
	•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산업현장 핵심 이슈 및 실정 전달체계 구축
전략적인 역할	• NCS 개발·보완 및 확산
	• NCS기업활용 컨설팅 지원
	• 산업 내 업종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체계 구축
	• 지역별 인자위(RSC)와 협업을 통한 지역산업맞춤형 인재양성

- 통계자료 조사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청)들과 협업하여 조사대상 기업들의 수요(인력, 역량 등)와 인력양성기관의 의견, 교육생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기업과 교육기관(교육생)의 인력 미스매치의 최소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ISC는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지역인자위(RC)와의 협업을 통한 관련사업(수요조사 등)의 수행이 필요함.
- 이와 같이 ISC는 산업현장과 정부기관의 중간조직으로써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의 가교역할의 충실한 이행이 요구됨

참고문헌

참고문헌

-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2018). 대구지역 훈련수급분석 조사용역보고서.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 관광전문인력포털, <https://academy.visitkorea.or.kr>
- 교육부 (2016).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 보도자료.
- 교육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ttp://www.hifive.go.kr>
-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패키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홈페이지, <http://www.ncs.go.kr>
- 기업일학습 포털, <http://www.bizhrd.net>
- 김현주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형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개선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 김희수김현주 (2016). 관광산업 인력 수급실태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09-2018).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법제처 (2019). 관광진흥법.
- 법제처 (201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법제처 (2019). 관광진흥법 시행령.
- 서울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2018), 2018년도 서울지역 인력 및 훈련수급 분석
- 이훈영 (2008). 연구조사방법론. 청람.
- 정의선·유정정·조승현 (2013). 중국 인바운드 관광수입의 수요예측: ARIMA 모형에 의한 시계열분석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12(1), 135-15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2015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용자 가이드.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http://www.q-net.or.kr>

한국여행업협회, <https://www.kata.or.kr>

한국통역안내사협회

이강욱(2011),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2009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시균 외(2014),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3-2023, 한국고용정보원

이시균 외(201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5-2025,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각년도 원자료

나영선 외(2018),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정부 인적자원개발 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2016), 관광산업의 고용변화와 인력수요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Lewis, C. D. (1982). Industrial and business forecasting methods. London: Butterworth.

Makridakis, S. (1986). The art and science: An assessment and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2(1), 15-39.

Makridakis, S., Wheelwright, S. C., & McGee, V. E. (1983). *Forecasting: Methods and applications*, 2nd ed. New York: Wiley.

부록

관광·레저산업 핵심업종 FGI 분석 결과

1. 개요

1) 조사 개요

- 본 조사는 관광·레저산업 내 업종별 직무 및 인력수급실태의 파악과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업종별 인적자원 개발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본 조사를 위해 관광·레저산업 중 업종별 특성을 분석하여 핵심업종을 선정하고 관련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업종별 인력 수급 관련 현장의견을 반영하고자 시행하였음
 - 핵심업종은 관광·레저산업 중 사업체 수를 비롯한 종사자 수, 매출 등을 고려하여 산업 내 영향력이 있는 최종 7개 업종(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크루즈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선정하였음
 - 또한 교육기관(전문대학, 직업전문학교)과 관련 업종별 협회(한국통역안내사협회)의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2) 현장 전문가 그룹 선정 및 일정

- 핵심 업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업(참여기관 및 전문가 풀 활용)의 현장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FGI를 시행하였음(기업: 7개, 교육기관: 2개, 협·단체: 1개)
 - 여행업: 하나트레비즈
 - 관광숙박업(호텔업): 웨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 국제회의업: 한국PCO협회
 - 카지노업: 강원랜드

- 유원시설업: 서울랜드
 -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곤지암리조트
 - 관광객이용시설업(크루즈업): 팬스타라인닷컴
 - 교육기관(전문대학): 동강대학교
 - 교육기관(직업전문학교): 아세아항공전문학교
 - 업종별 협·단체: 한국통역안내사협회
- 업종별 FGI는 현장전문가의 일정에 따라 현장(기업)에 방문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진행하였음.
- 현장전문가그룹 인터뷰(FGI)기간 : 2019.06.~2019.10

3) FGI 조사 내용

- 관광·레저산업 분야의 업종별 인력수급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수요를 비롯한 핵심업종별 이슈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동향 및 직무별 인력수급 동향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향상, 양성 등) 수요파악
 - 4차 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필요한 직무 및 인력 수요
 - 업종별 NCS활용 현황(사업 참여 등)
 -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이슈 등

2. FGI 분석 결과⁶⁸⁾

1) 여행업: 하나트레비즈 담당자

가. 여행업의 인력수급 현황

■ 여행업의 현황(해당업체 기준)

- 모바일 기술의 발달 및 OTA의 확대로 FIT·DIY 상품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개별 패키지의 감소로 기업영업 상용그룹 B2B 시장의 확대를 꾸준히 모색하고 있으며 하나투어는 retail 여행사의 영업 실적(항공매출 관련 상위업체)을 기준으로 대리점을 선정하

68) 핵심업종별 현장전문가 인터뷰(FGI)의 내용은 업종별 해당 업체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산업 내 업종 전체의 현황을 포함하지 않음

여 하나트레비즈를 전문 B2B 대리점으로 영역확대를 모색 중 임

- 국내 경기의 내·외부 환경의 부정적 전망으로 여행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편적 예로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실적은 전년대비 80% 수준을 보임(상품 계약 등)
 - 최근 헝가리 여객선 사고로 유럽권 시장도 주춤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매출 70%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환경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하나투어는 “우리끼리 맞춤형여행” 상품을 출시하여 4인 기준 패키지상품을 선보여 가족끼리 떠나는 여행의 컨셉으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개발하고 있음
- 안전상의 이유로 단독행위가 불가능한 패키지여행에서 날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고객의 Needs를 충족하기 위해 Customized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현지인 가이드를 활용하여 적절한 패키지가격을 유지하고 있음

■ 직무별 신규채용 및 이직 추이

- 하나투어 본사는 상·하반기(3월/10월) 공채를 진행하며, 대부분의 대리점은 수시채용을 진행하고 있음
 - 많은 대리점들은 신입직원보다는 경력직(2~3년)을 선호하고 있으며 신입직원 또는 인턴십의 경우 항공관련 자격증(abaqus, topas) 보유 및 항공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인력을 선호함
- 대다수 대리점 성격의 여행사는 멀티플레이어를 선호하며 상용항공권, 해외패키지, 운영부서(인사, 총무, 정산 등)로 나뉘어 운영하며 상용항공권 부서는 회사 사정에 따라 T/C로 활용되어 남직원을 선호하지만 그 외는 고객접점 서비스 성격이 강해 여직원을 선호함
 - 신규 직원 임금현황: 2,200만원 (수습1년 평가 후 정직원 전환)
 - 경력 직원 임금현황: 2,600만원 (2~3년 경력직 / 대리)
- 하나트레비즈의 이직률 높은 직무는 상용항공부로 이직의 주요 원인은 여행업 전반에 낮은 임금구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이런 구조는 낮은 임금 상승폭에도 직원이 경쟁업체로 쉬운 이직 유발효과를 발생시키며 낮은 충성도로 이어짐

나.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향상, 양성 등) 수요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 시행 현황

- 종사자 교육훈련 현황은 하나투어 자체 온라인 교육(주1회 / 매달 1회 필수)이 시행되고 있음
 - 다만 온라인 교육의 한계로 상품교육 위주의 형식적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은 3개월에 1회 운영하나 이 역시 한정적 기간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짐
 - 신입직원의 교육은 선임 직원들이 대리점 자체 매뉴얼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함

■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희망 교육

- 직무별 필요 교육 분야: 서비스 실무 교육
 - 관광계열 전공자의 채용을 선호하나 상담 또는 면대면으로 고객접점의 신입직원들은 실무 또는 실습의 부족으로 고객응대가 많이 부족한 편임
 - 고객 불만상황 발생 시 경험이 부족하여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객응대, 전화 응대, 서비스 매너, 문제해결 능력 향상 관련 실습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임

다. 4차 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필요한 직무 및 인력 수요

■ 여행업의 4차 산업(ICT) 도입 현황 및 필요직무(NCS 활용 정도 등)

- 현재 여행업의 경우 4차 산업 시대의 도래에 따라 IT, ICT 등의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도입되는 실정임
- 향후 메타서치와 관련된 직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장의 변화를 조금 더 지켜보기를 희망함
- 하나트래비즈의 경우 여행일정표 작성을 위해 여행서비스 분야 NCS를 활용하고 있음

라.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이슈 등

■ 여행업 향후 전망

- 2019년 하반기부터 하나투어는 “우리끼리 단독여행” 패키지관련 사업 확대로 OTA

및 국내외 시장환경에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또한 2019년 하나투어 추천 여행지는 폐쇄 후 재오픈한 필리핀 보라카이로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경쟁적인 가격을 확보하여 필리핀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향후 유망직종은 B2B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여행사 영업직원 역할의 Travel Consultant로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방문하여 고객의 일정부터 상담 예약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를 전망함

■ 건의사항(정부 등)

- 여행사 창업의 낮은 장벽으로 인해 양적 확대가 증가하는 반면 폐업을 또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여행사 사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이는 여행업 전체 이미지 하락으로 이뤄짐에 따라 여행사 창업을 위한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여행업 관련 자격체계 구축 필요: 여행업 종사자의 자격증 종류에서 OP 관련 자격증은 전무한 실정으로 여행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OP와 관련된 자격체계가 시급함
 - 국외여행인솔자(T/C) 자격증과 같이 OP관련 자격에 대해 양성과정과 소양과정의 자격체계 마련이 필요함

2) 관광숙박업(호텔업):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 담당자

가. 호텔업의 인력수급 현황

■ 호텔업 현황(해당업체 기준)

- 현재 국내 호텔업은 지속적인 사업체 수의 증가와 관련 인력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외 프렌차이즈 호텔의 경우는 일정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의 중소형호텔이나 지방의 호텔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를 시도한 호텔의 경우 이용객들이 급증하고 있음(홍대의 라이즈 오토그래프 호텔은 국내 아티스트와 협업하여 아티스트 객실을 조성하여 젊은 층 이용객들의 이용률이 높음)

■ 직무별 신규채용 및 이직 추이

- 해당 호텔의 채용률 높은 직무는 객실관련 부서(프론트 등)의 인력 채용이 가장 많으며, 주로 채용은 주로 구직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 등)를 활용하여 수시채용을 하고 있으며, 호텔 특성상 연말 인력수요로 인한 10월~11월 대량 채용 진행(교육기관 연계 채용 진행)
 - 신규 직원 임금현황: 2,500만원~2,600만원(계약직) 2년 후 평가 후 정규직 전환
- 반면 이직률이 높은 직무는 프론트 및 F&B 인력이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유로는 고객응대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남(동종업계 이직: 60%)
- 웨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의 경우 국내 브랜드 호텔에서 대형 체인호텔화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업무 어려움 발생도 이직의 원인 중 하나 임

나.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향상, 양성 등) 수요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 시행 현황

- 웨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의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은 전문 담당 강사를 중심으로 자체 교육장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서비스 마인드 교육, 직무별 교육 등)
- 또한 2개월에 한 번씩 외부강사 초빙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부서별 직무교육(와인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향후 필요한 교육(희망):

- 웨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의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필요(시대에 맞는 고객 응대 등)
- 또한 IT, AI 등의 시스템 도입을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다. 4차 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필요한 직무 및 인력 수요

■ 호텔업의 ICT 관련 기술의 도입 현황 및 필요직무(NCS 활용 등)

- 현재 웨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은 현재 ICT관련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시스템이 도입된 타 도입 호텔 등의 시스템적 오류 발생이 이유 중 하나임
 - 하지만 태블릿 PC 객실점검 수행 중이며, 객실도어체인 교체 예정(key less)이며, 신축공사 객실 ICT 시스템 도입 예정(2022년 완공예정)
- IT, AI 등의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인력 필요
- 글로벌 체인기업으로 자체시스템 활용에 따른 NCS 활용 미흡

라.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이슈 등

■ 호텔업 향후 전망

- 향후 호텔업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수도권 지역 외의 호텔은 운영이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됨(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호텔의 차별화 전략 도입 필요)
- 시대 변화에 따른 호텔업의 유망 직무는 호텔업의 4차산업 시대 ICT 관련 시스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직무 및 관련 교육 전문가 등

■ 건의사항(정부 등)

-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하여 분양형 호텔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분양형 호텔 시스템은 좋으나 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부정행위-고의부도 등)
 - 또한 수익을 위한 운영방식에 따라 전통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텔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분양형 호텔 관련 법규 제정 등)
- 현재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업)에 적용되는 법규의 세분화를 통하여 호텔업 별 적용이 가능한 법규의 제정 및 개정 필요
- 호텔업 퇴직 중장년층을 활용하여 오픈 호텔 및 지역에 위치한 호텔의 운영 참여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3)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곤지암 리조트 담당자

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인력수급 현황

■ 휴양콘도미니엄업 현황(해당업체 기준)

- 곤지암리조트는 전년대비 매출수준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 콘텐츠는 수목원, 골프장, 스키장 및 리조트 인원으로 영업파트를 나누는데, 최근 낮은 가성비, 계절성, 레포츠의 다양화 등 복합적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전반적인 스키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냄
-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자연환경을 활용한 화담숲(수목원)을 개장하여 감소한 스키인구의 대안으로 가족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치고 있으며, 입장객은 증가하는 추세임

■ 직무별 신규채용 및 이직 추이

- 곤지암 리조트의 채용률이 높은 직무는 서비스 인원(상시채용)과 사무인원(그룹공채)으로 나타나며, 구직사이트나 산학협력기관을 통한 채용이 이뤄 짐⁶⁹⁾
 - 곤지암리조트는 250명의 상시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 인원을 총원하여 인력에 활용하고 있음(겨울 400~500명, 비수기 50~100명)
 - 곤지암리조트는 LG 계열사 사업부로 HR 및 사무와 관련 직무는 그룹공채로 이뤄지며 그 외 서비스 직군은 상시채용 및 인턴채용으로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수급에 어려움 개선을 위하여 아르바이트 인원을 추가로 고용하고 있는 실정임(주로 시설, 미화, 보안 부분은 아웃소싱 운영)
 - 신규 직원 임금현황: 2,800만원(인턴 1년/정규직 전환률 80%)
- 반면 이직률을 살펴보면 서비스 직군이 타 직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채용과 이직이 이뤄지고 있음(신규 젊은 층 종사자 퇴직율 높음)
- 이는 호텔업 보다 상대적 낮은 리조트 기업의 명성(name value), 직무에 대한 소명 의식 결여로 젊은층의 이직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69) 다만 리조트의 특성 상 도시 중심부가 아닌 시외로 떨어지는 지리적 특성이 반영되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려움의 대안으로 타 리조트 기업보다 높은 임금복리후생높은 정직원 전환율로 종사자를 확보하고자 하나 이러한 부분이 젊은층의 직업선택에 큰 매력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업무관련 요인은 신입 직원은 전문대 졸업 인력이 많아 추가적인 학업연장을 원하기도 하며 육체노동 강도가 높아 사무직으로 직무 변경을 희망하기도 함(유학 등)

나.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향상, 양성 등) 수요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 시행 현황

-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에는 직급별, 직무별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음(리더십 교육 등)
 - 또한 외부 자격과정도 함께 도입하여 커리어 패스교육을 리조트 내 직원 필수교육 과정으로 진행하였음(서비스 스쿨 등을 통한 과정별 교육 진행: 직무교육, 역량교육 등)
- 근로시간 단축이후 1박 2일 일정은 지양하고 있으며, 서비스 현장의 현실성으로 집체교육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교육체계를 변경하고 있음(근무시간 외 종사자 교육 기피 등)

■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향후 필요한 교육(희망):

- 전공과는 무관하게 신입직원들의 문제해결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실무와 관련하여 사례를 접하여 사전 교육이 필요함(고객응대 요령 등)
 - 곤지암 리조트는 정년 비율이 높아 중장년을 대상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직무교육이 필요함(생애주기 교육프로그램 개설 필요)
- 회사 자체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직원들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상황으로 표출되어 직원의 충성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회사 자체적인 교육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생애주기 교육을 장기간 근무한 직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임

다. 4차 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필요한 직무 및 인력 수요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ICT 관련 기술의 도입 현황 및 필요직무(NCS 활용 등)

- 현재 곤지암 리조트의 차 산업 관련 기술의 도입현황은 고객 VOC관련 분석 및 온라인 학습사이트(e-러닝)의 AI 기반 직무설계 등

- 현재 직무 관련 교육 실시도 어려운 상황이며 적용된 기술도 적어 필요 직무 또는 교육은 향후 모색이 필요함
- NCS 활용은 부대시설인 골프장 사업부의 교육관련하여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리조트 관련 NCS의 활용은 미미함

라.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이슈 등

■ 휴양콘도미니엄업 향후 전망

-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및 일과 삶의 균형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는 근로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나 리조트 영업측면에서 관광활성화에 따른 입장객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또한 곤지암리조트는 “힐링캠퍼스”를 운영하여 웰니스관광 관련 상품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업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영역을 넓혀 개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향후 유망 직무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힐링 프로그램 기획자 증가 전망

■ 건의사항(정부 등)

-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업종특성을 고려한 정책 필요)
- 실습생 관련하여 최저임금 보장 및 서류업무의 증가 등 과도한 추가업무의 발생은 실습생 보다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선호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관련 전공인원 수급을 위한 환경조성 정비가 필요함
- 정부기관 및 인적자원개발 기관의 종사자 생애주기교육프로그램 개설 필요
- 특성화고등학교 출신학생의 업무 대처능력이 일반 대학졸업자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학교육과정의 개선이 요구됨

4) 국제회의업: 한국PCO협회담당자

가. 국제회의업의 인력수급 현황

■ 국제회의업 현황(해당 협회 의견)

- 국제회의업의 인력수요는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의 수요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며,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종사자는 업체 증가 수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기 종사자 퇴직 후 창업-개인사업자 등록)
 - 또한 최근 들어 대규모 행사(10억 이상)가 축소되고, 소규모 행사(1~2억 이하)가 증가에 따른 저가 위주의 가격경쟁 심화 현상 발생(대기업 행사 역시 축소됨)
- 국내 국제회의기획업 업체 종사자들 중 관련 자격(컨벤션기획사 등)을 취득한 종사자의 비율이 높지 않으며, 이는 자격증에 대한 인센티브(행사 입찰시 가점, 수당 등)가 축소되면서 응시율이 낮아지고 있어 기업입장에서 자격증 취득 유도(과정평가형 자격 또한 응시율이 높지 않음)

■ 직무별 신규채용 및 이직 추이

- 국제회의업의 채용률 높은 직무는 행사진행, 운영관리, 행사기획, 기타 오피스 활용 가능자, 외국어 가능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소규모 국제회의 기획업의 경우 5인~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비중이 높아 특정 직무의 종사자가 아닌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종사자 채용이 대부분임
 - 대규모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부서를 기획팀, 지원팀, 디자인 팀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음
- 이러한 신규 채용은 자체 공채(일정규모 업체)를 통한 종사자 채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시로 종사자를 채용하며 구직사이트를 통한 채용이 대부분임(우수 아르바이트 인력 채용)
 - 신규직원 임금현황: 2,500~2,900만원(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 정규직 채용)
- 국제회의업은 컨벤션 뷰로나 시설업 등의 종사자들은 전반적으로 이직률이 낮은 반면 국제회의 기획업(PCO)의 경우 낮은 급여체계 및 대인관계(갑을관계)에 의한 감정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한 이직률이 높게 나타남

- 국제회의 기획업의 종사자들은 다양한 업무가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로 각자의 개성이 강한 성격인데 반해 지자체 및 발주처의 일정 틀에 짜인 구조를 어려워하여 이직하는 경우도 있음

나.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향상, 양성 등) 수요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 시행 현황

- 국제회의 기획업은 업체 특성상 적은 인원의 구성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부교육 및 강사초청 교육이 쉽지 않은 현실임(교육시간 할애가 어려움)
 - 이에 기업 내 선배 종사자가 후배 종사자에게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교육시키는 정도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실무위주의 교육), 일정규모 업체는 분야별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 한국PCO협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지원하에 국제회의 기획업 업체에 취업준비생(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음(그 밖에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향후 필요한 교육(희망):

- 국제회의 기획업(PCO 등) 대표자 및 재직자 교육 필요: 대표자(시스템 부분, 마케팅/홍보, 세무회계, 법률 자문 등), 재직자(업무별 표준화된 교육 등), 협회(인턴십 사전 교육 등)

다. 4차 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필요한 직무 및 인력 수요

■ 국제회의업의 4차 산업(ICT) 도입 현황 및 필요 직무(NCS 활용 등)

- 국제회의업은 전반적인 ICT 등의 시스템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업체 규모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나타남(대규모 업체의 경우 일부 업무를 위한 시스템의 도입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업체 특성상 자발적 시스템(ICT) 도입에는 한계 발생
 - 부대행사 진행시 공연 정도의 이벤트를 위한 기술의 도입 정도에 한함

- 현재까지 국제회의업(기획업)은 ICT 등의 기술도입이 미비한 현실로 관련 직무를 구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NCS의 활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음)
 - 하지만 향후 대규모 업체의 경우 상담업무를 위한 시스템(챗봇)과 시각적인 효과 증대를 위한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관련 직무 및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라.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이슈 등

■ 국제회의업 향후 전망

- 현재 소규모 행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제회의업(기획업)이 단순 대행업 성격이 강해질까 우려됨에 따른 개선방안 모색
 - 시대 변화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유망 직무: PCO
- PCO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다양한 역량(문서작성, 행사기획, 운영 등)이 강화를 통해 자신의 가치 향상 가능(이직시 높은 급여수준 유지 가능)

■ 건의사항(정부 등)

- 스타트업 중심의 정부정책(지원 등) 비중이 높게 나타나 기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국가적·산업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MICE의 명확한 용어정리 및 산업분류 등의 개념 정리 필요(관련 법규, 소관부처 등)

5) 관광객이용시설업(크루즈업): 팬스타라인닷컴 담당자

가. 크루즈업의 인력수급 현황

■ 전반적인 크루즈업 현황(해당업체 기준)

- 크루즈 산업은 일반여행업과 유사하게 크게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구분되며, 크루즈 산업 인바운드는 2016년 이용객 220만 명을 정점이었으나,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인하여 현재 약 20만 명 수준임
 - 일본을 목적지로 하는 해외 크루즈선사의 경유지로서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1개 국적의 2개항을 이용할 수 없는 카보타지룰에 의함

- 따라서 일본이 아닌 필리핀이나 태국 등 제3국의 입국자 숫자가 향후 크루즈산업의 성장을 판단하는 중요 척도로 보여짐
- 한편 카보타지물에 의해 인천항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사드보복 조치에 따른 중국과 한국의 양국 간 관계회복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요소임
- 아웃바운드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지만, 정확한 통계집계가 이뤄지지 않아 기관별 통계수치는 상이하며 업계에선 약 5만명 ~ 7만명 수준으로 예측됨
- 팬스타라인은 크루즈 관련 매출은 매년 60%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모객 첫째 (2017년) 300명을 시작으로, 2019년 3,000명의 모객이 이뤄짐

■ 직무별 신규채용 및 이직 추이

- 팬스타라인의 채용은 공채(오피스 업무)와 수시채용(선박 관련 업무)으로 나누어지며, 신규 채용률은 업무부(배를 이용한 화물 시 국가 간 무역절차 처리부서)가 가장 높은 편이긴 하나 현재 전산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 임
- 채용은 보통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채용이 이뤄지고 있으며(서비스업 특성상 개인의 Reference check가 가능), 크루즈업 관련 구직사이트(Seonet-shipjob)가 존재하지만 주로 항해사 관련 구직사이트로 활용률이 저조함
 - 이밖에 부산-일본 항로의 성수기 시기 고용된 아르바이트생 중 검증된 우수인력을 채용하기도 함(채용시기는 결원이 발생시 수시채용: 크루즈 승무원인력)
 - 신규 직원 임금현황: 서비스직: 2,800~2,900만원
- 크루즈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급여수준으로 평균적으로 낮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나, 그 중 항해사의 경우 크루즈 상선의 인적자원관리의 어려움 및 항로의 지각에 따른 운전미숙 등의 두려움에 의한 이직이 발생함

나.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향상, 양성 등) 수요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 시행 현황

- 해양산업 관련 법정 의무 교육이수가 필수임
- 승무원은 여객선 안전·위생 교육 등 포괄적인 교육이 진행 중이며, 업무의 특성(3주

근무 / 1주 휴식)으로 교육을 위한 일정조율이 어려움이 따라 직원 채용 시 검증된 직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발생함

- 외국크루즈 상선기회를 제공하여 경험한 직원이 자체 사내강의를 진행하기도 함

■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향후 필요한 교육(희망):

-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난 체계적인 서비스 교육이 가장 시급함

다. 4차 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필요한 직무 및 인력 수요

■ 크루즈업의 4차 산업(ICT) 도입 현황 및 필요 직무(NCS 활용 등)

- 많은 이용객 이용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ICT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임
 - 시계 또는 APP을 활용하여 네비, KEY, 공연 및 프로그램 안내, 인보이스 체크, 결제 등 가능하도록 점차 도입 중임(로봇쇼, 로봇 바텐더 등 관광 매력물로서도 활발히 개발 중임)
- 다만 크루즈 여객선의 특성으로 여객선 완성 후 배관이나 전선 등 구조를 바꾸기 어려워 새롭게 생산되는 여객선에 도입 중임
- 높은 수용인원과 여객선의 대형화로 ICT 관련 직무의 인력양성이 필요함(NCS의 활용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해 거의 이뤄지지 않음)

라.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이슈 등

■ 크루즈업 향후 전망

- 크루즈산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되며, 패키지 여행과 개별 여행의 결합된 시스템으로 여행업의 패키지산업의 축소된 부분을 대체 할 수 있는 시장임
- 또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크루즈 산업의 미디어의 노출이 잦아지고 있어 충분한 홍보가 되고 있음
 - 시대 변화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유망 직무: 크루즈 산업에 대한 이해와 고객의 요구를 맞춰줄 수 있는 크루즈 플래너, 크루즈 승무원의 경험을 기반으로 확대되는 크루즈 산업에 전문적인 크루즈 승무원을 보급할 수 있는 크루즈 승무원 양성가 등

■ 건의사항(정부 등)

- 취업률의 양적 성과 보단 고용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며, 크루즈 승무원의 근무 이후 귀국 시 직업 연계 제도의 마련 시급
 - 대학 링크사업단과 같이 취업 후 승무원을 추적할 수 있는 통합 사후관리 체계 구축

6) 카지노업: 강원랜드 담당자

가. 카지노업의 인력수급 현황

■ 카지노업 현황(해당업체 기준)

- 최근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채용비리 등의 사회적 문제가 도화선이 되어 정부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종사자들의 근무시간 조정, 영업시간 단축(2시간)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카지노업은 산업 내 대표적인 허가사업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영업상황에 따른 사업의 확장(테이블 수 확대 등)이 제한적이어서 내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전년(2018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2019년 강원랜드는 기존 고객의 높은 유지율로 사업의 유지는 가능하나 큰 폭의 성장이나 하락은 없을 것임(내국인 전용카지노 운영으로 중국 사드영향은 미비함)

■ 직무별 신규채용 및 이직 추이

- 강원랜드는 매년 100여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인력의 증원은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증원이 어려운 현실임(2019년 94명 채용예정)
 - 채용인원 중 50%는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7개 폐광지역(전남 화순, 경북 문경, 충남 보령, 강원 태백, 강원 영월, 강원 정선, 강원 삼척)의 인력채용이 이뤄 짐(폐광지역 특별법 등)
- 강원랜드의 채용률이 가장 높은 직무는 딜러직종으로 채용인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신규 직원은 6개월 인턴 후 정규직 전환)
 - 채용시기는 매년 9월 공고 후 익년 1월초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른 수시 채용의 빈도가 높게 나타남

- 강원랜드는 최근 알려진 사회문제로 채용에 관한 부분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모든 부분을 일임하여 채용을 진행함(블라인드 채용방식)
 - 신규 직원 임금현황: 3,700만원(복리후생비 포함)
- 강원랜드의 이직률은 직무와 상관없이 신규 젊은 인력들의 이직이 발생하는데 신규 카지노 오픈시 더 높게 나타남
 - 젊은 세대의 고학력 추세는 이직행위가 동종업계로 옮기던 이전과 달리 특정할 수 없는 포괄적 분야로 업무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임

나.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향상, 양성 등) 수요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 시행 현황

- 한국 HRD 협회에서 3년 연속 수상을 할 만큼 강원랜드는 직무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
 - 공통·직무·리더십 관련 교육으로 총 22개의 직무교육을 실시함(전직원 대상 교육 내용 '조직활성화')
 - 신규 종사자 교육: 공통교육(1개월), 직무교육(3개월)
- 관광·레저산업의 전반적인 업종 특성인 교대근무로 인해 일시적 집체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교육과 복러닝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중
- 강원랜드는 자체 인재개발원 운영으로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연간 교육관련 비용으로 약 35억 원을 투자하고 있음
- 강원랜드는 자체 민간등록자격증 과정(약 400시간)을 개설하여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격증 과정 종류로는 “카지노 테이블 게임 운영사(딜러/1,2급)”, “카지노 테이블 영업 매니저(관리자/1,2급)” 과정이 운영되고 있음(자격증 취득자 강원랜드에서 임시직 근무 중)

■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향후 필요한 교육(희망):

- 현재 강원랜드는 부서별 자체 필요 직무를 파악하여 교육 프로그램 진행 중임(107개 직무)

- 카지노 산업은 규제심화로 영업기획이 제한적으로 가족 복합공간으로 변화 중인 강원랜드는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또는 주변 환경을 활용 할 수 있는 부대시설 영업 기획 가능 인력양성 필요
 - 또한 외국 카지노는 복합리조트로서 복합리조트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반적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나 국내 카지노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여 업종에 대한 세계적 트렌드와 산업의 동향을 파악 할 수 있는 복합 리조트 관련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

다. 4차 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필요한 직무 및 인력 수요

■ 카지노업의 4차 산업(ICT) 도입 현황 및 필요 직무(NCS 활용 등)

-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딜러가 다수의 플레이어를 상대할 수 있도록 전자게임(카드삽입 단말기)도입, 키오스크, 직무교육 VR·AR 기기를 운영 중(AR: 신규 직원 교육용, VR: 안전관리 교육)
- 카지노는 전통적으로 인적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이유로 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및 인력에 대해 지켜보고 있음
- NCS활용의 경우 카지노 게임 기획 부분을 참고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지만 현실 반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강원랜드 민간자격증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NCS 활용)
 - 카지노 전체 직무 107개를 NCS 기반으로 부서별 필요 교육의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라.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이슈 등

■ 카지노업 향후 전망

- MICE산업의 확대는 카지노 산업의 확대로 이어져 카지노 산업은 지속적 확대로 예상되며, 2025년 폐광법 종료 시점까지 다소 기간이 남긴 했으나 종료 이후 영업 유지 및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따라서 강원랜드는 기존 스키나 골프에서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사업방향을 변경 예정임
 - 시대의 변화에 따른 카지노업 유망 직무: 직접적인 카지노업 홍보가 어려워 부대시설의 적

극적인 활용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여 이에 따른 부대시설 운영기획(주변 시설 활용) 직무가 필요함

■ 건의사항(정부 등)

- NCS의 개발 및 개선 부분에 지속적인 기업참여가 필요하며, 현장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가 필요

7) 유원시설업: 서울랜드 담당자

가. 유원시설업의 인력수급 현황

■ 유원시설업 현황(해당업체 기준)

- 서울랜드는 전년대비(2018년) 관광객 및 매출 등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7년 기준 약 70~80% 수준으로 나타남
 - 2018년도의 경우 관광·레저산업은 강추위 및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음(최저시급의 높은 인상률 적용에 따른 기업 어려움 발생)
 -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사드배치에 따른 중화권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였고, 반면 동남아권 관광객이 증가하였음
- 서울랜드의 총 운영비의 40~50%가 인건비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임금 인상율의 약 2.5%정도로 나타남
 - 서울랜드는 지자체의 신규 유원시설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마산 로봇랜드의 투자 및 운영을 할 계획임(7월 오픈예정): 종사자 약 270명 채용 예정

■ 직무별 신규채용 및 이직 추이

- 서울랜드의 신규채용의 경우 서비스직 비율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음(사무직이나 기술직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
 - 다음으로 기술직(20%), 사무직(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로 구직사이트를 통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잡 코리아, 사람인 등), 대학 등

의 교육기관 실습은 최근 실습생 사고에 따른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절차 등의 어려움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채용시기: 수시채용-봄 가을 성수기),

- 신규 직원 임금현황: 급여수준 5급(대졸): 약 3,200만원/ 7급(고졸): 약 3,000만원

○ 서울랜드의 이직률 높은 직무는 신규 채용률이 높은 서비스직 > 기술직 > 사무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주된 이유는 주로 젊은 층의 종사자들이 진로 및 고객 응대에 따른 감정스트레스로 인한 이직률이 높게 나타남

- 기술직 이직 이유: 기술직(안전관리 등)의 경우 서비스직에 비해 이직률이 낮긴하나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른 산업분야(제조업 등)에 비해 낮은 급여체계에 따른 타 직종으로의 이직이 발생함

나.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향상, 양성 등) 수요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훈련 시행 현황

○ 서울랜드의 경우 자체 교육장(2개소)이 있으며, 연 2회의 전 직원 대상 교육(외부강사 초빙)을 시행하고 있고, 전 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유도

- 신규 종사자 교육: 신규 종사자 교육은 분야별(서비스, 기술직 등)로 진행하고 있음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는 안전관련 법적의무교육(물놀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외부교육), 그 밖에 안전관리(전기, 산업, 가스, 소방 등) 의무교육을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향후 필요한 교육(희망):

○ 유원시설업의 마케팅(타켓별) 전략, 상품기획 및 개발 등의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함

다. 4차 산업 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필요한 직무 및 인력 수요

■ 크루즈업의 4차 산업(ICT) 도입 현황 및 필요 직무(NCS 활용 등)

○ 서울랜드의 경우 놀이 및 교육시설에 VR, AR 등의 시스템이 일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큰 인기를 얻고 있지는 못함(어지러움, 멀미 등)

- 서울랜드의 경우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안전교육VR프로그램(12개 개발)을 활용하여 종사자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임

- 서울랜드의 경우 인적의존도가 높아 4차 산업 관련 인력의 채용이 미흡하며, 유원 시설업 전체로 봤을 때 롯데월드(관련팀 구성)의 인력채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서울랜드의 경우 2018년도 NCS기업활용컨설팅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기업 종사자의 직무메뉴얼 개발 및 학습근로자 교육을 시행하였음

라.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이슈 등

■ 유원시설업 향후 전망

- 유원시설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기업별 비즈니스 모델의 점검이 요구됨(타켓층 변화, 콘셉트 변화 등): 실제 서울랜드의 경우 기존 어린이 동반 가족 단위 관광객에서 20대 젊은 층 관광객으로 타켓을 변화하였고, 콘셉트 역시 그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계획(진행 중)-월드뮤지페스티벌, 야간프로그램 확충(미디어파사드 등)
- 시대 변화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망 직무: 공연기획자 등(국내 유원시설업의 경우 업체별 콘셉트가 다양한데, 최근 다양한 공연프로그램 개발 및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관련 종사자의 수요가 예상됨)

■ 건의사항(정부 등)

- 정부 건의사항: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보존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최근 지자체 무료 체험시설(축제 등) 운영에 따른 기존 유원시설업의 이용률이 감소하여 지자체 및 기업의 상생방안 모색 필요
- NCS 관련 건의사항: 일학습병행을 통한 학습근로자들의 교육이수 시간이 600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어, 업체의 인건비에 대한 손실이 크게 나타나 시간 조정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또한 일학습 병행 학습근로자 지원금의 경우 최저시급 인상을 감안하여 인상이 요구되며, 현재 개발되어 있는 유원시설업의 NCS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됨(유원시설업 SQF 개발 필요)

8) 업종별 협단체: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담당자⁷⁰⁾

가. 관광통역안내사 현황

■ 관광통역안내사 인력 현황(해당업체 기준)

-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행업 등의 편법에 의한 역할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임
- 현재 전국의 관광통역안내사는 약 30,000명이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 중에 있으며 그중 3,000명이 관광통역안내사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에 있음(제주, 부산지부 포함)
 - 외국어별로 살펴보면 영어·일어·중국어가 전체의 약 70% 이상 차지함

■ 관광통역안내사 활동 현황

- 현재 관광통역안내사는 다양한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활동범위를 넓히 고자 노력하고 있음
- 관광객 안내(인바운드), 국외여행인솔자(TC), 관광자원 해설, 의료관광 통역안내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관광통역안내사의 문화관광해설사 등 활용방안 필요

나.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 교육기관 자체 자격과정 현황

-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안내실무교육, 관광통역안내사 마인어, 베트남어 교육, 관광통역안내 신입실무교육 운영, 어학능력검정시험(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계 동남아 3개 국어(베트남어,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및 아랍어 시행
- 관광통역안내사의 면제 교육프로그램 운영(관광학개론, 관광법규)하고 있으며, 기존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외 소수언어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70)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레저산업의 대표적인 전문인력 중 하나로 국가전문자격에 보유한 인력으로 전국에 약 31,700여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앞으로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의료관광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어 관광레저산업 전반에 필요한 전문인력임

다. 관광통역안내사 관련 이슈

■ 관광안내업 법규 제정(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여행객(FIT)에게 맞춤형 관광정보의 전문적인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업 제정(창업, 고용창출 효과 기대)
 - 기존 여행업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구분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임
- 관광안내업의 관광통역안내사 참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여행업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사업 구분이 필요 함

라. ISC 건의사항

■ ISC 사업 참여방안 모색

- 관광통역안내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ISC 참여필요: 교육수요조사,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이슈리포트 작성 필요)
-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필터링 작업이 필요하며, 관광통역안내사 갱신제도 도입 필요
- 기존 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시행되던 교육의 질적 향상과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협업 추진 필요

9) 업종별 합단체: 한국호텔업협회

가.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 교육과정 현황

- 한국호텔업협회는 정부부처의 다양한 인력양성 및 향상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취업아카데미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우수호텔아카데미: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국제호텔전문학교, PSH(파라다이스호텔 아카데미), 계원예술대학교 교육과정 참여(한국관광공사 관리 담당, 호텔업협회 취업지원 담당), 영어 및 중국어 관련 교육프로그램으로 현장지배인과 1:1멘토링 과정 제공(호텔견학)
 - 호텔업 신증년 교육프로그램: GKL 지원

-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및 1: 다수 메토링 과정 제공(서울관광재단)
- 호텔업 개인정보관리교육 실시(60명 참석/63명 신청)

나.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 호텔업 인력양성 이슈 및 방향

- 재직자 교육프로그램의 미흡으로 취업유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1~3년 신규 종사자 또는 사원급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지속적인 호텔업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추진 예정

■ 2020년 호텔업협회 추진예정 사업(타켓층, 관련부서 또는 직무)

- 호텔업협회는 2020년에도 올해 추진사업의 연결사업을 계획 중에 있음
- 청년취업아카데미(한국산업인력공단)
- 우수호텔아카데미(문체부)
-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서울관광재단)
- 호텔업 개인정보관리교육
- 1~3성급 100개 호텔 재직자교육(서비스, 시설·안전·보안, 위생/2시간 과정/ 문체부)
- 1~3성급 및 도시민박업 숙박운영 메뉴얼 안내책자 제작·배포(서울관광재단)

다. ISC 건의사항

- 공동수행사업 발굴 및 협업체계 구축(인력풀 제공 등)

10) 교육기관(전문대학): 동강대학교 담당자

가. 교육기관(대학) 전반적인 현황 및 이슈

■ 교육기관(대학) 현황(해당 학교 기준)

- 현재 전국의 교육기관(대학 등)은 학생의 감소로 인하여 기관별 모집정원을 감소하는 추세이며, 기관별 학생모집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기숙사 무료 제공 등)

- 동강대학교(구. 동신전문대학)의 경우 광주 소재의 전문대학으로 중·고등학교 및 인근지역에 4년제 대학교(동신대학교)를 보유한 교육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생 모집이 쉽지는 않음
- 전남권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입시설명회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2020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광주권 관광관련 학과 보유 학교 적음)

■ 교육과정(전공별)

- 동강대학교에서는 관광·레저산업과 관련한 전공으로 호텔관광과가 있으며, 전공과 교양을 합쳐 87학점을 운영하고 있음(필수 학점 75학점)
 - 동강대학교는 전공 41개 과목중 NCS 적용 교과목이 14과목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음(호텔관광과 재학생은 총 80명으로 2학기 기준 74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 동강대학교 호텔관광과 졸업생의 경우 대부분 광주권 및 제주지역의 호텔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그 외 여행사, 항공사 등으로 취업하고 있음(졸업생 중 약 10% 4년제 편입)

■ 교육기관 이슈

- 동강대학교의 경우 재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기 위하여 전공심화상(관련 자격증 취득 수 기준)을 수여하고 있음

나. 정부부처 사업 참여 현황

■ 교육기관 자체 자격과정 현황

- 동강대학교는 국외여행인솔자(한국여행업협회) 양성과정과 소양과정을 운영중에 있으며, 항공발권시스템(TOPAS), 바리스타, 조주기능사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정부사업 참여현황(지역주민)

- 동강대학교에서는 광주 북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자격과정을 운영하였

으며, 또한 인근지역인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산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함으로써 만 19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호텔 및 관광서비스, 골프캐디전문교육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있음(18명 대상 216시간)

-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였음

다. NCS활용 정도 및 애로사항

■ NCS활용정도(교육과정 적용 등) 및 애로사항

- 동강대학교는 전공교과목의 약 41%를 NCS를 적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음
- 반면 동강대학교 재학생의 NCS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개발된 NCS의 교육과정 적용시 교육기관 현실 대비 괴리감에 따른 어려움 발생(관련 실습실 여부 및 필수 교육시간, 평가방법 등)

라. 산업 내 업종별 이슈 및 건의사항

■ 산업 내 업종별 이슈(유망직종)

- 현재 광주지역의 호텔의 경우 특급호텔(4성 이상)의 개수가 적으며, 대부분 중소형 호텔이 많은 현실임
 - 그로 인하여 취업시 처우가 다소 열악하여 취업생들의 근무기간이 짧아 광주지역 호텔산업의 인력난이 발생하여 개선이 요구됨
 - 시대에 흐름에 따른 산업 내 유망직종: 테마별 여행기획 전문가(컨설턴트), 관광지 경영전문가(일본 사례 등)

■ 건의사항(정부 및 ISC)

- NCS적용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현장(기업)에서의 처우개선 필요(현재는 NCS 적용 교육과정 이수자와 일반 교육과정 이수자의 차이가 없음)
- 산업 내 국가전문자격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의 혜택이 미미하여 자격증 응시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 자격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 관련 혜택 지원방안 모색 (등급평가지 가점을 증대 필요)

-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개설 필요

11) 교육기관(전문학교): 아세아항공전문학교 담당자

가. 교육기관(대학) 전반적인 현황 및 이슈

■ 교육기관(대학) 현황(해당 학교 기준)

- 현재 전반적인 교육기관은 자원(학생)의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 유치에 위한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에 따른 기관간 과당경쟁 심화)
 - 아세아항공 전문학교는 1993년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설립(1999년 학점은행제 인정기관 지정)
- 2019년 6계열(항공정비, 비파괴검사, 항공운항, 관광경영, 항공보안, 국방) 22개 학과, 6개 부설기관(외국어교육원, 진로코칭센터, 무인항공교육원, 크루즈인재양성센터, 회전익 기술교육센터, B737기종교육센터)으로 본교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천과 김포에 실습장을 운영 함

■ 교육과정(전공별)

- 아세아항공전문학교는 80학점 이상 이수시 전문학사가 나오며 현재 84학점으로 운영 중 임(전필 15학점, 전선 30학점, 교양 15학점 등)
 - 관광서비스과정: 여행서비스, 항공서비스, 국제회의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 축제, 마케팅 등 관광서비스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과 업무 수행 능력 습득을 목적으로 함
 - 호텔서비스과정: 호텔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호텔, 관광업계종사자로서 필요한 이론 및 실무교육, 어학을 학습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 함
 - 크루즈승무원과정: 해양수산부로부터 '크루즈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선정되어 크루즈 승무원에 필요한 각국의 문화 이해능력, 서비스 능력과 어학능력을 집중 교육 함

■ 교육기관 이슈

○ 실무 중심 교육 및 해외 취업 특성화 학교로 해외 취업 위주의 교육 시행

- 관광서비스 과정은 해외 여행사 및 로컬가이드 취업 특성화
- 호텔서비스 과정은 해외 유명 체인 호텔 실습 및 취업 특성화
- 크루즈승무원 과정은 해외 선사 실습 및 취업 특성화

나. 정부부처 사업 참여 현황

■ 교육기관 자체 자격과정 현황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과정,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과정, 레크리에이션지도자 과정, 조주기능사 과정, 믹솔리지스트 과정, 크루즈 Diploma 과정, 하우스키퍼(룸메이드) 과정, 식음료관리사 과정,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소믈리에 자격증과정, CRS 예약/발권 과정, 여행상품상담사 자격증 과정, 고객만족 서비스관리사 자격증과정 등

■ 정부사업 참여현황(지역주민)

- 크루즈전문인력양성기관(해양수산부 인정, 노동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룸메이드(하우스키퍼) 양성과정(노동부 계좌제)
 - 우수호텔리어 양성과정(한국관광공사)
 -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과정(노동부 계좌제)

다. NCS활용 정도 및 애로사항

■ NCS활용정도(교육과정 적용 등) 및 애로사항

- 교육과정 적용보다는 NCS적용 교재를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사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NCS를 적용하여 활용함(교육과정 10% 적용/평가척도 활용 안함)
 - NCS 모듈의 내용 과다 및 내용 부재로 인한 강사들의 어려움 호소
 - NCS 과정 운영 시 과도한 서류작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라. 산업 내 업종별 이슈 및 건의사항

■ 산업 내 업종별 이슈(유망직종)

- 항공 및 여행업계 불황으로 인한 인력 감축예상(수익감소 및 일본과의 관계)
 - 여행 패턴의 변화에 따른 대형 홀세일러 여행사의 항공권, 패키지 상품 구매력 하락에 의한 경영난 예상, 호텔업계의 구인난에 의한 서비스 질 하락
 - 시대에 흐름에 따른 산업 내 유망직종: 크루즈 승무원, 크루즈 전문TC, 크루즈 카지노 딜러

■ 건의사항(정부 및 ISC)

- 소관부처(문체부) 종사자 산업 전공자 채용 필요
- NCS모듈 전반적인 개선 필요(실무 교육 중심)
- NCS 수준체계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
- 국외여행인솔자(TC) 국가자격화 추진(교육기관 교육 이수 후 공단 평가)

3. 소결

■ 업종별 고객접점 직무 종사자 만족도 제고

- 관광·레저산업의 핵심 업종의 신규채용률이 높은 직무의 경우 대부분 고객접점에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이직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종사자들 만족도 제고방안이 요구됨
 - 업종별 담당자 의견에 따르면 젊은층의 신규직원들의 경우 부서 및 직무관련 없이 이직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사무직이나 기술직에 비해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종사자들의 다양한 근로여건(비정규직, 급여수준⁷¹⁾, 3교대 근무, 진상고객 등)으로 인하여 종사자들의 만족도가 낮아져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업종별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함(만족도 조사 필요)
 - 본 FGI 대상 업체의 경우 분야별로 상위그룹에 있는 업체 의견으로 중·소그룹의 기업의 경우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71) 업종별 신규종사자의 급여 수준은 2,000만 원대 초반부터 3,000만원 후반으로 업종별로 최고 1,500만 원정도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인턴기간이 있어 급여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낮은 편 임(업종에 따라 다름).

■ 업종별 특성 및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핵심 업종의 경우 대규모 기업으로 대부분 자체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아카데미 등)이 구축되어 있어 역량강화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음
 - 하지만 해당 업종의 중·소규모의 업체들은 자체 교육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관련 협회 및 정부기관, ISC 등의 기관에서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됨(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교육여건이 악화되어 개선방안 모색 필요-온라인 등)
- 최근 4차 산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업종별 관련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업종별 직무의 변화와 관련 인력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분야 양성 및 향상교육을 통한 현장 맞춤형 인력 공급과 종사자 역량강화 필요
 - 관광·레저산업의 전통적인 인적 서비스가 높은 산업적 특성으로 IT, ICT, AI 등의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업종별 종사자의 직무가 감소하고 있어, 관련 교육의 추가 개발·운영을 통한 기존 종사자의 역량강화가 요구됨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중장년층의 전직을 위하여 생애주기 교육프로그램 개설 필요

■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제시

- 업종별 현장 전문가 그룹 인터뷰(FGI) 결과 업종별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운영에 따른 다양한 지원(재정적, 행정적, 제도적)이 요구되고 있었음
 - 여행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진입장벽의 강화, 정부 정책(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도입이 요구되며 관련자격 체계의 구축 필요(OP관련 자격 등)
 - 관광숙박업(호텔업)의 경우 분양형 호텔의 증가되고 관련하여 업체들의 부정행위 규제를 위한 법규 제정 필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업특성을 반영한 정책 제안 필요
 - 국제회의업은 스타트업 중심의 정부 정책(지원 등)에 비중이 높아 기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MICE용어의 명확한 정리 및 산업분류 필요
 - 유원시설업의 경우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타 법 등 중복 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의 완화가 요구되며, 종사자 보호(감정노동자 보호 등) 정책 필요
 - 크루즈업의 경우 대부분 외국선사 취업이 주로 이뤄지고 있어, 국내 귀국후 직업 연계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관광·레저ISC 역할 강화

- 관광·레저산업 내 영향력이 있는 핵심 업종을 선정하고 대상 현장전문가 그룹의 인터뷰를 통해 업종별 기업의 다양한 수요(인력, 교육훈련 등)와 정책적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ISC는 산업 내 대표성을 확보한 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참여 기관(협·단체) 및 기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과의 소통을 통하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의견 수집과 분석, 숙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전개가 필요함
 - 관광·레저산업의 업종별 인력 수급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비롯한 양성기관들과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인력의 미스매치의 해소가 요구됨
 - 이를 위한 업종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NCS의 개발,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한 자격체계 구축, 기업컨설팅, 일학습병행제 등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기관의 다양한 지원(재정적, 행정적, 제도적)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대표기관으로의 위상확보 필요

2019년도 관광·레저분야 산업인력현황 보고서

발행처 :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 화 : 02-569-6880

주 소 : 0613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20 역삼현대벤처텔 1505호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Tourism & Leisure Industrial Skills Council